

첫째, 특별법 제2조 제11호(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

(피고 준비서면 31쪽)

피고는 이에 대해

1. 1942년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고,
2. 1943~1944년 매일신보, 춘추에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 ‘인고단련의 기백’, ‘대의에 죽을 때 황민 뉘의 책임은 크다’, ‘총용무쌍의 황병(皇兵)되라’ 등의 글을 기고하여 징병을 선전, 선동하였으며,
3. 1943년 학도출진좌담회와 매일신보, 경성일보에 ‘빛나는 전통을 살리라’, ‘일각(一割)도 주저(躊躇)치 말자’, ‘우리 완승을 지향하여 한층 연락하고 격려하자(われ完勝を 目指すなほ連絡と激勵を)’, ‘이 시대 최고의 광영’ 등의 글을 기고하여 학병의 취지를 고취시켜 학병 동원을 독려했다고 했습니다.

<반론>

1. 1942년 5월 23일 열린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돼있는 각급 학교장은 김성수 보전 교장, 오금선 세브란스 교장, 유억겸 연희전문 부 교장, 김활란 이화여전 교장, 이병규 휘문고보 교장, 최규동 중동학교 교장, 백남훈 협성실업학교, 광신상업학교 교장, 현상윤 중앙고보 교장, 이종국 보인상업학교 교장, 이숙중 성신여학교 교장, 신흥우 경성배재중학 교장, 황신덕 경성가정여숙 교장 등 경성의 고등교육 학교장들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이 총독부의 강요로 부득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특별법 제2조 제11호(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보전에는 총독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문들이 내려 왔습니다(고려대 소장- 소실되고 남은 자료임 - 원고 주). 이를 통해 총독부가 각 급 학교에 대해 사사건건 지시, 통제, 강요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933.05.11

문부성에서 전국전문학교장 회의에 관한 건

보전-총독부 학무국

1933년 5월 21일 문부성 주최 전문학교 교장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통보.

1940.04.04

공립학교 전문학교 규정 중 개정의 건

학무국장-보전

총독부령 제81호에 의거 규정개정 할 것. 전문학교 교육의 근본 방침을 명시하여 충실한 황

국신민을 양성토록 할 것.

1940.08.13

기원(紀元) 2600년 식전 봉축회 참렬(參列)의 건
보전-학무국장
봉축회에 교장 김성수가 참석한다는 통보.

1940.08

전시 국민생활 실천사항
국민정신충동원 경성연맹-보전
황국정신의 양양(오전 7시 궁정 요배, 정오 묵념, 신궁 신사 배례, 외국어 사용 억제), 생활의 쇄신(조기 청소, 라디오 체조).

1940.09.10

교육에 관한 칙어 환발 50주년 기념식에 관한 건
보전-학무국장
교장 김성수가 참석하며, 기간 중 여관은 알선해줄 필요 없다는 통보.

1940.09.19

입회에 관한 건
보전-조선교육회장
보전에서 새로 가입하는 회원 명단 통보(총 19명, 인촌 포함).

1940.09.24

기원 2600년 기념식 및 봉축회 참석에 관한 건
학무국장-보전
초대장 송부 통보 및 수송계획과 관련한 내용 첨부.

1940.09.25

황기(皇紀) 2600년 기념식 및 봉축회 참석에 관한 건
보전-학무국장
교장 김성수가 동경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제반 사실 통보(여관알선 불필요, 신궁참배 불 희망, 지정열차 불 희망, 경성 역에서 출발).

1942.08.12

학교총력대에 관한 건
보전-총독부 학무국
보전 총력대 훈련계획, 실시현황 보고.

1942.08.28

제8회 학생기갑훈련 참가 신청 건

보전-기계화국방협회 조선본부

보전학생 4명 할당. 학교에서는 이철승 백황규 등 4명 추천.

1942.09.08

학교 교련교사에 관한 조사의 건

보전-총독부 학무국장

보전 교관 육군중위 화중군형.

1942.09.21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 전시표어 응모에 관한 건

저팬 타임지 사장-보전

12월 8일로 맞이하는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일에 즈음한 전시표어 모집에 보전학생들의 많은 응모를 요청하는 내용.

1942.09.28

황대신궁 요배식에 관한 건

총독부 학무국장-보전

10월 2일에 있을 요배식에 교장 혹은 학교 대표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

1942.10.19

총독부 내부 육상대회에 보전 학생을 심판으로 파견의 건

총독부 육상경기부-보전 육상경기부

총독부 자체 육상경기 대회에 보전 학생 6명 심판요원으로 파견 요청.

1942.10.26

학도총력위원회 간담회 개최의 건

경성제대 학생과장-장덕수

11월 3일 경성제대 개최 간담회에 보전 학생 대표 2명 보내줄 것을 요청.

1942.11.19

대동아전쟁 제1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

학무국장-보전

12월 8일 학교에서도 기념행사 실시하라는 정무총감의 지시 전달.

1942.11.21

전선 전문학교의 청년학도 결의 발표회 개최에 관한 건

경성중앙방송국 제1방송부장-보전

매년 개최하는 행사에 보전 학생 1명 추천 요망하는 글. 주제는 '전문의 학업에 입각한 대동아전 하에 있어서 학생으로서의 결의'

1942.12.04

대동아전쟁 제1주년 기념 방공강화운동 실시에 관한 건

경성부윤-보전

12월 9~11일에 걸쳐 방공강화훈련을 실시할 것 요망. 또 훈련기간 중 관할 경찰서장이 훈련 지도한다는 내용.

1943.01.27

일본 문화 논문 현상모집에 관한 건

국민총력 조선연맹사무부총장-보전

황도세계관에 입각하여 새로운 반도문화의 진로를 일으키고 민중의 지향을 계도하는 논문 모집 요강 첨부.

1943.03.02

학교에 있어서 청소 실시에 관한 건

학무국장-보전

국민총력 조선연맹에서 3월 중 실천 철저사항으로 청소 노력, 하루 한 끼 이상 죽 먹기, 금속류 공출 세 가지 통보.

1942.04.04

재향군인회 회원 학생 군사교육에 관한 건

학무국장-보전

1942년도 교육보충병 및 제2국민병 교육 실시 요청 및 지원에 관한 내용.

1942.04.09

초훈제 집행에 관한 건

경성부윤-보전

4월 30일 용산 연병장에서 연례대로 초훈제를 집행하니 별지의 참배 요령에 의거 생도 대표를 인솔하여 참배할 것. 초훈제 참배 요령 첨부.

1942.04.17

학교체육쇄신에 관한 건

학무국장-보전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완수하기 위해 국방력의 확충은 더욱 요구되며 이에 발맞추어 대학 체육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내용.

1942.04.20

정국(야스쿠니) 신사 임시대제에 관한 건

학무국장-보전

4월 25일 야스쿠니 신사 임시 대제를 거행하니 학교에서는 휴업하고 경의를 표할 것.

1942.04.21

천장절 봉축의 건

국민총력 경성부연맹회장-보전

4월 29일 대동아전쟁 하에 처음으로 천장절을 맞아 봉축 의례를 행하니 부기한 내용에 따라 시행할 것. 국기계양, 축하식 제전 내용 등.

1942.05.11

징병령 발표 봉고제에 참여의 건

총독부 법무국장-보전

5월 11일 오전 11시 조선신궁에서 징병령 발표에 관한 봉고제를 시행하니 보전 학생 대표 50명 이내를 보내줄 것.

1942.05.12

징병령 시행대회에 관한 건

총력연맹-보전(전화연락)

5월 18일 부민관에서 징병령 시행에 따른 강연회를 개최하니 보전 학생 많이 참석바람.

1942.05.14

궁성요배 및 정오 묵념에 관한 건

국민총력 조선연맹 -보전

시행방법 첨부

1942.05.18

징병령 시행 발표 감격대강연회

정학회 이사장-보전

강연회 개최 일시:5월18일, 장소:부민관

1942.05.18

징병제도 실시에 수반한 학도지도요항에 관한 건

학무국장-보전

지도방침, 지도요강, 취지 설명, 사회지도자로서의 금지 고취. 특히 사범학생 및 여학생에 대한 지도 요령. 특히 내지인 학도에 대한 지도.

1942.05.20

조의 궁성 요배 및 정오의 묵도에 관한 건

국민총력경성연맹회장-보전

아침에는 세면한 직후 요배하고, 묵념의 경우 종래에는 정오에 사이렌을 울렸으나 전시이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지는 않고 라디오로 전달.

1942.05.30

징병제실시 기념 강연회 감상문 제출의 건

동아민족경륜연구소-보전

강연회 후 각 학교 학생들로부터 감상문을 거두고 있으나, 보전에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니 제출하라는 내용.

1942.06.03

시의 기념일 거행에 관한 건

국민총력 경성부연맹-보전

전시하의 생활 개선, 능률증진을 위해 시의 기념일을 거행할 것.

1942.06.10

신 총독 및 정무총감 착임에 즈음하여 부내 각 학교의 출영에 관한 건

학무국장-보전

신임총독 및 정무총감 부임을 환영하는 행사에 학생들 동원하라는 내용. 요강 첨부. 육의전 앞 교차로-남대문까지 구간.

1942.06.16

징병제도의 취지 보급 강연회에 관한 건

총독부 관방정보과-보전

시국인식 철저와 징병제도 취지 보급을 위한 각 학교 순회 강연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1942.07.15

학생 생도 집단근로작업실시에 관한 건

학무국장-보전

조선신궁 작업에 관한 내용

1942.05.13

학교 직원 생도의 사상사건 상황 조사의 건

학무국장-보전

사건 발생 연월일, 사건명, 수모자 및 인원, 사건의 개요 통보 지시.

1942.05.25

학교 직원 생도의 사상사건 상황조사의 건

보전-학무국장

윤익선-1919.3.1운동. 교장 재직하며 독립신문 사장으로 구금 3년 징역. 강기덕-법과 3년 수년간 징역, 김종문 외 1명.

1942.06.12

징병제 실시 방법 발표에 수반하는 학도 지도에 관하여

학무국장-보전

징병제 발표 이후 학생의 동향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구체적 지도 방책, 학도동향조사 요령 첨부.

1942.06.27

신궁 행사 참석의 건

보전-조선신궁 공사

6월 30일 거행되는 신궁 행사에 인솔자 교수 장덕수, 학생 12명의 명단 보고.

1942.06.30

징병제 시행 방법 발표에 수반하는 학생지도에 관한 건

보전-학무국장

구체적 지도 방법으로 교련시간 강화, 국어 상용은 황국신민의 표징으로 대동아 지도자가 되는 필수조건임을 강조.

2. 3. 에서 피고는

김성수 보전 교장이 1943~1944년 매일신보, '춘추'에 '문학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 '인고단련의 기백', '대의에 죽을 때 황민 똘의 책무는 크다', '총용무쌍의 황병(皇兵)되라' 등의 글을 기고하여 징병을 선전, 선동하였으며 1943년 학도출진좌담회와 매일신보, 경성일보에 '빛나는 전통을 살리라', '일각(一刻)도 주저(躊躇)치 말자', '우리 완승을 지향하여 한층 연락하고 격려하자(われ完勝を 目指すなほ連絡と激勵を)', '이 시대 최고의 광영' 등의 글을 기고하여 학병의 취지를 고취시켜 학병 동원을 독려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김 보전 교장이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친일 월간 잡지 '춘추'에 스스로 기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은 일기도, 메모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남긴 자필의 글은 몇 통의 편지와 붓글씨 '공선사후(公先私後)'와 '담백명지(淡白明志)' 뿐입니다.

“인촌은 글(文)을 안 쓰시기로 유명한 분이였다.…”(중략)…보전 교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나는 7, 8년간 졸업식전, 기타의 경우에 선생이 낭독하신 식사 기념사 훈사(訓辭) 같은 것을 대필(代筆)하였는데, 그것은 나에게 참으로 큰 고역이었다. 글을 써 가지고는 사전에 선생께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검열을 무사통과하기가 극난(極難)한 것이다.” (유진오, 동아일보 1962년 2월 18일자 2면)

“일정기간(日政期間) 중 나는 당시 보전 교장이시던 선생을 위하여, 학생들에 대한 훈사(訓辭) 고사(告辭) 등을 여러 번 대필(代筆)했는데(인촌 선생은 평생에 문장을 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듯이, 어느 정도 추고를 하다가 보면 귀찮아져서, 좀 더 손질을 해야 할 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런 때면 인촌 선생은 영락없이 그 미흡한 곳을 지적하여 수정을 명하시는 것이었다. 선생은 손수 글을 쓰지는 안하셨지만, 문장(文章)에 관한 판단력은 누구보다도 뛰어나셨던 것이다.” (유진

오, 동아일보 1965년 2월 16일자 5면)

“인촌 선생을 모시고 보성전문학교에 있는 동안에 강연 원고나 훈시 등을 써 드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글은 안 쓰시지만 내가 글을 쓰다보면 정신이 집중되지 않고 귀찮을 때 슬쩍 넘기고는 나중에 마음에 걸렸는데 이것을 읽으신 인촌 선생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유진오, 新東亞, 1976년 4월호, 496쪽)

“인촌 선생은 신문 같은 데 글을 쓸 줄 모르는 분이다. 써야 할 때도 비서, 교수들이 써주는 것이고 …(중략)… 양호기에도 나오지만 유진오 선생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하다. 인촌은 그런 선동적인 글을 쓴 적도 없다. 문투나 용어도 그런 것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재주도 없다. 인촌은 한 번도 학병을 가라는 식의 말을 하러 나온 적이 없다.” (이철승, 2004년 7월 8일 면담 중)

“하나 확실한 것은 인촌 선생이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도 글 쓰려고도 안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촌 선생은 투고하거나 글 쓰시는 분이 아니고요. …(중략)… 말씀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 좌담을 좋아하셨죠. 그렇게 민주주의도 얘기하시고 그러시지만 체계적으로 학문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이예요. 학자 타입이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으시고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2008년 11월 18일 녹화 DVD 중)

위와 같은 증언에 비춰 위 피고 준비서면 중 ‘기고하였다’라는 기술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의 증언 역시 인촌 김성수 선생은 남의 앞에 나서 말하기를 좋아하거나 글을 쓰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이 있다’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인적인 의견’, ‘믿을 수 없는 증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언이나 자료와 상반되는 단 한 건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제의 총견 노릇을 한 총독부 기관지가 ‘중요한 1차 사료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1) 이해복 언론인(보전, 학병출신, 2009년 8월 26일 녹화)
- 2) 송방용 전 헌정회장(연전, 2009년 1월 29일 녹화)
- 3) 이무연 전 효명중 교장(보전, 학병출신, 2009년 8월 31일 녹화)
- 4) 권중혁 전 대구여상 교장(보전, 학병출신, 2008년 12월 24일 녹화)
- 5) 윤석현 전 외무부 차관(보전, 2009년 7월 9일 녹화)
- 6) 최재동 1·20 학병동지회 사무총장(보전, 학병출신, 2006년 3월 24일 녹화)
- 7) 문병윤 전 부통령 비서관(보전, 징용출신, 2004년 10월 28일 녹음)

- 8) 서태원 고일회 회장(보전, 징병출신, 2004년 11월 23일 녹화)
- 9) 김진웅 전 고려대 총장 서리(보전 출신, 2004년 12월 3일 녹화)
- 10) 김진섭 전 매일신문 기자(2009년 3월 19일 녹화)
- 11) 고일회(高一會·고대 1회 졸업생 모임) 회원들
김진웅, 최재동, 이중재, 서정석, 김수명, 이종우(2006년 9월 18일 녹화)
- 12) 장택상 전 국무총리(동아방송, '정계야화' 1965년 2월 19일 방송)
- 13) 우승규 언론인(1982년 9월 30일 녹음)
- 14)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2009년 9월 7일 녹화)
- 15) 김성식 전 고려대 교수(1982년 10월 22일 녹음)
- 16)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2008년 11월 18일 녹화)

둘째, 특별법 제2조 제13호(사회,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

(피고 준비서면 31쪽)

피고는 김 보전 교장이

1. 1941년 '황국정신의 양양' 등을 목표로 내건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의회를 통합하여 조직된 전시체제기 최대의 민간전쟁협력단체 조선임전보국단에서 발기인과 감사로 **활동하고**
2. 1937년 중일전쟁기에 라디오와 강연회를 통하여 시국인식의 철저와 '총후봉공'을 **역설하고**, 군용기 경기호 건조비로 3백 원을 헌납하였으며, 같은 해 8월 경성군사후원연맹에 국방현금 1000원 등을 **헌납하고**
3. 1943년과 1944년 매일신보에 '절대로 협력', '징병이 닥쳐온다'라는 **글을 기고하여** 출정군인 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의 철저와 협력을 주장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론>

1.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 조선임전보국단에서 발기인과 감사 등의 명단에 여러 수많은 조선인 유지들과 같이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 특별법 제2조 제13호(사회,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조문은 어떤 단체의 간부로 이름이 올라 있는 그 '직책'이 기준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구체적**

으로 어떤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는지, 즉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김 보전 교장이 그 같은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단 한 건의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김 보전 교장이

- 1) 1941년 8월 25일의 ‘임전대책협의회’ 결성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삼천리’ 1941년 11월호, 46~49쪽)
- 2) ‘임전대책협의회’에서 벌인 채권가두판매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임종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년, 230쪽)
- 3) 보전공문서 1940년 9월 25일자 ‘황기 2600년 봉축회’와 관련, 각 학교 교장들을 동경기념식에 참석토록 하며 여관 알선, 지정열차 탑승 등의 편의 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거절했으며 ‘신궁참배 불 희망’이라고 통보했다.

문서번호	제목		내용
453	紀元 2600년 기념식 및 봉축회 참석에 관한 건	학무국장-보전	초대장 송부 통보 및 수송계획 과 관련한 내용 첨부
454	皇紀 2600년 기념식 및 봉축회 참석에 관한 건	보전-학무국장	교장 김성수가 동경으로 이동하 는데 따른 제반 사실 통보(여관 알선 불필요, 신궁참배 불 희망, 지정열차 승차 불 희망, 경성 역 에서 출발)

- 4) 1938년 6월 22일 부민관 증강당에서 열린 발기인 대회나 7월 1일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하며 특별법 제2조 제13호가 규정한 ‘사회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라디오 출연과 관련, 조선일보 1937년 8월 3일자 2면과 매일신보 1937년 8월 1일자 6면에 '8월 2일 제2방송 (중략) ▲8시 시국강좌 김성수 (후략) 라고, 예고 기사만 나와 있을 뿐 그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기사가 없고 인촌 김성수 선생이 설립자인 동아일보에도 1937년 8월 3일자 3면에 '8월 2일(월) 제2방송 (중략) ▲8시 시국강좌 김성수'라고만 간략히 보도됐습니다.

2. 피고는 김 보전 교장이 라디오와 강연회를 통해 특별법 제2조 제13호(사회,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나 어떤 내용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막연히 "시국인식 철저와 '총후봉공'을 역설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국인식 철저와 '총후봉공'을 역설했다"는 것만으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는 방송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촌 김성수전'(인촌기념회, 1976, 404쪽, 갑 제69호증)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총독부는 조선인 명사들을 시국 강연이나 라디오 방송에 동원해서 전쟁에 협력케 하고 온 민족을 이끈바 황국신민의 길로 내모는 데 혈안이 되었다. 강연도 자주 있었거니와 방송은 처음에는 주 1회 하던 것이 차츰 그 횟수가 늘어 이름 있는 인사 치고 여기서 빠지기는 매우 어려웠다. 인촌에게도 방송에 나오라는 그들의 요구가 왔으나 단호히 거절했다. 그랬더니 총독부 사회과에서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피치 못하게 강요하고 나왔다. 방송국에 나간 인촌은 사회과의 원고와는 전연 다른 물자절약과 유연비어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5분 동안 하고 나왔다. 예정시간 15분의 3분의 1인 5분, 그것도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또 피고가 인용한 매일신보 1937년 9월 11일자 3면 '춘천발 기사'도

“남녀 청중의 운집으로 장내장외(場內場外)는 정각(定刻) 전(前)부터 초만원(超滿員)을 정(呈)한 가운데,

— 지나사변(支那事變) 추이(推移)에 대하여 김성수

— 지나사변(支那事變)의 전모(全貌) 현상윤

이상과 여(如)한 양씨(兩氏)의 열변으로 일반 청중을 감탄케 한 바 있었다”라고 돼있어

‘춘천 강연회’에서 특별법 제2조 제13호(사회,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하는 어떤 ‘친일반민족행위’의 발언을 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원고는 ‘인촌 김성수전’(인촌기념회, 1976, 431쪽)의 아래와 같은 대목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1944년부터 실시하려던 조선징병령을 1943년 8월 1일자로 단행하여 12월부터 우리 장정들을 그들의 군문에 징집해 가는 한편 동년 10월 20일에 갑자기 특별지원병제라는 것을 공포 실시하여 조선의 모든 전문대학교생을 전쟁에 내몰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학도병 또는 학병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일제는 사상이 불온한 학생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자진해서 지원하는 자는 전무했기 때문에 방침을 변경해서 모조리 끌어가기로 했다. 이에 신문 잡지 방송을 최고도로 활용함은 물론 그들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갖은 협박과 공갈로 지원을 강요하고 듣지 않으면 체포 구금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이와 병행해서 지도자들을 동원하여 각 처에서 강연회를 열고 이른바 학도 출진을 권유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런 광란을 보고 인촌은 전국농장에 내려가 병을 핑계로 세상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은 칭병(稱病)이 통하지 않아 억지로 춘천에 끌려갔다. 연단에 오르기는 했으나 인촌은 단 한마디만 하고 내려왔다. ‘이 사람은 대중 앞에서 연설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나와서 하는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이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게 된 사람은 장덕수 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미리 그렇게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허망한 그의 한마디에는 뼈가 있었고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들었다. 그를 끌고 간 사람들도 말주변이 없다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김성수 평전은 김성수와 춘천만 빼고 시간과 동행 연사 등 중요사항을 잘못 기록하였기에 그 뒤의 행위 내용도 믿을 수 없는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김성수가 연설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수 평전의 신뢰도가 없어진 것으로 이 평전을 근거로 내세우는 원고의 어떤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 준비서면 82쪽)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촌 김성수전’이 두 대목에서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 뒤의 행위 내용도 믿을 수 없는 것임은 당연하다’ ‘김성수 평전의 신뢰도가 없어진 것으로 이 평전을 근거로 내세우는 원고의 어떤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 ‘1942년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바 없다’고 원고가 주장한 바 없음에도 ‘참석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고 잘못 전제하고
- 원고는 ‘김성수가 연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바로 위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김성수가 연설을 하지 않았다면”이라고 잘못 기술하며
- 김 보전 교장이 ‘기고’한 바 없음에도 ‘담(談)’을 반복하여 ‘기고 한 글’이라고 부정확하게

표현하고

- 김 보전 교장이 몇 차례의 행사 등에 참석했는지 밝히지도 못하면 ‘무수하게 참석한 반민족적인 행사’라고 과장하며

- 원고는 “보성전문학교의 졸업생들은 한결같이 인촌 선생으로부터 학병지원을 독려하거나 그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병 지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언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김성수로부터 학병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라고 엉뚱하게 기술하고

- 피고가 답변으로 대신한 ‘장신의 의견서’가 “현재까지의 연구로 볼 때 ‘황국신민의 서사’ 부분을 김성수가 직접 또는 동의 하에 썼다고 수궁하기 힘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준비서면 125쪽에서 “그동안 원고는 총독의 훈시와 비슷하다 하여 도용설을 주장하듯 김성수의 글이 ‘황국신민의 서사’와 비슷하다 하여 조작설을 제기한 바 있었고” 라며 피고 스스로 피고의 답변을 대신한다고 한 ‘장신의 의견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 참고 자료로 했다던 ‘김상훈의 글’을 다시 번복하여 증거라고 제시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 정진석 교수의 글, 성주현의 논문과 ‘고려대학교 100년사’ 535~536쪽을 거두절미하여 인용한데 이어 ‘김상훈의 글’이 사실에 부합됨을 입증시키겠다고 제시한 ‘손종영, 손점용, 허호의 글’과

- 에커트의 저서 ‘제국의 후예’와 ‘고려대학교 100년사’도 피고에게 유리할 듯한 부분만 작위적으로 거두절미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손종영, 손점용, 허호의 글’과 에커트의 저서 ‘제국의 후예’, ‘고려대학교 100년사’에 대해서는 추후 상술 - 원고 주)

그렇다면 피고의 논리대로 피고의 준비서면은 ‘설득력이 없고’ 작위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1937년 8월과 9월에 낸 ‘헌금’은 ‘보전 교장 김성수’가 아니라 ‘계동정 132 김성수’가 낸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는 ‘학교 돈’이 아니고 ‘개인 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937년 9월 15일 석간 1면을 보면

금 일만원을 이왕가 어 하사

황군 위문 연초도 어 하사

“이왕가에서는 반도에서의 총후의 열성에 깊이 어관심을 가지시고 조선군사후원연맹에 금 일만원을 어하사 하신다고 어분부가 계셨다. 동시에 복지 제일선에 활약 중의 황군 장병의

위문을 위하사 연초 2천5백 상(箱)을 어하사 하신다는 어분부가 계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헌금은 원고가 갑 제72호증으로 제출한 임종국 선생의 ‘빼앗긴 시절의 이야기’(민족문제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2007년)의 기술과 같이 ‘일본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1936년 8월), 한국어 교육은 폐지되어 일어의 상용이 강제되고(1937년 4월),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해야 하고(1937년 10월), 이르기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받는 세월(1940년 2월)’에 왕실조차 헌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강요되는 헌금을 어쩔 수없이 낸 것입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은 일제의 강요에 의해 낸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원금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동아일보와의 인연은 독립운동군 자금조달관계로 끈끈하게 이어졌다. 동아일보 사장이던 고하(송진우)는 김좌진 장군에게 3백~4백 명 규모였던 독립군의 무기 구입과 훈련 등에 쓰도록 비밀리에 1만 원 가량씩 네 차례나 군자금을 보내주었다.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가 고하를 통해 보낸 것이지. 1만원이라면 그때 황소 1백 마리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으니 요즘 돈으로 수 억 원대의 큰돈이지.’ 이 용은 이 자금을 세 차례는 천도교 계통을 통해 받았고, 마지막에는 직접 받았다. ‘1930년 1월 24일 김 장군께서 일제의 하수인에게 암살된 지 며칠 후 20대 청년이 동아일보 심부름을 왔다며 당시 김 장군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나를 찾아왔소. 돈 1만원과 함께 만장을 가져와 장례식 등 사후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긴하게 썼지.’ (이강훈 전 광복회장, 동아일보 1990년 4월 1일자, 14면)

“장례는 이미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이 됐고 이을규가 총무를 맡았고 권화산이 장례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내가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내가 도착한 다음날 동아일보에서 특파원 김이삼(金利三)을 파견하여 조의를 표했고, 송진우 사장도 거액의 부의금을 보내왔다.” (이강훈 전 광복회장 자서전 ‘민족해방운동과 나’, 제삼기획, 1994년, 127쪽)

“김구 선생의 특무공작도 안창호 선생의 재정지원을 받고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미국 동포들이나 중국을 지나가던 국내 인사들이 안창호 선생을 신뢰해서 그를 통해 독립운동자금을 대주었으므로 도산이야말로 독립운동자금의 주머니였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유럽을 순방한 뒤 귀국 길에 상해에 들른 인촌 김성수도 도산을 찾아와서 인성학교에 기부금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기금도 내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익균 회고록, ‘새역사의 여명에 서서’, 일월서각, 1994년, 127쪽)

“당시 나는 상해에서 임시정부 내무총장으로 독립운동을 지도하시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로 일했다. 선생의 사무실 겸 숙소는 프랑스 조계에 있었다. 어느 날 도산 선생은 애국지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인촌 선생만큼 용기 있고 진실한 애국자가 없다’는 말씀을 했다. 인촌 선생은 세계 일주여행 길에 상해에 들어서 일본인과 그 첩자들의 눈을 피해 가면

서 도산 선생을 찾아 왔었다는 것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도산 선생 사무실로 찾아온 사실에 더 감격한 듯 했다. 당시 국내의 지사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보낼 때는 신변이 위험하여 꼭 이편(人便)을 이용하곤 할 때였다. 국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실력자 인촌 선생이 임시정부에 2천불, 그리고 인성학교에 5백불을 내놓으셨는데, 그 분이 직접 방문한 것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도산 선생을 직접 뵙고 독립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협의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 뒤에도 참다운 애국자를 말할 때는 인촌 선생이 그 귀감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구익균,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1985년, 236~237쪽)

“언제인가 미국에 계시던 도산(안창호) 선생님이 목릉현에 계신 아버님(李甲) 병상에 5백 달러의 치료비를 보내주신 일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나는 정성껏 도산 선생을 간호해 드렸다. 그러던 나날, 나는 열흘마다 계산되어 나오는 병원비로 환자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110원씩 청구서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총독부 신세를 질 수 없다 하여 도산 선생은 ‘저들의 보조를 받을 수 없다’ 하시며 펄펄 뛰었다. ‘선생님, 그런 걱정 마시고 진정하세요.’ ‘그래, 내가 죽는 날까지 그 놈들 돈으로 치료받을 줄 알아.’ ‘제가 밖에 나가서 몇 군데 다녀 보겠어요.’ ‘글쎄..., 한 번 그래 볼래.’ 마지못해 응낙하면서 견지동 이지송(李芝松) 씨한테나 가보라는 말씀이었다. ‘인촌 선생 댁에 가 볼까 해요.’ ‘알아서 하오만 도움 받은 일이 많아서...’ 그 밖에도 방응모 최창학 박흥식 제씨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나 그때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진 분 들인데, 그만두지...’ 하며 사양의 뜻을 표했다. 윤치호 씨에 대해서는 더욱 완강한 만류를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병원비 주선을 위하여 먼저 인촌 김성수 선생 댁에 갔다. 인촌은 ‘이런 일에 부인까지 나서다니 이 군(이응준)도 전지에 가 있고 한데...’ 하며 즉석에서 쾌락해 주었다. 그리고 ‘위험하니 현금만은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하는 주의까지 환기시켰다. 나는 감격했다. 박흥식 씨 회사에 갔더니 호응해 주어 흐뭇했다.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씨도 나중에 5백 원인가의 수표를 보내온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친구 오빠 나경석씨를 통해 만나본 최창학 씨는 감시의 눈길을 두려워해서 거절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독지가들의 성금이 답지되어 도산 선생의 치료비와 장례비에 총당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 (중략) ... 밤이 깊어갔다. 12시 자정을 알리는 시보의 울림이 마지막 ‘땡!’하고 칠 그 때 도산 선생의 숨길은 멎었다. 거인의 최후였다. 향년 61세로 이렇게 생애의 막을 내렸다(1938년 3월 10일). 그 자리에는 안치호 장회근 이선행 김순원 그리고 우리 어머님과 큰 아이 이창선과 내가 있었다.” (이정희<李正熙>, ‘도산여록’, 흥사단출판부, 1986년, 268~269쪽)

“1956년 경 육당(최남선 선생)에게서 들은 얘기가. 3·1운동 당시 천도교 쪽은 최린이 있고, 북쪽 기독교 세력(서북 기독교)은 이승훈, 남쪽 기독교 세력은 이상재가 대표적이었다. 최린과 육당은 일본 유학을 같이 한 친한 사이이다. 평양 쪽 기독교의 이승훈 선생을 천도교의 참여 세력에 합류시키려 서울로 불러왔는데 종로 YMCA 건물 옆에 황금여관에 묵었다. 거사 자금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 인촌이 육당을 불렀다. 인촌이 ‘기독교가 내야 할 몫이 얼마나’고 물어서 육당이 얼마라고 얘기하니 인촌은 말없이 주머니 속에서 몇 천 원을 꺼냈다. 인촌은 ‘이것을 내가 낸 것으로 하지 말고 이승훈 선생이 기독교 몫으로 낸 것으로 하라’고 말했다. 육당은 이 돈을 보자기에 싸서 그 길로 황금여관으로 달려가 이승훈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내가 육당한테 이 얘기를 듣게 된 것은 한용운 선생이 독립선언

서의 뒷부분 공약 3장을 썼다는 논란이 나오던 무렵 독립선언서가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육당에게 시간대 별로 여쭙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들은 독립선언서 탄생 과정을 ‘독립선언서 연구’라는 논문에 썼다. 사실 3·1운동의 발동이 처음 걸린 것은 광문회 사랑방에서다. 거기에는 아사히신문 등 외국의 신문 잡지가 다 모이고 지식인들이 서울 올라오면 모여서 이를 돌려보고 세계정세를 논하곤 했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천명 이후 우리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현상윤 선생이 이를 중앙학교 숙직실로 가져가서 논의한 것이다.”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2004년 12월 9일 면담 증언)

“내 손으로 직접 러시아로 망명시킨 공산당 간부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러시아로 망명한 사람들의 거개가 모두 인촌 선생으로부터 노잣돈을 얻어가지고 망명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당시 서울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로 밀항해 가지고 모스크바까지 달아나려면 일본 돈으로 3백 원 내지 5백 원 만 가지면 족하였다. …(중략)… 공산당원이거나 민족사상 운동, 혹은 직접 행동을 음모하다가 붙들려갔든지, 서대문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만주나 로령(露嶺)으로 망명하고 싶었을 때 인촌 선생한테서 돈을 얻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거의 한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추상하고 있다. 1922년의 제1차 공산당사건이후 1931년 제3차 공산당(속칭 ML당)사건까지 10년 동안, 일제에 대한 공산투사 가운데서 인촌 선생으로부터 3백~5백 원의 돈을 얻어간 사람은 열 손가락을 꼽을 수 있건만, 지금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ML당의 이성태라는 이름뿐이다. …(중략)… 주의와 사상은 자기와 다르지만, 일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려는 목표에는 일치하는 까닭에 인촌 선생은 그들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그 때나 지금이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김기진 전 경향신문 주필, ‘한국근대화에 공헌한 인촌’, 사상계, 1961년 2월호, 218~219쪽)

“반민특위 활동이 시작될 무렵, 특검부장은 김상돈 의원이었고, 그 중 특별검찰관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가였던 장홍염(張洪琰)의원이 끼어 있었다. 그는 반민자(反民者)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관 중에 있던 총독시대의 기록을 가져와 부일협력자와 일제에 반항한 애국지사들의 기록을 살펴봤다. 뜻밖에도 인촌 김성수 선생에 관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일제 치하에 독립단원 한사람이 그의 집을 찾아가 돈을 훔쳐갔다는 대목이 있었다. 사랑방에 주인이 없는 새 도둑이 들어와 금고를 털어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이 때 김성수 선생 댁을 찾아가 독립자금을 달라고 졸라댄 사람이 바로 장홍염 의원 자신이었다. 자신의 간청을 받자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신분을 확인한 선생은 사랑방에 있던 금고문을 열어 제치곤 돈이 들어있다는 시늉을 한 후에 용변을 보러간다면 자리를 비워주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기에 거제서야 주인이 없는 새 돈을 가져도 좋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독립자금을 가져가 요긴하게 쓴 일이 있었다. 스스로 독립자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도 육영사업과 언론사업, 민족자본의 육성을 위해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선생은 용의주도하게 도둑을 맞은 것으로 일제의 눈을 속였다. 이 사실이 제헌국회에 전해지자 인촌 선생의 우국충정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서병조 전 연합신문 편집부국장, ‘정치사의 현장’ 제1공화국 편, 중화, 1981년, 196~197쪽)

3. 피고는 1943년과 1944년 매일신보에 ‘절대로 협력’, ‘징병이 닥쳐온다’라는 글을 기고하여 출정군인 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의 철저와 협력을 주장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매일신보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김성수, ‘절대로 협력’, 매일신보(일본전수<專修>대학 소장본), 1943년 12월 7일자 석간 2면.

“멀리 전선에 용약 출전한 군인들이 만일 그 사투가 감행되는 결전장에서 고향에 남아있는 외로운 어머니나 또는 아내의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곧 전투에 영향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총후에서 상이장병들을 위하여 또는 출정 유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원호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번 학병들이 출진함에 당하여 신문을 통하여 보더라도 가정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약출진을 결행한 학도들의 수효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 이러한 학병들을 위하여 또는 징병제 실시에 따라 금후 출정할 반도 출신 장병들을 생각할진대 군인 원호 역시 한층 확대강화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인데 이번 조선금융단에서 20만원을 제공한 것은 일대 쾌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서 원호사업에 절대 협력하여야 할 것을 더욱 각오할 것이다.”

▶ ‘징병이 닥쳐온다’, 매일신보 1944년 1월 22일자 3면.

(전략) 보성전문학교장 김성수씨는 다음과 같이 결의를 말한다.

“오직 한결같은 순종의 마음으로서 군문으로 들은 우리 학병들의 전도는 승리와 광영이 있을 뿐이다. 이제 대망의 징병이 실시됨을 따라 우리는 학생이 없는 가정이라도 적령기의 청년 남아를 가진 집에서는 모두 이 며칠 동안 반도 전역이 감격으로 환송하는 장쾌한 병역의 성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반도출신의 젊은 병사들을 전열로 보내는 것은 실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떠나는 병사, 보내는 부모형제 이 광경은 이웃집의 일이 아니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머지않아서 내 앞에 당하는 내 일임을 이제 학병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거나 준비가 부족하였던 점도 점차 개선되어 징병의 길에 유감없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거니와 아들과 남편을 나라에 바치는 가정 중에는 가정 사정이 심히 곤란한 곳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정, 이러한 부모를 뒤에 남기고서 전열에 나가는 병사들로 하여금 ‘뒷일은 우리가 맡을 것이니 오직 잘 싸워 달라’ 출정 군인 유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원호사업에 또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도 일찍이 군인 원호회 조선 본부를 두고 각 도에 지부, 분회를 설치하여 각종 사업으로서 유가족의 직업보도 또는 의료, 교육 등 각 방면으로 원호의 손을 뻗치고 있기는 하지만 반도에서 군인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원호사업도 더 확충하여 가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반도 민중이 다 함께 키워나가도록 힘써 싸우는 반도의 책임을 완전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위의 두 기사는 우선 피고의 주장처럼 ‘글을 기고한 것’이 아니라 ‘담(談)’ 즉 말을 듣고 옮겨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의 고백을 상기시킵니다.

“중추원 참의 김사연은 학생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당신도 그 학생들과 꼭 같은 귀중한 세대군요’ 라고만 말할 뿐, 결국 최후까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김사연의 태도에서 오히려 상쾌함을 느꼈지만 신문 지면에 기사가 되어 나온 것은 거의 전부가 만들어진 것 밖에는 없었다. 이처럼 경성일보 편집국은 매일매일 이 같은 거짓을 만들기 위해 마치 모두가 정신이 돈 것 같았다.”

위 기사는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의 고백처럼 “사정이 어려운 출정 군인 유가족은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는 정도의 한 마디를 듣고 매일신보가 열 마디의 선전선동물을 만든 것입니다.

‘인촌 김성수전’(인촌기념회, 1976년, 432~433쪽)에 아래와 같은 대목도 있습니다.

“학도병들이 끌려가서 입대한 이틀 후인 1월 22일자 매일신보에 ‘보전교장 김성수 담(談)’이라 하여 ‘징병이 닥쳐왔다. 군인원호사업에 한층 분발하자’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린 것이다. 매일신보는 우리말로 발행되는 유일한 신문인 동시에 총독부 기관지로 허위와 왜곡을 일삼는 그들의 꼭두각시였다. 이러한 매일신보의 기자가 계동으로 찾아와서 ‘다음은 선생님의 차례’라면서 제자들을 학병으로 보낸 학교장으로서의 감격을 써달라고 한 일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나는 글을 쓸 줄 모르오.’

‘이것은 신문사의 청탁이 아니고 총독부의 지시올시다. 꼭 써주셔야 합니다.’

‘총독부의 지시라고 없는 재간이 생겨나겠소?’

글을 받아내지 못한 기자는 몇 마디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졸랐다. 말도 할 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지라 인촌은 그가 묻는 대로 한 두 마디 대답했다.

‘조선의 청년들이 전장에 나가게 된 것은 현실적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뒤에 남은 우리들은 그들의 가족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야지요.’

내용은 이것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장황하게 각색되어 지면에 나타났으니 그들의 맹랑한 조작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 는

“이른바 전향문 강제극이 있는 후 경성일보 기자가 와서 5분가량 면회하고 가더니, ‘여운형은 성전 완수에 적극 협력하고 나섰다. 특히 청년 학생들은 전쟁터로 나아가 목숨을 바쳐 황은에 보답하라고 소리 높여 권고한다’ 운운의 장문 기사를 연 3일간에 걸쳐 연재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여운형을 이용하자는 일제의 새빨간 날조극이었다. 6월 하순 어느 날 아침, 필자는 몽양 자택을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이 엉터리 기사의 첫 회가 발표되던 날이었다. 방바닥에 놓인 경성일보를 들고 필자가 물었다. ‘선생님, 어찌된 일입니까?’ ‘글쎄 기자가 쫓아와서 몇 분간 이러쿵저러쿵 하고 가더니 저렇게 냈구먼...’ 필자도 더 묻지 않았고, 몽양도 더 말이 없었다.” (이기형, ‘몽양 여운형’, 실천문학사, 1984년, 237~238쪽)

“교활한 일제는 총독부 기관지에서 조선말 신문으로 유일한 매일신보에 조선인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 ‘학도병에 지원해 나서라’는 안재홍의 이른바 ‘담화’를 날조해서 발표케 하는 사기 험잡극을 연출해냈다. 신문에는 안재홍의 사진도 실리고 자필서명도 있었는데 그 사진은 옛날 어디에서 찍은 사진을 오려서 낸 것이고 자필서명도 옛날 어느 신문에 난 것을 복사한 것이었다. 이 날조극이 있기 전에 일제 경찰의 고등계형사가 서울 돈암동에서 병 치료를 하는 안재홍을 찾아와 ‘전향’을 강요하며 학도병 제도를 지지하는 담화를 내달라고 하였다. 그때 그는 팔자 콧수염을 싹둑거리며 ‘이 놈아, 53살이나 된 나를 1년이나 흥원경찰서에 잡아가두고 이렇게 폐인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학병 지지 담화를 강요한 단 말이나! 당장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라고 으러냈는데 그 일이 있던 다음날에 그런 날조극이 신문에 실렸던 것이다.” (김흥곤 강현만, ‘민족과 하나’,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3년, 381쪽)

와 같은 경우의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출정군인 유가족을 도와야한다’는 말이 특별법 제2조 제13호(사회,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셋째, 특별법 제2조 제17호(일본 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피고 준비서면 32쪽)

피고는 김 보전 교장이

1. 1938년부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 이사, 참사로,
2. 1940년부터 1944년까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일신보에 ‘만전 준비 다할 뿐’, ‘각 전문교 과거와 현재’, ‘새 결의로 총궐기’라는 글을 기고하여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하였다고 했습니다.

<반론>

피고는 김 보전 교장이 ‘1938년부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 이사, 참사로, 1940년부터 1944년까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단 한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매일신보에 ‘안전 준비 다할 뿐’, ‘각 전문교 과거와 현재’, ‘새 결의로 총궐기’라는 글을 기고하여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하였다”는 것이 구체적 사례라고 피고가 든 것이라면 우선 위의 세 기사 역시 ‘기고한 것’이 아니라 ‘담(談)’ 즉 말을 옮겨 쓴 것임을 지적해 둡니다.

피고가 예시한 세 기사의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일신보 1943년 10월 14일자 2면 ‘안전 준비 다할 뿐’ - 김 보성전문교장 담(談)
과학전을 싸워나가는 이때이니만큼 전시학도의 나아갈 길이 과학의 길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 법문계 사립전문학교를 이과 계통 전문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응당 있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과 계통학교로서 시설문제로 급속한 전환은 어려울듯하나 당국의 전면적 협력이 잇슬 것이므로 이때 우리들은 이전항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매일신보 1944년 2월 10일자 3면
각 전문교 과거와 현재

보전

보성전문학교는 전시교육비상조치 방침에 따라 경성척식경제전문으로 전환하여 명실함께 새 출발을 하기로 되었는데 이 학교는 구한국 내장원경 고 이용익 씨가 명치38년 한국학부의 인가를 얻어 사립 보성전문학교로 설립한 것이다. 동년 4월 3일 수업연한 2년의 법률과와 경제과를 설치하고 수송정 원아어학교 교사에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동40년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고 43년에는 경제과를 상업과로 고치고 그 경영을 천도교의 고 손병희 씨가 인계하여 다음해 6월에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로 개칭하였다. 그동안 생도수도 늘고 교운(校運)은 점점 발전하여 대정7년 9월에는 교사를 낙원정으로 옮기고 동 10년 12월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다음해 4월 1일에는 조선 교육령에 의하여 교명도 보성전문학교로 되고 상과와 법과를 설치하여 교사를 송현정 구교사로 이전하였다. 그 후 고 김기중 김경중 양씨가 거재(巨財)를 던져 이를 인계하여 재단의 기초를 반석과 같이 굳게 하고 현 교장 김성수 씨가 취임하여 소화9년 9월에 안암정 현교사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김성수 교장 담(談)

지금 저에게는 아무런 감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 나아갈 길은 국가 방침에 좇아 전쟁에 싸워 이기기 위한 꾸준하고 힘찬 실천이 있을 뿐입니다. 전력증강 현재 우리에게는 오직 이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학교를 갑자기 척식경제전문학교라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는 일은 적지 않은 혁신임에 틀림없습니

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급선무라면 이 위에 더 중대한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활양식이 시대에 따라 변천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육체제도 때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육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도 일억 국민이 각기 맡은 직장에서 싸워 이기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한층 더 깊이 각오하여 국난 돌파에 용왕매진할 뿐입니다.

매일신보 1944년 7월 24일자 2면 '새 결의로 총궐기' 조선 총리에도 광명 - 김성수 씨 담 (談)

“고이소(小磯) 대장을 수반으로 인재를 널리 구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거국일치의 신내각 진용이 결정된 것은 실로 국가를 위하여 경하할 일이다. 신내각은 강력 내각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이에 전폭적인 신뢰를 바칠 수 있다. 덕망이 높고 정치적 수완이 큰 고이소 총리를 비롯하여 총리대신의 경력이 있는 요나이(米內) 대장의 해군대신이며 그밖에 각성 대신과 국무대신 등의 새 진용은 일억 국민을 이끌고 전쟁완수에 매진하기 위해 충분한 강력적인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적을 격멸하여 성전을 완수할 태세는 이로서 완비된 것이므로 일억은 이 기회에 비상한 결의로 총궐기해야 할 것이다. 조선으로서는 현 총독이 총리대신이 된 만큼 조선 통치의 전도에 대해 배전의 광명이 있을 것을 확신하다. 조선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고이소 총리의 지도에 따라 금후 반도 이천 육백만은 더한층 지성봉공해야 만 할 것이다.”

이들 기사 역시 ‘조선을 잘 아는 조선 총독이 총리대신이 된 만큼 축하한다’는 정도의 말을 ‘전폭적인 신뢰를 바칠 수 있다’ ‘적을 격멸하여 성전을 완수할 태세’ ‘비상한 결의로 총궐기해야’ ‘조선 통치의 전도에 대해 배전의 광명이 있을 것’ ‘지성봉공해야 만 할 것’이라는 등 보통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투적인 찬사를 매일신보 측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피고 준비서면 32~33쪽)

피고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친일행위를 볼 때 김성수의 행위를 강압에 의한 소극적 행위라고만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김성수가 무수하게 참석한 반민족적인 행사는 물론이고 중추인 간부직 역임을 비롯하여 시국강연과 친일 기고 등을 통하여 침략전쟁에 나갈 것을 선동 선전하는 행위는 행사의 성격과 선동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 주도적, 전국적’ 행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은 김성수의 각종 친일행위와 연동되어 특별법상 중요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를테면 학교 교장으로서는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학병을 권유하고 또한 징병제 실시를 일본 왕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위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친일반민족적 행위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서 ‘적극적,

주도적, 전국적인' 반민족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사료가 확인될수록 행위의 사례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입증된다는 점에서 이유가 없다. 이제까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김성수의 행위는 지속적, 반복적,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가중성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그 일면만 본 것에 불과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2조 제11호, 제13호, 제17호가 각각 규정하는 '적극적, 주도적, 전국적인' 행위로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하고, 이유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했습니다.

<반론>

피고는 '이와 같은 다양한 친일행위를 볼 때'라고 했지만 피고는 이를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유일한 자료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게재된 왜곡, 과장, 날조된 허위의 기사들 뿐입니다.

피고는 '무수하게 참석한 반민족적인 행사'라고 표현했지만 김 보전 교장이 '무수하게 참석한 반민족적인 행사'는 없으며 참석하지 않은 사례를 원고는 위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했습니다. 피고는 김 보전 교장이 '무수하게 참석한 반민족적인 행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피고는 또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학병을 권유하고' 라고 했지만 당시 보전 제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그 같은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제자 문병윤은 "학병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김 보전 교장 집에 숨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넷째,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김 보전 교장 명의로 된 보도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 준비서면 55~77쪽)

3.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신빙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총독부 기관지 기사는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가 사료로서의 가치와 진상규명 자료로서의 가치를 혼동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 각 기관지의 보도기사의 내용을 그 지면 그대로 믿는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다"고 들며, "단순한 사실(fact)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그 기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배경이나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상규명의 자료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연구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단순한 ‘사실(fact)’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연구의 실마리를 잡고 진실을 탐구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팩트’를 통하여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역사학자의 사료 찾기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다. 역사학자는 연속되는 ‘팩트’를 통하여 사건이나 인물의 활동 배경과 이면을 탐구한다. 그러므로 과거사에 대한 연구는 ‘팩트’에 대한 배경이나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는 진상규명의 과정이며, 여기에 동원되는 사료들은 1차 자료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하는 ‘팩트’로 활용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은 그런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역사 사료이며 ‘팩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수많은 증언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게재한 기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날조되었는지를 논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들 신문이 근현대사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이미 반민규명위 답변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밝힌 바 있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원고가 “수많은 증언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게재한 기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날조되었는지를 논증”한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현재 근현대사연구에 있어서 납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바로 잡는다면 원고의 주장은 “수많은 증언들과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적인 주장들과 주관적인 자료”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시기의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작성한 논문과 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등급(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 무엇인지 원고가 조금만 살펴봐도 이들 신문에 대한 사료적 가치는 ‘팩트’이상의 학문적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론>

피고는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하는 ‘팩트’로 활용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은 그런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역사 사료이며 ‘팩트’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언과 자료들에 대해 “수많은 증언들과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적인 주장들과 주관적인 자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인의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 이원영 당시 매일신보 정치부장, 백철, 조용만, 김진섭 당시 매일신보 기자,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가 당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는 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왜곡, 과장, 날조된 허위의 기사로 선전선동물을 만들어 내는데 광분했다고 생생하게 증언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실상을 전혀 모르는 피고가 그 신문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은 굳이 믿지 않고 그 신문에 있던 사람들이 새빨간 거짓말의 선전선동물이었다고 참회하며 고백해 놓은 일제 기관지를 ‘매우 유용한 역사 사료이며 팩트’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 날조 실태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 날조의 실태라고 예를 든 사례는 기사 조작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정황에 대한 이야기로서 개인의 생각을 나열한 것이며, 기사 조작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 매일신보 기자 백철은 “일본 당국이 다시 소위 지도급의 인사들이란 것을 동원하여 학병 권유의 시국강연을 시켰다. 나중은 일본 동경까지 그 인사들이 파견되어 명치회관이라는 데서 학병권유 강연들을 하는 식의 광극(狂劇)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당시 지도급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말하며, 그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 백철 자신의 친일행위가 어떠한지 비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대 지식인이었던 이광수와 최남선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신념에 차서 적극적으로 친일반민족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강덕상의 ‘반도학도출진’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매일신보 기자 조용만의 회고는 기사 조작과 관계없는 신문사의 풍경과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매일신보 편집국장 정인익은 반민특위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예컨대 정인익은 언론인으로서 어떤 이념 하에 행동하였는지 신문하는 특위조사관에게 “민족영원불멸이라는 신념 하”에서 “동포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했다고 반민특위 조사 때 밝혔으나 그가 해방 직전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조선언론보국회가 어떤 단체인지 살펴보면 그 말이 허위진술임은 자명하게 드러난다. 정인익은 반민특위 신문 당시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급급한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기사조작의 근거로 예를 든 정인익에 대한 이야기는 신뢰하기 힘든 자료라고 할 것이다. 다음은 정인익이 활동한 조선언론보국회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 생략 - 원고 주)

<반론>

우선 피고는 원고가 예시한 17건의 증언,

- 1) 정인익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의 반민특위 피의자 신문조서
- 2)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 ‘나의 아리랑 노래’(중앙공론사, 1977년, 232~235쪽)
- 3) 김진섭 당시 매일신보 기자, ‘녹취 한국언론사’(대한언론인회, 2001년, 97~98쪽)
- 4) 이원영 당시 매일신보 정치부장, ‘언론비화 50편’(한국신문연구소, 1978년, 95쪽)
- 5) 백 철 당시 매일신보 기자, ‘속(續)진리와 현실’(박영사, 1975년, 109~112쪽)
- 6) 조용만 당시 매일신보 기자, ‘경성야화’(도서출판 창, 1992년, 212~213쪽)
- 7) 이기형, ‘몽양 여운형’(실천문학사, 1984년, 237~238쪽)
- 8) 유기선, ‘황혼의 명상’ 제5화, ‘학도병 출정 때의 이야기’
(‘고당 조만식 회상록’, 고당 조만식 기념사업회, 조광출판, 1995년, 51쪽)
- 9) 한근조, ‘고당 조만식’(중앙서관, 1983년, 366쪽)
- 10) 김흥곤, 강현만, ‘민족과 하나’(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3년, 381쪽)
- 11) 서석연, ‘그림자 잃은 사나이’(‘1·20 학병사기’ 1권, 1987년, 185쪽)

- 12) 김영화 ‘전우여! 지금은 어디에?’
(‘청춘만장<靑春挽章>’, 1·20 동지회 중앙본부, 1972년, 412~413쪽)
- 13) 윤임술, ‘특별 고사포 부대의 정체’(위 책 290~291쪽)
- 14) 정치근(시인, 작사가)의 회고
- 15)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2009년 9월 7일 녹화)
- 16) 최남선, ‘자열서(自列書)’(자유신문, 1949년 3월 10일자 2면)
- 17) 임종국, ‘빼앗긴 시절의 이야기’(민족문제연구소 편, 2007년, 249쪽)

중 백철, 조용만, 정인익 세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나머지 14건의 증언, 즉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의 고백(‘나의 아리랑 노래’, 중앙공론사, 1977년, 232~235쪽)

“내가 대망의 사회부로 가게된 것은 1943년 9월 말이나, 10월 초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략)…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경성일보 지면이 커다랄게 바뀌어 있었다. 조선에서 이른바 ‘학도출진’과 학생의 강제 ‘지원’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반도의 학도여, 자신의 영예에 눈 떠라!’ ‘천재일우의 호기(好機)를 놓치지 말라!’라는 표어가 커다란 첩판(凸版)이 되어 지면 가득히 메워져 있었다. 그 지도기사(指導記事)에 이어 각계 조선인 명사들의 이름이 사진과 함께 나란히 실렸다. ‘영광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반도의 학도는 흔연히 한 몸을 바쳐 한 죽음으로 황은(皇恩)에 보답해야 합니다!’ 라고 입을 맞춘 듯한 담화가 가득히 실려 있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한 죽음으로 황은에 보답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웃기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럴지 않았다. 만약 그것을 웃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형무소에 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문이 하나의 결의 하에 행동하면 그 신문이 거대한 윤전기에 말려 들어갔다 나오듯이 주변의 모든 것들도 그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한다. 편집국의 간부들은 미네 사회부장이나 차장들을 포함하여 매일 회의를 계속하여 그 날의 호소 표어와 기획을 정하고 담화를 받아야 할 각계 조선인 명사들의 명단을 한 손에 들고 부원들을 뒹달했다. 물론 나도 그러한 뒹달을 받는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신문 지면에 나오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일만 있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또 한사람 ‘지원’했다고 하여 사진기자와 함께 가보면 그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거나 또는 걱정에 겨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무엇을 쓰든 당신 마음대로이지만 들어 줄 수 있으면 들어주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들 조선인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어느 쪽이 우리들의 적입니까. 나는 그저 잠자코 듣고 있을 뿐으로 대답할 말이 없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찌하여 우리들은 전장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도 부상하고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도대체 왜 우리들이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나 자신도 그들과 같은 조선인이면서 어느 편에 서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들이 희생함으로써 삼천만 조선 민족이 받고 있는 차별이 조금이라도 없어진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나는 기쁘게 하나의 사명을 다했다는 자각 아래 싸우다 죽겠습

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도 나름대로 감동하여 그대로 이야기를 썼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데스크에서 빨간 펜으로 고쳐 써졌다. ‘이제야 커다란 영예와 임무를 자각하여’ 운운으로. 이른바 각계 명사의 담화도 꼭 같았다. 나는 중추원 참의라는 김사연(金思演)을 찾아갔을 때의 일을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중추원 참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돈암정인가 어디인가의 커다란 저택에 살고 있던 그런 조선인 부르주아를 방문하는 것도 그것이 처음이었다. 그 때 슬쩍 엿본 김사연의 생활 모습은 뒤에 쓴 장편 ‘현해탄’의 또 하나의 주인공인 백성오(白省五)의 아버지 중추원 참의 백세필(白世弼)을 쓸 때 써먹었지만 그 김사연은 먼저 ‘당신은 동양형의 미남자이네요’라며 나를 치켜세우는가 싶더니 시종한결 같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을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당신도 그 학생들과 꼭 같은 귀중한 세대군요’라고만 말할 뿐, 결국 최후까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김사연의 태도에서 오히려 상쾌함을 느꼈지만 신문 지면에 기사가 되어 나온 것은 거의 전부가 만들어진 것 밖에는 없었다. 이처럼 경성일보 편집국은 매일매일이 같은 거짓을 만들기 위해 마치 모두가 정신이 돈 것 같았다.”

김진섭 매일신보 기자의 증언(‘녹취 한국언론사’, 대한언론인회, 2001년, 97~98쪽)

“하루는 고영한 지사장이 조만식 선생을 인터뷰해 오라고 했다. …(중략)… 취재 지시를 받은 나는 조만식 선생으로부터 시국과 관련한 어떠한 논평이나 언급도 받아낼 수 없으리란 걸 알았지만 찾아 나섰다. 마침 평양 시내 따님 댁에 와 계시던 선생께 찾아온 용건을 아뢰었더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냐’ 하시곤 함구로 일관하다가 댁으로 가셨다. 지사에 돌아와 ‘안계시더라’고 허위 보고할 수밖에 댄 도리가 없었다. ‘서울서 내려온 일류 기자가 그것도 못 하느냐’고 크게 책망을 들었다. 고영한 지사장은 때마침 들어온 김창문 기자에게 같은 취재 지시를 했다. 조 선생 댁은 시내에서 40~50리 떨어진 강서(江西)였는데, 김 기자와 나는 함께 나섰지만 이심전심이였다. 중도에서 대포만 마시고 또 빈손으로 돌아와 호된 기합을 받았다. 며칠 뒤, 본사의 독촉이 심했던지, 고영한 지사장이 사진기자 한명을 데리고 직접 나섰고, 사흘쯤 뒤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실렸다. 아무리 뜯어봐도 자작 작문 기사였다. 당시의 그 기사가 요즘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 ‘조만식=친일파’로 매도되는 꼬투리가 됐고 그 때 신문 스크랩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는데 진상은 이러한 것이었다. 격동기, 전환기에 기자의 처세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는 사례이다. 조국 광복이 된 후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 김창문과 함께 평양에 갔다. 가는 길에 고영한 지사장을 만나 지방에만 있지 말고 함께 상경하자고 권했더니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해서 헤어졌다. 다음날 새벽에 찾아 갔더니 지사장의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어젯밤 자살했다’며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도 자살할 뚜렷한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 며칠 지나니까 향간에 소문이 돌았다. 지사 직원 가운데 공산주의자가 한명 있었는데, 당시 경방(警防)단장 직도 겸하고 있던 고 지사장을 평소 친일파라고 몰아세우며 협박을 일삼아서 괴로워했고, 또 조만식 선생의 인터뷰 기사 사건으로 해서 많이 자책하는 것을 보았다는 주변의 얘기들이 무성했다.”

이원영 매일신보 정치부장의 증언(‘언론비화 50편’, 한국신문연구소, 1978년, 95~97쪽)

“정치부장으로 있던 1944년 어느 날인가 하루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과 도서과장이 나를 만나자는 것이었다. 또 무슨 명령이 있으려니 하고 잔뜩 긴장해서 갔더니 그들은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요정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세사(世事)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별다른 것이 아니겠거니 하고 헤어지려는데 도서과장이 나에게 큼직한 취재 활동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부탁이란 소위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을 위해 한국 청년이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한국이 대동아건설에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을 고무하는 강연회나 글을 쓰도록 날더러 송진우 안재홍 여운형 홍명희 제씨(諸氏)와 교섭하라는 요지였다. 나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들의 요구를 따르고 말았다. 맨 먼저 계동으로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을 찾았다. 매일신보 정치부장이란 명함을 내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선생님, 총독부에서 학생들의 군대 지원을 고무하는 강연이나 글을 써서 신문에 내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를 서대문 감옥으로 데려가라지. 나는 글 쓸 줄도 모르고 연설도 할 줄 몰라. 가서 내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전해요.’ 하고 보료에 기댄 채 일어나지도 않고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이었다. 고하 선생의 당당한 풍채가 놀랍기도 하려니와 나로서도 굳이 글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 그저 기계적으로 접촉해 본 것 일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 나오게 되었다. 그 때 고하 선생의 웃이 파란 색 조끼의 한복차림이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다음은 당시 평택 진위에 계시던 민세(民世) 안재홍 선생의 차례였다. 그에게는 정치부의 김 모 기자를 보냈다. 그런데 김 기자는 그날로 두통한 원고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에 의하면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써 주시더라는 것이었다. 여운형 씨에게는 다른 정치부 기자를 보냈다. 몽양 선생이 동경에 가는 길이라 서울 역에서 만나 차중 인터뷰를 통해 글을 받아 기재했다. 홍명희 씨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랐다. 그의 아들 기문과는 막역한 친구 간이었으므로 먼저 그를 만나 총독부의 지시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는 아버님이 창동에 계시지만 괴산(槐山)에 가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자고 해서 총독부에는 그렇게 복명(復命)하고 말았다. 이러한 이야기는 잘못하면 한 개인의 명예에 본의 아닌 누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 때의 시국이라든지 그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단지 나 개인의 직접적인 체험이기에 적어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극히 부분적인 이야기가 그 분의 생애를 판단하는 자료이기에는 아주 적당치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려는 것이다.”

여운형 선생의 측근 이기형의 증언(‘몽양 여운형’, 실천문학사, 1984년, 237~238쪽).

“이른바 전향문 강제극이 있는 후 경성일보 기자가 와서 5분가량 면회하고 가더니, ‘여운형은 성전 완수에 적극 협력하고 나섰다. 특히 청년 학생들은 전쟁터로 나아가 목숨을 바쳐 황은에 보답하라고 소리 높여 권고한다.’ 운운의 장문 기사를 연 3일간에 걸쳐 연재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여운형을 이용하자는 일제의 새빨간 날조극이었다. 6월 하순 어느 날 아침, 필자는 몽양 자택을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이 엉터리 기사 첫 회가 발표되던 날이었다. 방바닥에 놓인 경성일보를 들고 필자가 물었다. ‘선생님, 어찌된 일입니까?’ ‘글쎄 기자가 쫓아와서 몇 분간 이러쿵저러쿵 하고 가더니 저렇게 났구먼...’ 필자도

더 묻지 않았고, 모양도 더 말이 없었다.”

조만식 선생의 측근 유기선과 한근조의 증언.

“일제는 악랄하게 허위 보도로 ‘조만식 씨 드디어 전향하다’라는 표제 하에 학도병 출정 찬성, 날인과 자발적으로 유기(鎗器)를 헌납하고 성전(聖戰)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대서특필로 보도하고 사진까지 게재하였다. 그러나 일제 주구 외에 이 기사를 믿는 자는 없었다.” (유기선, ‘황혼의 명상’ 제5화, ‘학도병 출정 때의 이야기’, ‘고당 조만식 회상록’, 고당 조만식 기념사업회, 조광출판, 1995년, 51쪽)

“1943년 말이 아니면 이듬해 초엽 고당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일제를 지지하는 시국강연회를 한다 해서 연사로 조만식의 이름을 대서특필하여 벽보를 붙이고 야단법석이었다. 물론 사전에 일언반구의 응락도 없이 권부(權府)의 힘을 빌어 모측에서 고당을 위협하는 계획적인 음모였다. 이 경우 고당은 어찌해야하는가. 시국 강연 광고는 이미 다 해 놓은 터이요, 일을 꾸민 측에 항의를 한다한들 씨가 먹지 않을 것이었다. 길이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고당이다. 그의 슬기는 병원 문을 두드렸다. 궤병으로 평양 서문통 기흥병원에 입원하였다. 한 2주일간 고당 조만식은 평양 사회에서 그림자를 찾을 길도 없었다. 그러는 사이 강연 날짜는 지났다. 그제서야 그는 태연히 나타났다. 가깝스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한근조, ‘고당 조만식’, 중앙서관, 1983년, 366쪽)

김흥곤 강현만의 증언(‘민족과 하나’,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3년, 381쪽)

“교활한 일제는 총독부 기관지에서 조선말 신문으로 유일한 매일신보에 조선인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 ‘학도병에 지원해 나서라’는 안재홍의 이른바 ‘담화’를 날조해서 발표케 하는 사기 험잡극을 연출해냈다. 신문에는 안재홍의 사진도 실리고 자필서명도 있었는데 그 사진은 옛날 어디에서 찍은 사진을 오려서 낸 것이고 자필서명도 옛날 어느 신문에 난 것을 복사한 것이었다. 이 날조극이 있기 전에 일제 경찰의 고등계형사가 서울 돈암동에서 병 치료를 하는 안재홍을 찾아와 ‘전향’을 강요하며 학도병제도를 지지하는 담화를 내달라고 하였다. 그때 그는 팔자 콧수염을 싹둑거리며 ‘이 놈아, 53살이나 된 나를 1년이나 흥원경찰서에 잡아가두고 이렇게 폐인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학병 지지 담화를 강요한단 말이나! 당장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라고 울러냈는데 그 일이 있던 다음날에 그런 날조극이 신문에 실렸던 것이다.”

이밖에 본인이 체험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학병 출신 등의 증언.

“동경서 귀성하는 한인 학생의 대열에 서도록 명령한다. 연락선은 연말의 귀성객을 만재하고 출항했다. 갑판에 준비한 우리 한국학생들을 선실 아닌 소음이 요란한 선저의 기관실로 몰아넣고서 일장의 설교를 한다. 그리고 나서 경성일보 한 장 썩을 배포 받았다. 서울의 성대를 위시해서 각 전문학교에 진학했던 선배 동창들의 사각모 사진 일색이었다. 용약지원했

다는 찬사와 아울러 각자의 포부마저 빠지 않고 날조 보도한 것이다.” (서석연, ‘그림자 잃은 사나이’, ‘120 학병사기’ 1권, 1987년, 185쪽)

“그해 11월 13일, 학생복 차림으로 고향 길에 올랐다. …(중략)… 아니나 다를까. 연락선내에서 형사들은 우리 학생들 약 30명을 별실에다 연금하고 갖은 수단으로 학병 지원을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불응이면 징용 영장에 날인하라고 협박하였다. 나는 사령장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 지원은 일단 보류되었으나 그들은 취직을 재고하라 하였다. 그러나 꼭 군을 위시하여 학생 전원이 지원을 강요당하고 말았다. 근심과 초조 속에 연락선은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때 일본 헌병들이 승선하여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승선 명부에 각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하선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승선 때마다 기입하는 명부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 같이 성명을 기입하고 하선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의 간악한 술책에 빠졌던 것이다. 꼭 군과 나는 동래 온천으로 가서 마지막 학생 기분을 내고 돌아오는 도중 명대(明大) 동창인 지(池)모군을 만났다. 이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으로 ‘어이, 자네 학병 가는가?’ 하면서 ‘부산일보(釜山日報)’를 내밀며 묻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면서 신문 기사를 보니 연락선에 탔던 학생 전원이 수상경찰서에 가서 학병에 지원하였다는 사연의 기사가 아닌가! 승선 명부를 원서로 둔갑시켰구나! 아, 간악한 놈들 우리들을 속였구나, 이놈들! 하고 분해했으나 그들의 함정에 이미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신문기사는 나보다 먼저 포항에 배달되었고 고등계 형사인 김이란 자가 부친을 찾아와 신문 기사를 보이면서 아들을 찾았다고 하며 또 지원을 했으니 지원 승낙서에 날인을 강요하였다. 부친께서는 …(중략)… 그만 날인하여 주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학병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김영화, ‘전우여! 지금은 어디에?’, ‘청춘만장’, 1·20 동지회 중앙본부, 1972년, 412~413쪽)

“일제는 너무나 조직적이었다. 하숙집으로, 학교로, 매일 고향의 집에서 친 전보가 날아들었다. 그 전보 내용은 모두가 ‘집에서는 승낙을 하였으니 하루빨리 학병을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에 집에 돌아와서 보니 전보 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관계 관청에서 조작으로 만들어 친 전보였다.” (윤임술, ‘특별 고사포 부대의 정체’, 위 책 290~291쪽)

정치근(시인 작사가)의 증언(2005년 11월 14일 21세기 문화광장 주최, ‘친일 음악가 시비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 자료집 19쪽)

“소설가 정비석 선생은 숙부로 나는 그 숙부 집에서 중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 때의 상황을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한다. 일제 말기 명사나 시인들에게 일본 헌병이나 순사가 와서 학도병에 지원하도록 또 신문에 기사를 쓰도록 협박했다. 2, 3일 생각해 보겠다하면 다시 와서 다그치고, 처음에는 부탁하지만 나중에는 협박해 반 정도는 불러주고 수식어 몇 자 붙여서 이름으로 내곤했다. 그 자리에서 자살하지 않는다면 안 쓸 수 없는 절박한 순간들이었다. 숙부는 네 형제 가운데 마지막이어서 나와 나이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식사를 하다가도 문을 두드리면 온 식구가 또 왔구나 하며 숟가락을 놓고 벌벌 떨어야 했다. 일본 순

사와 우리 순사가 번갈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 사람이 와서 괴롭혔다.”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2009년 9월 7일 녹화)의 전언.

- 격동기,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대결하고 갈등하는데 비친 그걸 가지고 실체라고 얘기한 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 육당 선생의 학병 관계된 걸 얘기했지만 인촌 선생에 대해서 70년대 초반일거요. 내가 조교수 돼 가지고니까. 72년이나 73년, 아마 그때 저기를 나가셔서, 현민 유진오 선생님은 정계에 나갔다가 병을 얻어서서 관두시고 은퇴하고 계실 때야. 붓글씨를 많이 연습하고 계셨어. 내가 일본 갔다 오고 그럴 적에도 늘 먹도 사다 드리고 선생님, ‘민족문화창달’이라고 그걸 하나, 민족문화연구소장 때니까 그거 휘호를 하나 써달라고, 지금도 민족문화 연구원에 있어요, 소장 실에. 그걸 하나 써 달라고 부탁도 드리러 가고. 현직 총장으로, 학생 때 내가 장가들었는데, 그 총장이 학생 장가드는데 주례해 주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해주셨고, 또 ‘육당 연구’라고 하는 책 처음 낼 때 서문을 써주셨고… 내가 그 어른한테 각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집 무상출입하는 사람이야. 가서 밥도 얻어먹고, 나중에 정계 저거 할 적에 비서실장을 하던 박찬세 씨가 잘 알지. 그건. 그래, 한번은 가서, 그때 왜 그랬는고 하니. 또 학교에서 인촌 선생에 대해서 이 자식들이 좌파 학생들이 인촌 동상 뭐 헐어 낸다고 끌어내린다고 그러고 할 때야. 그때가, 그 전에 좌파 학생들이 아무튼 학교가 조용할 날이 없었잖아요. 인촌 친일파로 몰고 막.

-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 뵈고, “선생님, 그 인촌 선생님, 그 저 매일신문에다가” 매일신문이라는 게 조선말로 나오던 경성일보의 자매지야. 독자도 몇 안됐대. 한 몇 천부 찍었다 그래. 거기다 학병 권유하는 그런 글 쓴걸 가지고. 그래 맞아. 그때 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동아일보 뭐지, ‘한국연론사’인가 뭐 썼는데 거기다가 난리 쳤지. 맞아. 여하 간에 말이야. 그래, 여쭙보기를 “인촌 선생이 그런 학병 권유하는 글을 쓰셨다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애들이 야단인데” 또 하나는 내가 또 그때 같은 시기에 그게 있어. 조지훈 선생님을 좌파 학생들이, 조지훈 시비를 세운다니까 학교에다가, 이걸 반대하고 난리야. 반대하는 이유가 걸작이야. 조지훈 선생 아버지 조현영 선생이 월북이 아니라 납치거든. 제헌국회의원으로. 그리고 그 조지훈 선생 할아버지 조인석 씨가 저, 인민군 들어왔을 적에 당신 아들이 제헌국회의원이고, 손자가 남하해 가지고 민족시인이고 하니깐, 할아버지를 연행을 했어. 인민위원회에서. 그러니깐 연행당해 가시다가 말이야. ‘내가 너희 놈들한테….’ 그 대단한 분입니다. 그 집안 한양 조씨 집안이 대단해. 그 생가 앞에 개울이 있어요. 평소 때는 조그만 개울인데, 장마가 질 때는 물이 많이 내려가지. 그리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하셨어. 할아버지가. 그걸 알고 좌파 학생들이, 지금 뭐 정계에 누구누구 내가 말은 안하지만 그때 날 뛰던 학생들이요. 지금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하는. 지난 10년 동안 그런 사람들, 참 내 속 어지간히 썩힌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그 자들이 조지훈 선생 집이 모두 극우였다고 시비 못 세우게 난리쳐. 그거 세운다고 다 돈까지 모아놨는데, 내가. 그걸 헐다가는 고인한테 더 욱되게 된단 말이야. 그때 내가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났지. 그래서 아마 그거 연장선상으로 인촌에 대해서, 아마 유진오 선생님한테 여쭙본 거 같아. 이제 가만히 기억을 더듬으니깐. 하필 왜 그때 가서 새삼스럽게 그걸 여쭙 봤나. 더듬어서 생각하니까. 조지훈 선생 관계로 해서, 내 직접 은사니까, 또 민족문화 연구소 소장으로 모시고, 내가 총

간사를 했고, 그분 돌아가시고 내가 소장을 이어갔고, 학맥이 그렇게 통하니까, 조지훈 선생님은 친부모와 같은 분이니까.

-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여쭙더니 이 어른이 “인촌 그 어른은 평생 당신 손으로 글 한줄 쓰신 분이 아닐세” 그러셔. 학교 소식도 전하면서 좌파 학생들이 그렇게 NL인가? 뭐 하여튼. 지금 짐작도 못하실 거야. 그때 나는 김상협 선생님 총장 하실 적에 이념서클, 문제서클 지도교수를 전부 맡으라 그러고, 또 김상협 선생님 스피치라이터를 또, 국문과 교수라고, 그런 거 써오라 하면 맨 날 밤을 훌딱 새우고 그걸 써가고 그랬다고.

- “인촌께서는 평생 글 한줄 안 쓰신 분이요, 그걸 전부 내가 대필을 졸업식사라던가, 어디 가서 뭐 말씀 하실 때가 있으면 전부 나한테 대필을 시키셔서 내가 썼는데, 내가 쓴 사실이 없네.”

- 그때 단말마적인 뭐 일제 전쟁 말기가 돼 가지고, 막 아무나 이름대가지고 인촌 뿐 만 아니라 써달라고 그래서 써주는 사람은 당연히 써주고, 다행이고. 써달라고 말도 못 붙일 사람이 있고, 써달라고 하면 ‘난 모르겠네’ 그러고 ‘알아서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을 것 아냐? 인촌 선생께도 써달라고 많이들 갔었겠지. “근데 인촌이 나한테 쓰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 난 쓴 기억이 없어. 근데 그때 매일신문 건이니까 아능 조용만 씨가 잘 알 걸세” 그러시더라고.

- 조용만 씨가 구인회 멤버고 매일신문 학예부장을 했어. 경성제국대 영문과 나와 가지고. 우리 고대 영문과 교수야. 나도 직접 배우고 그랬지. 잘 알지. 그래서 그때 그 어른이 이미 은퇴했을 거야. 정년퇴임 하셨을 거야. 그 어른이 따님 덕에 계시다가 수원에 그 무슨 실버타운에도 계시고 그랬어. 그때 그 어른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나 뵈도록, 서울서, 그 어른이 잘 가시던 다방이 그, 저, 종로 네거리에서 안국동 쪽을 올라가다보면 아, 그 무슨 다방이더라. 잊어버렸다. 옛날 노인네들 모이는 그 2층에, 그리 약속을 해서 가서 여쭙봤어.

- “선생님, 현민 선생을 봤는데, 인촌의 그 학병 권유하는 연설을, 연설문을 현민이 안 쓰셨대요. 그러면 누가 썼습니까?” 그랬더니,

- “글쎄 뭐 그때 말기가 돼가지고 말이야. 난리 치는데.”

- “그 저 선생님, ‘아능 선생님께 여쭙보면 잘 알걸세’ 그러시는데. 선생님 좀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말을 좀 더듬는, 그걸 뭐라 그러냐. 놀언은 아니고. 놀자가 말씀언(言) 변에 안 내(內)자 하면은 말더듬을 놀(訥)자야. 놀언은. 글쎄, 그거도 놀언이라고 할까? 말을 좀 더듬으셔. 또 급하시고.

-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어휴, 그 얘기 왜 또 꺼내. 아휴” 그러니깐 그거에 대한 많은 언론, 그 자신이 언론계에 있었으니깐 시달렸던 모양이야. “그런 얘긴 왜 또 꺼내? 왜 또 꺼내?” 그러셔.

-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좀 확인해야 할, 저기. 그래서 현민께 여쭙봤더니 아능 선생님께 가서 여쭙보면 잘 아실 거라고 그래서 뵈자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사양하시다가 “하, 참, 말 마 그때, 그 매일신문이라는 건 그냥 뭐 총독부 기관지니까, 그 말 맞아” 몇 등급이 있단 이 말이야. 말도 못 붙여 볼 사람, 꼭 필요하지만. 말 붙이면 거절할 사람, 또 가서 이런 걸 요청을 하면, 부탁을 드리면 ‘에이, 난 모르겠네. 당신네가 알아서 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알았네’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써서 보내주는 사람, 여러 계층이 있는데. 인촌은 쓰지도 않을 분이요, 써달라고 해도 안 써주실 분이요, 그러니까 그때 급하고 뭐 신문은 나가야되는데 매일매일 오더가 떨어진다는 거지. 누구 이름으로 받아내라, 누구 거 받아내라... 신문사에선 받아 낼 수가 없으니까 학예부 기자, 뭐 서너 명

인데, 그거뿐만 아니라, 사회부 기자 뭐 해가지고, 순전히 앉아서 그것만 썼다는 거야. 맨날 B29가 공습 온다고, 여기 폭격은 안했지만, B29 지나가면 공습경보 내려가지고, 말이지. 응? 다 옆드려 있어야 되고 말이지, 방공호 찾아가야 되고, 그런 판국에 무슨 신문 제작이고 뭐고 제대로 되겠나?

- 앉아 가지고서 전부 그런 거 대필해가지고 누가 썼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깐 개인 말을 하기가... 모르진 않으셨을 거야. 나는 안 썼고, 물론 자기는 안 썼고. 아까 말한 김모 씨라는 사람도 그중의 하나지, 그 사람이 전부 쓴 것도 아닐 거야. 난 알아. 그때 분위기를 조용만 선생을 통해 잘 들었거든. 그때 매일신문 안에 분위기를.

최남선, '자열서(自列書)', 자유신문 1949년 3월 10일자 2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반민(反民) 해당의 조건은 대강 이상과 같은 듯하나 남이 보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죄목이 있을지 모른다. 혹시 태평양전쟁 말기에 나의 명자(名字)를 도용한 위조 담화 내지 마음대로 변조 개작한 신문 원고 강연필기 중에 또 어떠한 것이 있을지 모르되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내가 질 수 없으며 ... (중략) ... 또 혹 전쟁말기의 모종 단체 참가 같은 것을 선전하는 이가 있으되 평생에 문화단체에 열명(列名)하기도 싫어함을 아는 이는 아는 바이며 다시 운위할 것 없는 일이다.”

임종국, '빼앗긴 시절의 이야기'(민족문제연구소 편, 2007년, 249쪽)의 기술.

“총독은 이름 있는 인사들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강요하면서 온갖 협박을 자행하였다. 협박에 굴하지 않으면 명의를 도용해 가면서 허위로 날조한 학병 권유문을 발표했다.”

도 피고의 주장처럼 “기사 조작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정황에 대한 이야기로서 개인의 생각을 나열한 것이며, 기사 조작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지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피고는 위 14건의 증언 등이 어떤 점에서 ‘기사 조작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정황에 대한 이야기’이며 ‘개인의 생각을 나열한 것이며’ ‘기사 조작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지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또 “매일신보 편집국장 정인익은 반민특위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예컨대 정인익은 언론인으로서 어떤 이념 하에 행동하였는지 신문하는 특위조사관에게 ‘민족영원불멸이라는 신념 하’에서 ‘동포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했다’고 반민특위 조사 때 밝혔으나 그가 해방 직전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조선언론보국회가 어떤 단체인지 살펴보면 그 말이 허위진술임은 자명하게 드러난다. 정인익은 반민특위 신문 당시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급급한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기사 조작의 근거로 예를 든 정인익에 대한 이야기는 신뢰하기 힘든 자료라고 할 것이다”고 했는데

조선언론보국회가 어떤 단체인지와 정인익의 반민특위 심문조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피고

는 조선언론보국회에 대한 자료를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으며 정인익의 반민특위 진술 요지와 취지는 “민족영원불멸이라는 신념 하에서 동포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려 했는데 시국이 악화되며 차차 나중에 가서 심하게 된 때부터 곤란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매일신보사 시대에 여전히 민족적 정신 하에 행동하였는가”는 심문에 정인익은

“본인 마음만큼은 여전히 민족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의 환경과 제 조건이 본인으로 하여금 의사대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당국의 지시대로 복종하였으니 그 자체가 벌써 반민 행위라고 자인하는 바이올시다”고 자백하고 있는데 피고는 무슨 이유로 “변명으로 일관해 신뢰하기 힘든 자료”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인익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아래의 관련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인익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관련 부분.

반민특위 조사기록, 정인익(鄭寅翼)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

작성일 4282년(1949) 8월 11일

(중략)

문 신문계에 투신한 동기 如何.

답 그 당시의 본인이 생각하기를 근경 속에 있는 민족을 구원할 책임을 느끼고 교육계에 종사코자 하였으나 본인 취미와 취직 조건이 신문사를 희망케 된 까닭입니다.

문 언론인으로서 어떠한 이념 하에 행동하였는가.

답 민족영원불멸이라는 신념 하 어떠한 難事, 어떠한 압박이 가하여 지더라도 민족정신만 보존한다면 반드시 조국광복의 날이 오리라는 망에서 동포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문 그 당시 그러한 신념 하에서 행동하기에는 곤란하였을 터인데.

답 그 당시 총독정치가 문화정치라 하여 언론계에 대하여 그렇게 압박이 심하지 않은 탓으로 前衛 기자회견 같은 것을 조직하여 강연 기타로 민족정신을 흥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차 나중에 가서 심하게 된 때부터 곤란하여졌습니다.

(중략)

문 전술 조선, 중외 양(兩) 일보사 근무 시에 양심적 가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가.

답 그 당시 본인은 민족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였으며 光州學生事件, 普天敎事件, 6·10萬歲事件, 제1차 共產黨事件, 高麗革命黨事件 같은 것은 본인이 주로 취급하여 왜 관헌에게 암암리 위협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매일신보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가.

답 사실이 있습니다. 단기 4262년(1929) 2월부터 同社 사회부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문 매일신보사에 何年 근무하였던가.

답 해방 전까지 전후 약 17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문 매일신보사 시대에 여전히 민족적 정신 하에 행동하였는가.

답 본인 마음만큼은 여전히 민족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의 환경과 제 조건이 본인으로 하여금 의사대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당국의 지시대로 복종하였으니 그 자체가 벌써 반민 행위라고 자인하는 바이올시다.

(하략)

반민특위 조사기록, 정인익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작성일 4282년(1949) 8월 12일

(중략)

문 총독부의 황민화정책의 가장 선봉적인 기관지 매신사의 편집국장에 취임하였을 시의 심경 如何.

답 한 말씀으로 말하자면 同夜가 번민이었으며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느끼면서도 다년의 습관과 생계상 문제가 그 직무를 맡아보게 된 것입니다.

문 그 당시의 매신지가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봤는가.

답 민족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가책을 안 받은 날이 없었습니다. 변명 같으나 오히려 매신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문 그러면 매신이 민족에게害는 될지언정 利는 못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러한 중책을 맡아 봤는가.

답 뜻있어도 나타내지 못하는 불구자 같은 심경 속에서 평범한 날을 보내게 되었을 뿐입니다.

문 그러한 생활이 결국 오늘의 반민자로서 신문을 받게 된 것 같은데 현재의 심경은 如何.

답 본인의 과거를 악몽과 같이 통감하고 있으며 신 국가에 처한 국민의 1인으로써 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이름아래 처단을 받게 된 것을 본인이 신생활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문 편집국장으로써 주로 어떠한 집무를 하였던가.

답 보통 편집국이란 신문 편집의 최고 행정이니만큼 본인의 집무도 그와 같이 규정된 것입니다.

문 집필하여 게재한 사실 如何.

답 본인은 사회부장 취임 이후부터 집필한 일이 없으며 더구나 편집국장이란 원칙으로 붓을 들 필요가 없으니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사회부장 취임 후 집필을 중지하였다함은 무슨 이유인가.

답 취재기자들이 갖고 오는 기사를 본인이 수정하는 일만 하여도 벅차고 또 당시의 본인 심경이 일종의 허무적 기분이 들어서 집필하여 발표하고 싶은 의사가 없었습니다.

문 매신사가 범했던 민족적 죄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답 본인 현재의 심경으로는 그 책임 추궁할 전에 본인의 과거에 맡은 편집국장으로써의 가책을 받기가 바쁩니다.

문 조선언론보국회에 관계한 사실 如何.

답 단기 4278년(1945) 5월에 당국에서 본인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언론보국회란 무엇이며 관계케 되었던 동기 如何.

답 소위 대동아전의 최고조에 달한 때니만큼 문화인의 단속을 목적으로 총력연맹이 당국과 짜서 설립케 된 것인데 회장이 최린(崔麟), 이사장이 경성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매신 편집국장이 사무국장이므로 본인이 자연 취임케 된 것입니다.

문 언론보국회에서 특기한 사건이 없는가.

답 전쟁 의식 양양을 목적으로 회원들이 강연하러 지방 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곳에 갔던 일이 없습니다.

문 신문받는 현재 심경 如何.

답 할 말이 없습니다.

右 본인에게 열람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자 정인익 印

4282년[1949] 8월 1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이병홍(李炳洪) 印

입회인 서기 서정욱 印

피고는 원고가 인용한 아래와 같은 백철 당시 매일신보 기자의 기록, 즉

“말이 특별지원이지 실지는 전부를 강제 동원한 것이다. 1943년 11월 19일부의 매일신보에 큰 타이틀로서 걸려 있는 제목에 ‘지원 않으면 비신민(非臣民)’이란 것이 험박하듯이 나와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일본 당국은 다시 소위 지도급의 인사들이란 것을 동원하여 학병 권유의 시국강연을 시켰다. 나중은 일본 동경까지 그 인사들이 파견되어 명치회관이라는 데서

학병 권유 강연들을 하는 식의 광극(狂劇)을 벌이기도 했다. …(중략)… 이 전쟁 말기에 학도병의 동원이 성화같이 재촉될 때의 그 가두의 풍경, 그것은 마치 어린 양떼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엾은 광경이었다. 이리 몰리고 저리 쫓기고 피할래야 피할 구석이 없는 것이 그 때 우리 젊은 학도가 당한 봉변이었다. 나는 북경에 있으면서 국내에서 오는 신문을 읽을 때마다 학도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들의 모양같이 눈앞에 클로즈업되었다. 그래도 이들은 황은에 감읍하고 있다고 신문기사는 써내고 있는 것이다.” (‘속<續> 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5년, 109~112쪽)

중에서 피고는 ‘일본 당국이 다시 소위 지도급의 인사들이란 것을 동원하여 학병 권유의 시국강연을 시켰다. 나중은 일본 동경까지 그 인사들이 파견되어 명치회관이라는 데서 학병권유 강연들을 하는 식의 광극(狂劇)을 벌이기도 했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이것은 당시 지도급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말하며, 그것은 분명한 ‘팩트’이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처럼 ‘지도급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이 글의 분명한 팩트’가 아니라 ‘지도급 인사들을 동원하여 광극(狂劇)을 벌인 것이 이 글의 팩트’입니다.

또 백철 기록의 핵심은

“말이 특별지원이지 실지는 전부를 강제 동원한 것이다. 일본 당국은 다시 소위 지도급의 인사들이란 것을 동원하여 학병 권유의 시국강연을 시켰다. 학도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들의 모양같이 눈앞에 클로즈업되었다. 그래도 이들은 황은에 감읍하고 있다고 신문기사는 써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인의 이해력일 것입니다.

조용만 당시 매일신보 기자의 기록에 대해 피고는 “조용만의 회고는 기사 조작과 관계없는 신문사의 풍경과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용만은 “그 당시의 매일신보 사원들은 그야말로 매신(賣身, 몸을 파는 사람 - 원고 주)해온 사람들이어서 어떻게 하루 신문지면을 만들어 채우면 그만이지 신문을 잘 만들어보겠다는 열의도, 정성도 없었다. 10시에 나와서 3시 30분까지 신문을 만들어내고 4시만 되면 모두들 나가버렸다. 대단히 편하고 힘 안 드는 직업이었다…(중략)…그때 우리들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아래 있어서 아무 희망이 없었다. 재주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해도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일본 사람 아래서 심부름이나 하는 차별대우를 받을 뿐이었다.” (‘경성야화’, 도서출판 창, 1992년, 212~213쪽)라고 기록하여 조선인 기자들의 뜻과는 달리 전쟁 선전선동물을 만들기에 광분하던 매일신보 내 조선인 기자들의 참담한 상황과 심정을 자조적 표현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도 검열 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총독부가 매일신보 등이 전쟁동원과 관련한 기사를 과장, 날조했다는 이유로 검열을 할 리가 없는 것”으로 단정 짓고, 정진석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여 “매신의 압수는 제작상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민간지의 필화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가 발간한 ‘조선출판경찰월보’를 보면 원고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원고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의 보도 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검열의 목적과 대상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확인한 결과 중일전쟁 이전부터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이 총독부 경무국으로부터 기사를 검열당하고 ‘치안방해’ 혐의로 차압, 삭제, 주의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7년 5월분에 대하여 매일신보가 치안방해로 1회 주의 처분을 받고 경성일보가 1회 삭제 처분을 받았으나 중일전쟁(1937년 7월 7일 일어난)이 개시된 7월분부터는 매일신보가 치안방해로 1회 차압, 2회 삭제, 1회 주의 처분을 받고, 경성일보가 삭제 1회 처분을 받는 등 ‘전쟁동원과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 총독부의 검열에 대한 처분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열 현상은 중일전쟁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937년 8월분에 대해서도 매일신보가 차압 1회, 삭제 2회 처분되었으며, 1938년 2월분에 대해서도 매일신보가 3회 삭제 처분되었다. 이어 1938년 7월분에 대해서도 매일신보가 3회 삭제, 1회 주의 처분되었는데, 그중 1938. 7. 30.자로 ‘천진역(天津驛) 일대를 사수(死守)’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응소(應召) 날짜가 ‘차지사항(差止事項) 저촉’에 해당되어 삭제 처분되었다. 1938년 8월분에 대해서는 매일신보가 치안방해로 1회 차압, 2회 삭제처분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9월분에서는 경성일보가 1938. 9. 13.자로 ‘**세국민계급(細窮民階級)에 대한 기사** 중 중일전쟁의 최종(最中)에서 민중에 불안한 생각을 포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처분 되었고**, 매일신보가 9. 2.자로 ‘장로회 고등과장회의에서 협의’란 기사가 **치안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삭제 처분되었다**. 1938년 10월분에 대해서는 매일신보가 치안방해 기사로 1회 삭제 처분되었고, 경성일보가 1회 삭제 처분되었다. 또한 경성일보가 11월분에서 11. 10.자로 삭제 처분되었는데, 이유는 ‘군산(群山)의 용사전사(勇士戰死)’라는 제하의 기사 중에서 응소일이 명기되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응소일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였던 “총독부가 매일신보 등이 전쟁 동원과 관련한 기사를 과장, 날조했다는 이유로 검열을 할 리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은 총독부 경무국의 ‘조선출판경찰월보’를 살펴볼 때 이유가 없다. 특히 원고의 주장처럼 “매신의 압수는 제작상의 실수나 부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치안방해’ 및 ‘중일전쟁의 최종(最中)에서 민중의 불안한 생각을 포지’한 경우 차압 및 삭제의 대상이 되었음을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

피고는 “총독부가 매일신보 등이 전쟁 동원과 관련한 기사를 과장, 날조했다는 이유로 검열을 할 리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은 총독부 경무국의 ‘조선출판경찰월보’를 살펴볼 때 이유

가 없다“고 했으나 (아래)와 같이 ‘치안방해’ 혐의로 차압, 삭제, 주의처분 등을 받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내용은 제작상의 부주의, 차지사항(일종의 엠바고)을 어긴 것과 부대 명, 부대장 이름, 응소일 등 사소한 군사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경성일보 1938.9.13. 자 ‘세궁민계급(細窮民階級)’에 대한 기사 1건과 매일신보 1938.9.2. 자 ‘장로회 고등과장회의에서 협의’란 기사 1건 등 두 건이 삭제 처분됐으나 제목으로 보아 별달리 의미가 있는 기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는 “총독부 경무국의 ‘조선출판경찰월보’를 살펴볼 때 ‘원고의 지적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입니다.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가 삭제, 보류된 것과 동아, 조선일보가 검열 당해 삭제, 압수, 무기정간까지 당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는 검열당한 것이 아니라 총독부의 감독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피고가 두 건의 사소한 사례를 들어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를 높이 평가하여 두둔하려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아래)

- * 조선출판경찰월보 제105호(1937년 5월분)
 - 경성일보 1937년 5월 5일자 = 석간 천람(天覽) 마술(馬術)의 기사 중 어애마(御愛馬) ‘화초(華初)’를 ‘백설(白雪)’로 오기해 근정(謹訂) 처분
- * 조선출판경찰월보 제107호(1937년 7월분)
 - 매일신보 1937년 7월 14일자 ‘전승기원과 축하회 준비’의 ‘전승’의 문자(삭제)
 - 매일신보 1937년 7월 15일자 ‘신궁대전(神宮大前)의 기원’이라는 제목 기사 중 ‘20사단 축하 만세’의 문자(삭제)
 - 경성일보 1937년 7월 15일자 = 조선신궁 대 광장에서 무운장구의 기원제, 대야연(大野宴) 관민 2천 만세를 고창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제20사단 만세’라고 한 것은 조선군의 출동을 추지(推知)할 수 있어 이에 삭제 처분
- * 조선출판경찰월보 제108호(1937년 8월분)
 - 매일신보 1937년 8월 7일자 = ‘장사(將士) 위문과 남천예기(南川藝妓)’라는 제목(삭제)
- * 조선경찰월보 제114호(1938년 2월분)
 - 매일신보 1938년 2월 4일자 = 국민정신총동원 주간행사의 기사 중 ‘천안(川岸)’의 자구

(삭제)

- 매일신보 1938년 2월 9일자 = 도의선양정신의 양양 (3) 도의 중심의 장(章) (삭제)
- 매일신보 1938년 2월 24일자 = '천안병단장(川岸兵團長)' 자구(삭제)
- 경성일보 1938년 2월 20일자 = 국기(國旗) 중에 기재된 '지금은 비상시 총동원 선전 백(百) 보다 실력 하나'의 자구(삭제)
- 경성일보 1938년 2월 26일자 = 3면 본란 4단짜 기사 중 '이 상태를 お隣れみ'는 'お憐れみ'의 오식(誤)이므로 이에 근정(謹訂) 처분

* 조선경찰월보 제119호(1938년 7월분)

- 매일신보 1938년 7월 2일자 = '소련 게베우 대장의 명'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아직 기사 차지(差止) 중이므로 삭제 처분
- 매일신보 1938년 7월 9일자 = '천안(川岸) 장군 개선 환영'이라는 제목 표제 중 '개선'의 자구(삭제)
- 매일신보 1938년 7월 23일자 = 황실 기사의 게재 감소(簡所) 부적절(주의)
- 매일신보 1938년 7월 30일자 = '과병(寡兵)을 써서 전투(善鬪)해 전진역 일대를 사수'라는 제목의 기사 중 '7월 14일'은 응소월일이므로 차지(差止)사항에 저촉되므로 삭제 처분
- 경성일보 1938년 7월 4일자 = 입영인사 광고 중 '평양 제등(齊藤)부대 평암대(平岩隊)'라는 자구는 평시편제와 칭호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유수대(留守隊)인 것이 판명되면 본대의 출동 중임을 찰지(察知)할 수 있으므로 이에 삭제 처분

* 조선출판경찰월보 제121호(1938년 9월분)

- 매일신보 1938년 9월 3일자 = 석간 제2판 '진로가 흔들리는 장로회 고등과장회의에서 협의'라는 제목의 기사는 치안방해에 해당(삭제)
- 경성일보 1938년 9월 14일자 = 석간 시내판 '세민(細民)계급의 피를 빠는 중앙 무진(無盡)에 메스'라는 제목 표제 중 '세민계급의 피를 빠는'이라는 것과 내용 중 '가입자인 세민계급의 공상을 틈타고, 피해액은 50만원을 돌파하는 모양, 또한 연말 등의 세민계급이 금융에 압박되는 때 그 공상을 틈타 어음할인 등 부정사실이 있는 것을 탐지' 운운의 기사는 사변한 가운데 있는 민중에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해 총후의 일치를 문란시키는 온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됨(삭제)
- 경성일보 1938년 9월 24일자 = 석간 시내판 '중대법인 체포 함남감산군에서'의 기사는 차지사항에 저촉됨(삭제)

* 조선출판경찰월보 제122호(1938년 10월분)

- 매일신보 1938년 10월 4일자 = 제1면 '반도총후 열성에 감사'라는 제목의 기사 중 '반도관 계 출정부대 운운'의 '출정'의 자구(삭제)
- 경성일보 1938년 10월 6일자 = 남선판 '첫 인사 제일선의 암절부대장으로부터 대구부운에게 진중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향토' '연대장' '군기' 그리고 '전 연대장'의 자구는 표제와 관련하여 대구의 부대는 연대라는 것을 추지(推知)할 수 있고 또 암절부대도 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음(삭제)
- 경성일보 1938년 10월 27일자 = 석간 제2면 '고 복건궁박의왕 전하...' 기사 중 '고 왕비사자 어부궁박공왕 전하'는 '고 왕비사자 어부궁박공왕 양 전하'로서 '양'자를 누락(근정)

* 조선출판경찰월보 제123호(1938년 11월분)

- 경성일보 1938년 11월 11일자 = 석간 지방판 '군산의 용사 전사'라는 제목의 기사 중 '7월 1일 응소'의 자구는 응소월일을 명기했음(삭제)

다. 동아,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동아, 조선 폐간 후 매일신보에 취직한 문제

□ 피고의 주장

물론 원고의 주장처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가 매일신보에 들어갔다고 해서 총독부 기관지라는 매일신보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피고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재직 때처럼'이라 하였지만 사실상 신문기자라면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은 신문사가 다르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신문기자도 당시는 일종의 셸러리맨으로서 편집국에서 지시한 대상을 취재하고 기사 작성하는 것이 본업이었다. 원고는 "이들이 매일신보에 입사한 후에도 종전의 동아일보 등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기사를 취재하고 신문을 제작했을 리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아무 객관적 근거 없는 '믿음' 내지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써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매일신보 정인익 편집국장 말을 토대로 '자신이 날조자였음을 자백'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정인익은 사회부장 시기(1929~1938년까지)에는 사회부장으로 사회부 기자의 글을 교정교열차원의 수정은 하였으나 편집국장이 된 후에는 모든 데스크의 글을 수정하는 업무가 아니나 신문의 논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일 이었고, '수정'은 각 부 데스크의 업무였다. 매일신보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낸 정인익이 '자백'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3. 가. (2)'의 피고 주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반론>

피고는 "사실상 신문기자라면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은 신문사가 다르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원고 지적의 요지는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 등의 고백처럼 일선 기자들이 쓴 기사가 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 과정을 거치며 총독부의 방침에 맞춰 변질돼 게재됐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또 "매일신보 정인익 편집국장 말을 토대로 '자신이 날조자였음을 자백'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했으나 원고의 지적은 정인익 편집국장이 모든 기사를 왜곡, 과장, 날조했다는 것이 아니고 총독부의 명령을 받은 그의 지시로 데스크 과정에서 왜곡, 과장, 날조됐다는 것입니다.

라. ‘기사조작설의 실체’에 대하여

(1) 기사조작설 내지 대필설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일신보 등 기사가 조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대필되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온 사실이고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매일신보 등 기사가 조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대필되었다는 사실”을 원고와 같은 단순한 논리로 인정한 바 없으며, 또한 이러한 점이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온 사실이고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원고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김성수와 관련하여 “매일신보 등 기사가 조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대필되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온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 분석이 없었던 사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발언이라 할 것이다. 이에 최초로 장신의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김성수와 관련한 조작 및 도용, 대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장신의 연구논문에 대하여 반박하는 학문적 연구논문이 나오지 않는 한 장신의 논문이 김성수의 조작 및 도용, 대필설에 대한 비판을 아직까지 유효한 정설로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여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 당대의 움직임을 보도한 1차적인 원 자료를 보면서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분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성수 측이 일방적으로 기술한 평전과 관계자의 회고와 이야기를 근거로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매일신보 원문은 판독하기 힘들었고 또 경성일보가 영인되지 않았던 상황도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규명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원고는 시종일관 이들 매일신보나 경성일보 등 1차 사료에 대하여 조작되었거나 대필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회고담이나 이야기를 객관적 증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객관적 증언이 아님을 1차 사료와 장신의 논문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토론하고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지)으로 결코 객관성이 결여된 논문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만약 이 논문을 주관적인 추측이나 추론으로 치부하고,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김성수 관련 회고담이나 이야기만 객관적인 증언으로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성수의 글에 대하여 조작, 대필설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론>

피고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처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나 조직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즉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명목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행하고 실무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 처리 권고 기획단’ 소속의 공무원이 소송 진행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장신의 연구논문에 대하여 반박하는 학문적 연구논문이

나오지 않는 한 장신의 논문이 김성수의 조작 및 도용, 대필설에 대한 비판을 아직까지 유효한 정설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장신’ 외에도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처럼 같은 성향의 사람들과는 다른, 명망 있는 복수의 역사학자들에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그 결론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원고의 반론을 의뢰, 제3자적 시각의 의견을 청취하는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가다운 대응일 것입니다.

“원고는 시종일관 이들 매일신보나 경성일보 등 1차 사료에 대하여 조작되었거나 대필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회고담이나 이야기를 객관적 증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객관적 증언이 아님을 1차 사료와 장신의 논문을 통하여 증명하였다”는 피고, 즉 국가(대한민국)의 결론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무게에 비춰 너무나 어설피고 단편적인 대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수기’와 ‘담(談)’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정진석 교수의 글을 들어 “그 글 어디에도 매일신보 등에 ‘수기’ 또는 ‘담’으로 게재 된 기사가 그 기사의 명의자를 반드시 접촉하여 쓴 것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글의 요지는 원고 측의 말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정진석의 글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즉 안재홍은 글쓰기를 회피한데 반해 여운형은 직접 썼다는 것은 수기와 담을 구별하는데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피고 측이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은 수기와 담이 어떻게 해서 활자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수기는 말 그대로 손으로 써주었다는 것이고, 담은 기자와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진석은 ‘담’은 회피의 측면인 반면에 수기는 “직접 썼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진석은 장지연이 친일파라면 직접 써주기까지 한 여운형도 친일파여야 한다면서 친일행위자 선정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반민규명위는 여운형의 행위도 조작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여운형이 선정 대상자에서 빠진 것은 정진석 교수의 오해(형평성)와 달리 1944년에 건국동맹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된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조만식 관련 기사에서 “이 기사가 조만식 선생을 접촉하여 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 것 역시 검증을 필요로 한다. 사실상 장신의 논문이 나오기 전에 모든 학자들이 김성수와 관련하여 ‘대필설’이나 ‘도용설’에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조만식의 경우도 확인할 수 없지만 김성수의 케이스로 인하여 ‘확신’을 보류해야 할 단계이며,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드러난 것으로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운형 뿐 만 아니라 안재홍이나 조만식 등과 같은 당시 저명한 독립운동가나 민족주의자 중 일부가 일제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러한 설과 김성수의 설은 그 경우가 다르다고 할 것이

다. 김성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친일행위가 이들 여운형과 안재홍 및 조만식 등과 단순히 비교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양과 질도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경성일보 김달수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 매일신보 등 모든 신문에 대하여 “기사가 되어 나온 것은 거의 전부가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김성수의 명의를 확인되는 구체적인 보도내용을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반론>

아래와 같은 피고의 답변은 대단히 감정적인 단선적 주장입니다.

“반민규명위는 여운형의 행위도 조작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조만식 관련 기사에서 ‘이 기사가 조만식 선생을 접촉하여 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 것 역시 검증을 필요로 한다.”

“조만식의 경우도 확답할 수 없지만 김성수의 케이스로 인하여 ‘확신’을 보류해야 할 단계이며,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드러난 것으로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조만식, 여운형의 글도 조작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검증을 필요로 한다’ ‘김성수의 케이스로 인하여 확신을 보류해야 할 단계’라는 피고의 답변은 총독부의 기관지를 근거로 김 보전 교장에게 ‘친일’의 혐의를 씌우기 위한 궁색한 설명입니다.

피고는 “분명한 것은 여운형 뿐 만 아니라 안재홍이나 조만식 등과 같은 당시 저명한 독립운동가나 민족주의자 중 일부가 일제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러한 설과 김성수의 설은 그 경우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김성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친일행위가 이들 여운형과 안재홍 및 조만식 등과 단순히 비교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양과 질도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며 “따라서 경성일보 김달수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 매일신보 등 모든 신문에 대하여 ‘기사가 되어 나온 것은 거의 전부가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김성수의 명의를 확인되는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학병 대상자가 있는 ‘보전의 교장’과 당시 별다른 직책이 없었던, ‘자연인’ 조만식 여운형 안재홍 선생을 그야말로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보전 교장 뿐 아니라 세브란스 교장과 연희전문 부 교장의 명의를 은거해 있던 ‘자연인’ 조만식 여운형 안재홍 선생과 같은 분들 보다 많이 도용되고, 동원됐던 것은 학병 대상자가 있는 학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또 위 답변에서 ‘김성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친일행위’ ‘신문지상에서

김성수의 명의를 확인되는 구체적 보도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는 피고가 '사실'임을 입증하지도 못한 총독부 기관지의 왜곡, 과장, 날조된 기사를 무턱대고 '확인되는 구체적 보도 내용'이라고 전제하는 것으로 비논리적입니다.

총독부 기관지에 게재된 김 보전 교장 명의의 기사가 '사실'인가, '왜곡, 과장, 날조된 것인가'가 이 소송의 쟁점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지적을 부인만 했을 뿐 총독부 기관지에 게재된 김 보전 교장 명의의 기사가 '사실'임을 명백한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총독부 기관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총독부 기관지에 게재된 '김 보전 교장'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작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독부 기관지의 실체에 대해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이던 정인익은 반민특위에서

문 그 당시의 '매신지(每新紙)'가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봤는가.
답 민족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가책을 안 받은 날이 없었습니다. 변명 같으나 오히려 '매신(每新)'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며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던 매일신보의 죄상에 대해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중요한 1차 사료다'는 기본적인 이야기 하나 만을 내세워 맹신하는 비역사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의 논리대로 라면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는 우리의 역사 교과서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3) 정진석 교수 글의 요지와 의미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에 대하여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며, 무턱대고 신뢰성이 있는 중요한 1차 사료라는 의미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도 '무턱대고' 신뢰성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단지 이들 기관지가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1차 사료'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매일신보 등을 통하여 1940년 이후 일제식민통치와 조선인 사회의 현황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이들 신문이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사료 비판은 신문이나 증언이나 모두 필수인 검증과정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기관지라는 매일신보나 경성일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지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반론>

피고는 “피고도 ‘우택대로’ 신뢰성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라고 하지만 피고는 총독부 기관지에 게재된 김 보전 교장 명의의 기사 전부를 사실로 전제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피고는 이어 “단지 이들 기관지가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1차 사료’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료 비판은 신문이나 증언이나 모두 필수인 검증과정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라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총독부 기관지도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 ‘1차 사료’다. 그러나 신문이나 증언이나 모두 사료 비판의 검증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피고는 총독부 기관지에 게재된 김 보전 교장 명의의 기사 전부를 사실로 전제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결론을 내렸을 뿐 총독부 기관지에 게재된 김 보전 교장 명의의 기사 하나하나에 대해 ‘사실’ 여부를 엄밀히 검증하는 사료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피고가 추가 제출한 손종영, 손점용, 허호 글의 문제.

(피고 준비서면 113~123쪽)

<반론>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대응한 증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손종영(피고 준비서면 88~89쪽, 을제42호증), 손점용(피고 준비서면 117~122쪽, 을제48호증), 허호(피고 준비서면 122~122쪽, 을제49호증)의 글을 추가로 인용하며 김상훈의 글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종영, 손점용, 허호의 글 어디에도 김 보전 교장을 지칭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1. 손종영(‘학병’, 북코리아, 2008)의 글에 대하여

“지식인이라는 저명한 조선인들이 창씨를 장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반 조선인은 조용히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민족지도자라니! 반세기가 지난 지금 생각해 봐도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병령의 지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때 내가

존경하던 조선인 실업가, 소설가, 그 밖에 조선인의 존경을 받던 저명한 지도자들이 나서서, 창씨도 하고 학병도 지원하라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권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원망했다. 지금 그 인사들이 거의 작고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 일은 용서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금 과장하면 그들은 우리 동창과 동포를 고문하고 죽인 조선 형사나 순경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피고는 손중영의 위 책 중 극히 일부를 거두절미하고 인용, 손중영이 ‘국민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원망했다’ ‘나는 아직도 그 일은 용서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금 과장하면 그들은 우리 동창과 동포를 고문하고 죽인 조선 형사나 순경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서서, 창씨도 하고 학병도 지원하라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권했다’는 ‘조선인의 존경을 받던 저명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 마치 김 보전 교장을 지칭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책 중 학병 관련 부분을 모두 발췌하면 아래와 같은데 손중영은 ‘최모씨, 이모씨, 여모씨 처럼’ 이라고 하여 사례로 들고 있고 김 보전 교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54쪽) 입대 몇 해 전에 우리는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고쳐야 한다는 창씨령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창성령(創姓令)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 주신 이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의 성을 바꾸는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일본식 성씨 하고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이 맞지 않아서 모두 바꾼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같은 서민은 창씨령을 반대할 힘이 없었지만, 소수의 유력한 조선인은 창씨하지 않고도 견뎠다. 그들 중에는 친일파가 꽤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뇌물을 많이 바쳤을 것이지만, 아마도 무덤 안에서 화가 나서 움직이는 조상 생각을 조금 했으리라고 믿는다.

(58쪽) 지식인이라는 저명한 조선인들이 창씨를 장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반 조선인은 조용히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민족지도자라니! 반세기가 지난 지금 생각해 봐도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병령의 지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때 내가 존경하던 조선인 실업가, 소설가, 그 밖에 온 조선인의 존경을 받던 저명한 지도자들이 나서서, 창씨도 하고 학병도 지원하라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권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원망했다. 지금 그 인사들이 거의 작고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 일은 용서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금 과장하면 그들은 우리 동창과 동포를 고문하고 죽인 조선 형사나 순경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피고 인용 부분)** 이광수씨가 그런 죄상의 자책감으로 방황하다가 북한에 가서 고생 끝에 추하게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몰라도 해방직후에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반감이 매우 강했고, 나도 저절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114쪽) 세상일을 잘 모르시는 어머니는 남이 모두 지원하면 나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그것이 어머니 처세관의 거의 전부였다. 그런 뜻으로 나를 기르시고 교육을 해오셨다. 남이 돈을 내면 뒤떨어지지 않게 내시고, 남이 양복을 입으면 나도 꼭 양복을 입어야 하고, 남의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면 어머니도 꼭 가셨다. 나도 이런 처세관을 중시하게 되었고 당

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군중심리가 아니지만 나는 학생 전반의 동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조선을 위해서 지원한 것이 아닌가? 최모씨, 이모씨, 여모씨 처럼 과거에 일제와 맹렬히 싸워오던 선배들이, “백의민족을 위해서 지원하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들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대략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다. 첫째로 고이소 총독의 말처럼, 학병지원자가 적으면 우리 민족이 장래에 막대한 고통을 겪고 힘겨운 말로를 밟을 것이니 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존속에 이바지하라는 것이다. 나는 여씨가 이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씨가 경성일보에 한번 낸 기사를 읽고 그렇게 분류했고, 지원을 한다면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제가 우리 민생을 계획적으로 향상시키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최근에 안 일이지만, 일본이 1945년 8월 18일에 조선의 지식층을 모두 학살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서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참 엄청난 일이다. 그러니 이것은 앞의 제일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도 남는다.

둘째 의견은 장차 일본이 승리하면 조선 민족에 대한 대우가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이 전쟁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조선인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향상시켜 우리의 생명을 일본제국주의에 부합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적극적 협력주의였다. 사실 고이소 총독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때의 유일한 조선 역사가라고 존경받던 최모씨나 뛰어난 애국 작가로 온 백성의 사랑을 받던 이모씨는 두 번째 입장을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이 견해를 지지할 수가 없었다.

‘이 책의 개요’에서 손종영은 아래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5~6쪽) 나는 1941년에 경성고등상업학교(현재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하였고, 1년간 휴학을 하는 바람에 1944년에 학병(學兵)으로 일본군에 끌려갔다. 그 학교 재학생 약 20명이 학병 해당자였는데, 학병을 지원하지 않으면 일본도(日本刀)로 죽이겠다는 위협에 이기지 못해 모두 지원서에 서명했다.

1944년 1월에 일본 기타 쿠슈(復仇洲) 야하다 제철소 방위부대에 편입되어 학병생활을 시작했다. 마음 좁은 일본의 무지한 병사들한테 많이 맞고, 싸우다 몰매까지 맞았다. 그러다 대대장의 특별한 고려로 감중 간부후보생이 되어 지바 고사포학교에서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졸업하자, 원자탄이 투하되어 제대했다. 중대장, 대대장의 후의로 일본군 소위까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학병과 그 후에 징집된 사병들보다 1년 반을 더 훈련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1945년 9월 말에 그 지긋지긋한 일본 군대에서 제대하여 귀국했다.

귀국했더니 고향인 강원도 양구가 이북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놀라고 낙심했다. 억지로 38선을 넘어서 귀가했는데, 얼마 후에 면사무소에서 문등광산의 반장으로 일하던 면사무소의 기록과장 밑에서 일하라는 명령 같은 것을 받고, 부랴부랴 이남으로 고생을 하면서 도망해 내려받기왔다.

이남으로 와서 미군정 춘성군수의 통역을 1년 하다가,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을 보고 그 일이

싫어져서, 강원고등중학교의 영어교사로 부임했다. 그 일은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어서,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1948년 그 해 봄에 기적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우연히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서 미국에 왔다. 미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경험을 많이 하고, 미국도 인간사회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3년 공부한 후에, 또 우연히 미 국방외국어대학의 한국어교수로 채용되어 45년 동안 그 곳에서 일했다.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과장으로 거의 40년 그리고 연구평가부장으로 5년 동안 일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당시 노태우 대통령)가 주는 국민포장도 받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한테서 감사장도 받았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학병 때의 일이 자주 머리에 떠올라 기어코 이 책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책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수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손점용의 글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 문지사, 2003) 에 대하여

피고는 손점용의 글 중 “징병제도로 나이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을 끌어내던 일제는 이번에는 대학교,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젊은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를 꾸며냈다. 총독부는 먼저 경성 공설운동장에 3만 명의 학도와 조선인 시민들을 모아 ‘대학 전문학도 임전경의대회’를 벌이더니 이번에도 신문, 방송 선전에 일본 당국자를 쫓겨두고 조선인 지도자들을 표면에 내세웠다. 어용신문인 경성일보, 매일신보는 연이어 그들의 설교를 대서특필했다”(127~128쪽)는 부분을 인용, ‘표면에 내세운 조선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김 보전 교장을 두고 한 말처럼 갔다 붙이고 있으나 손점용은 그 책에서 오히려 인촌 김성수 선생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점용의 위 책 (246~248쪽)

17. 민족의 신문 ‘동아일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아직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아일보는 1920년에 창간되었으므로 이것이 1930년대 말에야 출현한 대동아 공영권의 사상을 반영한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 공동체의 개념은 일찍이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이 활동하던 1890년대부터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힘들다. 어찌되었거나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국제적인 개념을 신문의 이름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시대를 앞서 본 혜안이 아닐 수 없다. 얼핏 대동아 공영권의 개념을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신문이 주요 언론사로 활동한다는 것은 역사에 관한한 자기 비하에 빠져 자학사관을 강요당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허허허!”

김성수(金性洙) 선생을 비롯하여 동아일보로서 일제와 싸운 선열들의 영혼이 통곡할 소리를 감히 지껄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일제에 먹힌 조국의 산하에서 ‘우리는 일본의 조선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조선, 세계의 조선이다’는 기개를 내건 신문의 제호인데, 그 속이 좁고 무지한 사기꾼 작가의 무리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 참 기가 찰 일이다. 민족의 신문 동아일보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7월 민족의 지도자 김성수를 중심으로 민간신문 발기운동을 벌려 1920년 4월 다블로이트 배대판 4면으로 창간했다. 창간호를 낸지 불과 보름 만에 신문의 발매가 금지되는 수난을 겪었다. …(중략)… 지난 26년 3.1절 기념사설에서 ‘조선의 농민에게’로 일제를 규탄하다가 다시 무기정간이 되면서 송진우(宋鎭宇) 주필 등이 모진 옥고를 치렀다. 동아일보의 인기를 고려한 일제가 한 달 반 만에 정간을 푼 지 4년만인 30년 창간 10주년 기념호에서 미국의 네이션 잡지 주필의 축사를 실었다가 3차로 무기정간을 당했다. 1936년 8월 29일호에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가 달리는 사진에서 가슴의 일본기를 지워버리고 게재한 사건으로 4차 무기정간을 당했다. 잔뜩 독이 오른 일제 조선총독부 경찰은 신문과 함께 발행되던 ‘신동아’, ‘신가정’ 두 월간 잡지까지 폐간시켜 버렸다. 이때 일제의 허가증을 가지고 약방과 한약방을 하던 우리 아버지는 담당 일본인 경찰관의 압력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족 신문은 구독하지 못하고 일제의 기관지인 경성일보(일어판, 내가 읽고), 매일신보(조선어판)만 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월간 신동아를 정기 구독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 보게 되었다. 37년 6월에 겨우 속간이 되었으나 때마침 중국 침략 전쟁도 전사자만 늘어나면서 그 넓은 중국의 일부만 점거하는데 그치고 미국, 영국 등의 압박에 허덕이던 일제 총독부는 40년 8월 동아일보를 폐간시켜 버렸다. 탄생한 지 20년 동안 판매금지 63회, 신문 압수 489회, 기사 삭제 명령 2423회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원들이 교도소를 들락거린 민족의 신문 동아일보가 아니었던가! 참고로 해방과 더불어 복간한 동아일보는 48년 북조선 공산당 비밀 게릴라가 편집국과 인쇄공장에 방화하여 소실되고 6.25때 부산에서 속간했다가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서 오식사건으로 정간을 당하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다.

만약 동아일보가 이등박문이 살아 있을 때 있었다면 안중근 의사의 손으로 그 자의 가슴이 박살이 났을 때 동아일보는 ‘통쾌하다! 장하다! 안 의사여!’ 하는 사설이라도 게재하여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서울에 진주해 있던 일본군의 습격을 받았을 법한 신문이었다.

9. 민족신문 폐간(73~74쪽)

…(전략)… 아버지가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을 하고 있어 경찰서 위생계의 담당 형사가 매일신보를 보라고 압박을 가해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중략)… 그런데 두 신문이 사사건건 총독정치를 비판하여 총독부 경찰의 검열 당국과 신경전을 벌여 왔다. 더욱이 베를린 올림픽 때는 동아일보의 일장기 사진 말소 사건이란 것이 일어났는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조선인 선수 손기정(孫基禎)이 1등, 남승용(南昇龍)이 3등을 하니 일본은 떨어뜨린 표정으로 ‘대일본제국 만세’를 부르며 축하를 들었다. 그러나 두 선수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동아일보의 편집진은 골인하는 손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끊어서 지워버린 사진을 신문에 내걸었던 거야…(중략)… 두 민족지가

한꺼번에 이 땅에서 사라지니 남은 것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유일한 조선어 신문 매일신보 뿐으로 그것도 신문이라고 구독자가 몰려 총독부는 일석이조의 횡재를 한 셈이 되었다. 동아일보가 당시 얼마나 민족의 사랑을 받았는가는 조선총독부 시정보고서 제16절 ‘신문 및 잡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동아일보 | 대정(大正) 9년 창간되었음. 대정 10년 주식회사 조직이 되다. 창간 이래 갖가지 고난 박해를 무릅쓰고 조선 민중을 위해 만장의 기염을 토하고 싸우니 전 조선의 인기가 비등함에 이르러 그의 진가를 발휘하여 오늘의 대성을 이루었음.

11. 신문 같지 않은 신문(76~78쪽)

당시 하루에 8면, 어쩌다가 12면 짜리가 나오고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부터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천황폐하 아니면 대일본 황군의 전쟁 소식, 총독부 산하 관공서가 백성들을 쥐어짜는 내용으로 꽉 차 있었다. 심지어 한두 가지 연재되는 소설까지 모두 거룩한 전쟁을 밀고 나가는 백성들의 열성을 그려내는 내용이라 그것을 무슨 신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한낱 관보에 지나지 않는 어용신문이라도 안 보면 세상에서 뒤떨어지니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은 구독할 수밖에 없었다…(하략)…

12. 끌려가는 지원병 (78~80쪽)

…(전략)… 거기다 엇그제 처음으로 지원병 나간 사람들 중에 첫 전사자가 생기자 총독부는 그를 군신(軍神)이라 부르며 ‘장렬히 전사한 용사 이인석 상등병’을 소재로 영화, 연극을 꾸며서 각 기관 학교를 돌며 상영하기도 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 영화를 보았는데, 이군의 어머니가 나와서 “내 자식을 나라를 위해 바친 이상 아들의 죽음에도 나는 슬프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등 쇼 연출이 만점이었다. 하지만 전쟁 후 신문을 보니 그 어머니는 당시 ‘아이고! 아이고!’를 연발하며 슬퍼했지만 귀신 잡는 일제의 하수인들은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감쪽같은 쇼를 연출케 했었다고 한다. …(하략)…

17. 지원병제도(124~127쪽)

…(전략)…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녀석의 잔꾀인지 이름 있는 조선 사람을 내세워서 감사, 감격의 뜻을 신문에 내걸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윤치호, 한상용, 박택상 등 모두 창씨개명의 압력을 잘도 피했던 인물들을 시켜 신문에 감격하는 담화를 발표시켰다. …(중략)… 일제는 유명한 조선 사람을 동원한 선전에 맛을 들여 조선 사람 문화인들을 못 살게 굴어서 신문 지면에 작품으로 내세웠다. 김안서, 장혁주, 춘원 이광수 등의 시인, 소설가의 이름으로 ‘아! 성장 야마모토 원수여! 역사에 불멸할 일순간을 참배하고’ ‘대동아 전쟁 거룩한 전쟁에 식량은 우리가 도맡아 대자’ ‘조선의 학도들이여! 성은에 감사하여 모두 나아가자’는 선전물을 실었다. 당시 ‘눈물겨운 사랑’이란 작품으로 인기를 얻었던 방인근도 ‘문화인들도 감격의 기쁨’이란 글로 일제의 공작에 굴복했다. …(하략)…

20. 애국투사들의 한(178~179쪽)

...(전략)... 당시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군사령부는 그들이 저지른 죄 값을 우려해서 미군이 상륙하기 전이라도 정권을 조선인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민족적 지도자 송진우, 김준연 등 착한 분들은 인수하기를 거부하고 공산당에 가깝던 여운형 등은 거기에 응하려던 참이었는데, 성급한 공산당의 마수에 걸려 놀랍게도 국민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조선인민공화국'이란 간판을 걸었다. 깜짝 놀란 연합군 총사령부에서는 그런 사정을 보고해 온 총독부에 비밀 지령을 내려 우선 이양했던 치안 유지권을 회수했다. 공산당을 싫어한 미군은 9월 9일 인천에 상륙하는 미군을 환영 나온 민중들까지 일제 경찰을 시켜서 강제 해산을 시켰다. 당시 미군 선발대장으로 상륙한 해리슨 준장은 인천 부두에 모여든 시민들이 '환영 주한 미군, 경축 연합군 승리'라고 쓴 플래카드가 높이 걸리자, 그마저 일제 경찰의 구둣발로 짓밟아 버렸다. 일본인들의 잔꾀도 한몫 거들었겠지만 선수를 쳐서 남조선의 공산화를 꾀한 조선공산당, 그리고 그들과 보조를 맞춰 등장한 여운형 같은 회색분자, 그리고 공산당이 설치자 뒤로 물러앉아서 내 몸 하나만 도사리고 있던 우익 민족진영 인사들 때문에 미군은 적국인 일본군과 총독부를 오히려 신뢰하게 된 것이다. 다음날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는 항복 조인식이 열렸다. 연합군측은 미 육군 24군단 사령관 및 막료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 및 막료들이, 일본 측에서는 조선총독 정무총감, 각 국장, 조선군관구 사령관, 진해 해군진수부 사령관과 그 막료들이 참석했다. 미군이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나 한국광복군 사령관 아니면 그때 막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대표라도 참관인으로서 참석시켜 주었더라면, 우리 국민의 체면이 섰을 텐데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나 24군단장 하지 중장 같은 위인들은 너무도 정치 감각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어서 우리 애국자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 5년 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들은 '미군이 한국을 철수할 때 그들의 무기, 장비를 조금이라도 남겨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지성인들의 원망을 샀다. 또 우리 역사가들도 당시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한다.

“만약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한국광복군을 중하게 썼더라면 미군 영군의 희생자를 조금이라도 줄였을 것이고 항복 조인식에도 한국 측 대표들을 당당하게 그 자리에 입회시켜 주었더라면 전쟁 후 2개월 동안 당시의 돈으로 약 1백억엔(지금의 10조원)의 재산이 일본에 반출되지 않았을 것이고 공산당 세력이 국내에 널리 퍼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13. 민족 신문의 수난 (375~377쪽)

...(전략)... 조선일보를 그렇게 미워하던 일제 총독부, 김일성 남침 도당, 이승만 독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 김대중 햇빛정권 등 다 불명예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철부지 추종자들이 천하에 겁도 없이 날뛰니 나라의 앞길이 걱정된다. 우매한 우리 백성들은 어쩌자고 지난날을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거의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멋대로 노는 것인지 한심하다. 일제 때부터 오늘까지 75년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며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펐던 나로서는 철없이 날뛰는 북고형 친일파, 북고형 친공 운동권 젊은이들이 불쌍하게 비친다. ...(하략)...

5. 세금보다 많은 강제 헌금(28쪽)

이렇게 헌금이나 물품을 내라는 선전문을 학교에서 받아오면 집에도 역시 읍사무소에서 통지문이 배달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도민의 이름으로 폭격기 애국 경남호를 헌납합시다’로 시작하더니 목표가 다 찼던지, 다음에는 ‘우리 군민의 이름으로 전투기를 헌납합시다’며 돈을 긁어갔다.

(29쪽) “왜놈들이 걸어가는 세금보다도 헌금이니 채권이니 하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3. 죄 많은 기독교인(55~56쪽)

소위 기원 2600년을 맞은 총독부는 기독교 말살 방침을 정해서 저항이 심한 교회 200여 곳을 폐쇄, 2200명을 검거했고 그중 50여 명의 목사들은 고문 끝에 감옥에서 순교했다. 이 무렵 아버지는 자주 경찰서에 불러갔다가, 교회의 긴급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바빴다. 한 번은 교회에서 무슨 성명서를 가지고 오셨다. …(중략)… 고등계 형사가 내민 성명서는 이러했다. …(중략)… 이 성명서는 고등계 형사들이 만들어서 돌린 것으로 수백 명이란 말은 믿을 것이 못 되나, 최소한 몇 십 명의 교인들은 그들에게 끌려서 용두산 신사에 갔던 듯 일본어판 지방신문에 사진까지 실렸다.”

3. 허오의 글 (‘지원 당시의 고민’, ‘학병’ 제1집, 조선학병동맹, 1946. 1)에 대하여

피고는 “총력계 촉탁 손점용이나 학병 동원자 손종영과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의 회고가 아닌 김상훈과 같은 동 시대의 학병이 쓴 또 다른 수기를 하나 더 제시하고자 한다. 학병 허호가 해방 직후인 1946년 1월에 발표한 수기를 볼 때 이들 지식인들이 일련에 발표한 학병지원 선전선동물들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며 허오의 ‘귀환보고 - 지원 당시의 고민’ (‘학병’ 제1집, 조선학병동맹, 1946. 1)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허오의 글에도 인촌 선생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피고가 인용한 부분을 중략이나 생략 없이 살펴보면

“더구나 신문보도에는 소위 조선의 명사란 명사는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못 쓴다’

‘대의(大義)에 살려는 학도의 갈 길은 이것밖에 없다’

‘무슨 주저가 있으며, 무슨 준순(逡巡)이 있으랴?’

‘지원의 문우에 경니치 말라’

‘준순(逡巡)하여 한(恨)을 천재(千載)에 남기지 말아라’

‘아무래도 가야 할 길 씩씩하게’

‘가고야 말길은 사나이다움게’

‘반도영고(半島榮枯)는 학도들 어깨에’

등등 윤치호 씨도 흰 수염을 휘날리고 나서며 한상룡 씨 역시 주먹을 흔들며 고향쳤다. 중추원 참의 선생들은 각도에 노구(老軀)를 채찍질하며 권고 행각한 것도 불만족하여 호별방문을 시작하는 등 또 용감한 분들은 멀리 기전(氣電) 떠도는 현해탄의 거친 물결을 박차고 일본 각지에 그 유명한 열변을 토하여 ‘너이들이 갈 길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의 역사에도 대군을 위하여 죽는 화랑도가 있었다’ ‘내선일체는 너희들이 총을 잡는데서만 오는 것이다’ 하고 ‘비지원자는 나의 원수(怨讐)다’ 하듯이 덤벼드는 데는 참으로 웅구주춤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였다.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이 선생만큼은 양심적 행동을 취하리라 ‘참’ 없는 의(義)를 논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선생들까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참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진리는 그릇된 것이 아닌가’고 재삼 고개를 기웃거리기도 보았다. 이십일이 가까워질수록 늘어가는 지원자 수 점점 과격해지는 위협장 칼을 품은 듯한 이말 저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좋은 궁리도 얻을 길 없는 그 일만큼은 어떠한 도리가 없었다”입니다.

피고는 허호의 글 중 “이 사람만큼은, 이 선생만큼은 양심적 행동을 취하리라 ‘참’ 없는 의(義)를 논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선생들까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참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진리는 그릇된 것이 아닌가’고 재삼 고개를 기웃거리기도 보았다”는 부분에 김보전 교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인용해 놓고 “학병 허호가 해방 직후인 1946년 1월에 발표한 수기를 볼 때 이들 지식인들이 일련에 발표한 학병지원 선전선동물들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으나 허호는 그의 글에서 김보전 교장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니다.

피고는 나아가 “허호의 ‘귀환보고’ 등 관련 방증자료와 함께 검증한 결과 김상훈이 ‘생환 학병수기’로 쓴 ‘김성수여 복죄하라!’라는 글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했습니다.

브리태니크 백과사전에 따르면 허호의 ‘귀환보고 - 지원 당시의 고민’이 실린 ‘학병’ 제1, 2집을 발행한 ‘조선학병동맹’은 “조선공산당의 외곽단체 또는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 치중했다”고 돼있습니다.

“일제의 학병제도에 의하여 강제로 징병되었던 학병출신들 가운데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자들로 결성된 단체. 8·15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일 조직되었으며, 매우 급진적인 성향을 띠었다. 강령 전문은 “강제학병제도로 인하여 사선(死線)을 넘은 동무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견고한 단결을 통해 ①제국주의 세력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족해방의 완전을 기할 것, ②신조선 건설의 추진력이 될 것, ③현 과도기에 있어 치안유지에 협력하고 장차 국군 창설에 노력할 것”으로 되어 있다. 조직체계는 위원장 왕익권, 부위원장 이춘영 등을 중심으로 총무부·기획부·문화부·선전부·경리부·실천부 등 6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었다. 조선학병동맹은 학병기념일로 정한 1월 20일 전국학병대회의 개최와 희생당한 학병들의 추도제 등과 같은 순수기념행사도 거행했지만, 그보다는 신탁통치반대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이 ‘조선

인민보', 조선인민당, 서울시 인민위원회 등을 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하여 유혈 충돌이 벌어진 학병동맹사건과, 우익학생들에 대한 계획적인 테러 행위에서 드러나듯이 조선공산당의 외곽단체 또는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치중했다.” (브리태니크 백과사전)

피고는 왜, 수많은 학병출신들이 체험담을 증언해 놓은 ‘학병사기’ (‘1.20 동지회’, 1987년) 전 4권속의 수많은 글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고 “조선공산당의 외곽단체 또는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치중했다”는 ‘조선학병동맹’이 펴 낸 선전선동물을 증빙자료라고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선학병동맹’이 발행한 ‘학병 2집’(1946년 2월)은 학병동맹사건으로 숨진 학병 3명을 특집으로 다루며 게재한 ‘전국학병대회준비총회’(69쪽) 상황을 보면,

‘기념행렬에 대한 건(슬로건은 학병권유자 타도로 결정)’

‘메세지 결의문, 선전 빠라 등을 당일까지 제작키로 결정, 그 초안은 김상훈(金尙勳), 허호(許壕), 김병환(金丙煥)으로 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귀환수기’라고 쓴 허호와 김상훈은 그 당시 ‘조선공산당의 외곽단체 또는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치중함’ ‘조선학병동맹’의 ‘메세지 결의문 선전 빠라’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김상훈이 1947. 7. 5~6. 자 문화일보에 게재한 것이 ‘김성수여 복죄하라!’ 입니다. 따라서 이는 ‘생환 학병의 수기’가 아니라 조선공산당의 선전 빠라인 것입니다.

총독부 기관지에 명의를 도용돼 ‘학병권유자’가 된 조선인 유력자가 김 보전 교장 외에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유독 김 보전 교장만을 겨냥해 온갖 욕설과 비난을 했습니다. 이는 ‘보전 교장이 학병을 권유했다’고 선전선동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함으로서 그가 중심인 한민당으로부터 민심을 이반시키기 위한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꾸며진 것입니다.

‘학병 2집’(1946년 2월)에는 매일신보 기자였던 김병규(金秉逵)의 기고문도 있습니다.

이 김병규가 바로 김 보전 교장의 글을 대필한 장본인입니다.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은 보전 시절 회상기 ‘양호기’(고려대출판부, 1977) 114쪽에서 “내가 지금 그 때 학병 격려문이 나가게 된 경위를 말하고, 특히 인촌 명의를 글에 관해서는 진짜 집필자의 이름까지 밝힌 것은, 그 글 때문에 인촌은 해방 후 심히 부당하고 억울한 비난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규는 해방 후 좌익에 가담했는데 김 등이 작성해서 그 해 9

월에 주로 미군기관에 뿌린 ‘Traitors and Patriots(반역자와 애국자)’라는 팸플렛에는 인촌 명의의 그 글이, 해방 후 해방의 감격 속에서 행한 여운형 씨의 연설문과 나란히 실리어, 좌익을 치켜 올리고 우익을 깎아내리는 데 부당하게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굳이 일제하의 글을 사용하겠다면 여 씨의 것도 그 때 매일신보에 인촌이나 나의 글과 나란히 발표되었던 것을 사용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병규는 자기가 대필해 게재한 김 보전 교장 명의 글을 좌익의 선전 뼈라에 또다시 김 보전 교장의 글이라고 하여 악용한 것입니다.

피고는 “허호의 ‘귀환보고’ 등 관련 방증자료와 함께 검증한 결과 김상훈이 ‘생환 학병수기’로 쓴 ‘김성수여 복죄하라!’라는 글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호의 ‘귀환보고’ 등 관련 방증자료”, 즉 피고가 말하는 방증자료란 허호, 손용영, 손점용의 글을 말하는데 위에서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 사람의 글 어디에도 김 보전 교장을 지칭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세 사람의 글 중 극히 일부를 인용해 놓고 ‘김성수여 복죄하라!’라는 글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하는 김상훈의 글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김상훈의 글에는 “이광수와 함께 학병훈련소에 찾아와 선배라는 이름으로, ‘한 번 죽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였다” “일본국의 대의사가 되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등 사실 아닌, 거짓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그 문투 대부분이 욕설과 수준 이하의 저속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피고는 ‘저 이놈…’, ‘기름진 고기 덩어리를 얻어먹다가…’, ‘너 이 □놈만이…’라는 등의 표현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글로 적은 ‘수기’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어조의 용어가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김상훈은 6.25 때 월북 후 ‘초불’ ‘흙’ ‘아버이 수령님 햇빛 아래 농사짓고 싶습니다!’는 등의 글을 썼습니다. 이것도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어조’로 아버이 수령을 찬양한 것인가요?

평양에서 그를 만난 신상옥 감독은 ‘말끝마다 위대한 수령님만 찾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비평문학회 저, ‘혁명 전통의 부산물 : 남월북 문인 그 후’(신원문화사, 1989).

(204쪽) <金尙勳>

아버님은 6.25동란 직후에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어린 나는 아버님께서 며칠간 나갔다오마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집에 있었으나 그 이후 영영 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북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시 생존해 계신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버님은 경남 거창에서 천석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 어렵다던 서울에서 공부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서울에서 돌아온 이후 조금 사람이 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임화의 영향이 아니었던가 싶다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임화는 먼 친척이 된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6.25 때 임화와 함께 행동했고 그 뒤 북으로 갔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의 큰 아들이 밝힌 김상훈의 월북 시기와 그 배경이다. 여기서 소개된 것처럼 그는 경남 거창에서 부농의 아들로 출생, 서울에서 중동고등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다녔다. 대학 재학 중 임화와 친분을 다졌으며, 이때 좌경 사상에 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전에는 ‘대열’ ‘가족’ 등의 시집을 냈으나 큰 관심은 끌지 못했고, 6.25동란 중에 임화를 따라 북으로 갔다.

(205쪽) 평양에서는 53년까지 임화의 그늘 아래서 문학잡지 ‘문학전선’에서 일을 보았으나 임화를 비롯한 남로당 계열이 숙청될 때 함께 거세되어 산간오지의 한 협동농장으로 추방되었다. 이 뒤 62년 시 ‘인계’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복귀했으며 ‘초불’ ‘비결’ ‘흙’ ‘아버이 수령님의 햇빛 아래 농사짓고 싶습니다!’를 70년대까지에 걸쳐 발표했다. 북한의 문학사에는 ‘인계’ ‘초불’ ‘흙’ ‘아버이 수령님 햇빛 아래 농사짓고 싶습니다!’가 그의 대표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인계’는 아버이 수령님의 배려로 휴양소에 가는 그 짧은 기간에도 자기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못 잊어 트랙터를 정성스럽게 청소하여 인계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소박한 풍모를 아름답게 노래했다는 내용이며, ‘초불’ ‘흙’ ‘아버이 수령님 햇빛 아래 농사짓고 싶습니다!’는 한국인들이 김일성을 흠모, 그의 ‘영도’를 바란다는 대남 선동물이다.

신상옥, ‘조국은 저 하늘 저 멀리’(下), 패시픽 아티스트 코퍼레이션, 1988년, 310~311쪽.

“이들의 경우와는 달리 자진 월북한 문학예술인 가운데 내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에는 시인 김상훈(金尙勳) 한 명 뿐이다. 김상훈은 6·25 때 월북하여 박헌영파였으나 그와 싸우고, 일하던 신문사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박헌영 숙청 때 무사했다. 김상훈은 해방직후 나와 한방에서 몇 달 동안 같이 기거하면서 나의 부탁으로 ‘여성일기’라는 시나리오를 쓰기도 한 나와는 잘 아는 사이이다. 나는 그가 북한에 살아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84년 생각지도 않게 그의 소식을 듣고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고려 때의 전설에 나오는 괴수 불가사리를 영화로 만들게 되어 ‘신 필름’ 기획실장에게 불가사리에 관한 전설을 수집하라고 시켰더니 그 사람이 김상훈을 찾아가 그 전설 취재를 하는 바람에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나는 그를 꼭 만나고 싶어 내 사무실로 불러오라고 몇 번씩이나 요청한 끝에 85년 초 겨우 만날 수가 있었다. 그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었으며 그 옛날 그가 가지고 있던

반골적인 기질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말끝마다 위대한 수령님만 찾고 있었다. 김상훈은 평양에서 민요와 시조등 조선 시가(詩歌)를 연구하면서,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뒤 ‘평양기생 계월향’시나리오를 그에게 쓰도록 했다. 나는 조총련을 통해 서울에서 부쳐온 한국문학전집 몇 권을 그에게 선사하자 그는 무척이나 좋아했다. 김상훈은 86년 정월 초하루 은희와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으나 결국 우리는 가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가보고 싶기는 했지만 그 때는 이미 우리의 탈출 계획이 성숙해진 때라 우리가 도망한 뒤 혹시라도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김 보전 교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하는 근거는 모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게재된 김 보전 교장 명의의 기사와 김상훈의 글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믿을 수 있는 자료냐는 이의제기와 함께 원고가 제시한 수많은 증언과 자료들에 대해 부인만 할 뿐 피고 스스로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믿을 수 있는 자료라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근거는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요한 1차 사료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믿을 수 있는 자료냐’를 묻고 있는데 피고는 ‘믿을 수 있는 자료’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중요한 1차 사료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묻지도 않은 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의 쟁점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믿을 수 있는 자료냐, 아니냐’에 모아집니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믿을 수 있는 자료’라면 김 보전 교장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이고 되고 ‘믿을 수 없는 자료’라면 피고는 잘못된 주장으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판단하기 위해 피고는 원고가 아래에 제시한 30개 항목의 증언과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 어떤 문제가 있어 증언 및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피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1.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의 증언, “신문 지면에 기사가 되어 나온 것은 거의 전부가 만들어진 것 밖에는 없었다. 이처럼 경성일보 편집국은 매일매일 이 같은 거짓을 만들기 위해 마치 모두가 정신이 돈 것 같았다”는 기술.

2. 조만식 선생 명의의 글이 조작되는 경위를 상술하며 그 글을 대필했던 매일신보 기자가 해방 후 자살했다는 김진섭 당시 매일신보 기자의 증언.

3. 정인익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의 반민특위 심문조서 내용

‘그 당시의 환경과 제 조건이 본인으로 하여금 의사대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당국의 지시대로 복종하였으니 그 자체가 벌써 반민행위라고 자인하는 바이올시다.’

문 그 당시의 매신지가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봤는가.

답 민족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가책을 안 받은 날이 없었습니다. 변명 같으나 오히려 매신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문 매신사가 범했던 민족적 죄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답 본인 현재의 심경으로는 그 책임 추궁할 전에 본인의 과거에 맡은 편집국장으로써의 가책을 받기가 바쁩니다.

4. ‘조선총독부 정무총감과 도서과장이 나를 만나 청년을 고무하는 강연회나 글을 쓰도록 날더러 송진우 안재홍 여운형 홍명희 제씨(諸氏)와 교섭하라는 요지였다. 나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들의 요구를 따르고 말았다’는 이원영 당시 매일신보 정치부장의 증언.

5. ‘국내에서 오는 신문을 읽을 때마다 학도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들의 모양같이 눈앞에 클로즈업되었다. 그래도 이들은 황은에 감응하고 있다고 신문기사는 써내고 있는 것이다’고 한 백철 당시 매일신보 기자의 기술.

6. ‘여운형을 이용하자는 일제의 새빨간 날조극이었다’ ‘글쎄 기자가 쫓아와서 몇 분간 이러쿵저러쿵 하고 가더니 저렇게 났구먼...’이라고 한 이기형의 증언.

7. “일제는 악랄하게 허위 보도로 ‘조만식 씨 드디어 전향하다’라는 표제 하에 학도병 출정 찬성, 날인과 자발적으로 유기(鎗器)를 헌납하고 성전(聖戰)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대서특필로 보도하고 사진까지 게재하였다. 그러나 일제 주구 외에 이 기사를 믿는 자는 없었다”는 유기선의 증언.

8. “1943년 말이 아니면 이듬해 초엽 고당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일제를 지지하는 시국 강연회를 한다 해서 연사로 조만식의 이름을 대서특필하여 벽보를 붙이고 야단법석이었다. 물론 사전에 일언반구의 응락도 없이 권부(權府)의 힘을 빌어 모퉁에서 고당을 위협하는 계획적인 음모였다”는 한근조의 증언.

9. “안재홍의 이른바 ‘담화’를 날조해서 발표케 하는 사기협잡극을 연출해냈다. 신문에는 안재홍의 사진도 실리고 자필서명도 있었는데 그 사진은 옛날 어디에서 찍은 사진을 오려서 낸 것이고 자필서명도 옛날 어느 신문에 난 것을 복사한 것이었다” “그 일이 있던 다음날에

그런 날조극이 신문에 실렸던 것이다”는 김흥곤, 강현만의 기술.

10. “경성일보 한 장 씩을 배포 받았다. 서울의 城大를 위시해서 각 전문학교에 진학했던 선배 동창들의 사각모 사진 일색이었다. 勇躍志願했다는 찬사와 아울러 각자의 포부마저 빼지 않고 날조 보도한 것이다”는 학병출신 서석연의 증언.

11. “나는 깜짝 놀라면서 신문기사를 보니 연락선에 탔던 학생 전원이 수상경찰서에 가서 학병에 지원하였다는 사연의 기사가 아닌가! 승선 명부를 원서로 둔갑시켰구나! 아, 간악한 놈들…우리들을 속였구나, 이놈들!”이라고 한 학병출신 김영화의 증언.

12. “일제는 너무나 조직적이었다. 하숙집으로, 학교로, 매일 고향의 집에서 친 전보가 날아 들었다. 그 전보 내용은 모두가 ‘집에서는 승낙을 하였으니 하루빨리 학병을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에 집에 돌아와서 보니 전보 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관계 관청에서 조작으로 만들어 친 전보였다”는 학병 출신 윤임술의 증언.

13. “일제 말기 명사나 시인들에게 일본 헌병이나 순사가 와서 학도병에 지원하도록 또 신문에 기사를 쓰도록 협박했다. 2, 3일 생각해 보겠다하면 다시 와서 다그치고, 처음에는 부탁하지만 나중에는 협박해 반 정도는 불러주고 수식어 몇 자 붙여서 이름으로 내곤했다. 그 자리에서 자살하지 않는다면 안 쓸 수 없는 절박한 순간들 이었다”는 정치근의 증언.

14. “아니, 인촌 선생이 하려면 학교에서 조례시간이구 얼마든지 학생들 모여 있는데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학병을 권유하기 얼마나 좋습니다까. 학병 대상자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하지 왜 딴 데서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딴 데 나가 말씀할 정도면 거기서 하지, 한 번도 없어요. 내부의 대상자가 거기 있는데 권유할 의사가 많으면 거기서 하지 왜 딴 데 가서 합니까. 말이 안 돼요.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라고 한 학병출신 당시 보전 학생 이혜복의 증언.

15. ‘김성수 씨는 언변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하셔’ ‘나오신 날은 그라운드 밖에 향나무가 쪽 심은데, 거기에 잔디를 뽑고 그랬어’ ‘학병을 이제 누가 권유했는데 어쨌느냐 이러는데, 그 판국에 권유할 사람은 누구고’ ‘권유한 것은, 교련 교사 가와모토, 이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한 사람이지. 깍소리 못하고들 있는 거야, 소위 배운 사람이, 그 군국주의에 나가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건 상식이라도 얘기 안 되지’ ‘장행회. 강당에서 한 일 있어. 교수들도 바보고, 듣는 우리들도 바보여?’ ‘박극채 그 사람들이 바보야’ ‘박극채 같은 사람은. 아주 극좌사람이야’ 라는 학병출신, 당시 보전 학생 이무연 전 효명중 교장의 증언.

16. “종로 3가에 서재균이라고 고일회 초대 회장한 친구인데, 그 친구 자기 아버지가 대구에서 올라와 앉았는데, 뭐라 하나면, ‘재균아, 네가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러더라고. 저거 아버지가 자기 아들보고 군대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에서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데 말이야.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말이야. 근데 그 어른 하는 얘기가 ‘가내 공업을 하는데 네가 가줘야 우리가 밥 먹고 산다.’는 것이다.

내가 옆에서 들으니깐 기가 차가지고. 자식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친구 두 말도 안하고 ‘네, 지원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참나 기가 차서. 11월 20일까지 지원마감인가 그랬는데” “인촌 선생은 말을 별로 안했고. 인촌 선생은 내가 알기로. 나는 교장인 줄도 몰랐다고. 보리 짚 모자 쓰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학교 용인인가 했지. 뭐, 화단에 호미 쥐고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거보라니까 옆의 친구가 교장이다 교장. 내가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인촌 선생을 봤고, 교장인줄 알았다. 맨 날 천 날 보면 화단에 앉아 뭐 이래 쥐고 있고. 입을 잘 떼고 이런 일도 없고. 조회할 때도 말도 별로 안했고, 실천가고 그랬지. 그 분은 참말로. 보전은 학교집도 그렇게 지어놓은 곳 없었고 도서관 참 잘 지었잖아요”라고 한 학병출신, 당시 보전 학생 권중혁 전 대구여상 교장의 증언.

17. “장행회에서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얘기하신 것 같지 않아. 그런 말은 전혀 없어. 그럼 못 들었지. 그 학도병에 관해서는 일체 그런 얘기 하신일 없어. 그때는 일제시대고 일본 총독부가 신문이고 교육계고 언론이고 그게 자유롭지 못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비틀어서 쓰게 했는지는 난 몰라. 보성전문은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이 다 민족주의자고 애국자고 반일정신이 투철한 분이야. 그런 분한테서 내가 교육을 받은 거야. 절대 한 일 없어”라는 당시 보전 학생 윤석현 전 외무부 차관의 증언.

18. “말을 수가 있는가. 인촌이 미쳤다고 그런 글을 써요. 그 참 기가 차네. 인촌이 미쳤다고 그런 글을 써요” “일제 때 그 서슬 퍼럴 때 창씨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느냐. 전 국민이 창씨를 다 했는데 인촌 선생만은 창씨를 안 하고 견디지 않나. 그 근본정신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필해서 쓰는 것은 맨 그게 그 겁니다. 맨 그럴지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려 하면 그럴다고 ‘안 썼소’ 할 수 없잖아. 가령 다 만들어서 내놓으면, 이거 내 글이 아니오.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신문을 보면 속을 봐야 될 것 아닌가” “조선인 학도특별지원병령. 조회단에 올라가서 가지고 총독부에서 이런 말 하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말한다, 구체적인 건 말 안하고. 그래 전한다 이 말만 하고 내려 가신거야. 평상시 조회 때 말씀 많이 하는 분 아니다. 놀변이야. 말 잘하시는 분 아니다” “지원 한 거는 내가 지원한 거고, 동기가 그랬다 뿐이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 가라 하는데 끝내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동기는 아버지...” “그때는 격려 말씀이 잘 갔다가 건강히 잘 돌아오라고. 충성을 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 아니고 잘 갔다가 몸성히 잘 돌아오라고 이 말을 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들은 건 아닌데 사석에서 알아가지고 ‘이게 아닌데, 내가 학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애들 교육시키려고 학교 만들었지, 일본군인 내보내려고 이런 게 아닌데...’하면서 탄식을 하셨어. 보전 다니던 사람은 다 알아. 그런 말을, 왜놈 순사도 있고 형사도 있는데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터 내놓고야 말할 수 있는가” “일본이 학병 보낼라고, 자기들 대학 다니는 놈들 전부 다 보내면서, 한국 놈들 사각모 쓰고 대학 다니면서 그냥 안 가게 놔두겠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대학 다니는 놈들 전부 다 전쟁터로 내몰았는데. 국책적으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왜 쓸데없이 우리 훌륭한 어른들을 욕을 보이느냐.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해방 60년이 됐는데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뭐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가” “인촌 선생은 교장 선생으로서 하자 있는 분이 아니다. 그 어른은 교육자로서 훌륭한 분이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조선 사람들 그때 헐벗어, 옷이 없을 때 조선방직 만들어서 광목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 옷 입도록 만들어주고 언론 동아일보 해가지고 그래 했고 중앙학교, 보성전문학교 만들어

서 교육사업 했고…。 그 어른 뭘 가지고 흠을 잡아. 돈 벌라고, 딴 목적이 있어서 그랬나? 교육가로, 그 당시에 교육을 해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장사는 무슨? 자기 집 재산 몽땅 다 가지고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단식투쟁 해가지고 돈 얻어가지고 와서…。 다시 더 말할 거 뭐 있나. 나 인촌 고택에도 가봤어. 기둥이 내 장판지만 해. 경상도 부잣집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야. 그 돈 뺏어 와가지고 만들어 내놓은 것 봐요. 실체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보통 사람이 그런 일 할 수 있나.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인촌 같은 사람 건드려선 안 된다. 이 나라 남을 사람 어디 있나. 국내에서 당해가면서 견뎌 가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 웃 입히려고 한 거 다 훌륭한 거 아닌가” “이건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국내에 살다가 외국에 가서 밥 굶아 가면서 떨어가면서 독립운동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학교, 방직공장, 동아일보 만들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1936년 손기정 선수 사건 등 모든 역사에는 과정이 있는데. 가령 총독부 끌려 가가지고 친일도 안 하면 학교가 당장 박살이 나고 절단이 나는데 안할 도리가 어디 있소. 그러니 유지하려면 어떤 비굴한 그런 경우도 생겼겠지. 학교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라는 학병출신 당시 보전 학생 최재동 (1·20 학병동지회 사무총장)의 증언.

19. “우리 아버님한테 헌병과 경찰에서 자꾸 온 모양이야. 아들이 빨리 지원해서 나가라고. 광주에 사시던 아버지가 올라오셨다. 너 왜 지원하지 않느냐고. 경찰하고 헌병이 자꾸 와서 못살게 구는데 너 지원해라 하고 내려 가셨다. 그 이튿날 아침 사모님이 날 불렀다. ‘병운아, 어저께 선생님이 너,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아주 여사가 나한테. 얼마나 좋아. 군대 안 간다고. 듣기로는 그때 남방으로 전부 다 가서 죽는다고 할 때였다. 가지 않아도 된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때는 애국반이라는 게 있어 어디 외지에서 오면 다 신고 하게 돼 있었다. 집집마다. 친척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전부 통장한테 다…。 그러니까 그때는 재워주질 않아. 무서워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재워달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 무서운 때였다. 나는 그 양반이 군대 안가도 좋다고,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머물 수가 있었다. 숨어서 안갈 수가 있었다. 학병 마감 날도 안가고 피해 버렸지. 피하고 한 달 동안을 그 집에서 눈치보고 있었어” “인촌이 학병 관련해서 연설한 일은 내가 아는 한 한 번도 없었다. 매일신보라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 기관지라 이놈들이 자기 멋대로 한거야. 그 양반이 그럴 양반이 아니다. 행사 있어도 그 양반은 안 나갔다. 참석도 별로 안했다. 그 양반은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으셨다” “그때 누가 매일신보를 보는 사람이 있었나. 내가 볼 때 다 꾸며낸 거다. 사실이라면 날보고 나가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군대 나가서 나중에 잘 돼서 국가에 이바지 하라’든지 무슨 말씀이 있었을 것 아닌가.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그 양반의 본심이야”라는 징용출신 당시 보전 학생 문병윤의 증언.

20. “일본 농 장교들이 복도에 우리들을 쭉 세워놓고 학도지원병이 내렸으니까 지원하라는 거야. 그러나 한 사람도 안 나서자 일본 농 장교가 칼을 빼면서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어. 그러다가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 이튿 날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인촌 선생이 얘기했어. 인촌 선생이 뭐라고 말씀 했는고 하니 절대로 나가라,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

교 당국의 운영자 교장으로서 이런 제도가 나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어. 왜 그런고 하니 인촌 선생이 말씀을 못하셔, 연설 잘은 못하시고, 될 수 있으면 과묵으로 일관하고 사셨어. 그러나 학교 당국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달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차차 당국에서 강압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말이야. 지원을 안 하니깐.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독촉했을 거 아냐. 지원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선생들이 학병 해당 안 되는 학생들과 조를 편성해 가정 방문하도록 당국에서 지시했지. 난 법과대학 서재원 교수와 한 조가 되어 나간 적이 있는데 서 교수 집에 가서 밥만 먹고 시간 때우다 온 적 있다. 셋인가 넷이 한 조가 됐을 거야. 가정방문은 안 갔다. 전보를 쳤다는 것은 듣지 못했어” “당시 일본 사람에 저항하는 세력은 여러 갈래가 있었어. 상해나 미국에서 독립 운동하는 사람, 만주 가서 항일 투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일본에 투쟁했다고 봐야지. 그런데 국내에서 앉아서 칼 들고 싸울 수 있다. 당시 세계 조류는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와 간디즘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 나는 인촌이 간디 식 무저항주의를 신봉하지 않았나 생각해. 그 양반은 선대의 유산으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재산을 털어 가지고 교육 사업을 시작했어, 또 언론을 시작했어. 그 양반이 편히 잘 살려고 했으면 왜 시작했겠어. 언론을 만들어서 우매한 백성을 계몽하고 실상을 알려줘 또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에게 장래를 재촉해줘. 이것이 무장봉기를 한다거나 이념서클을 만들어 하늘 보고 소리 지르는 것 보다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더 나은 사업이 아니냐” “나는 징병 영장을 받으면 원산으로 가서 시베리아로 도망치려 했어. 그런데 설산이 나를 여운형 선생에게 데려가더니 이 두 분 얘기가 ‘일본군에 들어가라. 그러면 국내에서 서울에 있게 만들어주겠다.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진짜 독립운동이지 외국에 가서 무슨 독립운동이냐’고 하는 것이다. 좌익 선생 윤행중 교수를 우리 집에 보내 같이 잤어.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징병 1기로 들어갔는데 훈련소가 동대문 낙산이었다” 는 징병출신 당시 보전 학생 서태원 고일회 회장의 증언.

21. “인촌이 학부모들을 찾아다니며 학병을 권유했다면 민족진영의 안호상 손진태 장덕수, 또 좌익의 박극채 윤행중 등 좌우익 교수들이 모두 인촌을 존경하고 따랐겠느냐. 당장 우리 학생들부터 가만있었겠느냐” “인촌 선생은 신문 같은 데 글을 쓸 줄 모르는 분이다. 써야 할 때도 비서, 교수들이 써주는 것이고, 양호기에도 나오지만 유진오 선생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하다. 인촌은 그런 선동적인 글을 쓴 적도 없다. 문투나 용어도 그런 것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재주도 없다. 인촌은 한 번도 학병을 가라는 식의 말을 하러 나온 적이 없다” “조선학도병 지원제는 1943년 11월 3일 그들의 明治천황 생일날인 ‘明治節’에 맞춰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표됐다. 당초 총독부의 발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지원제’라 했다. 그러나 친일파의 자식들까지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원을 거부하자 드디어는 각 학교의 배속장교로 하여금 책임 동원을 명령했다. 한편으로는 저명인들을 총동원해 지원 권유에 내세움으로써 강제동원으로 몰아세웠다. 물론 고하 송진우 선생처럼 병 치료를 핑계 삼아 지원 권유를 기피한 경우도 있고 인촌 김성수 선생(당시 보전교장)처럼 ‘남의 귀여운 자식 문제에 왜 내가 관여하느냐. 나는 그들의 교육을 맡았지 입영문제를 맡은 게 아니다’라고 저항하며 뿌리친 경우도 있다. 어느 날 인촌은 조용히 말했다. ‘일제가 학병 지원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전황이 불리하다는 증거야. 그들은 이 기회에 교육 받은 조선인의 씨를 없애버리려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알아들겠지’하며 나를 응시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학병출신 당시 보전 학생 이철승의 증언.

22. “선친(月峰 韓基岳)은 인촌의 친구로 동아일보 창간 기자도 하시고 조선일보 편집국장도 하셨는데 나중에 인촌이 우리 중앙학교의 서무책임 맡기셨어요. 중앙학원의 감사도 맡기셨고요. 중앙학교에 봉직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인촌 선생이 제 부친과의 옛 정을 생각해서 제 형하고 제 학비를 부담해 주셨지요. 제가 중앙학교에 다닐 때와 보성전문에 다닐 때 인촌은 나를 불러 학비를 주셨지요. 너무 송구도 하고 또 자존심도 있어서 보성전문 시절에는 가정교사를 해서 학비를 내면 인촌 선생이 집으로 불러서 나를 꾸짖으시고 학비를 다시 내주시곤 하셨지요. 그러니 내가 인촌의 특별장학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인촌 선생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학병 나갔던 학생들이나 학병 나가서 죽은 이들의 가족이 해방 후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대다수 보성전문 졸업생들이 인촌을 계속 존경한 것은 당시 실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리라”는 학병출신 당시 보전 학생 한만년 일조각 설립자의 증언.

23. “친일 이야기를 할 적마다 의분이나 탄식이 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상황이다. 우리가 전차를 타고 남대문 앞을 지날 때 차장이 뭐라고 이야기 한 줄 아세요? ‘방금 조선신궁 앞 통과합니다’하면 전원이 다 일어나서 남산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한다. 가다가 만나서 ‘박 형, 요즘 재미 어떨소’라고 조선말 쓰면 붙잡혀가는 시절이었다. 학교 명찰에 이름 다 걸고 다녔다. 창씨개명 다 하고 이런 시기라는 것을 알고서 친일 여부를 이야기해야 한다. 당시의 학생들이 인촌을 어떻게 봤나, 어떻게들 평가했느냐. 민족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젊은이들에게 인촌은 거의 이상적 존재였다” “보전과 가장 친한 학교지만 연희전문은 인촌 같은 재단이나 교주가 없는 학교다. 기독교 계통 학교인 연희전문은 일찌감치 교장을 일본사람으로 갈아 치웠다. 보전이고, 인촌이니까 그걸 견뎌낸 것이다. 그걸 견뎌내고 존립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백이숙제처럼 수양산으로 들어간다면 별 문제야. 집안 식구 내버리고 독립운동 한다고 해외로 나가면 가족은 고생되더라도 본인이야 지조 지킬 수 있다. 여기에 있으면서 청년들을 깨우치고, 민족을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조선민족과 청년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친일이야 친일이. 그때 상황을 알고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닌가. 친일문제 글 쓰고 책 쓰고 했던 사람, 그때를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상황을 알고 이야기해야 한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경찰에 끌려가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큰 인물, 우뚝 솟은 분이 보성전문을 그런 체제하에서 운영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문 닫는 건 간단하다. 솔직한 이야기가 순국하는 것이 더 쉽다. 약 먹고 이런 세상 안 살겠다 죽어버리고 목메는 게 더 쉬워. 살아나가면서 이런 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친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살아봤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딱한 일이야” “좌익 선생, 우익 선생 상관없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보전 교수 중에 박극채, 윤행중, 김광진, 최용달 선생은 아주 극좌였다. 유진오, 장덕수, 손진태, 옥선진 선생 등은 민족주의자였다. 우익. 일본한테 항거하고 민족혼을 부추기는 이러한 사상 가진 사람이라면…. 군사 교련 선생(장유근)도 신사참배 거부하다 제대당한 사람을 모셔왔던 인촌이다. 학교 운영도 그렇게 하신 분이다” “설혹 그것이 신문에 실렸더라도 본인이 직접 쓴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소한 보전학생들은 없다. 우리에게 평소에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국민장, 사회장 할 때 장의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본인 승낙 받고 하나. 저명인사 이름 다 올리는 것이고. 더군다나 일

제시대에는 일본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이름 다 올렸던 것이다. 그 당시 학생들도 별 관심 없었다. 우리가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젊은 놈들이 비분강개해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접 인촌을 가까이서 모셨는데 그런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런 위에서 ‘어떤 행동이 친일이다 뭐다’ 해야지.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역사하는 사람들 참 거짓말쟁이가 많다. 해방 직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아는데. 당시에 글 나온 것, 뼈라 쪼가리 하나 가지고 증거로 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기에 전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학생시절에 우리도 뼈라를 많이 써봤다. 후세 사가들이 남은 것이 이것 밖에 없다고 해서 ‘~~에 의하면’ 자꾸 인용해 버리면 사실처럼 돼 버리지 않느냐. 역사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이리이러한 기사가 남아 있다’고 하면, ‘하 그런가보다.’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같이 그 때 상황을 아는 사람이 살아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다” 라는 김진웅 당시 보전 학생의 증언.

24. “고 인촌 김성수 선생의 은연중의 민족주의 교육은 누구나 머리가 수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 교수라고는 단 세 사람뿐 학생과 서무과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족이요 우국지사요 민족정신에 불타는 교수들이고 보니 이 어찌 훌륭한 배움의 전당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체육시간이면 구보로 가장하여 뒷동산에 가게 마련이다. 이 시간이야말로 화랑도식 수업이라고나 할까 숲 속에 모여 앉은 학생들은 내일의 새조선 설계가 토론되는 비밀 ‘아지트’가 되는 것이었다. 그뿐이랴! 각 교수들의 수업 내용이 대개가 그러했으니 불의에 굴하지 않고 부정에 타협하지 않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의 고려대학교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은 특별학도지원병으로 묶여나가는 그 전야 대강당에 모인 우리에게 고 설산 장덕수 선생의 피눈물 어린 작별연설이었다. 일본 관헌들의 눈초리를 살피가면서 그 아슬아슬한 웅변에 모두 소리 없이 울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조그만 하지만 항쟁에 앞장서게 된 것도 보전 학창시절에서 굳어진 일종의 의협심이라 하겠다”는 학병출신 당시 보전 학생 위계룡(교육공무원)의 증언(‘1.20 학병사기’ 2권, 438쪽).

25. “당시 저명한 우리들의 대선배(지금 누구누구라고 거명하지 않겠다)들이 학병 지원을 권고하고 설득하는 연설 행각도 하였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아끼고 존경해야 할 우리 겨레의 대선배들이 요즘 시종에서 함부로 말하듯이 ‘친일반민족분자’였던가 말이다. 실로 학병에 직접 끌려간 우리들보다 몇 배의 쓰라림과 서러움도 그들 대선배들의 가슴 깊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정계의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우리 민족진영의 거성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공신인 고하, 설산 선생 이분들이 어찌 학병을 권고하게 되었습니까?’라고. 그 분의 대답은 이렇다. ‘국내 민족운동의 총 중심인물에 인촌 선생인데, 그분들이 인촌 선생을 둘러싸 외곽이 되어 총독정치의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본산이 무너질 것이 아닌가요’ 라고. 참으로 감명 깊은 이야기였다. 우리들 후배들을 뼈저리게 만드는 이야기다. 역사의 흐름이란 결코 획일적인 것만이 있을 수 없다. 단순한 것만도 아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 근대사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며 헤아릴 수 없는 눈물과 눈물로 점철되어 왔다. 이제 70객이 된 우리들 학병들이 일제의 민란 진압용 인질로써 끌려갔다 하더라도 일본은

패망하고, 우리는 자유해방이 되어 각계각층에서 국가에 봉사해 왔다. 특히 건군 초기에 이바지한 우리 학병들의 공헌은 자못 큰 것이었다 하겠다. 기구한 민족적 명운의 한 장면에서 우리들 학병들은 훌륭한 연기를 다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누가 박수를 많이 받았 다, 누가 박수를 덜 받았다는 것들은 영원히 유전하는 민족의 역사 앞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못된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짐, 분단 조국의 통일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다. 여생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생의 의미를 건전하게 간직하면서, 학병의 민족사적 성격을 되새겨 본다”는 이은태(전 조선대 법대학장)의 증언(‘1.20 학병사기’ 3권 981쪽).

26. “친일파를 규정하는, 정죄하는 모임에 관해서 의견을 내면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맞아 맞아) 편향된 이념과 관점으로 친일인사 친일파를 심사판정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또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제3자적 법정변호인에 결론이나, 또 고인의 숨겨진 참뜻을 헤아리려는 노력도 없이 강요된 연설문이나 특정 지위에 있었던 죄로 피할 수 없이 강요받아서 쓴 글만을 대상으로 친일파로 정죄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대한민국 관을 가진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식자(識者)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촌 선생을 비롯한 많은 애국인사들에 대한 친일 판정은 마땅히 취소하고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울분을 느낀 것은 그분들이 일제에 끝까지 항거해서 감옥에 가서 영어의 몸이 됐다면 친일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정론을 펴기 위한 언론사나 민족의 힘으로 세운 학교를 일제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한 그 어른들의 번민과 고뇌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냐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는 당시 보전 학생 김수명의 증언.

27. “얼마 전 친일파 명단을 만든 실무에 관여한 사람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물어보기를 ‘서울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친일파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교육계 있던 사람들은 다 친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도 여기에 있었으면 친일파 명단에 들어갔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그 분을 친일파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들 애국심 때문에 해방되고 독립됐는데 쉽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했지요” “우리 아버지도 창씨개명 했다고. 창씨개명 안하고 공무원이 될 수도 직장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처럼 시골서 농사짓는 사람도 아버지는 임시로 바뀌더라도 되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에서 김씨 성은 그냥 두고 다음에 한 글자 넣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친일 문제를 선택으로 아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였는데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촌 선생의 문제도 그런 위치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서 사료가 나왔든지 서류가 나왔든지 해서 이렇다 이렇다 그건 그 당시에 상황이나 실정을 모르게 보는 사람들인데 그건 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요즘 6·25 전쟁이 북침이나 남침이나 많이 하잖아요. 나같이 그걸 다 보고 다 겪은 사람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켰다하는 것은 99가 아니고 100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다 겪었으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나오는 문헌이 있었다, 서류가 있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역사를 바꿔놓는다 생각하는데 그 시대를 산 사람의 증언은 역사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인촌 같은 사람이 만약에 없었고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독립을 했겠느냐, 독립의 기반을 차지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점에서 봐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길 했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인촌 선생이 글을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당신도 글 쓰려고도 안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촌 선생은 투고하거나 글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일파 명단 만든 실무자와 얘기할 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창씨 안했던 사람 없을 것 같다 했는데, 남이 창씨개명하면 안 된다하는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창씨개명 안한 경우가 얼마나 되나 우리가 하면 괜찮다고 하고 남이하면 평가를 떨구고 하는 데 자꾸 빠지게 되는데.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인촌 선생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오지만은 나는 나 자신도 얘기 더 안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주위 사람들도 얘기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이 남겨놓은 중앙학교 고려대학 동아일보 경성방직 같은 업적이 튼튼히 있는데 거기에 돌을 던져보고 계란을 던져 봐도 변함은 없거든요. 나는 인촌의 뜻은 그만큼 크다고 봐요. 인촌을 평하는 사람들 특히 목적을 갖고 그러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고려대학의 일부교수들이 자본주의 착취의 표본이 됐던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인촌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모든 점에 대해 가만 계실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라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증언.

28. 일제하 ‘仁村家’에 대해 비판적 저술을 낸 바 있는 카터 J. 에커트 美 하버드대 교수의 아래와 같은 견해에 대한 피고의 입장.

“친일 문제는 너무 복잡한 문제다. 친일, 친일파라는 정의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그 정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 일제시대 어떤 특정기관, 예를 들어 총독부와 관련이 있던 사람은 다 친일이라는 식으로 규정한다. 그보다는 더 구체적인, 그 개인이 놓여있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전에 내가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해 동의된 기준에 의해 친일파였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후손까지 조상의 행적에 의해 처벌 또는 비난받는다라는 것은 공정치 않다. 친일 문제나 식민주의에 관련된 문제들은 역사가들에게 남겨져야 할 문제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실제 문헌을 고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역사가들이다. 친일 문제를 정치화하는 순간 친일과 관련된 상황의 복잡성이 사라지고 단순히 정치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진지하고 열린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친일 문제를 정치도구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의 식민기관 행위라든지 아니면 기업가의 김연수 씨의 행위라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민정부에 어느 정도 순응을 했어야 됐고 김연수 씨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민정부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해야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성수 씨 가족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친일이라고 쉽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큰 맥락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식민지 기간 한국인들의 사안과 당시 상황에 대한 훌륭한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한국 사람들의 의견이나 패션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당시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훌륭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

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당시 동아일보가 놓여있었던 일제 일본의 식민지 정부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해야 했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누가 친일이나 아니냐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거고, 보다 큰 당시에 놓여져 있던 맥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그분이 이끌고 있던 경성방직이라는 사업체를 통해서 한국의 자본주의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프레임 워크의 내부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친일이다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의 복잡성이라든지 놓여있던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9. 김수환 추기경,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 신익희 전 민의원 의장, 조병옥 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김병로 전 대법원장, 이범석 허 정 최두선 전 국무총리, 서상일 전 국회의원, 이강훈 전 광복회장, 이희승 이은상 선생, 서정주 시인, 손기정 서윤복 선생,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김을한 전 언론인, 한만년 일조각 설립자, 김장수 선생, 이상돈 전 국회의원, 유달영 박사, 국악인 김소희, 임종국 선생, 김준연 김두한 전 국회의원, 구익균 선생, 김기진 전 경향신문 주필, 서병조 전 연합신문 편집부국장, 이정희 여사, 최형련 전 중앙고등학교 교장, 이현희 성신여대 명예교수, 한글학자 최현배 허웅 김선기 선생, 이병도 박사, 유홍 전 유관순 기념사업회장, 신도성 전 국토통일위원장, 조기준 전 고려대 교수, 김창숙 선생, 지청천 장군, 곽상훈 전 민의원 의장, 최남선 선생, 조지훈 박두진 시인이 왜 인촌 선생 관련 증언을 했으며 그의 사후 조사, 조시를 쓰고 추모사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30. 한국일보(1955년 2월 20일자), 경향신문(1955년 2월 20일자), 평화신문(1955년 2월 20일자), 자유신문(1955년 2월 20일자), 중앙일보(1955년 2월 20, 21일자), 연합신문(1955년 2월 21일자), 국도신문(1955년 2월 21일자), 충북신보(1955년 2월 21일자), 서울신문(1955년 2월 22일자), 전남일보(1955년 2월 22일자), 민주신보(1955년 2월 23일자), 조선일보(1955년 2월 24일, 26일자), 대구매일(1955년 2월 24일자), 대전일보(1955년 2월 24일자), 자유민보(1955년 2월 24일자), 경제일보(1955년 2월 25일자)가 ‘卍 인촌 김성수 선생’ ‘인촌 선생의 長逝를 뜻함’ ‘哀哭 인촌’ 등의 추모 사설과 글을 썼는데 이들 신문은 일제시대 상황과 인촌 선생의 행적에 대해 잘 몰라서 추모의 글을 썼다고 생각하는지?

끝으로 피고 준비서면에는 아래와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장신의 의견서로 답변을 대신한다.”

“친일인명사전에 ‘대표적인 친일 글’이라고 돼있다.”

“워란 말이며, 일개 학교 교직원이 아닌, 학교 교장이”

“영악하게 보험용으로”라는 등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소송의 모든 자료는 영원히 남겨질 것입니다. 국가, 즉 대한민국을 대신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기술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인 국가의 의견은 없고 ‘장신의 의견서’와 ‘친일인명사전’으로 대신한다는 것이 옹색하고 감정적,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 옹졸하게 보입니다.

역사학계의 중론(衆論)을 모아 결론을 내리는 국가다운 역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준비서면 150~164쪽)

6. 특별법 제2조 제17호 관련

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의 단체는 조선인 유력자가 강제 동원돼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한 것은 원고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 중앙편’을 해당 부분을 편의적으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모든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조직하여 전시체제에 일사불란하게 동원하고자 했다”고 들었지만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것을 인용한 ‘일제협력단체사전’의 해당 부분을 보면, 그것은 김성수 같은 조선인 유력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식민지배하에 있던 기층 조선 민중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끌어들이기 위해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조직”한 것에 대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미 반민규명위의 답변서에서도 충분히 설명 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다. 설령 흥아보국단이나 임전대책협력회, 조선임전보국단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져서 기층 조선민중 뿐만 아니라 김성수와 같은 조선인 지식인이나 유력인사들이 여기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이 단체의 취지와 강령에 적극 동감하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흥아보국단이나 임전대책협력회, 조선임전보국단과 같은 친일협력적인 사회단체가 아닌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에서 이사 등 유력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이 단체의 취지와 강령에 적극 동감할 뿐만 아니라 총독부 외곽단체가 표방하는 전쟁협력 등의 반민족적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객관적 문헌 증거에 의하여 김성수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간부를 맡아 활동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는 조선연맹이 산하에 “보성전문연맹을 만들어 이사장은 보전 교장이 맡도록 강제돼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첨언”하였는데, 김성수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의 단위연맹보다 훨씬 높은 전국적인 상위그룹에서 중차대한 직책인 조선연맹의 간부를 맡았습니다. 이는 전국적 규모의 친일반민족적 조직에서 간부로서 적극적 주도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김성수는 1938년부터 전시체제기 최대의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 이사, 참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이사, 참사로 재직하면서 중앙협화회 관민유지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협력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1940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확대되어, 거대한 전시기구로 개편한 국민총력조선연맹이 발족되자 김성수는 총력연맹 이사로 활동하는 등 역시 간부로 계속 참여하였다. 이러한 총독부 외곽단체에서 이사 등 간부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전시체제에 부응하는 총력운동과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하였다. 1944년 국민총력조선연맹 역원명부를 보면 김성수가 경성척식경제전문 학교장으로서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김성수는 총력연맹 간부를 지내면서 전쟁 참여를 역설하는 등 각종 기고문을 통하여 ‘적을 격멸하여 성전을 완수할 태세’로 총궐기할 것을 선전선동하한 바 있다. 따라서 총독부의 주요 외곽단체로 분류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친일행위는 매우 중대하며, 이 단체의 간부로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행위를 친일반민

족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간부의 지위에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그 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특별법 제2조 제17호가 규정하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는 한글학자 이석린 선생의 예를 들었는데, 김성수와 비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석린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국민총력연맹에 단순 가입하였지만 항일독립운동인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복역한 엄연한 독립운동가이고, 김성수는 조선연맹이라는 전국 조직의 이사로서 핵심적 지위에서 학병지원을 선전선동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 원고는 유진오 당시 보전 교수의 이야기를 근거로 조선연맹의 간부는 “조선인 사회의 유력자의 이름이 빠짐없이 나열”된 것이라고 하였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유진오도 인정한 바와 같이 가인 김병로 같은 분은 일제에 협력하는 대신에 은둔생활로 들어갔고,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송진우나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준연도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등 친일행위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렇듯이 모든 항일독립운동가가 김성수처럼 총독부 외곽단체의 전국적 조직의 간부로 참여하여 일제의 전쟁 승리를 위해 학병 지원을 선전선동하는 등 주도적, 적극적으로 복무한 것도 아니다. 단지 유진오는 김성수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어떤 한 기관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어디로 숨어버릴 수도 없고, 오직 답답할 뿐 이었다”는 말로 친일행위를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김성수 못지않게 동아일보의 핵심인사였던 송진우는 동아일보 폐간 후 동아일보 사옥을 관리하는 ‘동본사’ 사장 역할을 하였지만 해방이 될 때까지 정치 사회활동과 담을 쌓은 채 친일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단체에 참가한 조선인 유력자들이 모두 자발적, 긍정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니, 할 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김성수의 전국적 반민족단체의 중앙간부로서의 활동한 역할을 친일행위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가담자나 비주도적, 비적극적 참여자와 동일시하여 친일행위의 본질을 희석시켜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론>

피고는 ‘일제협력단체사전’의 설명이 ‘김성수 같은 조선인 유력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하에 있던 기층 조선 민중’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러두기-사전의 성격 3항) “이 사전은 인물보다는 단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수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강압에 의해 일시적으로 협력한 경우도 있으며,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단이 게재된 사례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피고는 그 다음 대목에서 “설령 흥아보국단이나 임전대책협력회, 조선임전보국단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져서 기층 조선민중 뿐만 아니라 김성수와 같은 조선인 지식인이나 유력 인사들이 여기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사실

은 이 단체의 취지와 강령에 적극 동감하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원된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이후 구구한 해석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동원당한 사람에게 간부급으로 동원됐으니 ‘그 단체의 취지와 강령에 적극 동감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객관적 문헌 증거’란 없는 것입니다.

친일파라면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귀족원 의원 제의를 총독부로부터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놓았는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면 또 무엇을 더 내놓아야 합니까”라고 까지 하며 귀족원 의원 제의를 거절한 김 보전 교장이 그런 단체의 간부를 무슨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스스로 하려 했겠습니까? 당시 보전 학생, 여러 사람의 증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김 보전 교장은 학교에서도 교장 훈시하기 보다는 묵묵히 잡초 뽑는 일을 기꺼이 한 분입니다.

피고는 중앙협화회 관민유지간담회 참석자 명단에 게재돼있는 것을 두고 ‘이 단체의 간부로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핵심적 지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 하지 않을 수 없어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무슨 ‘핵심적 지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 행위를 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피고 준비서면 작성자 같은 사람은 보전 교장 짬 되는 사람이면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그런 사람은 일제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총독부 기관지에 난 것만을 보고 주장을 폈다가 그것이 잘못된 책임을 인정하지 못해 계속 구구한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태도는 배운 사람, 특히 역사학도라면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며 역사의 법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피고는 또 유진오도 인정한 바와 같이 가인 김병로,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송진우나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준연의 예를 들어 은둔생활로 들어가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등 친일행위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진오 선생의 말씀은 “왜정도 말기(43년)에 가까웠을 때의 일이다. 학원에 대한 왜정의 간섭이 날로 심하여 연희전문학교에 대하여는 이미 탄압이 시작되어 학교는 수색을 당하고 몇몇 교수가 검거를 당하였던 때인지라 같은 사학의 처지에 있는 보성전문학교로서도 언제 머리위에 일정의 철봉이 떨어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일이다. 입학시험도 얼마 남

지 않은 어느 날 학교에는 사복을 입은 동대문 경찰서 고등계주임이 나타났다...(중략)...橫山(요꼬야마)라는 그 경부는 소위 사상범 정치범에 대한 잔혹한 고문으로 이름 있는 자였다...(중략)... 얼마 후 요꼬야마가 나가는 것을 본 나는 곧 교장실로 달려가 인촌선생께 그 자가 온 까닭을 알아보았다. 인촌은 심히 불쾌한 얼굴로 학생의 입학 청을 하러 왔던 것이라 대답하였다. ... (중략)... 요꼬야마의 입학 청은 몹시 끈기진 것이었다. 본인이 직접 3,4차 왔을 뿐 아니라 부하 형사를 보내어 위협을 일삼았다. ... (중략)... 내내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날 요꼬야마는 정복에 칼을 차고 고등계형사 3,4인을 대동하고 학교에 나타났다. 아차 이제는 총검거로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학교를 폐쇄하고 우리를 총검거하려면 할 수 있는 구실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 (중략)... 인촌 선생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시는가 학교의 폐쇄를 각오하고 끝끝내 그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함으로써 위기를 면하려는 것인가. ... (중략)...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그리하여 오후 4시 경이나 되었을 때 인촌선생이 몹시 피곤한 그러나 무표정한 얼굴로 내방으로 들어오셨다.

‘갔습니까.’

나는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 (중략)... 그리고 선생은 내 책상 옆 의자에 앉으시며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의껏 해보다가 안 되면 단념하는 것이지요. 일에는 집착하여 의를 구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하시었다. 나는 그 때의 감명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 (중략)... 전 사재와 전 정력을 기울여오던 사업이지만 일제의 압력에 굴하여 한 명의 부정입학을 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955년 2월 24일자 2면) 는 것과

“인촌을 정점으로 하는 보성전문 그룹은 일제의 물 썰 틈 없는 그물을 용하게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민족적 양심을 살리노라 고심했지만, 말하자면 면종복배(面從腹背) 식인 이런 식의 저항에는 한도가 있는 법이다. 1940년 8월 동아, 조선 양지가 폐간된 두 달 후인 10월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이라는 것이 총독부의 손으로 날조되고, 그 간부 명단에는 모모 하는 조선인 사회의 유력자의 이름이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성명서도 못 내고 속절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승낙 같은 것은 물론 문제로 되지 않았다. ...(중략)... 이름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것을 피하는 길은 어디로든 숨어버리는 수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 변호사인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같은 분은 그 무렵 창동에 집을 짓고 은둔생활로 들어가 있었지만, 어떤 한 기관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어디로 숨어버릴 수도 없고, 오직 답답할 뿐 이었다.” (‘養虎記’, 고려대출판부, 1977년, 86~87쪽)는 것입니다.

‘창동에 집을 짓고 은둔생활로 들어갔던’ 가인 김병로 선생은 인촌 선생 사후(死後) “생각할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일은 어떤 사업과 경륜도 애국애족의 정신을 떠나서 한 것이 없고, 그의 동지에 대한 뒷받침도 공로를 의도함이 아니요, 다만 그 동지애의 자연발로이었던 점이다. 이제는 한 토막 고초와 슬픔의 역사로만 상기되는 지난날의 항일운동에 있어 많은 지사들이 무한한 고생을 겪으며, 해내(海內) 해외(海外)에서 투쟁할 때, 그는 말없이 그들의 여비를 걱정해 주고, 두통한 봉투에 감사와 애정을 담아 주었던 것이다. 혹 어떤 이는 그가 재

력이 있으니까 그쯤이야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할지 모르겠으나, 그때 우리나라에 그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인촌 선생 외에 없지 않았을 것이요, 또 그것은 결코 재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해 두고 싶다”고 추모했습니다.(동아일보 1955년 2월 26일자 4면 ‘인간 인촌을 말함’)

또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은 “나는 여기서 ‘위대한 발견’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한 기쁘기도 하였다. 양호기(고대 출판부 간, 1977년 2월)의 66쪽에 있는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인촌이 학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무제한 타협도 부득이하다고 생각하였다면, 총독부의 강요대로 정원을 초과한 28명의 학생을 희생시켰을 것이지만, 그러한 때의 인촌의 태도는 의연하였다. 명백한 비리의 굴복을 거부할 결심을 굳힌 인촌은 이미 입학수속을 마친 학생들의 제명을 거부하고 말았다. 결과는 인촌의 교장직 사퇴로 끝난 것이었다. ‘정원 초과’에 관해서 그 배경을 알아보면 유 총장은 ‘양호기’ 65쪽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동아일보를 놓고 칼질 가위질 하던 일정의 손길은 시국의 각박화와 함께 1935년 봄 드디어 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신입학생의 정원 초과였다. 이 문제의 내용과 전말도 ‘고대 60년사’에 상세하므로 이곳에 되풀이하지 않거니와, 요는 일정당국의 보전에 대한 고의적, 악의적인 탄압이었다는 한 마디에 그치는 사건이었다. 정원 초과는 1할에서 2할 정도까지는 그때 어떤 학교에서나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고, 보전도 그 전 해까지 매년 2, 3할에서 심하면 5, 6할까지 정원을 초과하는 데도 아무 말 없던 것인데 입학지원자 수의 격증, 30주년기념 도서관 건립모금의 기세 등에 놀란 일정당국은 1935년에 와서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말썽을 일으키는 방식이 또한 몹시 졸렬하고 작위적인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혹시 그런 일도 있을까 해서 미리 각과 140명씩의 정원 인가 신청을 내놓고(新校舍의 학생 수용능력은 각과 200명씩이라도 충분), 그 범위 안에서 법과 125명, 상과 140명에게 입학허가를 했던 것인데 (그 중에서 지정 기일까지 수속을 완료한 자는 도합 228명), 총독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도록 인가를 안 하고 질질 끌어 오다가 등록 마감일 오후에 와서야 갑자기 정원을 엄수하도록, 환언하면 이미 입학 수속을 끝낸 학생일지라도 정원을 초과해서 입학한 자는 이를 취소하도록 날벼락을 내렸던 것이다.’ 내가 놀란 것은 어쩌면 50년 후에 꼭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는 정말로 되풀이 되는 것인가! 인촌 선생이 사임한 경과가 어쩌면 이렇게 나의 사임과 비슷할까! 당국의 강요에 의한 사임, 사임 강요 이유가 입학생 문제, 그 수자도 인촌은 28명이고, 나는 25명, 게다가 인촌도 학생을 살리기 위해 본인이 희생했고 나도 학생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점!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인촌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사임했고, 나는 이 나라 군사정권에 의해 사임했다는 점이다. 내가 기뻐했다는 것은 나의 처사가 옳았다는 것을 재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훌륭한 인촌 선생도 같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김준엽, ‘長江’ 3권, 나남, 1990년, 290~291쪽)

“이렇게 해서 조국의 땅을 처음 밟기는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맥없이 돌아가게 되었으니 기 막히는 일이었다.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연락을 취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변소로 나갔다. 문 앞에는 일본헌병 몇 명이 경계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나를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변소로 안내하였다. 그런데 그 헌병은 아무리 보아도 한인 사병 같기에 우리 둘만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슬쩍 우리말로 ‘요새 서울 사정은 어떨소?’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좀 당황하였지만 기쁜 얼굴로 쳐다 보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다. 나는 재빠르게 ‘우리 일행 중의 4명은 한국인이고 지휘관은 유명한 이범석(李範奭)장군이오. 우리는 임시정부에서 먼저 파견된 정진대(挺進隊)인데, 할 수 없이 내일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휴전조약이 체결되면 곧 다시 입국할 것이오. 그러니 급히 이 사실을 신석우(申錫雨, 李장군의 손위 매부) 선생, 여운형(呂運亨, 李장군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분)선생, 조만식(曹晩植)선생, 김성수(金性洙)선생, 안재홍(安在鴻)선생께 알려주시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꼭해 주시오’라고 했다. 그 청년은 놀라면서도 희색이 만연이었다. 틀림없이 알리겠다고 하면서 몹시 흥분된 모양이었다. 이 일을 슬그머니 李장군에게 보고하였더니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하셨고 張·魯 두 동지도 우리 사명의 일부는 달성한 것 같다고 하면서 기뻐했다.” (김준엽, ‘長征’ 1권, 나남, 1987년, 431쪽)

학병으로 끌려갔다 탈출해 광복군에 합류한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은 왜 위와 같은 기록을 남겼을까요?

김 전 총장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촌에 대해 친일파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 있어요. 신문사, 학교 등을 운영하다보니 일본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과 편지도 주고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전후 맥락도 보지 않고 인촌이 일본인에게 보낸 편지만 보고서 그를 친일파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학도병에 나가라고 독려하는 글이 신문에 나왔던 것도 그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봐요. 유진오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회활동을 안 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던 사람들이야 그런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인촌 같은 사람이 사회활동을 다 접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당시 우리 민족을 위해 더 좋았을까요? 인촌은 그런 사업을 해서 뒤로는 독립운동을 도왔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운영하던 인성학교에 돈을 낸 것도 인촌이었지요. 제가 고대 총장을 할 때 인촌의 동상을 없애겠다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있어서 제가 말렸어요. 인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고대가 싫으면 그들이 떠나라고까지 했지요. 광복군 출신인 제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인촌상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인촌이 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 ‘각 전문교의 과거와 현재’라는 김 보전 교장 명의의 글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이 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인 상상일 뿐이고, 분명한 것은 김성수가 1944년 전시교육비상조치 방침에 따라 보성전문학교의 명칭이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변경되자 ‘각 전문교 과거와 현재’라는 글을 통하여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교육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도 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전쟁 참여를 적극 선전선동하였다는 사실이다. 김성수는 총력연맹 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급선무라면 이 위에 더 중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우리들 교육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도 1억 국민이 각기 맡은 직장에서 싸워 이기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엄청 더 깊이 각오하여 국난 돌파에 용왕매진할 뿐” 이라고 역설하였다. 김성수의 선전선동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다. 그는 ‘새 결의로 총궐기’라는 글을 통하여 소기(小磯) 내각이 결성된 것에 대하여 “적을 격멸하여 성전을 완수할 태세는 이로써 완비된 것이므로 1억은 이 기회에 비상한 결의로 총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선으로서는 현 총독이 총리대신이 된 만큼 조선통치의 전도에 매전의 광명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조선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고이소 총리의 지도에 따라 금후 반도 2천6백만은 더한층 지성봉공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원고가 인용한 임종국도 친일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일제 침략과 친일파’에서 ‘학도병 강제동원’ 부분을 기술할 때 1943. 11.8.부터 9.사이에 있었던 김성수의 동향을 기록하였다. 임종국에 따르면 “11월 8일 국민총력조선 경기 경성연맹 주최로 부민관에서 ‘출진학도장행의 밤’이 열림. 12월 1일 입대인 일인 학생에게 마스크트를 증정한 후, 제1부 격려사는 고원훈, 김성수, 손정규(日婦 역원) 외 일인 3명, 제2부 여흥은 음악과 조택원 무용연구소의 무용 등 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국은 이튿날인 11월 9일 있었던 김성수의 동향을 기록했는데, “보전, 교장 김성수, 생도감 장덕수, 동대문익찬회의 박춘금, 박희도, 이원보와 향산 대좌 참석으로 학부형과 간담회”라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매일신보의 조작된 기사에만 얽매이지 말고 진실을 보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인용한 임종국도 친일 문제를 연구하고 진상을 밝히는데 가장 많은 자료로 활용한 것이 바로 매일신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객관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단지 매일신보에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김성수가 쓴 ‘각 전문교 과거와 현재’와 ‘새 결의로 총궐기’에 대하여 조작된 기사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

‘未來의 大學 總長の 大學 創設 雄圖’, 삼천리 1940년 4월호, 32~39쪽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普專校長 金性洙氏의 六大綜合大學案

普專校長 金性洙氏의 法, 商, 文, 工, 醫, 理 六大綜合大學案

現在의 四百萬圓이 一千萬圓만 되는 날

교장 金性洙氏 談

(전략)

기자 “만일 선생께서 이상하시는 대학을 창설하신다면 과는 무슨 과 무슨 과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교장 “아직 구체안도 세우지 않은 것을 무슨 과를 세우느니 하는 것은 과장과 같아 보이고, 또한 사회에 신용이 없는 말을 내어 놓는 듯한 감이 있어서 忌諱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말해 보라면, 제 이상으로는 종합 대학을 창설하고 싶어요. 그리고 과는 현재 있는 법과와 상과를 그대로 둘 터이며, 셋째로 문과, 넷째는 공과, 다섯째는 의과, 여섯째는 이과, 이렇게 여섯 과를 둘 터입니다. 그리고 예과도 두려고 합니다.”

(중략)

교장 “모두가 우리 눈에는 그 규모로나 시설로나 다 훌륭해 보이니까 어느 대학이라고 꼬집어 내기는 곤란해요. 그리고 또 대학마다 一長一短이 있는데 내가 본 중에서는 英國에서는 캠퍼리치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이고, 米國에서는 하바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이 그 중 훌륭하고 의중에 들드군요.”

(중략)

교장 “저는 말의 사람보다 행위의 사람을 기다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건방진 말 같지만 우리 朝鮮 사람은 나부터가 실천 躬行이 없고 말만 하는 사람이며, 눈은 높고 자기의 일에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말보다 행위의 사람을 기르고, 그러한 인물의 출현을 위해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내 희망이요 이상이외다.”

이 같은 포부를 가졌던 인촌 선생이 ‘보성전문’이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강제 격하됐는데 ‘새 출발을 하게 되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피고는 ‘고려대학교 100년사’ 가운데 한 부분 즉 “1941년 초 김성수는 법학부, 상학부 외에 농학부를 신설하여 세 개의 학부로 종합대학을 만들고자 계획하였지만, 이후 김성수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실치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고려대학교 100년사’, 536쪽)을 떼어 내 인용했지만 ‘고려대학교 100년사 1’ 535~536쪽의 전체 기술을 보면 피고가 인용한 부분이 그 기록 전체의 본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총독부 당국에서는 모든 사립학교의 교장을 일본인으로 경질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연희전문 교장 언더우드도 식민 당국에 의한 학교강점을 모면하기 위해 1941년 2월 25일 마쓰모토 토시오(松本俊夫)를 천거하고 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희전문학교는 1942년 8월 17일부터는 총독부 시학관인 다카하시·나카지마·가리지마 등 일본인이 번갈아 교장이 되었다. 보전 교장 김성수는 보전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1941년 1월 부 교장에 김영주, 수석생도감에 장덕수를 임명하는 등 새로운 교무 진용을 짜고 자신은 되도록 표면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부 교장은 창피하고도 난처한 對 총독부 관계 섭외를 보아야 했고, 장덕수는 생도감으로서 경찰에 잡혀간 학생을 빼내는 일, 근로동원 수행, 학생 지도 등 비상시국의 학생 문제를 맡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의 탄압이 날로 더해 가던 전시체제라는 비상시

국 속에서도 보전을 종합 대학으로 승격시키려는 야심 찬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직 태평양전쟁 직전이었다고는 하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인촌은 보전을 대학으로 승격시킬 마지막 결심을 하고, 유진오와 이상훈 두 학과장에게 계획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미나미 총독이 부임한 이후 창씨개명이다, 지원병이다 해서 어수선한 판국에 보전을 대학으로 승격시켜 줄 리 만무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모두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인촌이 노리는 것은 따로 있었다. 유진오가 재삼 이 문제에 대해서 캐묻자, 인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南次郎(미나미 지로)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번 해보자는 것이 아니겠소. 양심을 이토록 동요시켜 놓고 저희들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니오. 인촌의 말뜻을 새겨보면, 3·1운동 때처럼 일제가 너무 심했다 싶어 고삐를 늦추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대학 승격의 선심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던 인촌의 집념을 여기서 볼 수 있다. 그 일 때문에 유진오와 이상훈 두 과장은 하기방학 동안 학교에 나와 종합대학안을 꾸렸다. 세계 주요 대학의 학칙, 교과 과정을 조사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경영할 수 있는 종합대학 계획서를 작성했다. 당시에 마련된 계획안에 의하면 법학부, 상학부 이외에 농학부를 하나 더 신설해 3개의 학부를 가진 종합대학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농학부의 신설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실학인 농학을 교육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하는 인촌의 끈덕진 집념이 반영된 것이었다. 반면 종합계획안에는 아직 문학부는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당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인촌이 종합대학승격을 위한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전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계획안이 뒷날 고려대학교로 승격될 때의 종합대학제의 근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일제는 끝내 패망할 때까지 한사코 한국민에게 단 하나의 학교도 대학으로 인가해주지 않았다.”

또 피고가 인용한 매일신보 1944년 7월 24일자 2면 金性洙, ‘새 결의로 총괄기’ 제하 기사 역시 보통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문어체의 찬사를 매일신보 측이 조작해 만들어 낸 것입니다.

피고는 “임종국도 친일 문제를 연구하고 진상을 밝히는데 가장 많은 자료로 활용한 것이 바로 매일신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임종국 선생은 피고처럼 비뚤어진 인식과 외눈으로 매일신보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아일보 자료실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임종국 선생의 ‘일제침략과 친일파’에 나오는 ‘김성수의 동향 기록’을 친일의 근거가 되는 양 인용하고 있으나 친일파 연구를 아버지 임문호의 친일 행적을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임종국 선생이 ‘빼앗긴 시절의 이야기’ (민족문제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2007년)에서 인촌 선생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촌이 재단을 인수하면서 보성전문은 새로운 모습으로 백 년을 향해서 웅비했던 것이다. …(중략)… 양부 김기중에게 청해서 5백 석의 전답과 6천여 평의 대지를 제공하게 하고, 또 생부 김경중으로 하여금 5천 석 전답을 기부하게 하여 인촌은 그 동안 빛투성이던 재정을

정리하는 한편, 안암동 현 위치에 6만 2천여 평의 광활한 부지까지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장래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인촌의 안목에 의해서 오늘날 고려대학교의 기초가 마침내 완성을 본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인촌의 생각은 보성전문의 구출 유지가 아니라 차라리 향후 백 년에 주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중략)… 첫째도 견고, 둘째도 견고를 주장한 인촌은 공사 중 매일같이 현장을 감독하면서 시멘트의 배합과 석재 하나를 붙이는 것까지도 세심한 주의로써 지켜보았다. 인촌이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성력을 기울인 것은 물론 그의 경륜의 일단이자 구미를 돌아보고 온 안목의 소치이기도 했다. …(중략)… 안암동 6만 3천여 평을 확보한 인촌의 안목과 성력, 그는 그보다 못잖게 거액인 10만 여 원으로 석조 본관건물을 준공케 했다. …(중략)… 원래가 좌절된 민립대학에의 꿈을 바탕으로 하여 출발한 인촌의 야망. 그럴기 때문에 인촌은 도서관 하나만이라도 민족의 힘의 총화(總和)에 의해서 마련하고 싶었으리라. …(중략)… 인촌이 교장으로 재임한 것은 이렇게 암흑의 그림자가 짙어만 가던 1937년 5월이었다. 이후 해방되던 이듬해 1946년까지 교장으로 재직하던 인촌은 교명이 ‘경성 척식 경제 전문학교’로 바뀌는 그 일제 말엽의 암흑 속에서도 끝까지 발전의 길을 소홀히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1937년에는 석조도서관 건물이 낙성, 개관하였다. 1938년에는 대운동장이 준공하였다. 1940년에는 새로 마련된 운동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운동회가 베풀어지면서 이른바 암흑시기지만 보성전문은 위축되지 않았다. …(중략)… 정보국에 복무하면서 직책상 일본의 1급 국가기밀을 모조리 알았다. ‘일본이 머잖아 패망하겠군!’ 휴가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장철수는 다시는 도쿄로 가지 않았다. 평소에 존경하던 인촌을 찾아가서 극비에 속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본 패전을 예언한 것이 1944년. 인촌도 장철수의 말이라면 신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시점에서 장철수 이상으로 일본 기밀을 알 사람은 달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중략)… 그 후에 장철수는 또 여운형을 심방했다. 그로부터 일본의 기밀을 전해들은 여운형은 비밀단체인 ‘조선건국연맹’을 조직하고 그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해방이 되자 여운형은 이 조직을 재빠르게 건준으로 확대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학생들은, 본교의 김용문과 서태원 등은 건준이 그렇게 탈바꿈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건준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그들은 이미 말한 것처럼 미련 없이 그곳을 차고 나왔다. …(중략)… 해방 후부터 우익학생의 중심체가 보성전문에 있었기 때문에, 또 김성수 등 우익진영의 인사가 교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 보성전문은 우익학생 진영의 총본산이자 수뇌부 역할을 담당하였다. … (중략)… 이리하여 보성전문은 1946년 8월 15일자로 대학에의 속원을 달성했다. 교명은 ‘고려대학교’인데 이것은 인촌이 직접 명명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국명이자 지명인 코리아, 또 대(大) 고구려의 민족정신과 청자의 높은 문화성이 깃들인 고려, 인촌이 관립인 경성대학교에 빼앗길까 봐 펍 심려했다는 일화를 남긴 채 ‘고려’는 우리의 교명이 된 것이다.”

다. 피고 결론의 문제

□ 피고의 주장

아무리 공(功)이 많았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과(過)가 반민족적이었다면 그 비중은 공보다 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김성수를 외국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인물들과 단순

하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아도 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도외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 국민당에서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가 일제가 세운 남경 괴뢰정부의 수반이 된 왕조명(王兆銘)이 그렇고,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영웅이었다가 독일의 프랑스 점령 후 수립된 비시 괴뢰정부의 수반이 된 페탱이 그렇고, 필리핀 독립운동의 영웅이었다가 일제의 점령 후 필리핀 괴뢰정부의 대통령이 된 라우렐 등이 그렇다. 이즈음 피고는 원고가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변호하는 근거로 종종 인용하였던 매일신보 편집국장 정인익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총독부 기관지라는 매일신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정인익은 “본인 마음만큼은 여전히 민족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의 환경과 제(諸)조건이 본인으로 하여금 의사대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당국의 지시대로 복종하였으니 그 자체가 벌써 반민행위라고 자인하는 바울시다”라고 실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반성이 김성수 본인이나 기념 사업하는 측에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상에서 보았듯이, 원고는 김성수가 애국애족적인 자세로 살아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였던 일제 말 그는 정반대로 ‘전국적, 주도적, 적극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1차 사료에 의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명백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김성수의 실체를 외면한 채 **상황 논리에 맞추려는 각종 주관적인 진술과 증언력이 의심되는 몇몇 이야기를 증언이라는 점을 내세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김성수의 옹호론자나 변호론자에 의하여 일찍부터 대필설이나 명의도용설, 조작설, 불가피설, 강제성 등 각종 ‘설(說)’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설’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그 주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은 특별법의 법적 취지에 비추어 김성수의 행위 내용, 즉 그 당시의 활동과 정도,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특별법상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제2조 제11호 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이다.

둘째, 제2조 제13호 사회,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이다.

셋째, 제2조 제17호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김성수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김성수의 글과 행위가 전국적이고 주도적인 당시의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구나 김성수와 관련된 모든 기사가 조작되었다고 의미를 축소한다고 하여도 **김성수의 행위가 기록상 명백하며,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헌적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특별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적법성을 강하게 입증시키고 있고, 특별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처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에 해당하는 학병지원 선전선동행위를 비롯하여 특별법에 해당하는 친일협력적인 사회 문화 또는

기관 단체에 참여하고 총독부 외곽단체 간부로 활동하고 전쟁을 선동한 행위는 그 적극성이 현저하고 주도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특별법 제2조 제11호, 제13호, 제17호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

피고는 ‘1차 사료에 의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김성수의 행위가 기록상 명백하며,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헌적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말하는 ‘객관적인 기록’ ‘객관적인 자료’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전부입니다.

피고는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헌적 자료와 근거’라고 했는데 이는 ‘장신의 논문’, 김상훈, 손종영, 손점용, 허호의 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한 것으로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헌적 자료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또 ‘상황 논리에 맞추려는 각종 주관적인 진술과 증언력이 의심되는 몇몇 이야기를 증언이라는 점을 내세워’라고 했으나 원고는 170여 건의 증언과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170여 건의 증언과 자료는 피고가 제시한 총독부 기관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피고가 전적으로 의지해 인용하고 있는 총독부 기관지는 왜곡, 과장, 날조된 허위의 자료, 일제가 만들어 낸 조작된 자료들이고 원고가 제시한 170여 건의 증언과 자료는 당시 상황과 김보전 교장의 실체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피고는 ‘김성수를 외국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인물들과 단순하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이라고 하면서도 예로 들어 민족 사학 보전을 지키려 했던 한 사학의 책임자를 왕조명(王兆銘), 패탕, 라우렐과 같은 식민지 괴뢰정권의 수반과 같이 언급하는 것은 피고 준비서면 작성자의 역사에 대한 이해 수준과 잘못된 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피고 준비서면 33~55쪽)

나. ‘자발적, 긍정적, 능동적’의 문제

(1) 첫째, 일제의 귀족원 의원 제의 거부 관련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1956년 증언)로 총독부 정무총감을 지낸 엔도의 진술, 둘째(2002년 증언)로 최서면이 밝힌 한일현대사의 비화, 셋째(1965년 증언)로 국무총리를 지낸 장택상의 이야기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이들 총독부 고위관료나 미군정 수도경찰청장을 지낸 장택상(이후 국무총리)이 김성수와 관련해 진술할 때는 이미 김성수가 대한민국 부통령을 지낸 명망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다. 물론 엔도의 인터뷰와 최서면의 증언(야기 노부오 회고)을 보면 각각 자신이 직접 김성수에게 귀족원 의원을 제의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각각 총독의 명령을 받아 김성수에게 귀족원 의원을 제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성수가 이들 세 사람의 증언처럼 귀족원 의원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증언’들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최서면이 밝힌 야기 노부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야기 노부오는 김성수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왜 느꼈을까 궁금해진다. 인간적으로 친밀하거나 정치사상적으로 같은 길에 들어섰다고 느꼈는데 막판에 거절하니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서면이 밝힌 증언이라는 것도 직접 증언이 아닌 야기 노부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으로 정황을 설명하는 정도이다.** 무엇보다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장택상 회고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틀리다는 점이다. **일제가 김성수에게 귀족원 의원을 제의한 시기가 우가끼 총독 때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이소 총독 때다.** 조선인이 귀족원 의원으로 칙선 발령된 것은 귀족원령이 개정된 1945년 4월인 관계로 마지막 총독인 아베(1944년 7월 24일~1945년 8월 15일 재임) 때의 일이지만 이미 전임 총독인 1944년 고이소 총독이 있을 때 귀족원 의원을 선정하는 물밑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 두 총독의 재임기간과 그 정책을 살펴보겠다. 우가끼 총독(1931년 6월 17일~1936년 8월 5일 재임)은 일본 육사 1기 출신으로 1924년 일본 육군대신으로 발탁되었고 1925년 육군 대장으로 승진하였다. 1927년 조선총독 임시대리를 지냈으며, 1931년 제6대 조선총독에 부임하였으며, 조선에서 농촌진흥정책을 폈다. 1938년 다시 각료로 발탁되어 외무대신으로 임명되어 척무대신을 겸임하였다. 고이소 총독(1942년 5월~1944년 7월 재임)은 일본 육사 출신으로 육군성 군무국장, 관동군 참모장, 조선군 사령관 등을 지낸 후 1938년 예편하였다. 이후 내각에 발탁되어 대동아성 대신을 거쳐 1942년 제8대 조선총독에 부임하여 학병 및 징병제도를 실시하였다. 고이소는 조선인 징병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한 총독인데, 재임기간 중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병제도시행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호적의 정비, 징병에 대한 계발, 선전, 조선인이 연성, 일본어의 보급’에 중점을 두고 관계 당국 및 각 기관이 전력을 기울인 끝에 1944년 4월부터 징병검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의 청장년들을 징집하여 전쟁터에 내보냈다. 이어 고이소 총독은 1944년 7월 내각수상으로 발탁되어 제41대 일본 내각 총리대신으로 부임하자 일제가 식민지배 중인 조선과 대만에 칙선 귀족원의원을 인선하였다. 고이소는 내각수상으로서 제86 제국의회에서 통과된 귀족원령 개정에 따라 조선, 대만 재주(在住) 동포의 칙선의원에 관하여 조선과 대만 양 총독부의

의향을 참작해 전형한 후 귀족원 의원에 대한 인선을 마치고 4월 3일 일본왕의 허락을 받아 이를 정식으로 발령 공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시대를 살았다는 장택상이 총독 정책과 총독 재임시기가 뚜렷이 구분되는데도 총독을 혼동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기억의 한계라고만 보기에 힘들다고 하겠다.**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장택상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가 김성수를 포섭하려고 귀족원을 제의한 때가 우가끼 총독 때라고 하자 방송 중 사회자가 다시 한 번 “우가끼 총독?”이라고 묻는다. 그러나 장택상은 “우가끼 때 우리나라 유수한 명사들을 일본 귀족원 의원으로 포섭하려고 갖은 계책을 다 썼지”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실수가 아닌 확신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장택상은 “그 계책에 끌려들어난 분이 참 아깝게도 윤치호 씨, 오세창 선생 그리 되었어요”라고 말했는데, 윤치호는 귀족원 의원이 된 것은 맞는데 **오세창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사실에도 맞지 않은 진술을 증언이라는 미명 하에** 원고가 김성수에 대한 유리한 부분만 차용하여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장택상의 이야기를 들어 김성수 등 “세 사람만 구원 삼으면 조선반도에 대한 저희들 정책은 다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말과, 김성수가 “창씨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수립되나요?”라고 반문한 것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직접적인 증언이라기보다 장택상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며, 더구나 창씨개명과 대한민국의 수립 여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며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한 것 뿐 이라고 할 것이다. 장택상 진술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야기 노부오가 “해방 전 일년 전에 관리가 됐다. 그자가. 내가 한 번 만나봤다”라고 말했는데, 장택상이 야기 노부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즉 야기 노부오는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조선총독부 관리로 임명되어 1926년 4월 총독부 전매국 사업과속을 거쳐 1929년 황해도 경찰부 경무과 경시를 지냈다. 그 후 1930년대부터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 등의 핵심 관리로 근무하였고 1945년 6월 전남도지사로 승진하였다. 이러한에도 장택상이 야기 노부오가 해방 전 일년 전에 관리가 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과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다.

<반론>

귀족원 의원 제의와 관련. 당시 총독부 정무총감이었던 엔도 류사쿠는 자신이 직접 교섭을 했으며 김성수는 거절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조선총독부 고위관리의 육성 증언’ (도서출판 해안, 2002년, 286~288쪽) - 아베 총독 시대의 개관 : 엔도 류사쿠 정무총감에게 듣는다

일시 1959년 9월 16일

장소 중앙일한협회 회의실

강사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야마나 미키오(山名酒喜夫)

사회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참가자 15명

협회측 호즈미 신로쿠로, 시부야 레이치, 곤도 겐이치, 기시 겐

학생측 미야타 세쓰코, 권영욱, 강덕상, 이옥내, 아오키 가요코, 김기대, 신국주, 오쿠무라

고이치

녹음시간 약 137분

신국주 = 저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칙선 귀족원 문제인데요, 대체로 16명이 지명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엔도 = 아니야.

신국주 = 그렇다면 어느 분으로 결정한 겁니까. 16명의 이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록...

엔도 = 내가 16명을 확실히 결정했다는 것은 지금, 기억에 없어요.

신국주 = 기록에는...

엔도 = 내가 꼽아 볼게요. 내가 직접 교섭한 사람은, 지금 말씀드려보면, 첫째는 김성수 군. 그런데 김성수 군은 거절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민족주의자로서 살아 왔다. 지금 와서 그런 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고 했어. 나는 김성수 군의 마음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했지. 그래서 김성수 군에게는 자네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취소하겠네 라고 했지. 다음은 누구였나, 잊어 버렸네.

신국주 = 대전 사람으로, 지금 조선은행 총재로 있는 데이운요...그 쪽도 있고, 16명이 대체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름은...

엔도 = 혹시 소문,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됐지.

미야타 = 선생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말이에요.

엔도 = 그건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그 때는요. 예를 들면, 이 혼란기에 누구누구가 정무총감 자리에 앉는다가, 누구누구가 어디 지사가 된다가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예측한 것과는 다른 소문도 많았어.

신국주 = 선생님, 제가 질문했던 것은 저기 선생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른바...

미야타 = 어떤 방침 아래.

신국주 = 어떤 방침을 갖고 어떤 사람을 내정했을까 하는, 이른바 내용 판단에 대해서입니다.

엔도 = 그건 정치상 편의 같은 것보다는, 역시 인격과 식견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지방장관, 각 도 지사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듣지 않으면 안됐지. 대체로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맨 먼저 거명된 인물이 김성수 군. 김성수 군은 당시 누구의 눈에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생각해요. 정치상으로야,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알고 있었으니까 칙선의원을 삼아도 될지 어떨지 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별 문제였어. 훌륭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방침이었으니까.

신국주 = 그래도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일본에 협조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립 사상을 갖고 있는데도 조선의 지도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모두 포함시켜 판단했다고 보기에는 좀...

엔도 = 물론, 민중의 지도라고 합니까, 그런 걸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았어요. 방법론적으로 조선에서 민중의 지도전선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귀족원의 칙선의원을 삼고 싶었어요.

또 다나카 다케오 고이소 내각의 서기관장은 아래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참정권 시행의 경위를 말한다’, 고이소 내각의 다나카 다케오 서기관장 외 (위 책 256~259 쪽)

일시 1958년 8월 26일

참석자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 고이소 내각 서기관장, 참정권 시행 문제 당시)

야마나 미키오(山名酒喜男 · 조선총독부 총무국 문서과장, 총독비서관, 관방총무과장)

쓰쓰이 다케오(筒井竹雄 · 조선총독부 사정국 지방과장 겸 국민총력과장, 관방인사과장)

아키야마 쇼헤이(秋山昌平 · 조선총독부 관방심의실 사무관, 총무국 사무관, 관방문서과 사무관)

훈다 다케오(本多武夫 ·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장)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眞六郎 · 조선상공회의소 會頭)

시부야 레이지(澁谷禮治 · 조선무역협회 부회장)

곤도 겐이치(近藤劔一 · 경성일보 논설위원)

다나카 = 예, 꼭 하지요. 경무국장으로 곧 죽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웃음) 그래서요,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조선을 어쨌든 병합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전제, 이미 빼앗아 버린 거니까 그 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이미 쓰쓰이 군의 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선총독부에 접근하려는 이른바 친일을 팔려는 자, 그런 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은 없다고 까지야 극언할 수 없지만, 전혀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보다는 역시 병합에 반대하여 우물에 빠져죽은 사람의 자식이라든가, 작위를 절대로 거절한 사람의 자식이라든가 친척 같은, 조선에 굳게 터전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역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면에서는 역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정 당국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역시 일본 내지의 국민과 조선 현지에 있는 일본인을 납득시키면서 해야 하는 것이 정치니까. 그것에는, 저 사람은 의지가 될 것 같으니 가능한 한 우리 쪽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절대 복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복종한다 해도 반드시 바로 관리로 삼기에는 불가능한 사정도 꽤 있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애써서 상당한 지위를 주어 일하게 한 것이 천도 교의 저 뭐랬나...

쓰쓰이 = 최린.

다나카 = 아아, 최린. 만세소요 때 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었는데, 코밑에 수염 기른 할아버지, 뭐랬더라, 잊어버렸네. 시부야 씨, 예, 윤치호(尹致昊). 그리고, 뭐 이 사람은 관리로 등용하지 못했지만, 살해당한 여운형 그리고 민간에서는 김성수가 있었는데, 김연수는 마지막까지 저항하여...

질문 = 김...

다나카 = 김연수요. 김성수도 그랬지만, 특히 김연수는 정말 견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신사적이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정책으로도 민립대, 아니, 저 경성제국 대학을 창설하고, 그리고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언문으로 된 신문 세 개를 허가했어요. 이 신문에 대해서는, 현지 일본인은 대부분, 특히 군부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언문신문

같은 게 있어서 독립사상을 양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검거를 하고 단속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라고요. 군의 반대가 특히 심했어요. 그렇지만 뭐 일단 언론의 자유라는 걸 부여하고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뭐 계속 압류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진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사방팔방에서 쏟아지는 공격 속에서도 총독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대학 등에 대해서도 독립운동 투사를 양성하게 된다면서 반대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풀어주면 다시 민립대학을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찌되었든 경제적인 기반이 생기고, 지식이 거시기 한다면 어찌 될지 모른다. 그 경우 원주민족이 어떻게 되든 그건 또 그 민족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으로서도요. 그러니까, 역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이걸 굉장한 고민거리였지만, 그런 강경한 반대의 흐름 속에서도,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 생각한 대로 추진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역대 총독의... 그렇지만, 그 전제로 이미 그걸(웃음) 빼앗았으니까요. 이러한 고민이야 어찌되었든, 역시 당한 쪽에 있는 민족으로서는 그랬겠지요. 저, 마루야마(丸山鶴吉)씨 등이 갔을 때에, 그리고 사이토 씨의 시대에 그야말로 민족운동의 최전방에 서 있던 송진우라든가, 혹은 전남의, 와세다에서 돌아온 박이규(朴珥圭)라든가, 장덕수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 그룹을 모아서 총독부의 젊은 사무관, 과장이 경성호텔에 모여 빈번하게 간담회를 했어요. 이 모임에 대해서도 떠들썩하게 비난이 있었습니까. 역시. 그렇게 부정하고 씩어빠진 말만 하는 놈들에게 그렇게 잘해 주니까 놈들이 응석을 부린다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려를 해 왔던 거지요.

조선총독부 보안과장이었던 야기 노부오(八木信雄)의 증언.

‘日本과 韓國’ (일한문화출판사 한국지점, 1981년, 261~263쪽)

민족주의 진영 巨頭와의 交遊

Y = 그런데 나는 이와 같은 一視同仁의 眞精神에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 外도 보성전문학교 교장 김성수 씨,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씨 등 당시 한국 내에 있어서 민족주의 진영(김구 씨 등 해외망명자는 제외)의 최고봉이라고 지목되는 인물과도 상호 입장을 초월하여 인간적 교유관계를 가졌던 것이네. 다시 말해서 상호간 상대의 입장을 알면서 인간 끼리로서의 교유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라네.

K = 吳越同舟가 아닌 吳越友好인가.

Y = 여하튼 그러한 것이네. 나로서는 숲 씨와 宋 씨 두 분과 접촉을 하는 데는 우선 “때는 대동아전쟁의 절정기고 일한 양 민족은 아세아의 해방을 위하여 相携하여 米英과 싸워야 한다”하고 其의 노력을 요청하는데 주안을 둔 것이고 한국통치 其 자체에 대하여의 노력이 아닌 것으로서 이분들도 이해하여 줄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네.

K = 전쟁에 대한 협력과 한국 통치에 대한 협력을 그렇게 간단히 분리할 수 있을까.

Y = 실제 문제로서는 분리하기 어려우나 관념적으로는 일응 분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여하튼 그와 같은 것으로서 접촉을 거듭하는 동안 상호 마음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同性으로서 우정에까지 발전하여 갔다는 것이네. 나로서는 상대가 끝까지 민족의 자주자립을 열망하는 것이고, 열렬한 민족애의 抱懷者인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호감을 가지고 혹은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하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이 아닌가.

K = 그것은 항상 한국인의 신분이 되고 입장이 되어서 매사를 생각하는 자네의 태도에 유래하는 것이 아닐까.

Y = 물론 거기에는 相違가 없으나 그러나 나는 총독부의 관리이니까 一視同仁의 眞精神에 깊은 이해를 표시, 일본에 의한 통치에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국에 대하여 먼저 최고의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 金 씨, 宋 씨 등과 같은 열렬한 민족주의자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다. 독립도 좋고 일본 통치도 좋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徒輩는 내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金 씨, 宋 씨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생각은 나의 언동 구석구석 표현되어 있으므로 상대도 그것을 이해할 것이고, 또 그것이 나에 대하여 호감 또는 경의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네.

K = 게다가 자네는 보통 일반의 일본인이 아니고 총독부 관리, 특히 特高의 총책임 만큼 상대가 자네에 대한 호감 및 경의도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 아닌가.

Y = 그렇게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지. 여하튼 그와 같은 경위로 나는 金 씨 및 宋 씨와는 상당히 친히 교제하였다. 어떠한 날 金 씨 덕에 초대를 받았을 때 山岡鐵舟의 橫額을 선물로 지참한 일이 있네. 그 무렵 상호 농담까지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하였지. 나는 其 橫額을 金 씨에게 주면서 웃으면서 “鐵舟는 德川幕府의 충신이었으나 일단 명치유신이 성취한 후, 명치 천황의 시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인물입니다. 귀하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 민족주의자가 총독 정치에 협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願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고 이와 같은 뜻을 표명한 것이네. 金 씨 또한 웃으면서 “其 願은 매우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횡액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고 쾌히 수납하였네.

피고는 ‘최서면의 증언은 야기 노부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고 장택상의 증언은 세 대목(총독 이름 혼동, 오세창 선생 잘못 거론, 야기 노부오에 대한 불분명한 표현)에서 잘못돼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최서면과 장택상의 증언은 엔도 정무총감, 다나카 서기관장, 야기 보안과장의 증언과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2) 둘째, ‘적극적, 주도적’ 행위를 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면 일제의 강압에 의한 좌담회나 신문기고만이 아니라 학병 대상자인 보성전문(이하 보전) 학생들에게 직접 학병에 나갈 것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권유하였을 것이나, 보전 제자 중 김성수 보전 교장이 학생들에게 학병에 나갈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했다고 기술해 놓았거나 증언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는 김성수가 좌담회나 신문기고만이 아니라 학병 대상자인 보성전문 학생들에게 직접 학병에 나갈 것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권유하였을 것이라는 반민규명위의 주장에 대하여 그런 증언이 없다고 반박하기 위하여 보전 출신 학생들의 ‘증언’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민규명위는 김성수가 좌담회나 신문기고,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학병 출진을 권유했음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반민규명위가 주장하지도 않은 부분, 그리고 ‘적극적’을

과잉 해석해서 다른 행위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강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제시한 여러 증인들이 의미 없다고 본 것은, 김성수의 주된 친일행위인 기고와 인터뷰에 대하여 증언자들의 증언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곧 증언자들은 기고 과정과 인터뷰 과정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며, 자신의 주관적인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일부 보전 학생들이 학병장행회나 조례 시간에 김성수가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또는 학병 나가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입증하는 김성수의 증거들은 명백하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의 주장대로 김성수는 연설이나 기고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객관적인 증거는 김성수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주도적, 전국적’ 행위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장신의 논문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행정과 변호론 비판’ (이하 장신 논문)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속간된 뒤의 시기는 당국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서약의 이행 여부를 일제가 강제하던 시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안정적인 간행이 의심되던 시점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김성수의 시국강연과 라디오방송이 벌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1943년 10~12월 사이는 보성전문학교가 망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성전문이 이공계 중심의 경성척식전문학교로 학교 성격이 바뀐 것이었다. 문과계 전문학교에서 이공계 전문학교로 바뀌었다고 학교가 ‘격하’된 것은 아니었다. 일제의 전시체제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계열만 달라지고 이름만 바뀌어졌을 뿐 전문학교의 학제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점 또한 김성수 마음에 들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학교 자체는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보성전문에서는 김성수가 아닌 장덕수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 연설을 많이 하였지만 김성수 역시 학병 지원에 대한 선전선동은 그치지 않았다. 김성수가 남긴 기고와 인터뷰, 좌담회 및 총독부 외곽단체나 협력 단체에 참여한 행적은 부정할 수 없는 친일행위에 대한 증거이다. 특히 좌담회의 경우 참석자의 현장성으로 인하여 도용설이나 대필설, 조작설 등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통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가 참석한 학병좌담회 등 각종 좌담회 가운데 1943. 6. 27. 경기도 수원 서호(西湖)에서 있었던 공사현장에서 김성수가 근로보국대 좌담회에 참석하여 “근로장(勤勞場)을 전장(戰場)으로 생각하고 장병(將兵)에 못지않겠다는 정신력으로 일을 하여 준 것”을 강조한 것을 그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기사와 함께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호(西湖) 호반에 벌어진 준척공사는 ‘전문대학 학생근로대’의 열과 성으로 얹혀져 연 수확 백만 석의 증수를 목표로 어제 26일로써 제1차 근로봉사의 종식을 거행하였는데, 기자는 이 작업장을 찾아 근로대원들이 감격에 넘치는 증산의 결의와 감투정신의 말하는 좌담회를 작업장의 잔디위에서 열었다.

김성수 씨(보전 교장)

학생들은 모두 유쾌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청년의 의기를 다하고 전시식량증산에 일꾼이 되겠다는 결의와 애교심에 불타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작업을 하여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일은 해본 일이 없어서 피로하기는 했으나 절대로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갔고 이 근로장을 전장으로 생각하고 장병에 못지않겠다는 정신력으로 일을 하여 준 것입니다(‘긴장과 감투로 일관, 수원 학생근로봉사대원의 체험담’, 매일신보, 1943. 6. 27. 3면, 을 제35호중).

그러므로 피고 측은 좌담회와 기고, 인터뷰, 총독부 외곽단체 간부참여 만으로도 특별법 상 적극성, 주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론>

피고는 원고가 “‘적극적’을 과잉 해석해서 다른 행위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했으나 원고는 ‘과잉 해석’하거나 ‘강변’한 것이 없습니다.

원고는 당시 보전 학생, 학병 출신 이혜복(전 대한언론인회 고문)의 증언, 즉 “그 분이 무슨 학병 강제로 끌려 나갈 때 학생들한테 학병을 권유했던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만부당한 일이에요. 도대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하시는 것을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중략)… 정치적 입장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 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바꿀 수는 없거든. 나는 있는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그냥 어떤 상상이라든가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막 얘기하는 것은 안 되죠. 진실을 얘기해야죠. 진실을 얘기해야지 이걸 역사적 상황이 변화했다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안 되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나는 느낀 대로 내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략)… 아니, 인촌 선생이 하려면 학교에서 조례시간이구 얼마든지 학생들 모여 있는 데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 일체 교장 선생으로 계실 때 내가 조례할 때 한 번도 연단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학병을 권유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학병 대상자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하지 왜 딴 데서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딴 데 나가 말씀할 정도면 거기서 하지, 한 번도 없어요. 도대체 교장 선생님은, 인촌 선생님은 연단에 올라가서 말씀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부에 대상자가 거기 있는데 권유할 의사가 많으면 거기서 하지 왜 딴 데 가서 합니까. 말이 안 돼요.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라는 증언 녹취록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혜복의 위 증언이 틀린 말입니까?

피고는 “증언자들은 기고 과정과 인터뷰 과정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주관적인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피고는 ‘기고 과정과 인터뷰 과정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하나라도 제시했습니까?

피고야말로 ‘기고 과정과 인터뷰 과정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의 증언 하나 없이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왜곡, 과장, 날조하여 게재한 것만을 보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 김진섭 당시 매일신보 기자, 정인익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

이원영 당시 매일신보 정치부장, 백철, 조용만 매일신보 기자가 김 보전 교장에 관해 기술한 것은 아니지만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당시 상습적으로 왜곡, 과장, 날조된 허위의 기사로 선전선동물을 만들어 내는데 광분했다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병 출신 서석연, 김영화, 윤임술 등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 당시 신문에 조작돼 보도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기형, 유기선, 한근조, 김흥곤, 강현만, 정치근이 당시 조작 날조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담담히 받아들인 최남선 선생도 ‘자열서(自列書)’(자유신문, 1949년 3월 10일자 2면)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反民 해당 조건은 대강 이상과 같은듯하나 남이 보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罪目이 있을지 모른다. 혹시 태평양전쟁 말기에 나의 名字를 도용한 위조 담화 내지 마음대로 변조 개작한 신문 원고 강연필기 중에 또 어떠한 것이 있을지 모르되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내가 질 수 없으며 …(중략)… 또 혹 전쟁말기의 모종 단체 참가 같은 것을 선전하는 이가 있으되 평생에 문화단체에 列名하기도 싫어함을 아는 이는 아는 바이며 다시 운위할 것 없는 일이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게재된 것만을 들고 ‘피고가 입증하는 김성수의 증거들은 명백하다’고 강변하는 피고의 입장과 심리상태에 측은함을 느낍니다.

김 보전 교장 명의의 ‘기고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필의 당사자인 김병규 당시 매일신보 기자와 그 과정에 직접 간여한 유진오 당시 보전 교수입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김병규는 해방 후 좌익운동을 하며 자신이 대필한 김 보전 교장의 글을 좌익의 선전선동물로 악용했고, 유진오의 증언에 대해서는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빌미를 들어 피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전 교수와 고려대학교 총장(1952~1965년)을 역임하고 제1야당의 총재(1967~1970년)까지 지낸 유진오 선생이 1971년부터 1975년까지 38회에 걸쳐 ‘高友會報’에 연재하고 이철승 당시 보전 학생과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은 문제의 대필 관련 이야기를 유진오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믿지 못하겠다며 ‘탁상공론’과 같은 한 편의 논문을 인용하여 ‘유진오의 조작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35년을 보전과 고려대학에 바친 유진오 선생이 허위의 내용을 교우회보에 쓰고, 제자인 이철승 당시 보전 학생과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또 1974년에는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1977년 발간된 단행본 ‘養虎紀’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겠습니까?

유진오, 이철승, 홍일식 선생의 증언이 총독부 기관지보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촌 선생의 친일 문제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은 실패한 나라입니다. 피고는 유진오 선생의 증언에 대해 온갖 꼬투리를 잡아 의문을 제기하며 총독부 기관지 매

일신보와 경성일보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문도 가지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 모두를 전적으로 사실로 믿고 인용하여 김 보전 교장을 옳아 매려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써 낸 기사가 조작돼 나오는 과정을 직접 겪은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는 아래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도 나름대로 감동하여 그대로 이야기를 썼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데스크에서 빨간 펜으로 고쳐 써졌다. ‘이제야 커다란 영예와 임무를 자각하여’ 운운으로. 이른바 각계 명사의 담화도 꼭 같았다.…(중략)… 나는 김사연의 태도에서 오히려 상괘함을 느꼈지만 신문 지면에 기사가 되어 나온 것은 거의 전부가 만들어진 것 밖에는 없었다. 이처럼 경성일보 편집국은 매일매일 이 같은 거짓을 만들기 위해 마치 모두가 정신이 돈 것 같다.”

또 재일사학자 이진희 교수의 전언(2007년 2월 5일 전화통화, 0424-86-8129)도 있습니다.

“김달수 선생은 해방 전 경성일보에 근무했다. 그 때 일은 주로 유명 한국인들에게 일제에의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김달수 선생은 타계하시기 전 그때의 고충을 나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김충식 전 동아일보 동경지사장에게 전해 준 바 있다. 김달수 선생의 말로는 ‘인촌은 매우 당당했다’고 말했다.”

이진희 교수는 이 전화 통화에서 “인촌이 매우 당당했다”는 김달수 선생의 말을 세 차례나 거듭 전했습니다.

피고도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만을 붙잡고 ‘명백하고 객관적 증거’라고 우겨댈 것이 아니라 재일사학자 이진희 교수(0424-86-8129)와 전화통화라도 한 번 하는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식 선생 명의의 글이 조작, 보도되는 경위와 결과를 직접 목격하고 증언(‘북취 한국언론사’,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2001년, 97~98쪽)한 김진섭 당시 매일신보 기자도 아직 생존해 계시니 이 분께도 피고가 직접 전화통화해서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1943년 11월 6일 매일신보사가 주최하는 학도출진을 말하는 좌담회의 주최 측 참석자 중 한 사람인 이원영 당시 매일신보 정치부장도 ‘총독부의 어용신문에 몸담았던 시절’ (‘언론비화 50편’, 한국신문연구소, 1978년, 95~97쪽)을 증언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 좌담회에 참석했던 정인익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이 반민특위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취재기자들이 갖고 오는 기사를 본인이 수정하는 일만 하여도 벅차고’

‘민족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가책을 안 받은 날이 없다’고 한 진술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위와 같은 사람들의 증언이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믿을 수 있는 자료’ ‘명백한 객관적 자료’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까?

피고는 또 “문과계 전문학교에서 이공계 전문학교로 바뀌었다고 학교가 ‘격하’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보성전문’이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연희전문’이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바뀌었을 때 감정이 어떠했는지, 당시 보전과 연전 학생들에게 국가인 피고가 당당하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격하’된 것은 아니라서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고 말하는지.

피고가 인용한 ‘긴장과 감투로 일관, 수원 학생근로봉사대원의 체험담’, 매일신보, 1943. 6. 27. 3면(을 제35호증) 중 ‘전시식량증산에 일꾼이 되겠다는 결의’ ‘근로장을 전장으로 생각하고 장병에 못지않겠다는 정신력으로’ 라는 대목이 김달수 선생이 말하는 ‘데스크에서 빨간 펜으로 고쳐 써졌다’ ‘신문 지면에 기사가 되어 나온 것은 거의 전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취재기자들이 갖고 오는 기사를 본인이 수정하는 일만 하여도 벅차고’ ‘민족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가책을 안 받은 날이 없다’고 한 정인익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의 고백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셋째, ‘적극적, 주도적, 능동적’으로 한 행위를 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면 각종 친일단체의 회합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인데 김성수는 그 같은 모임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는 김성수가 친일단체의 회합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임전대책협의회 행사는 행사 주최 측인 삼천리 사장 김동환이 초청장을 보낸 것인데, 동아일보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반일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또한 김성수가 친일행사인 ‘황기 2600년 기념식 및 봉축회 참석’을

위하여 일본 동경으로 가는데, “여관 알선 불필요, 신궁참배 불 희망, 지정열차 승차 불 희망”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황기 2600년 기념식과 봉축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동경으로 갔다는 점일 것이다. 원고는 김성수가 전쟁채권 가두판매대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곧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근거로 삼았지만, 일제의 협력단체가 외곽단체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김성수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감사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를 연이어 역임하며 간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전신단체가 조직되어 발전하는 경로에서 ‘흥아보국단→임전보국단→국민총력연맹’으로 흡수 통합되는 연속적인 선상 속에서 김성수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며, 이때 **그가 준비위원, 발기인, 감사, 이사로 점차 중책을 맡으며 핵심적인 지위에서 활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흥아보국단은 바로 그러한 과정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으로서 친일반민족단체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흥아보국단이 결성된 지 2개월 만에 임전대책협의회에 통합하여 조선임전보국단으로 흡수되었지만 초창기 흥아보국단의 존재는 친일단체의 분화와 통합에 있어서 그 의미가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론>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 중앙편’ 일러두기-사전의 성격 3항은 “이 사전은 인물보다는 단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수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강압에 의해 일시적으로 협력한 경우도 있으며,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단이 게재된 사례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이 각종 단체에 이름이 게재됐다는 것이 자의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고 원고가 제시한 구체적 사례, 즉 불참한 사실들이 김 보전 교장이 이들 단체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4) 넷째, 평소 말수가 적고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 조례 때 교장의 훈시도 잘 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보전 출신 학생들의 이야기를 문제 삼고 싶지 않지만 이들 이야기를 증언이라고 주장한다면, **기본적으로 증언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아야 하며, 인과관계와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되어야** 최소한 증언력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 증언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부분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주관적인 생각이 나온다. 이무연은 김성수가 연변이 없기 때문에 “조회고 뭐고 나와 본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최재동은 김성수가 조회단에 올라가는 했으나 “평상시 조회 때 말씀 많이 하는 분 아니다”고 김성수의 조회 참석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문병윤과 이혜복은 김성수가 “한 번도” 연설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거나 “못 봤어요”라고 하였으나, 서태원은 김성수가 연설을 잘하지 못하여 “꾸물꾸물

몇 마디하고 그만이지. 길게도 안 했어”라고 연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 묘사된 김성수에 관하여 몇 가지만 들면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하셔(이무연 면담)”, “그 양반이 그럴 양반이 아니다(문병윤)”, “될 수 있으면 과묵으로 일관하고 사셨어(서태윤)”라고 하는 등 주관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이들이 밝힌 ‘증언’은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직접 증언으로 보기에 는 미흡하며, 단지 김성수에 대한 인물평으로서 당시 정황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생각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직접 만나 본 생존 인사 모두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면서 “김성수는 평소 말수가 적었고 남의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 조례 때 교장의 훈시도 잘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김성수의 자발적, 긍정적, 능동적 친일행위가 아니라는 주장하였다. 또 원고는 문병윤의 이야기를 들어 “인촌이 학병 관련해서 연설한 일은 내가 아는 한 한 번도 없었다. 매일신보 라는 게 뭐냐면 일본사람 기관지라 이놈들이 자기 멋대로 한 거야. 그 양반이 그럴 양반이 아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그런 김성수가 무슨 담(談), 훈시, 축사 등을 열렬히 했다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는 왜곡, 과장되거나, 날조된 허위의 기사들이었”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하버드대 교수 에커트도 김성수가 이른바 ‘보형용’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자신의 저서에 서술하였다. 에커트는 ‘제국의 후예’에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를 인용해서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런 점을 볼 때 국내 학계만이 아닌 외국 학계에서도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을 연구 자료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김성수의 친일행위가 기록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와 김성수의 인터뷰 등이 명백한 이상 김성수의 자발적, 긍정적, 능동적 친일행위를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

당시 보전 학생들이 60년여 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이무연이 ‘조회고 뭐고 나와 본 일이 없어’라고 한 것과
 최재동이 ‘조회단에 올라가기는 했으나 평상시 조회 때 말씀 많이 하는 분 아니다’는 것,
 문병윤과 이혜복이 ‘한 번도’ 연설하는 것이 ‘없었다’거나 ‘못 봤어요’라고 한 것.
 서태원이 ‘연설을 잘하지 못하여 꾸물꾸물 몇 마디하고 그만이지. 길게도 안 했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까?

위 증언들은 ‘말씀을 잘 안하고, 잘 못했다’ ‘조회시간에 응당 있어야 할 교장 훈시도 잘 안했다’가 증언의 공통점이자 핵심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했다’ ‘못 봤다’와 ‘꾸물꾸물 몇 마디하고 그만이지. 길게도 안 했어’를 대비하여 ‘연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며 ‘일관성이 없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피고처럼 해석하는 것이 통상인의 상식적 판단일까요?

또 피고는 문병윤의 예를 들어 “인촌이 학병 관련해서 연설한 일은 내가 아는 한 한 번도

없었다. 매일신보 라는 게 뭐냐면 일본사람 기관지라 이놈들이 자기 멋대로 한 거야. 그 양반이 그럴 양반이 아니다 라는 말을 근거로 그런 김성수가 무슨 담(談), 훈시, 축사 등을 열렬히 했다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는 왜곡, 과장되거나, 날조된 허위의 기사들이므로 원고가 주장하였다”고 했으나

원고는 문병윤의 예를 근거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가 왜곡, 과장되거나, 날조된 허위의 기사들이므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 1) 정인익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의 반민특위 피의자 신문조서
- 2)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 ‘나의 아리랑 노래’(중앙공론사, 1977년, 232~235쪽)
- 3) 김진섭 당시 매일신보 기자, ‘녹취 한국언론사’(대한언론인회, 2001년, 97~98쪽)
- 4) 이원영 당시 매일신보 정치부장, ‘언론비화 50편’(한국신문연구소, 1978년, 95쪽)
- 5) 백 철 당시 매일신보 기자, ‘속(續)진리와 현실’(박영사, 1975년, 109~112쪽)
- 6) 조용만 당시 매일신보 기자, ‘경성야화’(도서출판 창, 1992년, 212~213쪽)
- 7) 이기형, ‘몽양 여운형’(실천문학사, 1984년, 237~238쪽)
- 8) 유기선, ‘황혼의 명상’ 제5화, ‘학도병 출정 때의 이야기’
(‘고당 조만식 회상록’, 고당 조만식 기념사업회, 조광출판, 1995년, 51쪽)
- 9) 한근조, ‘고당 조만식’(중앙서관, 1983년, 366쪽)
- 10) 김흥곤, 강현만, ‘민족과 하나’(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3년, 381쪽)
- 11) 서석연, ‘그림자 잃은 사나이’(‘1·20 학병사기’ 1권, 1987년, 185쪽)
- 12) 김영화 ‘전우여! 지금은 어디에?’
(‘청춘만장<靑春挽章>’, 1·20 동지회 중앙본부, 1972년, 412~413쪽)
- 13) 윤임술, ‘특별 고사포 부대의 정체’(위 책 290~291쪽)
- 14) 정치근(시인, 작사가)의 회고
- 15)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2009년 9월 7일 녹화)
- 16) 최남선, ‘자열서(自列書)’(자유신문, 1949년 3월 10일자 2면)
- 17) 임종국, ‘빼앗긴 시절의 이야기’(민족문제연구소 편, 2007년, 249쪽)

등 17건의 증언을 예시하며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가 왜곡, 과장되거나, 날조된 허위의 기사들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 에커트도 김성수가 이른바 ‘보험용’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자신의 저서에 서술하였다. 에커트는 ‘제국의 후예’에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를 인용해서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런 점을 볼 때 국내 학계만이 아닌 외국 학계에서도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을 연구 자료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우선 피고는 위의 글 뿐 아니라 준비서면 27~28쪽에서 “결국 에커트는 적어도 김성수가

일본이 전쟁에 승리할 경우를 대비해 선택지를 계속 남겨두었던 것 같다고 들고, 김성수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악하게 보험용’으로서 친일을 한 것이라고 보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커트의 책 어디에도 ‘영악하게 보험용’이란 말은 없으며 이는 피고 준비서면 작성자가 그야말로 ‘영악하게’ 저의를 드러내 표현한 것입니다.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사를 인용해서 논지를 전개’한 에커트는 같은 책 363~364쪽에서 “물론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현존하는 1차 자료는 제한되어 있고, 엄격히 통제된 선전물에 가까운 1940년대의 전시 언론에서 간추려진 정보와 같은 그 일부 자료는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학병 권유 신문에 김씨 형제들 이름으로 나온 논설들을 그들이 실제로 썼는지(혹은 배서했는지), 또는 신문이 단지 그들의 허락 없이 논설에 그들의 이름을 붙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어떤 내선일체 행사나 활동에 참가한 것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경우조차도, 이용 가능한 문서에는 그들의 동기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안(碧眼)의 역사전공자도 위와 같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데 피고 준비서면 작성자와 같은 일부의 역사전공자는 어떻게 ‘엄격히 통제된 선전물에 가까운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모두가, 전적으로 사실인양 믿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커트는 ‘제국의 후예’(주익종 옮김, 푸른역사, 470쪽 주석)에서 최근의 동아일보 기사(1989년 7월 15일자 이철승, ‘인촌을 바로 알자’)를 보면, 이철승은 당시 학병반대운동을 은밀히 조직하라고 김성수의 지시를 받았지만, 일본의 탄압 때문에 실패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미 50년이 경과한 뒤에 나온 이철승의 돌연한 주장 말고는 김성수나 이철승이 그러한 운동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성인전(聖人傳)에 가깝게 서술된 공인 전기에서조차도 그러한 사실은 언급된 바 없다. 이 점에 관한 이철승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한국의 학생, 특히 현재도 김씨 가의 지배 아래 있는 고려대학교의 학생 사이에서 김성수에 대한 수정주의적 비판이 높아지자 이철승의 기사가 그것을 반론하기 위해 쓰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고문이라는 그의 입장도 두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다. 더욱이 이철승은 학생들의 김성수 비판을 ‘좌익’, 즉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더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커트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오, '양호기'(고대 출판부, 1977년 2월) 109~114쪽.

“학생들 사이의 학병거부운동은 여전히 지하로 계속되고 있었다. 이철승 군을 비롯한 강경 학생들은 경성제대의 이혁기(李赫基) 기타 각 학교 학생들과 연락해 가면서 모의를 계속하였다. 이 운동은 학생들의 순전한 자발적 저항운동으로서, 사전에도 사후에도 일체 공적으로 보도된 바 없으며, 또 끝판에 가서 총독이 직접 개입하여 능숙한 솜씨로 대규모 폭발을 방지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반은 그 내용과 진상을 잘 모르고 있지만, 관계 학생들이 용감하게 투쟁한 것은 사실이며, 아슬아슬한 극적 장면이 전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내가 처음 이 사건을 안 것은 학병 해당 학생들의 입영이 끝나고,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피신하거나 징용을 가거나 해서 학교가 태풍일과(颱風一過)의 맥 빠진 상태에 있던 그해 1944년 3월의 일이다. 어느 날 배속장교 ‘가와모토’가 상기된 얼굴로 부교장실로 들어오더니(학병 문제 이래 인촌은 칭병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포켓에서 무슨 등사한 문서를 꺼내면서 ‘이철승, 이놈들이 그 예 못된 짓을 저질렀군요’ 하고 내뱉었다. 그러면서 조선군사령부의 무슨 회의에 나갔다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투덜거렸다.

‘이것 보시오. 이놈들이 글썽 건방지게 총독 각하에게 결투장을 보내었다는군요.’

‘가와모토’는 김성수 씨와 내 앞으로 그 문서를 내밀었다. 군데군데 붉은 연필로 줄을 친 문서다.

그러나 그 문서는 군의 기밀문서라 해서 도로 집어넣고 내용만 설명하는데, ‘가와모토’의 말은 전해 11월 학병 문제가 한창 시끄러울 때에 이철승 등 각 학교의 학생 대표 수십 명이 연명으로 학병 문제의 부조리를 따지고 결투를 청하는 문서를 총독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결투를 청했다’는 말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성싶었는데 ‘가와모토’는 그때 분명히 그런 말을 썼다. 문서 내용이 격렬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것 같다.

‘결투장 - 그런 것을 보내고 관찮았나요? 어떻게 그게 지금 와서야 문제가 되지요?’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는 학생 지도 참고로 삼기 위해 군에서 배속장교들한테 나누어 준 것입니다. - 그때는, 경찰에서는 물론, 전부 잡아 가두려 했지요. 그것을 총독이 못하게 하고 그놈들을 총독 관저로 오라 해서 직접 설득해 모두 군으로 입대시켰다는 애깁니다. 총독이 오란다고 뻔뻔스레 총독 관저로 ‘노리꼬무’(버젓이 나타나는)하는 놈들도 놔들이고-’

그러면서 ‘가와모토’는 혀를 찼다. 그 때는 그것만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내가 이 사건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 이듬해 뜻밖의 사람으로부터였다. 1945년,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병으로 끌려간 지 1년이 지난 해(해방되던 해) 2월 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나는 수송동 내 집 사랑에서 달갑지 않은 손님 하나를 상대하고 있었다.

총독부 경무국 최운하 경부(해방 후 수도청 과장을 거쳐, 6·25 때 서울시 경무국장으로서 있던 사람)가 찾아와서 나에게 시국에 대한 문답을 이것저것 묻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그는 직책상 한 달에 1, 2회 정도 나를 찾아와서 한참씩 그런 문답을 하고 가는 것이었다. 00은 그랬지만, 온순한 사람이어서,

나는 이따금 ‘최 경부도 인제 어서 군수나 한자리 해나가시지’ 하고 농담을 하고 지내는 처지였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사랑 앞 골목길에서 나지막하게 ‘유 선생님 계십니까?’ 하는 낮선 목소리가 들려 왔다. 수송동 내 집은 사랑 마당이 한 칸 통 넓이밖에 되지 않아서, 담 밖에서 하는 말은 그대로 방안에, 방안의 말소리는 그대로 담밖에 들리게 마련이었다.

‘누구시오?’ 하면서 내가 일어서서 영창문을 열자 ‘손님이 계시군요. 내일 다시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담 밖의 손님은 그 말만을 남기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누구지요?’

‘글쎄, 웬 사람일까요?’

나와 최 경부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런 때문에 이튿날 저녁에는 나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그 맘때쯤 해서 약속대로 그는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었다. 들어오라는 대로 내방으로 들어와서 슬며시 저만큼 자리를 잡고 앉도록 그가 누구인지 나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의아해 하니 그도 침묵을 지키고 내 얼굴을 마주 쳐다만 보고 있다. 그러자 구레나룻이 탐스럽게 난 그 낯선 얼굴에 학병 때 몇 번 나를 찾아온 일이 있는 경성제대 철학과 학생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혁기 군 아니오?’

‘알아 보셨습니까?’ 그제서야 그는 빙그레 웃는 낯이 되었다.

‘그런데 웬일이죠? 어떻게 해서 여길!’

나는 숨이 가쁘게 물었다. 불과 며칠 전에 일본 어느 곳에서 군대 염서에다가 밀도 끝도 없이

‘저 칸트가 경탄하던 별이 한개 늘었습니다.’ (겨우 일등병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그가 써 보낸 것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이 군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기 전에 자기의 궁금한 일부 터 물었다.

‘이철승이도 탈영해 왔죠?’

‘아직 아무 소식 못 들었는데’

그는 이철승 군도 틀림없이 탈영해서 지금쯤은 어디엔가 숨어 있을 것이라면서 그 동안 자기가 지낸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이혁기 군이 그날 밤 털어놓은, 일본 ‘우지나’(宇品)항 앞 바다에서 남태평양으로 가는 수송선으로부터 물로 뛰어들어 귀국하기까지의 이야기도 한편의 실화소설이라도 뽐직한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들의 학병반대투쟁에만 이야기를 국한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때 학병 거부에 뜻을 같이하는 서울시내 각 학교 학생들은 한 달 동안이나 비밀리에 이곳 저곳에서 회합하여 투쟁 방법을 숙의하였다. 데모 등 과격 수단도 논의되어 한때 거의 실천될 뻔도 했다. 그러나 정세는 자꾸 변하고 경찰의 추적은 심해서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이 된 까닭에 최후의 방법으로 대표 20여명이 서명 날인하여 학병거부서를 만들어 직접 총독에게 우송하였다. 이혁기 군이 그때 나를 몇 번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간 것은 그 문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였다.

학병거부서를 서명날인까지 해서 총독에게 보내는 이상에는 전원 체포를 각오하였음은 물론이다. 사실 경찰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마약 학생들을 전원 체포하려는 순간이었는데, 뜻밖에 총독이 이를 못하게 하고 학생들을 전원 관저(현 청와대)로 불렀다 한다.

총독 ‘고이소’는 관저까지 간 12, 3명의 학생들을 직접 자기가 만나 이야기하였는데, 그때의 태도가 제법 점잖았다. ‘하나세바 와까루’(이야기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라면서 학생들에게 무슨 말든지 기탄없이 소신을 말하라 해놓고는, 학생들이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동안 3, 4시간이나 ‘음,음’ 하면서 듣고 있더니, 그것이 끝나서 ‘어느 틈에 날이 저물었군. 젊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겠지. 배가 고프면 전쟁을 못하니까 우선 배부터 좀 채우고 보세’ 하면서 일어나 학생들을 옆방으로 인도해 갔다. 그곳에는 벌써 사람 수만큼의 돈부리(덮밥)가 놓여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고이소’는 이번에는 자기 차례라면서 한 시간 이상이나 조선 학생들이 이 전쟁에 총을 메고 나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학생들을 돌아보면서 ‘어떤가? 그만하면 알아들었겠지? 그래도 이의 있나?’ 하였다. 학생들은 이의가 없을 리는 만무하였지만 그때의 공기로 차마 무엇이든 입을 떼지 못할 판이었는데, 별안간 이철승군이 ‘네, 이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못 알아 들었습니다’며 외치고 일어나 뚜벅뚜벅 나갔다는 것이다”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철승은 1989년 7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앞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 (1976년, 중앙일보, 동양방송 20~21쪽)에서 “조선학도병 지원제는 1943년 11월 3일 그들의 明治천황 생일날인 ‘明治節’에 맞춰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표됐다. 당초 총독부의 발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지원제’라 했다. 그러나 친일파의 자식들까지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원을 거부하자 드디어는 각 학교의 배속장교로 하여금 책임 동원을 명령했다. 한편으로는 저명인들을 총동원해 지원 권유에 내세움으로써 강제동원으로 몰아세웠다. 물론 고하 송진우 선생처럼 병 치료를 핑계 삼아 지원 권유를 기피한 경우도 있고 인촌 김성수 선생(당시 보전교장)처럼 ‘남의 귀여운 자식 문제에 왜 내가 관여하느냐. 나는 그들의 교육을 맡았지 입영문제를 맡은 게 아니다’라고 저항하며 뿌리친 경우도 있다. 어느 날 인촌은 조용히 말했다. ‘일제가 학병 지원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전황이 불리하다는 증거야. 그들은 이 기회에 교육 받은 조선인의 씨를 없애버리려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알아들었지’하며 나를 응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5) 다섯째, 김성수는 평생 글을 쓰지 않았고 쓸 필요도 없었다는 점

□ 피고의 주장

물론 피고가 김성수는 평생 글을 쓰지 않았고 쓸 필요도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인터뷰와 소감 담, 좌담회에 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즉 김성수가 다른 어떤 매체에도 스스로 기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김성수 명의의 문헌적 근거를 모두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김성수의 친일행위와 관련되어 피고 측에서 제시한 것은 한 두 개의 글도 아니고,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좌담회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성수가 인터뷰나 설문 조사에 응한 것은 중일전쟁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의 기사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 ① ‘決吟 中の 歐米 列強, 海外 同胞의 活動, 倭 民族 융화 통일은 실패, 金性洙 氏 歸京 談’, 동아일보, 1931.8.14(2)
- ② ‘러시아 국민의 향학열은 왕성. 金性洙 씨 구미시찰 담’, 조선일보, 1931.8.14(2)
- ③ ‘普專 經營者 變更 - 金性洙 氏 談’, 동아일보, 1932.3.29(2)
- ④ ‘불원간 교사 신축. 학자 배출을 기대. 신 교장 김성수 씨 담’, 조선일보, 1932.3.29(2)
- ⑤ ‘圖書館 設立에 貴重한 書籍들 기증을 고맙게 받는다는 校長 金性洙 氏 談’, 동아일보,

1933.1.25(2)

- ⑥ ‘충심으로 축하 보전교장 김성수 씨 담’, 매일신보, 1938.5.3(1)
- ⑦ ‘慶賀 普成專門 校長 金性洙 氏 談’, 매일신보, 1939.4.3(1)
- ⑧ ‘긴장과 감투로 일관 - 김성수 씨’ - 매일신보, 1943.6.27(3)
- ⑨ ‘制度 缺陷은 奈何’, 新民 11, 1926.3
- ⑩ ‘最近 朝鮮 社會에서 感激된 일, 朝鮮人은 남보다 培나 더 努力해야 한다’, 東方評論 2, 1932.5
- ⑪ ‘卒業生을 보내면서 - 獨立精神과 實行意志’, 第一線 제3권 제3호, 1933.3
- ⑫ ‘三大 新聞 經營者의 苦心 談, 新聞 經營의 남모르는 苦心談은 무엇인가?’, 別乾坤 4, 1927.2.

이상과 같이 김성수는 중일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소감 담에 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김성수가 ‘평생 글을 쓰지 않았고 쓸 필요도 없었다’는 주장과 ‘다른 어떤 매체에도 스스로 기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중일전쟁 이후 친일행위를 나타내는 김성수 명의로 이루어진 글과 인터뷰, 소감 담, 좌담회를 모두 부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모순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김성수가 인터뷰에 응한 소감 담 한 가지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한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三大 新聞 經營者의 苦心談, 新聞 經營의 남모르는 苦心談은 무엇인가?’, 別乾坤 4, 1927.2.

難關은 두 가지
 東亞日報 社長 金性洙

朝鮮에서 신문 사업을 경영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일은 처치가 처지인지라 언론의 신성한 권위를 마음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제이에 경제상 收支相償이 못 되어 유지책이 곤란한 것입니다.

나는 최초 東亞日報社를 발기할 때에도 그다지 찬동치는 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신문 사업 자체를 불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朝鮮의 처지가 여러 가지로 경영하기가 곤란한 까닭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책임자가 되어 있스니가 그만두랴 하여도 그만둘 수도 업고 그대로 해 가자닛가 물론 곤란이 만습니다. 그러나 엇지 하겠습닛가. 다만 성의것 실력것 최후까지 싸워 나가랴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東亞日報는 년수도 오래고 기초가 비교적 첫슴으로 경제 方面으로는 아직까지 큰 곤란은 업지마는 정신상 고통이야 일반이 다 아는 바와 가티 엇지 만치 안케습니가.

신문은 원래 민중을 상대로 하는 기관인 동시에 일방으로 당국의 감독이 만흔 기관입니다. 그럼으로 더욱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민중의 의사와 시대에 적당하도록 언론을 발휘하랴면 당국 주의가 만코 당국의 주의를 안이 맞는 범위 이내의 언론으로만 하면

민중이 환영치를 안습니다.

하여간 朝鮮에서 신문 경영이란 것은 어느 시기까지는 꼭 곤란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김성수의 인터뷰를 보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의사를 개진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1920년대부터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하면서 다른 매체에 인터뷰와 소감 담에 응한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으며, 친일행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김성수가 글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의 사례를 볼 때 김성수의 인터뷰나 소감 담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일신보나 경성일보에 게재된 학병 동원 글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인터뷰와 소감 담을 자진해서 기고하거나 응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반론>

피고는 “김성수가 ‘평생 글을 쓰지 않았고 쓸 필요도 없었다’는 주장과 ‘다른 어떤 매체에도 스스로 기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중일전쟁 이후 친일행위를 나타내는 김성수 명의로 이루어진 글과 인터뷰, 소감 담, 좌담회를 모두 부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모순된 주장이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원고는 김 보전 교장의 글이 게재됐다는 사실, 인터뷰, 소감 담, 좌담회가 있었다는 사실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왜곡, 과장, 조작됐다는 것일니다.

피고는 위에서 열거한 12건의 말(談), 특히 그 중 하나인 ‘三大 新聞 經營者의 苦心談, 新聞 經營의 남모르는 苦心 談은 무엇인가?’ (‘別乾坤’ 4, 1927.2)를 인용했습니다.

‘朝鮮에서 신문 사업을 경영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일은 처치가 처지인지라 언론의 신성한 권위를 마음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제이에 경제상 收支 相償이 못 되어 유지책이 곤란한 것입니다’

‘나는 최초 東亞日報社를 발기할 때에도 그다지 찬동치는 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신문사업 자체를 불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朝鮮의 처지가 여러 가지로 경영하기가 곤란한 까닭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책임자가 되어 잇스니가 그만두라 하여도 그만둘 수도 업고 그대로 해 가자닛가 물론 곤란이 만습니다. 그러나 엇지 하겠습닛가. 다만 성의것 실력것 최후까지

싸워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東亞日報는 년수도 오래고 기초가 비교적 튼튼으로 경제 방면으로는 아직까지 큰 곤란은 업지마는 정신상 고통이야 일반이 다 아는 바와 가티 엿지 만치 안케습니가’

‘신문은 원래 민중을 상대로 하는 기관인 동시에 일방으로 당국의 감독이 만흔 기관입니다. 그럼으로 더욱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민중의 의사와 시대에 적당하도록 언론을 발휘하려면 당국 주의가 만코 당국의 주의를 안이 맞는 범위 이내의 언론으로만 하면 민중이 환영치를 안습니다’

‘하여간 朝鮮에서 신문 경영이란 것은 어느 시기까지는 꼭 곤란할 줄로 암니다’

위의 사례를 인용해놓고 피고는 “이와 같이 김성수의 인터뷰를 보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의사를 개진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비롯해 피고가 인용한 12건(아래의 전문 참고)의 김 보전 교장 말(談)과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게재한 웅변, 강건체의 김 보전 교장 명의의 선전선동 물이 비슷한 뉘앙스와 유사한 톤인지 다시 한 번 비교해봐 주기 바랍니다.

피고가 열거한 김 보전 교장 말(談) 11건의 전문

1. 決吟 中の 歐米 列強, 海外同胞의 活動, 倅 민족 융화 통일은 실패, 金性洙氏 歸京談(동아 일보 1931.8.14.2면)

제작년 十二月 경성을 떠나 구라파 각국과 쏘베트 러시아와 아메리카를 력방하여 문물제도를 시찰한 본사 취체역 김성수(金性洙)씨는 十二일 오후 시 경성역 열차로 二十개월 만에 귀경하얏다. 역두에는 지그 다수의 출영이 잇섯다.

씨는 련행 중 감상을 다음과 가티 말하얏다.

구라파의 소위 강대국은 물론 신흥제국까지 대개 보앗스며 로농 러시아도 잠깐 들렀섯고 도라 오는 길에 아메리카를 일별하얏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도처에 우리 조선 사람이 산재하얏스며 그 중에는 특출한 수재도 만허 외국인의 찬탄을 받는 이도 적지 안습니다. 비록 외국에 류량은 할망정 확호한 의식 미테 생활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깃벗습니다.

열강의 상태는 극도의 자본주의 발달 때문에 수습치 못할 호돈 중에 빠지어 윈 나라가 신음 중에 잇스니 그 귀추(歸趨)가 어떨는지는 측단할 수 업더이다.

구라파 중에서도 가장 평화하게 잘 지나는 나라는 소위 약소국이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이엇으며 소비에트 러시아는 아직 건설 중에 잇스나 모든 장애를 제치고 전 련방 총동원으로 가장 왕성한 원귀로 진행 중에 잇스니 큰 성공이 반듯이 잇스리라고 생각 되더이다.

이번 련행에 어든 소감은 만치만 그 중에 가장 깨다른 것은 하나는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융화하고자 하는 정책과 노력은 하나도 성공치 못하더라는 것이오.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노력이 다른 민족에 비하여 손색이 잇지 안흔가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자본주의 발달은 세계적으로 팽창하여 가는 중이니 조선도 결국은 자본주의화하고야 말 운명에 잇는 이상 우리의 힘 미치는 대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외다.

2. 러시아 국민의 향학열은 왕성. 金性洙씨 구미시찰 담(조선일보 1931.8.14.2면)

동업 동아일보사 취체역 김성수(金性洙)씨는 구미 각국 련방을 낫치고 만이개년 만에 작 이 일 오후 칠시 경성역(京城驛)착 특급열차로 귀국하였는데 씨는 다음과 가티 말한다.

“별로 감상이라고 말슴할 것이 업소이다. 백림(伯林)에서 러시아(露西亞) 입국 허가를 맞혀 가지고 가서본즉 제일 놀나운 것은 일반 국민의 향학열(尙學熱)이 왕성한 것입뉘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기타 직업 부인까지라도 배울 욕심 받게는 다른 생각이 업는 것 갓습뉘다. 그 리하여 대학교수의 원봉은 일반에 오백 원 박사 칭호를 가진 학자에게는 천백 원을 지불하 야 특별 우대하는 현상이며 농업을 주로 하든 나라에서 특별히 공업에 류의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기사(技師)는 특전으로 우대하는 것이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귀이하게 보입뉘다.”

3. 普專 經營者 變更 - 金性洙氏 談(동아일보 1932.3.29.2면)

동교의 신임 간부 김성수씨는 말하되 무재한 사람으로써 중임을 맞게 되니 스스로 공구함을 늦기게 합니다. 포부라고 알는지 위선 학교의 기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때 이 사업이 우리 네의 一代에만 고칠 것이 아니오. 영구한 장래에 영원히 계속될 사업임으로 학교의 기지를 훨씬 넓게 잡아 두어야 장래 발전에 거리낌이 업슬 것이외다. 그 다음 전문교육은 다른 교육과 달러서 학생들을 잘 가르침은 물론이어나와 학자(學者)들을 배출케 하는 의미에서 선생들의 연구할만한 기관을 만들고 또는 기회를 주도록 하라 합니다.

4. 불원간 교사 신축. 학자 배출을 기대. 신 교장 김성수씨 담(조선일보 1932.3.29.2면)

조선 각종 사업에 만흔 공헌을 하고 금번에 다시 보성전문학교 후임 교장으로 내정된 김성수(金性洙)씨는 인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가티 소감을 말하엿다.

“학교 경영을 인계 하엿을 뿐이지 멀 새로운 무엇이 잇겠습니까 교사신축(校舍新築)문제는 불원간 실현될 것이나 아직 기지(基地)를 확정하지 못하엿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짧다 하든 라도 학교만은 영구하여야 할 것이니 기지도 넓은 곳을 차저서 기초를 세우랴 합니다. 그리

고 고등전문교육에 대하여는 멀 소감이 업스나 최고학부(最高學部)라는 것이 학자를 양성하는것인 만치 학생들의 연구소가 되는 것은 물론 선생되는 사람도 더욱 연마하여 조선에 만흔 학자가 나기를 바라 는것도 평소에 범연히 늦긴 것입니다.”

5. 圖書館 設立에 貴重한 書籍들 기증을 고맙게 받는다는 校長 金性洙氏 談(동아일보 1933.1.25.2면)

안호상씨의 귀중한 기증을 바든 보성전문학교 교장 김성수(金性洙)씨는 깃븐 비출 띄고 다음과 가티 말한다.

“안호상 박사가 가전의 귀한 서적을 기증하여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본교에서도 도서관 건설의 계획이 잇는 터임으로 이러케 서적을 기증하시는 독지가가 계시면 감사하게 바다서 영구히 보존하려 합니다.”

6. 충심으로 축하 보전교장 김성수씨 담(매일신보 1938.5.3.1면)

每日申報는 京城日報 附屬과 가티 되어 잇다가 今般 題號를 每日申報로 改題하여 獨立을 하엿스니 衷心으로 祝賀하는 바이다. 압흐로 일층 報道的 使命을 爲하여 활약할 것으로 미드며 發展을 祝하는 바이다.

7. 慶賀 普成專門 校長 金性洙氏 談(매일신보 1939.4.3.1면)

每日申報가 昨年에 經營 獨立한 後 이제 舍屋을 新築하여 落成을 보게 되어 名實共히 朝鮮 言論界를 爲하여 압흐로 만흔 貢獻이 엿기를 바랍니다.

8. 긴장과 감투로 일관 - 김성수 씨(매일신보 1943.6.27.3면)

학생들은 모도 유쾌하게 일을 하엿습니다. 청년의 의기를 다하고 전시식량증산에 일꾼이 되겠다는 결의와 애교심에 불타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작업을 하여 주엿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일을 해본 일이 업서 피로하기는 헛스나 절대로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안코 끝까지 싸워 나갓고 이 근로장을 전장으로 생각하고 장병에 못지 안 컷다는 정신력으로 일을 하여 준 것입니다.

9. 制 缺陷은 奈何(‘新民’ 11, 1926.3)

10. 最近 朝鮮 社會에서 感激된 일, 朝鮮人是 남보다 培나 더 努力해야 한다(‘東方評論’ 2, 1932.5)

모든 것을 外國에 比하여 본다면 말할 수 업시 沈滯한 우리 社會의 일이닛가 最近이라니 보다는 언제나 그러하지마는 무슨 感激하게 느낄만한 것이 적다. 그러나 남의 것만 못하다고 내 것을 내 버릴 수는 업는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落心할 必要가 絶對로 업다. 落心은 大 禁物이오 自滅이다. 남만 못한 우리는 남보다 培나 더 努力해야 할 일이다. 俗談에 ‘귀 먹은 중 마 캐 듯 한다’(남이 무슨 말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 할 일만 하는 것 - 원고 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거저 그와 가치 꾸준히 努力할 일이오 理論을 論할 것이 아니다. 요새 흔히 環境이 그러닛가 하는 말을 만히 한다. 多少 넉넉하다는 집 靑年들이 흔히 仁川 期米에 가서 資産을 다 떨어 바치고도, 環境이 그러타고 責任 轉嫁를 시킨다. 그러나 이는 오즉 流行語를 그대로 意味업게 使用함에 지나지 안는다. 그만한 사람이면 넉넉히 環境을 支配받지 안을 것이며 또 좀더 努力한다면 한 거름 나가서 社會에 有益한 일을 만히 할 수가 있슬 것이다. 社會의 環境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社會成員의 一分子인 우리가 우리 社會를 잘 되도록 남보다 培나 더 努力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11. 卒業生을 보내면서 - 獨立精神과 實行意志 (‘第一線’ 제3권 제3호, 1933.3)

別 特別한 感想과 附託은 업습니다. 한 가지 말하라면 지금 卒業生을 내어 보내면서 뿐이 아니고 또 卒業生들에게 限하여서만의 것이 아니시오마는 平常時부터 切實하게 늦겨지는 것은 近來 靑年들의 獨立하는 精神이 不足하고 또 理想에 相伴하는 實行의 意志가 너무나 薄弱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社會에 나아가면 所謂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直接 나서서 그들이 해매이고 다니는 꼴을 보아하면 그 大概가 남의 從屬的 地位 아래에서만 무엇을 해 보려고만 합니다.

勿論 家庭的으로 避할 수 업는 事情도 있겠고 또 他人의 指導 下에나 支配 下에서 일한다고 決코 一律적으로 誹謗만하고 誹擊만 하지 못 할 性質의 것도 있겠시오 마는 冷靜하게 그 全體를 털어 觀察할 때에는 確實히 이것이 現代 靑年의 缺點이라고 맞는 바 임니다.

또 社會에 나아가 일해 보라고 생각하는 그 個人的 自身이 亦是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缺點을 갖고 잇는 터이지만은 그 個人的 各 分子를 內包하고 統一할 社會 自體도 亦是 이런 種類의 誤謬와 矛盾을 갖고 잇다고 봅니다. 어떤 優越한 觀察을 가지고 남과 다른 獨特한 方法으로써 前進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 지금까지에 習慣, 風俗 지금까지에 觀念 方法과 相違한다는 條件으로 그것을 理解하며 培養해주지 못하고 도로혀 嘲笑하고 冷待하는 등 이런 일이 非一非再한 것입니다.

卒業生들의 大部分은 就職 就職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決코 그르다는 것은 안임니다. 그러나 더욱더 遠大한 抱負와 深重한 決心이 업시 社會一般의 共通的 時代的 心理에로만 偏向하여 그저 就職이나 하고 月給이나 받고 生活이나 解決하리라고만 생각하며 그저 남의 밋헤만 잇서서 從屬적으로 그것을 解決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生活 程度로 보아 남보다도 辟 安定이 되고 就職 가튼 것은 念頭에 두지 안해도 相關이 업슬 그런 사람조차 이런 觀念

에만 사로잡히고 억매어 있는 것으 볼 때에는 저윽히 寒心할 노릇이라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에 그들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獨立하는 精神과 實行하는 意志를 굳게 하고 압흐
 로 勇進하기를 바랍니다. 就職 그 範圍 속에 들어서 個人的 生活을 解決하는 데서도 이 獨
 立하는 정신과 實行하는 意志는 마찬가지로 必要할 것입니다.
 좀 크게 생각하면 自己가 他人의 包容 아래에 들어서 일하라 하지 말고 自己가 나서 他人을
 包容할 것을 마음 먹을 것이며 적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包容하지는 못하더라도 自己自身
 하나마는 어떻게 하든지 獨立하고 지금까지에 그런 조그마한 觀念 困襲 이것에 억매이지 말
 고 나아가 주었스면 하고 바랍니다.
 이 外에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勸고 마지막으로 말하야 附託할 것은 만습니다. 그러나 우
 에서 말한 이것하나를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바라는 바입니다.

12. 三大 新聞 經營者의 苦心談, 新聞 經營의 남모르는 苦心談은 무엇인가?('別乾坤' 4, 1927.2)

難關은 두 가지

朝鮮에서 新聞事業을 經營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第一은 處地가 處地인지라 言論의 新
 聖한 權威를 마음대로 發揮하기가 어려움은 勿論이고 第二에 經濟上 收支 相償이 못 되어
 維持策이 困難한 것입니다. 나 는最初 東亞日報社를 發起할 때에도 그다지 贊同치는 안었습
 니다. 그것은 勿論 新聞事業 自體를 不贊成한다는 것이 아니라 朝鮮의 處地가 여러 가지로
 經營하기가 困難한 까닭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責任者가 되어잇스닛가 그만두랴하
 야도 그만둘 수도 업고 그대로 해 가자닛가 勿論 困難이 만습니다. 그러나 엇지하겟스닛가
 다만 誠意것 實力것 最後까지 싸워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東亞日報는 年數도 오래
 고 基礎가 比較的 尙善으로 經濟 方面으로는 아직까지 큰 困難은 업지마는 精神上 苦痛이야
 一般이다. 아는바와 가티 엇지 만치 안켓스닛가 新聞은 元來 民衆을 相對로 하는 機關인 同
 時에 一方으로 當局의 監督이 만흔 機關입니다. 그럼으로 더욱 困難합니다. 다시 말하면 一
 般民衆의 意思와 時代에 適當하도록 言論을 發揮하라면 當局 注意가 만코 當局의 注意를 안
 이받는 範圍 以內的 言論으로만 하면 民衆이 歡迎치를 만습니다. 何如間 朝鮮에서 新聞 經
 營이란 것은 어느 時機까지는 尙 困難할 줄로 압니다.

다. 인공(人共)의 문화부장에 이름이 오른 문제

□ 피고의 주장

해방 직전 '건국동맹'을 통하여 건국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던 여운형이 해방 직후 조선총독
 부의 치안권 이양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건
 국준비위원회(일명 건준)은 8월 15일 해방 당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단 보름 동안에 145
 개의 지부를 전국적으로 만들었다. 당시 건준은 중앙에서 지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방에

서 자발적으로 조직하였으며, 지방유지와 민중들이 세운 건준 지부를 건준 중앙에서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만들어졌다. 이때 민족의 대단결을 원하던 여운형은 좌우 형평을 중시하여 건준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좌우합작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여운형은 건준을 만들면서 뒤에 한민당의 중심세력이 되었던 우파의 송진우와 김성수 그룹을 참여시켜 건준을 범민족단체로 만들고자 하였다. 여운형은 이들 세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사람을 보냈으며, 실제로 여운형이 직접 송진우와 만나기도 하였다. 비록 여운형이 송진우와 김성수 그룹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계획하였던 바는 송진우의 반대로 협상이 무산되고 말았지만, 여운형의 좌우 형평을 중시한 태도는 김성수가 ‘인공’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김성수가 9월 14일 건준에 의하여 발표된 조선인민공화국 문화부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이 되었고, 또한 그는 55명의 ‘전국인민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도외시하고 친일행위만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은 당시 미군이 진주하는 상황에서 자주적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였던 여운형과 건준이 갖고 있었던 좌우합작에 대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민당의 중심 세력이 된 송진우와 김성수 그룹은 한민당을 만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들은 여운형이 일제로부터 치안권을 이양 받고 건준을 통하여 해방 직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선수를 빼앗긴 것을 만회하고자 미군정을 기반으로, ‘인공’을 타도하는 데 선봉에 서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때 김성수는 송진우가 주도하던 국민대회준비회의 상임위원을 맡았다가 그해 12월 30일 송진우가 암살되자 이듬해 1946년 1월 7일 한민당의 수석총무로 선출되어 한민당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고 자신을 문화부장으로 선임하였던 ‘인공’과 대척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로써 여운형이 시도하였던 좌우합작은 물거품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반론>

피고는 “여운형의 좌우 형평을 중시한 태도는 김성수가 ‘인공’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촌은 ‘인공’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여운형이나 ‘인공’ 측이 인촌에게 이름을 올린다고 사전 양해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인공’ 간부에 명단을 올린 것은 일제가 각종 단체의 간부 명단에 인촌 선생의 이름을 올린 것과 같이 한 마디 상의 없이 올린 것입니다.

피고 준비서면 작성자가 높이 평가하는 여운형이나 ‘인공’ 측도 본인의 양해 없이 간부 명단에 인촌 선생의 이름을 ‘필요에 의해’ 제멋대로 올리는데 일제는 본인의 승낙을 받고 간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피고는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도외시하고 … 당시 미군이 진주하는 상황에서 자주적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였던 여운형과 건준이 갖고 있었던 좌우합작에 대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 송진우와 김성수 그룹은 … 여운형이 일제로부터 치안권을 이양 받고 건준을 통하여 해방 직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선수를 빼앗긴 것을 만회하고자 미군정을 기반으로, ‘인공’을 타도하는 데 선봉에 서기 시작하였던 것 … 이로써 여운형이 시도하였던 좌우합작은 물거품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기술은 이 소송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 준비서면 작성자의 인식과 의도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첨언합니다.

여운형은 잠시(1922.10~1923.5) 동아일보 상해통신원을 했고 인촌과도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태평양전쟁 말기 여운형은 인촌을 만나기 위해 해동(海東)농장을 찾았다.…(중략)… 인촌은 해동농장을 찾은 여운형을 반갑게 맞았는데, 여운형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자네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상만을 보기 위함일세.’
‘내 친구가 온 게 아니라 내 아들 친구가 왔군.’

인촌 역시 빙그레 웃으며 진객의 손을 잡았다.

송진우가 일민을 친아들처럼 대했다면 여운형은 친구처럼 대했다. 여운형 특유의 호방한 성격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일민은 여운형에게 송진우와는 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일민 역시 송진우와는 다른 존경과 애정을 여운형에게 품고 있었다. 아버지뻘 되는 여운형과 함께 농장 부근 냇가에서 즐겁게 천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해방 이후 정치신념의 차이로 여운형이 인촌과 멀어지자 일민은 가슴을 태웠다. 아버지와 멀어진다는 것은 곧 자신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촌과 송진우의 정치신념이 확고했듯이 여운형의 정치신념도 확고했다”고 ‘일민 김상만 전기’(동아일보사, 2003, 104~105쪽)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여운형이 일제로부터 치안권을 이양 받고 건준을 통하여 해방 직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선수를 빼앗긴 것을 만회하고자…’ 했다고 했는데 일제는 여운형에 앞서 송진우, 김준연 등에게 치안권 이양을 먼저 제의했으나 송진우, 김준연이 ‘일제로부터 치안권을 이양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정통성은 상해임시정부이니 상해임시정부 사람들이 환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일제의 치안권 이양을 거부한 것을

여운형이 받은 것입니다.

피고가 김 보전 교장을 비난하는 것으로 일부 대목만 인용한 손점용의 글에는 아래와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손점용,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 문지사, 2003, 178~179쪽.

“당시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군사령부는 그들이 저지른 죄 값을 우려해서 미군이 상륙하기 전이라도 정권을 조선인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민족적 지도자 송진우, 김준연 등 착한 분들은 인수하기를 거부하고 공산당에 가깝던 여운형 등은 거기에 응하려던 참이었는데, 성급한 공산당의 마수에 걸려 놀랍게도 국민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조선인민 공화국’이란 간판을 걸었다. … (중략) … 일본인들의 잔꾀도 한몫 거들었겠지만 선수를 쳐서 남조선의 공산화를 꾀한 조선공산당, 그리고 그들과 보조를 맞춰 등장한 여운형 같은 회색분자, 그리고 공산당이 설치자 뒤로 물러앉아서 내 몸 하나만 도사리고 있던 우익 민족진영 인사들 때문에 … (이하 생략).”

‘여운형이 시도하였던 좌우합작은 물거품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는 피고 준비서면 작성자의 표현은 ‘꿈꿔 볼 수 있는 이상’이지만 해방 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남북한의 현실을 보면 자명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피고 준비서면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밝힐 수도 있지만 국가,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리해 공식적, 공개적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피고의 준비서면에 그와 같은 기술이 여과 없이 기록돼 나온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피고 준비서면 77~134쪽)

4. 특별법 제2조 제11호 관련

가.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증언들은 추측에 불과한 부적절한 증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김성수가 평소 학병지원 독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징병제 실시 감사대회에 참석하였다는 보도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장 36면을 보면 “피고는 매일신보의 1942. 5. 24.자 기사를 토대로, 인촌이 1942. 5. 23. 개최된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였고, 이것이 학병 동원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매우 단순한 시각일 뿐이다”라고 밝히며, “교장의 직위에서 부득이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실로 무지한 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병 지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언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김성수로 부터 학병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보성전문학교의 졸업생들은 한 결 같이 인촌 선생으로부터 학병지원을 독려하거나 그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보도된 김성수와 관련된 사항은 모른다고 하거나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증언을 한다. 즉 원고는 김성수가 학병 지원에 대한 선전 선동 등의 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상황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김성수의 학병지원 선전선동이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매우 단순한 시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본 것은 “실로 무지한 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수가 1942. 5. 23. 개최된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는 일제의 징병제 실시에 감사하는 전국적 행사였고, 또한 지원병과 학병 등 징병을 권유하는 활동이 명백하다. 이러한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란 침략전쟁 선전선동행사에 이날 김성수가 보성전문학교 교장의 지위에 있었던 관계로 학병지원행사에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고 하여도 그 행사의 성격이 반민족적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다음 사례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1943. 11. 8. 김성수가 단지 일개 교장의 지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보성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학병에 지원시키기 위해 전국에 있는 시골의 학부형들에게 전보를 보내 그 뜻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또한 경성에 있는 여러 학부형들은 교장 실로 모이게 하여 직접 학병지원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행위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라고 하겠다.

<반론>

(가) 우선 피고는 “김성수가 평소 학병지원 독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징병제 실시 감사대회에 참석하였다는 보도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피고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또다시 원고가 제시한 증언자들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병 지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언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김성수로 부터 학병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어 “원고는 보성전문학교의 졸업생들은 한 결 같이 인촌 선생으로부터 학병 지원을 독려하거나 그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가 지적한 것을 피고가 무엇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보성전문학교의 졸업생들은 한결 같이 인촌 선생으로부터 학병 지원을 독려하거나 그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피고는 “김성수가 보성전문학교 교장의 지위에 있었던 관계로 학병동원행사에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고 하여도 그 행사의 성격이 반민족적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으나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특별법 제2조 제11호(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법 조항의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한 행위는 그 뒤의 ‘강요한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당시 보전 학생 중 어느 한 사람도 김 교장으로부터 ‘학병에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또 “1943. 11. 8. 김성수가 단지 일개 교장의 지위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보성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학병에 지원시키기 위해 전국에 있는 시골의 학부형들에게 전보를 보내 그 뜻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또한 경성에 있는 여러 학부형들은 교장실로 모이게 하여 직접 학병지원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행위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독부에서 ‘학병 대상자가 있는 전문학교장은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며칠까지 전보를 보내고 경성의 학부모들과는 며칠까지 교장 주재 하의 간담회를 가질 것’을 지시할 경우 피고 준비서면 작성자가 당시 교장이었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는 답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 원고는 황국신민의 서사에 대하여 “아전인수격인 추축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답변서에서 수시로 인용하고 있는 장신의 논문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과 변호론 비판’조차도 ‘황국신민의 서사를 다룬 부분은 김성수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황국신민의 서사 이하의 김성수의 문장이 아니라 매일신보에서 덧붙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장신의 의견서로 대신하겠다.

“이 부분의 인용문은 견해를 밝힐 필요도 없이, 본인 논문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쓴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도 아니면 모’ 식의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곧 매일신보나 경성일보 등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나 일본 경찰의 정보문서를 맹신하거나 반대로 모두 조작되었다고 여기는 양 극단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은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행적과 변호론 비판’에서 왜 김성수가 매일신보에 글을 쓰고 여러 차례 문제 있는 인터뷰를 하였는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 김성수의 행위들이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니라 1937년 7월 이후의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을 논증했습니다. 또 김성수의 글과 인터뷰가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를 분석한 결과 ‘대필설’이나 ‘명의도용설’, ‘인터뷰조작설’ 등 그간 김성수의 행위를 변호한 주장들에 근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매일신보나 경성일보에 김성수 명의로 발표된 글이나 인터뷰가 위의 논증과정을 통해 최소한 김성수의 것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게 본인 논문의 핵심요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매일신보의 첨삭이라 본 것은, 현재까지의 연구로 볼 때 ‘황국신민의 서사’ 부분을 김성수가 직접 또는 동의 하에 썼다고 수긍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 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수가 1943년 8월의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지만 ‘가’처럼 구체적 문건이 나오지 않는 한 그 내면의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황국신민의 서사’에 대한 평가도 유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이 부분 외 김성수의 명의의 글과 인터뷰는, 김성수가 쓰거나 직접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게 본인의 입장입니다.

<반론>

(나) 피고는 ‘황국신민의 서사’ 이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지적에 이에 대한 답변은 ‘장신의 의견서’로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피고가 피고와 원고 간의 큰 쟁점 중 하나에 대해 한 개인의 논문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것이 국가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장신의 의견서’는 ‘황국신민의 서사’ 이하 부분과 관련, “이 부분을 쓴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도 아니면 모’ 식의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이다. 곧 매일신보나 경성일보 등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나 일본 경찰의 정보문서를 맹신하거나 반대로 모두 조작되었다고 여기는 양 극단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중략)… ‘황국신민의 서사’를 매일신보의 첨삭이라 본 것은, 현재까지의 연구로 볼 때 ‘황국신민의 서사’ 부분을 김성수가 직접 또는 동의 하에 썼다고 수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 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김성수가 1943년 8월의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지만 ‘가’처럼 구체적 문건이 나오지 않는 한 그 내면의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중략)… 따라서 ‘황국신민의 서사’에 대한 평가도 유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신의 의견서’ 중 “이 부분을 쓴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도 아니면 모’ 식의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이다”는 부분은 피고가 경청해야 할 지적입니다.

장신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매일신보의 첨삭이라고 본 것은 현재까지의 연구로 볼 때 ‘황국신민의 서사’ 부분을 김성수가 직접 또는 동의하에 썼다고 수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장신은 그러면서 “물론 직접 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중략)… 따라서 ‘황국신민의 서사’에 대한 평가도 유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애매한 기술을 하고 있지만 ‘황국신민의 서사’ 부분을 김성수가 썼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답변을 ‘장신의 의견서’로 대신한다고 해놓고 준비서면 125쪽에서는 “그동안 원고는 총독의 훈시와 비슷하다 하여 도용설을 주장하듯 김성수의 글이 ‘황국신민의 서사’와 비슷하다 하여 조작설을 제기한 바 있었고,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는 글도 다른 잡지에 재인용된 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총독의 훈시나, 황국신민의 서사 등을 재인용한 것이 아니라 총독부 정책을 순응하여 이를 적극 하고(‘적극 지지하고’의 오기인 듯 - 원고 주) 핵심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도용설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답변으로 대신한다고 한 ‘장신의 의견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이 ‘장신 의견서’와 같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독부 정책에 순응하여 이를 적극 지지하고 핵심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만약 장신과 같이 ‘황국신민의 서사’ 이하 부분이 매일신보의 작문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다른 여타 매일신보의 김 보전 교장 명의 글도 매일신보 측의 작문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다) 원고는 “김성수가 순회강연 시 춘천강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소장 52면을 보면, 원고는 ‘인촌 김성수전’ 431면을 인용하여, 김성수가 춘천강연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연설을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간단한 한 마디만 하고 내려왔다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성수 평전을 보면 ‘한 마디만’ 한 이유는 뒤에 장덕수(실제로는 현상윤)에게 맡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춘천강연은 1937년 9월의 일로서 동행한 연사는 현상윤이었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김성수 평전은 김성수와 춘천만 빼고 시간과 동행 연사 등 중요사항을 잘못 기록하였기에 그 뒤의 행위 내용도 믿을 수 없는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고도 “매일신보의 보도 등에 의하면, 춘천강연에서 인촌 선생과 함께 연사로 간 사람은 ‘인촌 김성수전’에 나와 있는 ‘장덕수’가 아니라 ‘현상윤’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성수 평전에 나온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 이루어진 모든 강연에서 보전 교수였던 현상윤이 김성수 대신에 강연을 하였다면 보전 교장 김성수를 위하여 ‘희생양이 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김성수가 연설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수 평전의 신뢰도가 없어진 것으로 이 평전을

근거로 내세우는 원고의 어떤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

여기서도 피고는 원고가 “김성수가 순회강연 시 춘천강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소장 52면을 보면, 춘천강연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연설을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간단히 한 마디만 하고 내려왔다”고 한 것을 피고는 원고가 ‘춘천강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놓고 이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김성수 평전은 김성수와 춘천만 빼고 시간과 동행 연사 등 중요 사항을 잘못 기록하였기에 그 뒤의 행위 내용도 믿을 수 없는 것임은 당연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김성수가 연설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수 평전의 신뢰도가 없어진 것으로 이 평전을 근거로 내세우는 원고의 어떤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잘못된 전제를 피고가 해놓고 “김성수 평전의 신뢰도가 없어진 것으로 이 평전을 근거로 내세우는 원고의 어떤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논리를 비약시킵니다.

피고는 피고의 논리대로 경성일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해냈다는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의 분명한 케이스가 있고 또 조만식 선생 글의 대필 사실을 목격한 김진섭 당시 매일신보 기자의 구체적 증언 등이 있는 만큼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의 어떤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일방적인 진술이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회고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증언의 진실성과 증거력의 문제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피고는 당시의 1차 사료인 당대의 신문 보도에 나타난 좌담회, 인터뷰, 기고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김성수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증언 등은 주로 연설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으로 ‘나는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이 대부분이고, ‘그럴 리가 없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추측적인 생각이 대부분이다. 이는 피고 측의 객관적인 문헌자료, 즉 1차 사료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자료가 아닌 정황 증거일 뿐이다.

<반론>

정인익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 이원영 당시 매일신보 정치부장, 백철, 조용만, 김진섭 당시 매일신보 기자,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 등이 직접 이행하고, 꺾고, 본 일을 밝혀놓은 증언이 ‘주관적이고 추측적인 생각’입니까?

체험 사실을 밝혀놓은 서석연, 김영화, 윤임술 등 학병 출신들의 증언 역시 ‘주관적이고 추측적인 생각’입니까?

현상윤, 유진오, 김준엽, 홍일식 전 고려대학교 총장과 김진웅 전 고려대학교 총장서리, 이혜복 전 언론인, 송방용 전 헌정회장, 이무연 전 효명중 교장, 권중혁 전 대구여상 교장, 윤석헌 전 외무부 차관, 최재동 1·20 학병동지회 사무총장, 문병윤 전 부통령 비서관, 서태원 고일회 회장, 전 국회의원, 이종재 전 국회 부의장, 서정석, 김수명, 이종우, 장택상 전 국무총리, 우승규 전 언론인, 김성식 전 고려대 교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추측적인 생각’을 말했다고 보십니까?

김수환 추기경,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 신익희 전 민의원 의장, 조병옥 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김병로 전 대법원장, 이범석 허 정 최두선 전 국무총리, 서상일 전 국회의원, 이강훈 전 광복회장, 이희승 이은상 선생, 서정주 시인, 손기정 서윤복 선생, 백선엽 전 육군 참모총장, 김을한 전 언론인, 한만년 일조각 설립자, 김장수 선생, 이상돈 전 국회의원, 유달영 박사, 국악인 김소희, 임종국 선생, 김준연 김두한 전 국회의원, 구익균 선생, 김기진 전 경향신문 주필, 서병조 전 연합신문 편집부국장, 이정희 여사, 최형련 전 중앙고등학교 교장, 이현희 성신여대 명예교수, 한글학자 최현배 허웅 김선기 선생, 이병도 박사, 유홍 전 유관순 기념사업회장, 신도성 전 국토통일위원장, 조기준 전 고려대 교수, 김창숙 선생, 지청천 장군, 곽상훈 전 민의원 의장, 최남선 선생, 조지훈 박두진 시인이 아무 이유 없이 조사, 조시를 쓰고 추모사를 했겠습니까?

한국일보(1955년 2월 20일자), 경향신문(1955년 2월 20일자), 평화신문(1955년 2월 20일자), 자유신문(1955년 2월 20일자), 중앙일보(1955년 2월 20, 21일자), 연합신문(1955년 2월 21일자), 국도신문(1955년 2월 21일자), 충북신보(1955년 2월 21일자), 서울신문(1955년 2월 22일자), 전남일보(1955년 2월 22일자), 민주신보(1955년 2월 23일자), 조선일보(1955년 2월 24일, 26일자), 대구매일(1955년 2월 24일자), 대전일보(1955년 2월 24일자), 자유민보(1955년 2월 24일자), 경제일보(1955년 2월 25일자)는 일제시대 그의 행적을 피고 보다 몰라 ‘弔 인촌 김성수 선생’ ‘인촌 선생의 長逝를 攄함’ ‘哀哭 인촌’ 등의 추모 사설과 글을 쓴 것으로 보십니까?

다. 징병제도 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문제

(1) 징병제도 실시감사축하대회의 성격

□ 피고의 주장

김성수가 학병동원행사에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법이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학병동원을 선전선동한 행위라는 취지로 볼 때 ‘억지주장’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전국지이며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라는 신문사가 주최한 ‘징병제도 실시감사축하대회’가 전국적 차원의 행사가 아니면 뭐란 말이며, 일개 학교 교직원이 아닌 학교를 대표하는 전문학교장으로서 참석해 축하한 것이 주도적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일단 학병 동원이 ‘강제’였다는 것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라면, ‘강제’라는 것은 학병 대상자들이 처음부터 순순히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원고가 제시한 임종국의 자료는 그 강제의 한 방법으로서 가족을 괴롭혀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징병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중일전쟁 직후 실시된 지원병제 실시 축하회에 대해서도 임종국은 “이러한 경축무드에 현혹되어서 청장년 다수가 저들의 총알받이로 동원되었다”고 들고, “6.7대 1 이라는 그 많은 지원율이 강요된 총후의식(銃後意識)의 결과였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총후의식에 대하여 임종국은 “소위 ‘총후의식’의 철저를 위해서, 당국은 물론 친일분자 다수가 선동자의 대열에서 곤 하였다. 강연회 개최, 견학단 파견, 선동적 예술 활동 등 기타 갖은 방법으로 전개된 지원병 관계 행사”를 지적하며, ‘친일분자’의 선동대열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신 논문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숨어서 도망 다니다가 김성수와 같은 지식인들이 선전선동한 학병 권유문을 보고 좌절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음을 알아야겠다.

<반론>

피고는 “전국지이며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라는 신문사가 주최한 ‘징병제도 실시감사축하대회’가 전국적 차원의 행사가 아니면 뭐란 말이며, 일개 학교 교직원이 아닌 학교를 대표하는 전문학교장으로서 참석해 축하한 것이 주도적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라고 했습니다.

‘전국지이며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라는 신문사가 주최한 징병제도 실시감사축하대회가 전국적 차원의 행사였다고 해서 그 행사에 불가피하게 참석한 것이 특별법 제2조 제11호(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피고는 또 “일개 학교 교직원이 아닌 학교를 대표하는 전문학교장으로서 참석해 축하한 것이 주도적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라고 했으나 김 보전 교장은 어쩔 수 없이 참석은 했지만 ‘축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보전 교장이 학병에 끌려가는 보전 제자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석해 축하하지 않았고’ ‘주도한 것’도 없습니다.

“일제는 악랄하게 허위 보도로 ‘조만식 씨 드디어 전향하다’라는 표제 하에 학도병 출정 찬성, 날인과 자발적으로 유기(鎗器)를 헌납하고 성전(聖戰)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대서특필로 보도하고 사진까지 게재하였다. 그러나 일제 주구 외에 이 기사를 믿는 자는 없었다.” (유기선, ‘황혼의 명상’ 제5화, ‘학도병 출정 때의 이야기’, ‘고당 조만식 회상록’, 고당 조만식 기념사업회, 조광출판, 1995년, 51쪽)처럼 **‘일제 주구 외’ 그 행사에 어쩔 수없이 참석한 것을 두고 ‘전국적, 주도적 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소송의 모든 자료는 영원히 남겨질 것입니다. 국가를 대신하는 소송수행자인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워란 말이며’, ‘일개 학교 교직원이 아닌’, ‘워란 말입니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피고는 “지원병제실시촉하회에 대해서도 임종국은 ‘이러한 경축무드에 현혹되어서 청장년 다수가 저들의 총알받이로 동원되었다’고 들고, ‘6.7대 1 이라는 그 많은 지원율이 강요된 총후의식(銃後意識)의 결과였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임종국 선생의 위 글이 김 보전 교장을 두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임종국 선생은 ‘빼앗긴 시절의 이야기’ (민족문제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2007년)에서 아래와 같이 인촌 김성수 선생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촌이 재단을 인수하면서 보성전문은 새로운 모습으로 백 년을 향해서 웅비했던 것이다. … (중략)… 양부 김기중에게 청해서 5백 석의 전답과 6천여 평의 대지를 제공하게 하고, 또 생부 김경중으로 하여금 5천 석 전답을 기부하게 하여 인촌은 그 동안 빛투성이던 재정을 정리하는 한편, 안암동 현 위치에 6만 2천여 평의 광활한 부지까지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장래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인촌의 안목에 의해서 오늘날 고려대학교의 기초가 마침내 완성을 본 것이다.** … (중략)… 그렇다면 인촌의 생각은 보성전문의 구출 유지가 아니라 차라리 향후 백 년에 주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 (중략)… 첫째도 견고, 둘째도 견고를 주장한 인촌은 공사 중 매일같이 현장을 감독하면서 시멘트의 배합과 석재 하나를 붙이는 것까지도 세심한 주의로써 지켜보았다. **인촌이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성력을 기울인 것은 물론 그의 경륜의 일단이자 구미를 돌아보고 온 안목의 소치이기도 했다.** … (중략)… 안암동 6만 3천여 평을 확보한 인촌의 안목과 성력, 그는 그보다 못잖게 거액인 10만여 원으로 석조 본관건물을 준공케 했다. … (중략)… 원래가 좌절된 민립대학의 꿈을 바탕으로 하여 출발한 인촌의 야망. 그렇기 때문에 인촌은 도서관 하나만이라도 민족의 힘의 총화(總和)에 의해서 마련하고 싶었으리라. … (중략)… 인촌이 교장으로 재임한 것은 이렇게 암흑의 그림자가 짙어만 가던 1937년 5월이었다. 이후 해방되던 이듬해 1946년까지 교장으로 재직한 **인촌은 교명이 ‘경성 칙식 경제 전문학교’로 바뀌는 그 일제 말엽의 암흑 속에서도 끝까지 발전의 길을 소홀히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1937년에는 석조도서관

건물이 낙성, 개관하였다. 1938년에는 대운동장이 준공하였다. 1940년에는 새로 마련된 운동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운동회가 베풀어지면서 이른바 암흑시기지만 보성전문은 위축되지 않았다. …(중략)… 정보국에 복무하면서 직책상 일본의 1급 국가기밀을 모조리 알았다. ‘일본이 머잖아 패망하겠군!’ 휴가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장철수는 다시는 도쿄로 가지 않았다. 평소에 존경하던 인촌을 찾아가서 극비에 속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본 패전을 예언한 것이 1944년. 인촌도 장철수의 말이라면 신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시점에서 장철수 이상으로 일본 기밀을 알 사람은 달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중략)… 그 후에 장철수는 또 여운형을 심방했다. 그로부터 일본의 기밀을 전해들은 여운형은 비밀단체인 ‘조선건국연맹’을 조직하고 그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해방이 되자 여운형은 이 조직을 재빠르게 건준으로 확대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학생들은, 본교의 김용문과 서태원 등은 건준이 그렇게 탈바꿈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건준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그들은 이미 말한 것처럼 미련 없이 그곳을 차고 나왔다. …(중략)… 해방 후부터 우익학생의 중심체가 보성전문에 있었기 때문에, 또 김성수 등 우익진영의 인사가 교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 보성전문은 우익학생 진영의 총본산이자 수뇌부 역할을 담당하였다. … (중략) … 이리하여 보성전문은 1946년 8월 15일자로 대학에의 속원을 달성했다. 교명은 ‘고려대학교’인데 이것은 인촌이 직접 명명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국명이자 지명인 코리아, 또 대(大) 고구려의 민족정신과 청자의 높은 문화성이 깃들인 고려, 인촌이 관립인 경성대학교에 빼앗길까 봐 꼭 심려했다는 일화를 남긴 채 ‘고려’는 우리의 교명이 된 것이다.”

(2) 강제 동원되었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

□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일제의 학병 동원이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도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하며, 임종국의 글 ‘학병출신의 광상곡’과 권중혁 당시 보전학생의 진술을 예로 들고, “이 같이 학병에 끌려간 것은 일제의 악랄한 정책에 의한 ‘체포의 연행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보전 교장, 교수 등 어느 누구의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임종국은 “네 지원 여부에 이 가족 전체의 생사가 달린 셈인데, 너는 그래도 이 아버지의 심중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권중혁은 “그 어른 하는 얘기가 ‘가내 공업을 하는데 네가 가줘야 우리가 밥 먹고 산다’는 거야”라고 했다는 것이다. 원고는 임종국의 글과 권중혁의 진술을 가족의 생존권을 위하여 학병을 지원하는 의미로 보면서 ‘보전 교장, 교수 등 어느 누구의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고가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지식인의 학병 지원에 대한 선전선동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음은 보전교장 김성수와 생도감 장덕수 교수가 보전 교장실에서 보여준 학병 지원 모임을 보도한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1943년 11월 임시육군특별지원병의 마감을 앞두고 적격자 2백6십여 명을 차지하고 있는 경성부내 보성전문학교에서 ‘대조봉대일’인 8일에 전 교직원이 경성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호별 방문하고 부형들에게 그 참뜻을 전하여 자제들로 하여금 제일선에 출진케 하도록 권유하였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11월 9일 오후 3시부터 보성전문 교장실에서 김성수는 부내 학부형

들을 참집게 하여 이들과 학교 직원들은 마주 앉아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기에 내빈으로 일본군 향산(香山) 대좌를 비롯하여 동대문구익찬회의 이원보, 박춘금, 박희도씨 등이 임석하고, 보성전문 교직원들과 학부형들이 열석한 가운데, 교장 김성수는 인사말을 꺼내 “여러분들의 자제들은 모름지기 군문(軍門)으로 달리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학병 지원을 권유하였다. 이어 보성전문 생도감 장덕수 교수가 육군특별지원병의 채용의 수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향산 대좌는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반도 학우들도 제국 군인이 되어 부끄럽지 않게 싸워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이날 모임은 김성수의 주재 하에 이원보의 격려사와 각 학부형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는 보전 교장 김성수와 보전 생도감 장덕수 교수가 주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론>

피고가 근거로 든 매일신보 1943년 11월 10일자 2면의 기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一刻도躊躇치 말자

보전서 父兄會 열고 학도 출진 격려

오는 20일로 절박되어 오는 임시육군특별지원병의 마감을 앞두고 적격자 260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부내 보성전문학교에서는 대조봉대일인 8일에 전교직원이 부내로 흐터져 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호별방문하고 부형들에게 그 참뜻을 전하여 자제들로 하여금 제1선에 출진케 하도록 권유하였거니와 9일 오후 세시부터 동교 교장실에서 부내 학부형들을 참집게 하여 학교 직원들과 마조 안저 기탄 업는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래빈으로 가네야마 대좌를 비롯하여 동대문구 익찬회의 리노이에 박춘금 박희도 씨 등이 임석하고 동교 교직원들과 학부형들이 열석한 가운데 일동은 국민의례를 행하고 김 교장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가티 이번 광영의 임시특별지원병에 반도학도들도 채용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 학교에서는 여기에 응하려고 지금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학부형들에게는 전부 전보로써 그 뜻을 전달하였스며 경성에 계시는 여러 학부형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혀 주시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난을 당하여 한 사람인들 그대로 남겨 잇슬 수 잇습니가. 여러분들의 자제들은 모름직히 군문으로 달리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을 하고 장덕수 생도감이 이러서서 육군특별지원병의 채용의 수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가네야마 대좌는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반도 학우들도 제국 군인이 되어 부끄럽지 안케 싸워 달라는 부탁을 하고 리노이에 씨의 격려사와 참집한 각 학부형들로 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잇슨 다음 동 다섯시 지나서 큰 수확을 짓고 원만히 곳마추었다.

피고는 이 역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난 것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사실로 받아 들

여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전 학생 중 한 사람도 김 교장이 학병을 권유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고는 피해 당사자의 말은 믿지 않고 가해자인 총독부의 기관지를 더 믿습니까?

피고는 이어 “그렇다면 이들이 학병동원을 어떻게 선전선동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대응한 증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손종영(‘학병’, 북코리아, 2008)의 글을 인용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위에서 이미 상술했습니다.

피고는 또 원고가 “피고의 논리대로 하면 일제하 조선 땅에 일제의 강압정책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살았던 사람은 모두가 친일파이자 죄인이다 라고 주장하며, 식민지배하에 창씨개명한 대다수의 국민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논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김성수가 일제의 강압정책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일제의 강요로 약 322만호(약 80%)가 창씨개명을 신고했는데 창씨개명을 신고한 그 ‘약 80%’가 창씨개명 취지에 찬동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것처럼 ‘김 보전 교장이 교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학병동원행사에 강제 동원되었다고 하여도 그 행사의 취지에 찬동한 것은 아니다’는 의미에서 창씨개명을 예로 든 것 뿐입니다.

피고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민철 연구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김민철(‘지연된 정의 : 두 개의 보고서’, 2010. 7)

“노기남 대주교의 친일행위는 “천주교회 수장으로 교회와 교인을 지키기 위한 자기희생”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과 영달을 추구한 친일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민규명위의 판단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반민규명위가 노기남 대주교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천주교가 일제 말기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에 대해 최고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마치 김성수의 친일행위가 독립운동을 고문한 노덕술의 친일행위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책임 또한 같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략) 나는 친일문제를 비롯한 과거청산 논쟁에서 야스퍼스의 책임론이 매우 소중하며 의미 있다고 강조해왔다. 홀로코스트를 단죄하면서 연합군이 “이것이 당신들의 죄다”라고 말하며 독일 국민 모두를 죄인으로 취급하려 했을 때, 죄는 결국 개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일인은 각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형사적, 정치적, 도의적, 형이상학적 죄

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죄와 그에 따른 책임을 구분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무죄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책임의 동일시’를 통해 결국에는 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따위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김민철의 글 중 ‘이는 마치 김성수의 친일행위가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노덕술의 친일행위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책임 또한 같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는 기술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김민철의 기술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무죄다는 주장’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원고는 그런 식의 논리를 펴거나 주장을 한 바도 없습니다.

피고는 이어 “그리고 창씨개명문제이다. 원고는 일제의 사회적 제재와 압박의 결과 “1940. 8. 10. 마감기한까지 약 322만 호(약 80%)가 창씨개명을 신고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인촌 선생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창씨개명을 신고한 ‘약 80%’가 그 취지에 찬동해 창씨개명을 했겠나?”라고 반문하였다. 당시 창씨개명한 조선인을 모두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물론 김성수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창씨개명을 하였던, 하지 않았던 간에 형식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시인 윤동주가 창씨개명하였으나 일제에 저항하다가 투옥되어 옥사한 반면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지만 친일행위를 하였던 사례는 허다하다. 더 이상 창씨개명 유무로 친일행위기준을 판단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창씨를 끝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창씨개명 기간이 끝나면 조선인 성씨가 일본식 성씨로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법정창씨’가 적용된다. 예컨대 법정창씨가 되면 부인은 호주인 남편을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게 된다. 새로 씨명을 만들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조선인은 자동적으로 일본식 가족제도에 따라 창씨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창씨는 겉으로만 조선식 성명을 유지하지만 안으로는 조선식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일본식 가족제도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김성수와 같은 법정 창씨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신의 친동생 김연수 뿐 만 아니라 김연수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던 당대 실업가 한상룡, 박흥식, 김사연 등 유력 친일인사들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김성수와 같은 전문학교 교장 가운데 본명을 그대로 쓰는 사람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장 오금선을 비롯해 경성 중앙불교전문학교장 권상로 등이 있다. 특히 일제가 창씨개명제도를 시행하자,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 권상로는 친일문인 김동환이 발간하는 ‘삼천리’ 1940년 3월호에 “네. 나는 ‘창씨, 개명’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반포한 법령의 조문에 보아도 자금(自今)으로 씨제도(氏制度)를 시행하기로만 된 것이오 반드시 씨를 새로 창정(創定)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씨를 창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창정기간은 15년(1940년 - 작성자)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인 즉, 그 기간 내에 창정신고(創定申告)치 아니하는 자는 재래의 성(姓)이 법률적으로 씨(氏)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씨를 창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연적 법률의 효과를 발생하여 소화15년 6월말까지는 성명으로 ‘권상로(權相老)’ 노릇을 하다가 7월 1일부터는 씨명으로 ‘권상로(權相老)’가 되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인용문 중에서 밑줄 친 내용이 바로 ‘법정창

씨'를 말한다. 새로 씨명을 만들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조선인은 자동적으로 일본식 가족제도에 따라 창씨를 하게 된다는 것을 권상로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새로운 씨명을 만들어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의 성을 씨로 바꾸고 가족 모두 이 씨로 바뀌 호적에 올린 것이다. 예컨대 '權相老'는 '權 相老'가 되고 자식은 물론 부인도 '權 ○○'로 바뀌, 조선의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일본식 가족제도가 법률상 강제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 창씨개명을 했던 안했던 간에 그것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원고는 창씨개명 문제를 운운하며, "친일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민지 조선 내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이나 언론활동을 포기하고 해외로 망명하거나 시골로 낙향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내세우며 김성수의 국내에서의 자칭 '독립운동'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친일행위를 희석하였다"고 했습니다.

<반론>

피고는 창씨개명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원고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제의 강요로 창씨개명한 사람을 탓할 수 없듯 어떤 위치에 있어 어떤 행사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고 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한 것 뿐입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또 "보전 교장 김성수가 그런 행사에도 일체 나가지 않았다면 보전을 지킬 수 있는 묘안이 있었겠냐" "보전 문을 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행사에는 무조건 나가지 않았어야 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김성수의 학교 문을 달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는 경성의숙(당시 경성중앙여상) 황신덕 교장과 박순천 부교장이 제자를 정신대를 보낼 때 김성수와 똑같은 논리로 '폐교'를 운운한 것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장과 부교장이 제자를 직접 설득해 근로정신대로 내보낸 사실에 대한 '뉴스메이커'의 보도문이다. (내용 생략 - 원고 주)

따라서 학교 문을 달지 않기 위한 행위란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김성수가 "학교 문을 달는 한..."이라고 하는 등 '폐교'를 운운한 것은 학교 문을 달지 않기 위하여 황신덕 교장이 여 제자를 정신대로 보낼 때 운운한 변명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 문을 달지 않는다는 목표가 선량하기 때문에 제자를 학병에 보내고 여 제자를 정신대로 보내는 패륜적 친일행위를 하여도 그 수단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비인간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논리가 옳은 것이라면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에 반대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문을 달은 송실전문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사립학교들의 역사가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

피고는 “김성수가 ‘학교 문을 닫는 한…’이라고 하는 등 ‘폐교’를 운운한 것은 학교 문을 닫지 않기 위하여 황신덕 교장이 여 제자를 정신대로 보낼 때 운운한 변명과 같은 것이다”고 했으나 김 보전 교장은 어떤 제자에게도 학병에 나가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전 제자 문병운의 증언(보전, 징용 출신, 2004년 10월 28일 면담).

“우리 아버님한테 헌병과 경찰에서 자꾸 온 모양이야. 아들이 빨리 지원해서 나가라고. 광주에 사시던 아버지가 올라오셨다. 너 왜 지원하지 않느냐고. 경찰하고 헌병이 자꾸 와서 못살게 구는데 너 지원해라 하고 내려 가셨다. 그 이튿날 아침 사모님이 날 불렀다. ‘병운아, 어저께 선생님이 너,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아주 여사가 나한테. 얼마나 좋아. 군대 안 간다고. 듣기로는 그때 남방으로 전부 다 가서 죽는다고 할 때였다. 가지 않아도 된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때는 애국반이라는 게 있어 어디 외지에서 오면 다 신고하게 돼 있었다. 집집마다. 친척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전부 통장한테 다… 그러니까 그때는 재워주질 않아. 무서워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재워달라고 하면…갈 데가 없어요.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 무서운 때였다. 나는 그 양반이 군대 안가도 좋다고,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머물 수가 있었다. 숨어서 안갈 수가 있었다. 학병 마감 날도 안가고 피해버렸지. 피하고 한 달 동안을 그 집에서 눈치보고 있었어. 한 달쯤 있었는데 지나간 거라.”

보전 제자 이철승의 증언(학병출신, 2004년 7월 8일 면담).

“나는 학병반대운동을 주도했고, 학도병으로 끌려간 대상이므로 당시 상황을 잘 안다. 고하송진우 선생은 여러 곳에서 학병 권유 운동하라는 권유받고도 칭병을 하며 안했다. 고하는 총독 등의 학병 권유요청을 거부했다. 학생들이 ‘학병을 가야 하느냐’고 물으면 가지 말라고 했다. 고하와 인촌은 매일같이 회합해 대동아전쟁상황과 국내 상황 등을 분석하며 학교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일본은 학병을 보내 식민지 운영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있을 때이지만, 고하가 학병을 반대했는데 함께 한 인촌이 학병을 권유했겠나. 물론 당시 일본은 인촌에게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병운동을 권유하라’고 강력히 종용했다. 그러나 인촌은 ‘나는 교육을 맡은 사람일뿐 남의 자식을 학병에 가라 말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보성전문 대표인 나와 경성제대 대표인 이혁기, 그리고 각 전문의 대표 등 열 몇 명이 중심이 돼 비밀리에 모여서 학병 가지 말자고 연판장 돌리고 각 학교에도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당시 나는 인촌 선생 덕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말하자면 나는 고하 인촌의 직계고 이혁기는 몽양 여운형의 직계였다. 그런데 학병 지원율이 안 올라가니까 일제는 학부형들 불러다가 강요하고 권유하고 그랬다. 그러다가 학병반대운동 그룹의 해화전문 쪽 대표가 집에서 얘기한 내용이 총독부에 들어갔다. 그 집안은 친일파 집안이었다. 이를 들은 고이소 총독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나서면서 학병반대 운동은 무산됐다. 인촌은 직접 학병 반대를 언급했다기보다는 물으면 학병문제에 관해 물으면 ‘난 교육만 맡았지만 남의 자식을 학병 가라 말라 할 수 있겠느냐’며 묵묵부답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인니까. 그러나 그 당시 분위기에서 학교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그 이상

강한 거부가 있겠느냐.”

“전혀 들은 바 없다. 했다면 민족진영의 안호상(내 담임선생) 손진태 장덕수, 이런 분들이 다 존경받던 분들인데, 또 좌익의 박극채 윤행중 등 좌우익의 교수진이 모두 인촌을 존경하고 따랐겠느냐. 당장 우리 학생들부터 가만있었겠느냐.”

당시 보전 학생들이 위와 같이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반된 주장을 하려면 불필요하게 황신덕 교장에 빗대서는 안 되고 원고가 제시한 증언과 다른 증언을 제시하거나 총독부 기관지 외(外) 다른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마지막으로 원고는 김성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회고담을 들어 김성수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주장하며 그의 친일행위를 희석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중에는 ‘거짓말’ 논란이 빚어진 것도 있는 등 김성수와 관련한 회고담 전반에 대한 증언력에 대하여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원고가 김성수의 유력한 독립운동사실이라고 인용한 안창호 선생의 비서라고 일컫는 구익균이 주장한 회고담이 그렇다. 원고가 인용한 구익균의 두 가지 회고담을 그 예로 들어 보겠다.

“당시 나는 상해에서 임시정부 내무총장으로 독립운동을 지도하시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로 일했다. 선생의 사무실 겸 숙소는 프랑스 조계에 있었다. 어느 날 도산 선생은 애국지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인촌 선생만큼 용기 있고 진실한 애국자가 없다’는 말씀을 했다. 인촌 선생은 세계 일주여행 길에 상해에 들러서 일본인과 그 첩자들의 눈을 피해 가면서 도산 선생을 찾아 왔었다는 것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도산 선생 사무실로 찾아온 사실에 더 감격한 듯 했다. 당시 국내의 지사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보낼 때는 신변이 위험하여 꼭 인편(人便)을 이용하곤 할 때였다. 국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실력자 인촌 선생이 임시정부에 2천불, 그리고 인성학교에 5백불을 내놓으셨는데, 그 분이 직접 방문한 것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도산 선생을 직접 뵈고 독립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협의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 뒤에도 참다운 애국자를 말할 때는 인촌 선생이 그 귀감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김구 선생의 특무공작도 안창호 선생의 재정지원을 받고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미국 동포들이나 중국을 지나가던 국내 인사들이 안창호 선생을 신뢰해서 그를 통해 독립운동자금을 대주었으므로 도산이야말로 독립운동자금의 주머니였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유럽을 순방한 뒤 귀국 길에 상해에 들른 인촌 김성수도 도산을 찾아와서 인성학교에 기부금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기금도 내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하여 위기봉은 이러한 회고담이 거짓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피고는 그의 주장을 반박증거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위기봉('다시 쓰는 동아일보사', 녹진, 1991)

“필자가 구익균(具益均)의 회고담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도산 안창호가 그때 상해지역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구익균은 그의 회고에서 그 당시 도산 안창호가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었고 자신은 그의 비서로 일했다고 말했으나 도산 안창호가 상해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를 맡았던 것은 1919년이었고, 1921년에는 총리 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것은 1926년이었고, 1927년에 재차 도미했다가 1년만인 1928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안창호는 만주의 길림(吉林)땅에서 이상향(理想鄉)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다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계획을 중단하고 상해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김성수의 세계일주 여행기간에 그는 상해에 있지 않고 만주에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춘원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 (흥사단 본부 발행, 1978) 등 몇 개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

또 다른 반증은 ‘백범일지(白凡逸志)’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1927년에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이 된 김구(金九)는 임시정부의 재정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임시정부 청사의 집세 40원(元)을 내지 못해 채근을 당하는 형편이었다. 김구는 그때 미국 각처의 교포들에게 재정원조를 호소하는 편지를 띄워놓고 그 회답을 기다리던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 무렵에 시카고 한인공동회의 김경(金慶) 등이 2백달러를 보내준 사실을 ‘백범일지’에 감명 깊게 적고 있다. 김성수가 세계일주 여행을 하던 시기의 상해임시정부 국무령(國務領)은 안창호가 아니고 김구였다. 그 무렵에 김구는 이봉창(李奉昌) 의사와 윤봉길(尹奉吉) 의사의 거사를 준비 중이었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만약 김성수의 돈 2천불이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왔다면 그 돈은 틀림없이 일본천황 저격사건과 상해 홍구공원 폭탄사건의 거사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그랬다면 김성수의 이름은 백범 김구,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 남았을 것이다. 김구가 ‘백범일지’를 기록(발간 - 작성자)한 것은 1947년이었다. 해방된 조국에 와서 김구가 이 감격적인 사실을 왜 숨겼겠는가? 또한 **‘인촌 김성수전’이나 ‘설산 장덕수’(동아일보사, 1981년 간)의 어느 곳에서도 그때 김성수가 상해에 갔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전기라는 것들은 김성수의 조그만 미담이나 애국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행적들을 알알이 들춰내어 **자랑으로 가득 찬 용비어천가가 아니던가.** 이 자랑스러운 사실을 왜 감추었겠는가?

이와 같이 위기봉은 구익균의 회고담에 대하여 “어느 모로 보거나 김성수의 상해 잠입 운운은 날조가 분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명한 것은 김성수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이유가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같이 안창호와 김구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1962년 당시 김성수는 국내에서의 신문사 및 학교 경영 등의 문화활동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공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반민규명위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다수의 친일반민족행위가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그의 행위가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것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김성수에 대한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를 정지한 상태에 있으며, 서훈 취소는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사안이다.

<반론>

우선 원고는 인촌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주장을 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김성수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이유가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같이 안창호와 김구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는 피고의 기술은 원고가 하지도 않은 주장을 피고 마음대로 만들어 전제로 삼아 놓고 피고 스스로 부인하며 마치 원고가 사실도 아닌 주장을 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또 위기봉의 ‘다시 쓰는 동아일보사’를 인용했는데 위기봉은 본사 광고영업사원으로 있다 불미스러운 일로 광고영업사원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국가이니 만큼 그의 소재를 찾아 그 책을 쓰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술을 듣고 확인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피고가 인용한 위기봉의 기술 중 “그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것은 1926년이었고, 1927년에 재차 도미했다가 1년만인 1928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안창호는 만주의 길림(吉林) 땅에서 이상향(理想鄉)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다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계획을 중단하고 상해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김성수의 세계일주 여행기간에 그는 상해에 있지 않고 만주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도산이 만주로 가서 길림 땅에서 활동한 것은 1927년 1월부터 8월경 까지 이고 그 후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만주 길림에서 활동하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상해로 되돌아왔다’는 부분은 잘못된 기술입니다. 만주사변 발발 훨씬 전에 상해로 돌아왔다고 ‘도산 안창호’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광수의 ‘도산 안창호’ (152~153쪽)

“병인(1927년) 1월 27일 길림 최명식의 집에서 김동삼, 오동진, 최명식 등 만주의 거두 2백여 명이 회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중국 경관과 일본 경관이 돌연히 회장을 포위하고 도산 이하 회중 전체를 포박하여 길림경찰청에 인금하였다. … (중략)… 중국 명사 중에 도산의 신분을 증명하는 이가 있어 곧 일본 관헌에게 넘기지는 아니하고 약 20일간 유치되었다가 중앙정부에서 명령도 있어서 일동이 석방되었다. … (중략)… 도산은 그 후에도 수개월 길림에 체재하였다. … (중략)… 도산은 길림에서 북경, 남경을 거쳐서 상해로 돌아왔다. … (중략)… 도산은 대 독립당과 이상촌과 흥사단 원동지부의 발전의 계획과 수만금의 동지의 출

자를 안고 상해로 돌아왔다. 그러나 도산이 뜻을 펼 기회는 막혀버렸다. 이른바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비단 만주뿐이 아니라 관내에까지도 일본의 세력이 뻗고, 곧 이어서 일본은 상해에까지도 출병하게 되니 도산의 계획은 베풀 곳이 없었다.”

이밖에도 동아일보 1930년 11월 13일자 2면 ‘상해학우회 강연회 개최’ 기사 및 12월 31일자 2면 ‘민족운동의 3거두 일대 단일당을 조직’ 기사는 도산이 1930년 11, 12월 상해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930년 11월 13일자

“(상해) 지난 ○일 상해한인학우회에서 11.3 학생운동 1주년 기념을 하기 위하여 법계 성덕 학교 안에서 밤 일곱시 반부터 강연회를 열고 이태완 씨의 사회와 유진동씨의 학생운동보고가 있는 후 안창호 김두봉 오의순 씨 등과 학생 측으로 구익균 김기승 씨 등의 강연이 있었는데 수백여 명의 청중이 모여 매우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0년 12월 31일자

“(남경) 조선민족운동 거두 안창호, 이동녕, 양기택 등 제씨는 최근 상해에 회집하여 단일민족운동단체 조직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해외의 민족운동자들을 이 기치 아래에서 대동단결할 터이라 하며 전기 양기택 씨는 북만주로부터 최근 상해로 온 바 재만동포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협의할 터이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낸 ‘수난의 민족을 위하여 - 도산 안창호의 생애’ 중 도산연보(254쪽)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931년 7월 18일 상해의 각 운동단체와 중국 측과의 적극적 교섭을 위해 상해 ‘한인 각 단체연합회’를 재결성함. 광동정부와 함께 한·중 대일전선통일연맹 결성을 추진함.

라.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의 상투적 표현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는 “물론 위 글들도 안재홍이나 여운형 선생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이렇듯 ‘문약의 폐해’를 지적하는 표현은 당시 학병을 동원하는 글들에서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주삼 같은 친일행위자나 여운형 같은 독립운동가도 그러한 말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쓴 표현과 김성수가 쓴 표현은 그 반복성과 지속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행위 결정된 양주삼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결정 단계에서 제외된 바 있었던 현상윤 경우보다 김성수는 훨씬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약’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 논리를 체계화하였다. 김성수의 ‘문약’론은 다른 사람들의 문약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김성수의 글은 1943. 8. 5.자로 매일신보에 발표된 이래 원고가 인

용한 양주삼의 글 ‘호반전통을 창조 - 적국의 학생병을 치자’는 1943. 11. 8.자 같은 신문에 발표되었으며, 안재홍의 상무정신을 운운하며 문약의 기질을 비판했다는 글은 1943. 11. 15.자 같은 신문에 발표되었다. 또한 여운형의 ‘반도학도출진보’는 1944년에 발간된 글입니다. 모두 김성수의 문약론 이후에 나온 문약론 들이다. 더욱이 이 글의 논조는 이후에 김성수가 보인 행보와 입장표명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 글을 매일신보에 발표한 후 김성수는 그해 10월 20일 조선에 학도지원병제가 실시되자 보성전문학교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에 직접 나섰다. 같은 해 11월 6일 매일신보사가 주최하는 학도출진을 말하는 좌담회에 참석하여 일본군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를 조선인의 ‘문약한 성질’에서 찾았다. 따라서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글이 보여주는 ‘문약한 고질’을 버리자는 요지가 ‘학도출진을 말하는 좌담회’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학병 마감일의 인터뷰에서도 그 글의 요지는 다시 한 번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즉 김성수에 따르면 두뇌와 체력이 남에게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기심이나 인내력, 무용이 부족한 것은 몇 백년 동안 조선인이 문약으로 흘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견해였던 것이다. 결코 문약에 대한 김성수의 견해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원고가 김성수의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글에 대하여 “무엇을 근거로 위 글이 매일신보에 의하여 조작된 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반론>

피고는 “양주삼 같은 친일행위자나 여운형 같은 독립운동가도 그러한 말을 쓸 수도 있다. …(중략)…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행위 결정된 양주삼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결정 단계에서 제외된 바 있었던 현상윤 경우보다 김성수는 훨씬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약’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 논리를 체계화하였다. 김성수의 ‘문약’론은 다른 사람들의 문약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모두 김성수의 문약론 이후에 나온 문약론 들이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술한 바와 같은 ‘김성수의 문약론’ ‘김성수가 그 논리를 체계화하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김성수의 문약론’ ‘김성수가 그 논리를 체계화하였다’는 피고의 ‘김성수 문약론’이 학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는 또 “김성수의 ‘문약론은 다른 사람들의 문약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두 김성수의 문약론 이후에 나온 문약론들이다”고 했는데 양주삼, 여운형, 안재홍, 현상윤 선생 등이 ‘김성수가 체계화해 불을 지핀 김성수의 문약론’을 보고 ‘문약’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김성수의 문약론’이 아니라 일제가 만든 ‘조선인 문약론’이고 그것을 조선총독부의 총견 매일신보가 선전선동물에 이용한 것입니다.

피고는 또 “김성수는 훨씬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약’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병 대상자가 학교에 있고 보전의 지원율이 타 학교보다 낮았기 때문에, 또 민족 사학이라고 알려진 보전을 집중 공략의 대상으로 지목한 총독부의 지시를 매일신보가 충실히 이행하느라고 김 보전 교장의 명의를 ‘훨씬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용해 게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진웅 당시 보전 학생의 증언(2004년 12월 3일 면담).

“경찰서 불러가고, 학부형 불러다 얘기하고, 가정 방문하고, 갖은 협박 다해서 가게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강제로 도장 찍게 하던 시기다. 보전 학생 해당자의 대부분이 응하지 않았다. 그때 매일신보에 ‘보전도 3명’이란 뉴스가 나왔다. 그게 굉장한 뉴스다. 뜻을 잘 새겨야 한다. 보전조차도 3명이 지원했다는 거다. 보전조차도 3명이 나왔는데, 왜 안 갈 거냐. 그만 하면 가야할 것 아니냐는 뜻이다.”

“일본이 망해갈 무렵, 중일전쟁 수행하고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전문대학도 1주일에 1번 조회를 하는데, 아마 1월 십일 전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배속장교 한국 사람인데 친일파였던 ‘가와모토’(본명 이강우)라는 사람이 있었다. 일본군 중좌다. 이 사람이 별안간 교단에 올라가더니, ‘너희들 왜 학병 지원 안하느냐. 지원이라고 하지만, 형식만 지원이지 강제야. 그 뿐 아니라 만일 너희들이 지원 안하면 보성전문학교 없어져. 폐교돼. 알았어? 가!’ 이랬다. 인촌 선생은 원래 조회 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격이 과묵한 분이고, 말씀도 없으신 분이고, 말씀도 잘하시지 못하는 분이다. 생전 교단에 올라가서 학생들 나무라거나 훈시하는 분이 아니다. 이 양반이 교단에 뛰어올라갔다. ‘지금 가와모토 교관 선생으로부터 학병은 겉으로만 지원이지, 절대로 강제다. 너희들이 안가면 보전은 폐교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제 정무총감도 만났고, 조선군 사령관도 만났다. 그 사람들이 현관에 나오면서 거듭거듭 당부하거니와 ‘어디까지나 지원이지 절대로 강제가 아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나에게 했다. 설혹 강제라 하더라도, 제군들이 지원을 안 해서 학교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제군들의 부형으로부터 교육시켜달라고 해서 말았지 생명을 맡은 적 없어. 군대 간다는 것은 자네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네들이 알아서 생각해야지, 가라마라 할 수 없다. 설혹 보전이 폐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들 교육 맡았지, 자네들 생명 맡았다. 자네들이 잘 알아서 결정하소’ 이려고 내려갔다. 그러자마자 장덕수 선생이 바로 쫓아 올라가더니 매일신보를 들고 읽었다. ‘우리들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신문이 잘 전해주기 때문에, 이제부터 원문을 읽겠습니다’ 하더니 ‘어디까지 지원이지, 절대로 강제가 아니다’하는 일본 당국의 발표문을 매일신보에 난 그대로 읽었다. 이것은 다른 학교와 비교가 돼서 조심스럽지만 한국의 어떠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 데가 없었다. 이걸 참 기가 막힌 일이다.”

<피고의 주장>

한편 원고가 이 글에 대하여 “무엇을 근거로 위 글이 인촌 선생의 대표적인 친일논설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이유는 이렇다. 이 글에 대하여 ‘대표적인 친일논설’이라고 표현한 것은 ‘친일인명사전’에 나온 표현이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대상자들은 그 행위의 내용과 함께 친일행위의 근거가 되는 각종 사진이 실려 있다. 김성수 부분을 보면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기품을 조장하라’라고 ‘보성전문학교장 김성수’라는 명의로 신문에 쓴 글이 김성수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징병제 실시를 기념하여 ‘선배의 부탁’이라는 특집란에 실린 김성수의 대표적인 친일논설, 매일신보, 1943년 8월 5일”이라는 설명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은 이 글을 김성수가 하였던 친일행위의 근거로써 사진으로 게재한 것이고 설명문에 밝힌 바와 같이 ‘김성수의 대표적인 친일논설’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기 19년 전에 발간된 ‘다시 쓰는 동아일보사’에는 김성수의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기품을 조장하라’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는데 사진 출처를 밝힌 설명문에는 ‘김성수의 부끄러운 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글은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라는 또 다른 김성수의 친일 글과 함께 나란히 사진으로 게재되면서 김성수의 부끄러운 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반론>

국가인 피고는 “이 글에 대하여 ‘대표적인 친일논설’이라고 표현한 것은 ‘친일인명사전’에 나온 표현이다”라고 하여 한 연구소의 표현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다수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정리해야 국가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 ‘징병제 실시와 조선청년’이라는 월간지 ‘춘추’의 글

□ 피고의 주장

피고 역시 답변서에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은 ‘춘추’에 재인용된 부분은 문약함을 떨쳐버리고 상무기품을 조장하여 황국신민화의 길, 즉 징병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고단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매일신보의 글을 재인용한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김성수가 전개하는 문약함을 떨쳐버리고 황국신민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경로로 역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론>

친일 월간지 ‘춘추’가 매일신보에 게재된 김 보전 교장 명의의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

기품을 조장하라’는 글 중 일부를 임의로 인용해 게재한 것을 놓고 “이는 ‘단순히 매일신보의 글을 재인용한 것이 아니라 매일신보가 만들어 낸 핵심 내용을 월간지 ‘춘추’가 강조한 것이다. 이는 향후 김성수가 전개하는 문약함을 떨쳐버리고 황국신민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경로로 역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약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바.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의 대필 여부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김성수의 글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가 김성수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대필된 사실은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 이유는 이러한 대필설, 조작설, 명의도용설은 김성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게재된 여타의 모든 친일 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론으로 확대 해석되어 그의 친일행위가 옹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웅은 ‘한국곡필사’에서 “일제시대에 친일곡필을 쓴 사회저명인사”에는 ‘김성수의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 등이 있다고 들고, “일제시대의 그 많은 친일곡필을 모두 찾아 민족정기의 심판정에 세울 겨를이 없다. 다만 대표적인 친일분자들의 으뜸가는 곡필만을, 그것도 해방된 조국에서 사회저명인사로 활동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마간산 격으로 추적했을 뿐임”을 밝혔다.** 또한 원고는 조만식, 여운형 등의 명의로도 학병 동원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누구도 이에 대해서 게재를 막거나 항의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여운형은 경성일보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학병권유문’을 제멋대로 실은데 대하여 몹시 분개한 나머지 이 사실을 일본 육군대학 교수 오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에게 털어놓았던 사실이 있다. 당시 **일본 군부의 극우이론가로 여운형과 가까웠던 오오카와 교수는 1943년 12월 2일자 자신의 일기에** 여운형 부자가 내방했던 일을 적으면서, “관현의 조선 학생 지원병의 처치(處置), 분노한 머리카락이 하늘을 찌르게 한다. 이런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불평을 가진 반도의 민심을 더욱 일본으로부터 이반케 하여 불상사의 발발을 볼 것이다”라고 경성일보가 제멋대로 글을 실은데 대하여 여운형이 몹시 분노했던 일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론>

피고는 1989년 발간된 김삼웅의 ‘한국곡필사’를 인용, “일제시대에 친일곡필을 쓴 사회저명인사”에는 ‘김성수의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김삼웅이 1985년 발간한 ‘민족혼’ (광일문화사, 1985) ‘仁村 金性洙 선생’편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17~121쪽, 전문)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거의 황제에 가까운 권한을 쥐고 있는 현행 대통령제를 개변해야 합니다.

……내가 부통령에 취임한 후 ‘각하(閣下)’라는 칭호를 폐지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정식 결정되어 널리 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구두 혹은 서신으로 ‘각하’를 붙이는 자가 뒤를 끊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극단한 예로는 ‘부통령폐하(陛下)’라는 존칭을 써서 나에게 송환(送翰)해 온 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웃지 못 할 사실에 접하고 나는 우리 국민을 급속히 민주화하기 위하여서는 한 사람이 거의 황제에 가까운 강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현행 대통령제를 개변(改變)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통감하였던 것입니다. 영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 있어서도 정부의 독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내각제를 채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당의 수령(首領)에게 국무총리와 동일한 대우를 주고 또 그만큼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이 민도(民度)가 낮고 권력의 발호(跋扈)가 자심(滋甚)한 곳에 있어서라! 우리는 이미 대통령제의 산고(酸苦)를 충분히 체험하였습니다.

김성수 부통령은 1952년 5월 29일 부통령 사임 이유서에서 이렇게 대통령제의 폐단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위 국제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날조(捏造)하여 계엄 하에서도 체포할 수 없는 50여 명의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는 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국헌(國憲)을 전복(顛覆)하고 주권을 찬탈(篡奪)하는 반란적(叛亂的)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약 그에게 일편(一片)의 애국심이 있다면 지금 어떠한 시기이며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것이길래 국가의 비운과 민생의 고난도 모르는 척 일신의 영욕(榮辱)을 위하여 어찌 이다지도 난맥(亂脈)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어 나는 이 이상 단 하루도 이승만 정부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의 지위가 비록 시위소찬(尸位素餐)에 지나지 않고 내가 한 번도 현 정부의 악정(惡政)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변변치 않은 이름을 이 정부에 연(連)하는 것만으로 그것은 내 성명 3자를 더럽히는 것이며 민족만대에 작죄(作罪)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수 선생의 이 사임 이유서는 단순한 부통령 사임서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사회상과 이 정권의 횡포를 준렬히 고발한 내용이다. 특히 피난살이와 전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통령이라는 현직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용기와 불굴의 민주 정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끝내 사임했고 여생을 민주 투쟁으로 일관, 志節을 지켜주었다.

김성수 선생은 1918년 10월 22일 전북 고창군 부안면 인촌리에서 金璟中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시절을 보낸 인촌리의 두자를 따서 ‘仁村’이라는 아호를 지을 만큼 향리를 사랑했다. 인촌은 3세 때 백부 金祺中의 양자로 입양한다. 당시 生父와 養父가 모두 호남 굴지의 부자와 명문이었다. 평창 영어학숙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한 인촌은 일본 금성중학을 거쳐 조도전대학 정경학부에 진학했다. 재학 중 學友會를 주도하며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등 항일운동을 폈다. 高在旭, 宋鎭禹, 白寬洙, 張德洙, 金俊淵, 金炳魯, 崔斗善 등과 친교를 나누며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 귀국했다. 그의 신조인 ‘丹心の 救國一念’을 펴기 위하여 인재 배양, 경제 자립, 언론 창달을 목표로 우선 中央中學의 전신인 중앙학원이 경영

만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인수하여, 인재 양성으로부터 구국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여기 한 토막의 일화가 있다.

인촌은 중앙학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부친께 지원을 호소했으나 반대하자, 문을 잠그고 단식, 나흘 만에 승낙을 얻어내어 초지를 관철시켰다. 그의 이러한 투지는 중앙중학, 동아일보의 경영난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1919년 경성방직을 만들고, 이 해 3.1독립운동의 모의장소를 중앙고보 숙직실에 제공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자신은 비밀결사를 추진했다. 다음 해(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여 본격적인 대일 항쟁을 벌였다. 1926년 6.10만세 사건을 중앙고보 학생들이 주도했으며, 1929년에는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창설하고 구미 각국을 시찰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때 日章旗 말살사건을 지휘, 동아일보의 정간을 겪고, 1940년 일제의 최후 발악은 신문을 무기 폐간시키기에 이른다. “우리 민족의 뜻을 대변해주는 언론 기관을 설립하여 방황하는 겨레에게 자주 의식을 일깨워 일제와의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로 동아일보를 창간하여 피맺힌 투쟁을 전개, 투옥·정간·수색·압수 등의 곤욕을 치르다 끝내 폐간까지 당해야 했던 것이다. 일제가 망하고 해방이 되자 인촌은 좌익의 정치 음모를 분쇄하고 민주 건국의 기초를 닦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宋鎭禹선생 등 민족진영 지도자들과 1945년 9월 16일 ‘人共’ 타도를 당면 과제로 ‘조선 민족의 자주독립’ ‘민주주의의 정체 실현’ 등을 내걸고 韓民黨을 창당했다. 창당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서 높은 당직을 차지하지 않은 것은 先公後私라는 행동 철학을 스스로 지켜온 때문이다. 내각 책임제를 실현하여 이박사의 정치적 황포를 막고 책임 정치를 위하여 국회에서 개헌안을 낸 한민당은 임시정부 요인들을 영입하기 위해 大韓國民黨과 합당을 단행했다(1950년 초). 인촌은 입당 요인들을 우대하여 당세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海公 申翼熙에게 당수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고문을 맡았다. 6.25동란 때, 한강대교 폭파를 몇 시간 앞두고 군인들이 桂洞 자택으로 찾아가 피난을 권유했으나 “서울 시민과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거부, 억지로 차에 실어 남하시키기도 하였다. 이승만정권이 점점 독재의 마각을 드러내어 폭정을 자행하자 인촌은 단연 부통령을 박차고 나왔다.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규탄하고 퇴임한 李始榮부통령의 후임으로 1951년 5월 17일 固辭 끝에 제2대 부통령에 취임한지 1년만의 일이다. 1955년 2월 18일 인촌은 향년 65세로 서거하여 국민장으로 인수됐다. 어느 논객이 선생을 일러 富而不侈(부하면서 사치하지 않고), 貴而不驕(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貧而不屈(가난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 인촌은 우리 민족이 망국의 恨을 씻는 유일한 길은 인재양성, 자급경제, 자주언론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 ‘교육 언론 경제’ 3대 무기를 가지고 抗日的 蠟燭을 들어 의연, 과감하게 對日抗爭을 전개한 선각자이다. 그의 깊은 선견은 해방 후 반공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려대 개교, 한민당 창당, 신탁통치, 미소 공동위원회, 남북협상 등 적색분자와 중간파들의 음모, 흥계를 단연 물리치고 민족 대의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유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즐기차게 싸운 민주 선각자이기도 하다.

피고는 “여운형은 경성일보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학병권유문’을 제멋대로 실은데 대하

여 몹시 분개한 나머지 이 사실을 일본 육군대학 교수 오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에게 털어 놓았던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유진오 선생이 직접 눈으로 본 사실을 밝혀놓은 ‘대필 증언’에 대해서는 ‘대필된 사실은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면서 여운형 선생의 대필 글과 관련, 오오카와 교수의 1943년 12월 2일자 일기를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초안하고 민족 사학 고려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으며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낸 유진오 선생의 ‘목격 증언’은 믿지 않는 **피고가 ‘일본 군부의 극우이론가로 일본 육군 대학의 교수인 오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에게 털어놓았던 사실’ 즉 ‘전언(傳言)’은 믿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고는 여운형 선생이 ‘오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에게 털어놓았던 사실’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총독부 기관지에 있었던 조선인 기자들의 생생한 증언 기록만으로도 조만식, 여운형, 안재홍 선생 등등, 조선인 유력자들의 글, 대다수가 대필 조작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 ‘충용무쌍한 황병이 되어라’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상투적으로 “글을 쓸 리가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단정하거나 추측으로 예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교과서 인용문조차 문제를 삼고 있다. ‘어느 수병(水兵)의 아름다운 충국(忠國) 이야기’가 일제의 보통학교 교과서에 실린 초등학생용이라고 하여 김성수가 인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교과서는 표본적인 이야기를 실는 교육용 학습서이다. 여기에는 훈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종 고사와 미담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여 학력적으로 차등을 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인용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알리기 위하여 연설은 물론 일상대화에서도 곧잘 관용어나 속어처럼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초등학생용이기 때문에 중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일제의 보통학교 교과서에 실린 **‘어느 수병(水兵)의 아름다운 충국(忠國) 이야기’는 학력과는 무관한 인용자의 언어 습관일 뿐이다.**

<반론>

피고의 설명처럼 ‘학력과는 무관한 인용자의 언어 습관’이라면 평소 김 보전 교장이 보전 교수들이나 학생들 앞에서 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총독부 기관지에 게재된 일제에 대한 찬양, 감사, 우국충정 투의 글이나

담(談)을 할 정도의 사람이면 평소 보전 교수들이나 학생들 앞에서도 하거나, 무심코 튀어나오기라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고는 그러나 “피고의 주장처럼 ‘일제를 위해 전쟁터로 나아가 열심히 싸워 줄 것을 선전, 선동하였다면’ 당연히 인촌 선생이 교장으로 있는 보전의 학생들에게 먼저 그러한 선전, 선동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전의 학생들 중에는 인촌이 그러한 선전, 선동을 하였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이들은 일치하여 정반대로 인촌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조만식 선생 명의의 글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김성수는 1943년 11월 매일신보가 주최한 학도출진좌담회(學徒出陣座談會)에서 자신의 학병지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개진하였고, 그 내용이 두 번째 연재물인 ‘필승(必勝)의 결전장(決戰場)으로! 학도출진(學徒出陣)을 말하는 좌담회(座談會)’란 특집란 ‘지장(支障) 많은 종래의 관성(慣性)’이란 제하로 발표되었다. ‘학도출진좌담회’의 ‘지장 많은 종래의 관성’이라는 글이 김성수의 글이라면 ‘전쟁에 나가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취지로 게재된 매일신보 글도 조만식이 쓴 것이냐는 주장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만식의 글은 좌담회의 글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좌담회의 글을 희석시켜려고 하고 있다. 원고는 조만식이 아닌 학도출진좌담회에 참석한 10여명의 참석자와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학도출진좌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람 중에 유독 김성수의 글만 부정하며, 좌담회에 참석지도 않고 친일 글도 김성수에 비해 극소량에 불과한 조만식을 끌어들이고 있고, 김성수의 글을 부정하기 위하여 강덕상의 매스컴 보도의 일반론을 대입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김성수의 글은 조만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이다. 먼저 김성수가 징병제도 실시 감사 축하대회에 참석한 이래 많은 전쟁 선전선동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의 대표적인 김성수의 글만 몇 가지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 ①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는 글
- ② ‘징병제 실시와 조선 청년’이라는 글
- ③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는 글
- ④ ‘충용무쌍한 황병이 되어라’라는 글
- ⑤ ‘빛나는 전통에 살리라’는 글
- ⑥ ‘일각도 주저치 말자’는 글
- ⑦ ‘문무 수련의 진가 발휘에’라는 글 등.

<반론>

피고는 김 보전 교장이 “1943년 11월 매일신보가 주최한 학도출진좌담회(學徒出陣座談會)에서 자신의 학병지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개진하였다”고 했는데 이 역시 총독부 기관지의 보도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전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총독부 기관지가 피고의 이해와 해석처럼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면 정인익, 이원영, 백철, 조용만, 김진섭, 김달수 등 총독부 기관지에 몸담았던 조선인 기자들과 서석연, 김영화, 윤임술 등 학병출신들의 증언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분들이 자신이 본 것만 알고 피고가 아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피고는 또 “조만식의 글은 좌담회의 글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좌담회의 글을 희석시켜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어떤 분의 예를 들어 쟁점을 희석시킬 의도나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총독부 기관지의 문제점,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원고가 찾아 낸 사례들을 있는 그대로 열거했을 뿐입니다.

피고는 이어 “학도출진좌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람 중에 유독 김성수의 글만 부정하며, 좌담회에 참석지도 않고 친일 글도 김성수에 비해 극소량에 불과한 조만식을 끌어들이고 있고, 김성수의 글을 부정하기 위하여 강덕상의 매스컴 보도의 일반론을 대입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원고는 학도출진좌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람 중 ‘김 보전 교장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와 원고 사이의 쟁점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깊이 검토했기 때문에 피고의 표현처럼 ‘유독 김성수의 글만 부정’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김성수의 글을 부정하기 위하여 강덕상의 매스컴 보도의 일반론을 대입시키고 있다”고 기술해놓고 원고가 인용한 강덕상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총독부 기관지의 실상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덕상(姜德相)의 ‘朝鮮人學徒出陣’(岩波書店, 1997년 4월 14일 발행) 187~195쪽.

7. 매스컴의 선동

사설로 본 총독부의 의향

총독부는 이 유효한 회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경성일보는 10월 30일, ‘보도보국에 매진’이라고 칭하는 지면채신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一意報國, 조선통치 翼贊의 진가를 보이는 편집방침의 수립을 결정했다. 덧붙여서 사장인 다카미야 다이헤이(高宮太平)는 총력연맹 선전문화위원이었다. 매일신보도 동일 보조를 취했다. 긴급 결정은 부진한 학병 지원

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순국의 열정에 한 점의 냉각, 촌보의 뒤짐을 결단코 허용하지 않는’ 신문 만들기 선언이었다. 사실 그 날 이후 신문의 학병 관련 기사는 격증했다. ‘촌보의 뒤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과 구분이 어려운 결탁이었다. …(중략)…

슬로건으로 장식되어진 지면

한편으로 매스컴은 기사를 自演自作했다. 11월 5일 경성일보 매일신보는 공동주최로 부민관에서 학생 및 父兄 3천명을 모이게 해 ‘志氣昂揚대회’를 열었다. 경성일보에서는 다카미야 다이헤이(高宮太平), 매일신보에서는 가나가네 히지리(金川聖) 두 사장이 출석했다. 다카미야는 “제군의 일거수일투족은 반도동포의 지도자로서 틀림이 없어야 한다. 제군은 이미 결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최자를 대표해서 인사했다. 내빈인 총력연맹의 오오야 렌세이(大屋鍊成)부장은 “폐하의 군대로서 전열에 대행진하는 제군의 기백은 장하다”라고 말하고 보전 장덕수 교수는 “의무 없이 국가는 없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탐한다면 인간이 아니다. 반도학도의 영광의 기회를 맞아 내지 학도와 같이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자. 이야말로 훌륭한 일본인이다”(경성일보, 43.11.6)라고 발언했다. 이 3자는 학병문제에 있어 매스컴, 총력연맹, 대학, 고전(高專)의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들의 발언 후에 제1장에서 기술했던 지원청병 10인이 다시 머리를 가지런히 맞춰 충성심 넘치는 출진의 변을 토해냈다. 양지(兩紙)는 다음날인 6일에도 부민관 강당에서 총력연맹의 나미타(波田) 총장 출석 하에 惠化 普專 明倫 延專 등 민족계 高專의 교장 및 친일 父兄을 모아 ‘학도출진을 말하는 좌담회’를 주최했다. 교장 등은 번갈아가며 “반도학도는 두뇌적으로 체력적으로 그 기백에 있어 내지인 학생과 조금의 손색도 없다”(경성일보, 43.11.6)는 등의 발언을 반복했으나 특별히 민족계의 학교만을 택한 이 좌담회는 지면에서도 강조되었다. 양지가 날조한 ‘애국열’은 그 후 매스컴의 기사 작성의 큰 테두리가 되어 지방지에도 확산됐다. 게다가 한글지 매일신보는 2회에 걸쳐 각각 2천명 이상의 대군중을 모이게 해 독자적으로 ‘괘기대회’를 연출, 自作기사를 썼다. 11월 10일 부민관 대강당에서 이응준대좌, 김석원중좌 등의 ‘군인선배의 학도 격려회’(43.11.11)를 열고 또 17일에도 동 강당에서 박춘금, 신흥우, 이종린 등의 ‘학도격려대연설회’(11.19)를 열었다. 일본군부의 계단을 뛰어올라가 입신출세한 이응준이나 김석원을 이상화하여 보이는 한편, 일본 대의사 제1호가 됐던 박춘금의 설교의 무대를 설정하는 것으로 식민지 권력의 존재를 교묘히 은폐, 학병문제를 민족내부의 문제로 왜소화하는 지면제작을 의도한 것이었다. 이러한 매스컴에 객관적 보도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이러한 학병 기사는 11월 3일 부터 연일 시국용어를 다시 짜 맞춰 새로 만든 슬로건을 특호활자 8단 10단 뺨기로 난조난재(亂造亂載)해 그 행간에 학병 관련 기사를 온통 박아 넣어 권력의 의지를 민중을 향해 보다 증폭해서 유포했다. 학병 지원의 조그만 기사도 이 슬로건으로 장식되면 ‘부르심이다, 힘내라 학도’의 큰 제목으로 변했다. 학생들은 연일 돌출되는 특호활자에 깜짝 놀라 시대의 흐름을 착각하고, 체관(諦觀),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슬로건으로 장식된 지면을 메운 기사의 대부분은 마치 군의 기관지처럼 불명 황군의 선전이라고 생각되는 황당무계한 학도의 진충(盡忠) 애국 미담, 군국의 아버지의 격려사, 총후의 어머니의 유구한 사랑이었다. 미담의 하나하나가 총독부가 그린 학병상(像)이었으나 그 모두에 기자의 독자적인 취재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강요’는 ‘자진’으로, ‘번민’은 ‘용약’으로 바꿔치기해 예정된 줄거리에 따른 보도였다. 거기에는 시키는 대로 따르고 진상은 알리지 말라는 철칙이 있었다. 기사 그대로라면 충성심 넘치는 조선에 학병문제 따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었으나 그것을 뻔뻔스러운 단어로 장식해 내는 것에 기사 날조

의 자기모순이 있었다.”

피고는 “김성수의 글을 부정하기 위하여 강덕상의 매스컴 보도의 일반론을 대입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강덕상의 위 기술이 어떻게 ‘매스컴 보도의 일반론’입니까?

강덕상의 위 기술을 ‘매스컴 보도의 일반론’이라고 하는 근거나 이유를 피고는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피고는 김 보전 교장의 경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이다’고 했습니다.

강덕상의 글 중 “惠化 普專 明倫 延專 등 민족계 高專의 교장 및 친일 父兄을 모아 ‘학도출진을 말하는 좌담회’를 주최했다. 교장 등은 번갈아가며 “반도학도는 두뇌적으로 체력적으로 그 기백에 있어 내지인 학생과 조금의 손색도 없다”(경성일보, 43.11.6)는 등의 발언을 반복했으나 특별히 민족계의 학교만을 택한 이 좌담회는 지면에서도 강조되었다.”

“양지가 날조한 ‘애국열’은 그 후 매스컴의 기사 작성의 큰 테두리가 되어 지방지에도 확산됐다.”

“이러한 매스컴에 객관적 보도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슬로건으로 장식된 지면을 메운 기사의 대부분은 마치 군의 기관지처럼 불멸 황군의 선전이라고 생각되는 황당무계한 학도의 진충(盡忠) 애국 미담, 군국의 아버지의 격려사, 총후의 어머니의 유구한 사랑이었다. 미담의 하나하나가 총독부가 그린 학병상(像)이었으나 그 모두에 기자의 독자적인 취재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강요’는 ‘자진’으로, ‘번민’은 ‘용약’으로 바꿔치기해 예정된 줄거리에 따른 보도였다. 거기에는 시키는 대로 따르고 진상은 알리지 말라는 철칙이 있었다. 기사 그대로라면 충성심 넘치는 조선에 학병문제 따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었으나 그것을 뻔뻔스러운 단어로 장식해 내는 것에 기사 날조의 자기모순이 있었다”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보전 교장 명의의 ‘왜곡, 과장, 날조된 허위의 기사’가 다른 사람보다 몇 차례 더 나왔다고 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이다’는 피고의 주장은 ‘비논리적이고 작위적이며, 악의적’입니다.

피고는 김 보전 교장 명의의 ‘왜곡, 과장, 날조된 허위의 기사’가 조만식, 여운형, 안재홍 선생 등등 조선인 유력자 명의의 ‘왜곡, 과장, 날조된 허위의 기사’보다 어떤 부분이 더 ‘노골적’인지 비교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 보전 교장 명의의 ‘왜곡, 과장, 날조된 허위의 기사’가 다른 사람들 보다 몇 차례 더 게재된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병 대상자가 학교에 있고 민족 사학을 자부하던 보전의 지원율이 타 학교보다 낮았기 때문에 민족 사학의 김 보전 교장이 마치 학병 지원을 적

극 독려하고, 출정군인 가족 지원에 재력가요, 명망 있는 조선인 유력자의 한 사람인 김 보 전 교장이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총독부와 총독부 기관지가 그의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피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며 든 아래의 예 중

- ①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는 글
- ② ‘징병제 실시와 조선 청년’이라는 글
- ③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는 글
- ④ ‘충용무쌍한 황병이 되어라’라는 글
- ⑤ ‘빛나는 전통에 살리라’는 글
- ⑥ ‘일각도 주저치 말자’는 글
- ⑦ ‘문무 수련의 진가 발휘에’라는 글 등.

② ‘징병제 실시와 조선 청년’이라는 글이라는 것은 ① ‘문약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는 글 중 일부를 ‘춘추’라는 월간지가 매일신보에 난 것을 임의로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될 수 없고

- ④ ‘충용무쌍한 황병이 되어라’라는 글
- ⑤ ‘빛나는 전통에 살리라’는 글
- ⑥ ‘일각도 주저치 말자’는 글
- ⑦ ‘문무 수련의 진가 발휘에’라는 글 등은 ‘글’이 아니고 ‘담(談)’이고

그 내용은 정인익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 이원영 당시 매일신보 정치부장, 백철, 조용만, 김진섭 당시 매일신보 기자, 김달수 당시 경성일보 기자, 체형 사실을 밝혀놓은 서석연, 김영화, 윤임술 등 학병 출신들의 증언에 비취 왜곡, 과장, 날조된 것입니다.

자. ‘빛나는 전통에 살리라’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크로스 체킹’이란 문헌적 배경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객관적이지 못한 단독 진술로서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출전과 내용이 명확하다. 즉 김성수의 명의로 전국지인 매일신보 1943. 11. 9.자 1면에 ‘빛나는 전통을 살리라’라는 제하의 기사로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 김성수의 얼굴사진이 게재되었고 글쓴이의 직함과 성격이 “보전 교장 김성수씨 격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 글은 ‘특별지원병의 특전(特典)’을 허용 받은 조선 청년에게 ‘광영(光榮)의 병역(兵役)에 나아가기로 되었던 것’을 축원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징병에 대한 선동문이 분명하다. 이러한 선전선동문은 일련의 연

속적인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순히 1회에 그친 글이 아니다. 설령 부민관 ‘장학회’ 행사장에서 김성수가 이 글을 총독부가 시키는 대로 읽은 글이었다고 하여도 조선 청년에게 특별지원을 선전선동한 책임은 결코 전가되지 않는다. 그 글은 김성수가 쓴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전국지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의 제자의 말대로 전쟁터로 몰아내는 ‘장학회’란 반민족인 행사장에서 그 자신이 자신의 글을 직접 낭독하였다면 더욱 더 그렇다.

<반론>

피고는 “설령 부민관 ‘장학회’ 행사장에서 김성수가 이 글을 총독부가 시키는 대로 읽은 글이었다고 하여도 조선 청년에게 특별지원을 선전선동한 책임은 결코 전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피고 준비서면 작성자가 당시 보전 교장이었다면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인촌이 뭐라고 말하나 전부 귀를 기울였다. 인촌은 와세다 대학을 나왔지만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았다. 인촌이 나오더니 턱 주머니에서 뭘 꺼냈다. ‘오늘 아침에 총독부에서 이걸 가져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읽으라고 하길래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은 조금 피피 거렸다. ‘뭐, 보전 교장쯤 되는 사람이 말이 되느냐’하면서. 조금 치치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통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이게 친일인가.” (당시 보전 학생 김진웅의 증언, 2004년 12월 3일)

피고는 원고가 여러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인촌 김성수 선생은 직접 글을 쓴 일이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은 김성수가 쓴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차. ‘일각도 주저치 말자’에 대하여

(1) 김성수의 친일을 부정하는 보전 학생들의 증언에 대하여

□ 피고의 반박

이 글은 앞에서 말한 ‘자. 빛나는 전통에 살리라는 글’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구체적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김성수가 학부형들에게 자제들을 일본 군대의 ‘군문(軍門)으로 달리도록 협력하자’라는 식의 인사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원고가 그동안 증언이라고 예를 든 사례는 대부분 ‘그럴 리가 없다’는 식이며, 마찬가지로 원고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부정해 왔다. 원고는 이 글도 역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하고 있는 등 김성수의 행위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모든 문헌적 근거에 대하여 매우 주관적인 추측으로 부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군문(軍門)으로 달리도록 협력’에 대한 부분만 김성수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1943. 11. 9. 김성수가 임시육군특별지원병의 지원 마감을 앞두고 자신의 교장실에서 학부형에게 말하였던 학병지원에 대한 인사말을 전문으로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광영의 임시특별지원병에 반도 학도들도 채용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 학교에서는 여기에 응하려고 지금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학부형들에게는 전부 전보로써 그 뜻을 전달하였으며, 경성에 계시는 여러 학부형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시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난을 당하여 한 사람인들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제들은 모름지기 군문(軍門)으로 달리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피고는 총독부 기관지가 사실을 기록해 놓은 신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독부 기관지에 난 것은 모두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증명을 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총독부 기관지의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일제의 총견 노릇을 한 총독부의 기관지를 높이 평가하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김 보전 교장이 “우리는 이러한 국난을 당하여 한 사람인들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제들은 모름지기 군문(軍門)으로 달리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식의 말을 제자들에게 평소 했다는 증언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2) 김상훈의 ‘김성수여 복죄하라’는 검증이 부족한 자료일 뿐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반민규명위는 2009. 10. 23.자 김성수측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면서 “김상훈이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은 직접적인 자료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에는 김상훈이 글이 행위결정의 근거로 들어가지 않고 친일행위에 대한 참고설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김상훈의 글이 자료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이라고 한 것은 당시 이를 지지할 관련 자료가 없던 상황에서 나온 말이며, 무엇보다 해방 후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의 참고자료로 삼는다는 반민규명위의 조사방침 때문이기도 하였다. 단순한 기억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경계하고자 1차 사료를 중시하는 점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해방 후 나온 김상훈의 ‘김성수여 복죄하라!’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밝힌다. 이제 김상훈의 글은 관련 방증자

료가 확보됨에 따라 이를 원고의 말대로 다른 수많은 증언과 함께 그의 글을 다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글은 김상훈이 해방 2년 후에 쓴 생환 학병의 수기로 ‘김성수여 복죄하라!’는 제목으로 1947. 7. 5~6.자 문화일보에 게재되어 두 번에 걸쳐 연재되었다.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니 우리 학병(學兵)이면 누구나가 불같이 김성수(金性洙)를 미워하는 연유를 조선인민(朝鮮人民)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 이놈 일□(一□)의 번영(繁榮)을 위해서 우리를 필사(必死)의 땅으로 내몰아 보내고 왜제(倭帝)에게 대□지력(大□之力)을 다해서 기름진 고깃덩어리를 얻어 먹다가 8·15가 닥쳐와 일본(日本)놈들이 망(亡)하니까 다시 털끝만한 반성도 자기(自己) 가책(苛責)도 없이 (중략) 너희들의 학병(學兵) 강동(強動)이 노골화해 갈 때 나와 내가 아는 몇 동무는 마부(馬夫)나 상인(商人)처럼 너절한 옷을 입고 심산유곡(深山幽谷)으로 경찰과 헌병과 은사(恩師)의 눈들을 피해 다녔었다. 며칠을 세검정(洗劍亭) 부근에서 굶주리다가 하도 답답해서 돌아와 보니 70에 가까운 늙은 할머니가 종로서(鐘路署)에 끌려가서 몹시 매를 맞고 수족을 쓰지 못하고 누웠더구나. 나의 친우(親友) 중에 정(丁)이라는 사나이는 미쳐서 거리에 외치고 다녔다. 화신(和信) 4층 □에서 떨어져 죽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실성한 어머니가 기차(汽車) 레일을 베고 누워 있었다. (중략) 1943년 8월 5일 발표 ‘상무기풍조장’이란 논문, 14일에 발표된 ‘안전준비라 할 뿐’이라는 선동, 11월 6일의 ‘대의에 죽으라’는 글, 8일의 ‘필승의 결전장으로’, 9일의 ‘빛나는 전통’, 12월 7일의 ‘예비훈련을 마치고’, 12월 10일 ‘은사의 염원’, 17일의 ‘절대협력’, 1944년 1월 21일 ‘징병이 닥쳐온다’ 등 매거(枚擧)키 어려운 김성수(金性洙)의 명문(名文)이 매일신보(每日申報)를 통해서 기관총(機關銃)처럼 연발한데 우리들은 울 수도 없는 억울한 가슴에는 쇠뿔처럼 날카로운 것이 박혔었다. 싱가포르(新嘉坡 - 작성자)가 함락했을 때 너희들이 무어라고 □□했는지 아느냐? 나는 (중략) 마침내 어느 해변으로 징용을 갔었지마는 처음 지원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광수와 함께 온 것은 김성수(金性洙)였다. 선배라는 이름으로 ‘한번 죽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던 그 □귀(□鬼) 같은 징그러운 인상, (중략) 그렇게 똑같이 반역□□□□(叛逆□□□□). 아 조선청년의 필망(必亡)을 애원하는 것이냐……친일파들아! 이 몸서리치는 추억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느냐. 잔인한 인민 탄압의 흥계를 버리고 새 나라에 정직하게 복죄(伏罪)할 날은 언제냐. 우리들을 학병으로 모두 몰아 보내면서 너희들은 자치운동을 또 하겠다고 떠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본국(日本國) 대의사(代議士)가 되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윤치호 같이 - 재판소 배심관이 되고 김성수, 장덕수 등이 어마어마하게 임전보국단 감사로 국민동원총진회 감사로 총력연맹 이사로 고귀 해지지 않았느냐!

이 글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학병들이 김성수를 미워하는 이유가 해방 후에도 ‘털끝만한 반성’도 없다는 점이고, 둘째 학병강제동원이 노골화될 때 경찰과 헌병뿐만 아니라 은사(恩師)의 눈들을 피해 다녔다는 점이고, 셋째 학병지원이 한창일 때 언론에 발표된 김성수의 글이 기관총 같았다는 점이고, 넷째 선배라는 이름으로 ‘한번 죽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다는 점이고, 다섯째 임전보국단 감사로 국민동원총진회 감사로 총력연맹 이사로 고귀해졌다는 점이다. 이를 풀이해보면 첫째 김성수는 해방 후 사망할 때까지도 학병지원 등 친일행위에 대하여 ‘털끝만한 반성’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이고, 둘째 김성수는 교장으로서는 은사(恩師)의 도리를 망각하고 학병지원에 나선 점은 사실이며, 셋째 언론에 발표된 김성수의 학병 지원에 대한 선전선동문이 연이어 게재되었다는 점은 사실이고, 넷째 교육자

의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제군아, 의무에 죽으라’고 말한 점은 사실이고, 다섯째 임전보국단 감사 및 국민동원총진회 감사로 총력연맹 이사를 지냈다는 점은 사실이다. 이 가운데 셋째로 기술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43년 8월 5일 발표한 ‘상무기풍조장’이란 논문, 14일에 발표한 ‘만전준비라 할 뿐’이라는 선동, 11월 6일의 ‘대의에 죽으라’는 글, 8일의 ‘필승의 결전장으로’, 9일의 ‘빛나는 전통’, 12월 7일의 ‘예비훈련을 마치고’, 12월 10일 ‘은사의 영원’, 17일의 ‘절대협력’, 1944년 1월 21일 ‘징병이 닥쳐온다’ 등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제 말 학병지원이 전국적으로 휘몰아칠 때 경남 밀양 군청에서 국민운동총력계 촉탁과 경성일보 특파원 보조를 지냈던 손점용의 회고록을 살펴보았다.

손점용(‘학도 지원병과 조선 지도자들’,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 문지사, 2003)

징병제도로 나이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을 끌어내던 일제는 이번에는 대학교,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젊은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를 꾸며냈다.

총독부는 먼저 경성 공설운동장에 3만 명의 학도와 조선인 시민들을 모아 ‘대학 전문학도 임전경의대회’를 벌이더니 이번에도 신문, 방송 선전에 일본 당국자를 젖혀두고 조선인 지도자들을 표면에 내세웠다. 어용신문인 경성일보, 매일신보는 연이어 그들의 설교를 대서특필했다.

‘학도여! 성전에 나서서 보람있게 죽자.’ - 박상준

‘임전무퇴 공론무용’ - 최남선

‘환하게 열린 정로(征路)’ - 오극선

‘나도 가겠습니다. 특별지원병이 되는 아들을 대신해서’ - 김팔봉

‘학도에게 고향’ - 안재홍

‘총출진(總出陣)하라’ - 윤치호

‘대영단을 내려라’ - 장덕수

‘나서라! 지상명령이다’ - 주요한

‘병역은 곧 힘이다’ - 유진오

‘입영의 아침’ - 박종화

‘아! 12월 8일’ - 이병기

당시 조선인들로는 일급 지성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오던 쟁쟁한 명사들이 이런 제목으로 일제에 아첨하며 학도지원병에 나서도록 선동하면서 일제 당국자는 끝내 이렇게 몇 마디씩 덧붙였다.

‘가느냐 뒤지느냐 빨리 결정하라. 학생들의 총궐기를 촉구함-조선총독부 학무국장’

‘독자라도 지원해야 할 때. 귀성자는 곧 학교로 돌아가라-조선군사령부 보도부장’

그런데 이 증언은 손점용이 당시 기억에 의존하여 회고한 것임에 따라 여기에 나열된 제목과 이름들이 일부 틀린 부분이 있고, 김성수와 최남선 등의 명의로 발표된 많은 글들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증언으로 내세우는 ‘장택상류’의 회고담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증언력을 담보할 진술이 최소한의 일관성이 없고 서로 충돌되고 모순된다면 반드시 객관적 1차 사료를 통하여 ‘크로스체킹’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증언이라는 내용은 그 신뢰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손점용의 회고는 객관적 1차 사료로 회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였으나 그에 비해 장택상류의 회고는 객관적 1차 사료로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손점용의 회고 가운데, 박상준의 ‘학도여! 성전에 나서서 보람 있게 죽자’란 글은 원문을 확인한 결과 ‘반도의 자랑, 학병은 간다’를 오기한 것이며, 또 오극선의 ‘환하게 열린 정로(征路)’란 글은 제목이 아니라 이름인 ‘오극선’을 오기한 것이며, 이밖에 장덕수의 ‘대영단을 내려라’란 글은 ‘대용단을 내려라’란 글을 오기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당시 신문 기사의 제목과 거의 맞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그는 경성일보 특파원 보조원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은 사실일 개연성을 훨씬 높게 하여 준다.

그러므로 세월이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이 어려웠지만 손점용의 기억은 비교적 정확하였다. 단지 기억력의 한계로 당시 매일신보에 거명된 사람들의 이름으로 박상준을 비롯해 최남선, 오극선, 김팔봉, 안재홍, 윤치호, 장덕수, 주요한, 유진오, 박종화, 이병기 등 11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피고가 손점용의 기억을 비교하여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학병지원 선동선전이 극심했던 1943년 11월부터 1944년 1월 사이에 매일신보에 발표된 조선인 지도층 인사들의 글, 시, 인터뷰 등 각종 학병지원 선동선전문을 추출해 보았다.

단지 여기에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학부형과 학생의 글은 제외하였으며, 또한 창씨개명으로 본명이 확인되지 않은 글도 제외하였으나 본명이 확인된 나머지 모든 글들은 신문에 게재된 날짜순으로 취합하였다. 이 결과 김성수의 학병 선전선동문이 매월 1회씩 세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표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이를 게재 순으로 분석한 것이다.

윤치호(4회), 김성수(3회), 이광수(3회), 장덕수(3회), 최남선(3회), 김동환(2회), 김팔봉(2회), 김활란(2회), 주요한(2회), 그밖에 구자옥, 김동인, 김두현, 김사연, 김석원, 김소운, 김연수, 김용제, 모운숙, 박상준, 박종화, 박춘금 부인, 박춘금, 신흥우, 안재홍, 양주삼, 오극선, 유억경, 유진오, 윤일선, 이병규, 이병기, 이종린, 이진호, 임학수, 장혁주, 장철수, 정광조, 정구충, 정용신, 조만식, 조병상, 최린, 한상룡, 현상윤이 1회씩 발표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43. 11~1944.1. 조선인 지식인의 각종 학병지원 선전선동 시문>

- 1943. 11. 4. 보람있게 죽자, 임전무퇴 공론무용 (최남선)
- 1943. 11. 4. 판단하라, 우리의 영예 (조병상)
- 1943. 11. 5. 나도 가겠습니다 (김팔봉)

1943. 11. 5. 조선의 학도여 (이광수)
1943. 11. 5. 환하게 열린 정로, 주저말고 곧 돌진하라 (오금선)
1943. 11. 6. 권군. 취천명(就天命) (김동환)
1943. 11. 6. 내아들 전도를 축복 (윤치호)
1943. 11. 6.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 크다 (김성수)
1943. 11. 7. 외아들도 전장에 (박춘금 부인)
1943. 11. 8. 서로 만나 격려 (김연수)
1943. 11. 8. 학도총진군 (임학수)
1943. 11. 8. 호반전통을 창조, 적국의 학생병을 치자 (양주삼)
1943. 11. 9. 나는 울었다 (김용제)
1943. 11. 9. 사(士)는 국지원기- 열사, 구원의 생을 찾자 (현상윤)
1943. 11. 11. 화랑도 정신의 재현 (장혁주 장철수)
1943. 11. 12. 결전장은 학도를 부른다 (김석원)
1943. 11. 12. 내 어머니 한 말씀에 (모윤숙)
1943. 11. 14. 거듭 내린 광영자격 (이진호)
1943. 11. 15. 학도에게 고한다 (안재홍)
1943. 11. 16. 정충 바칠 굳은 각오 (정용신)
1943. 11. 16. 학도에게 고한다 (조만식)
1943. 11. 18. 총출진하라 (윤치호)
1943. 11. 19. 나서라, 지상명령이다 (주요한)
1943. 11. 19. 병역은 곧 힘이다 (윤진오)
1943. 11. 19. 아세아 위해서 나서라 (한상룡)
1943. 11. 19. 전통의 용맹 보여라 (신흥우)
1943. 11. 19. 활로를 바로 가자 (박춘금)
1943. 11. 20. 나가자, 청년학도야 (최남선)
1943. 11. 20.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종린)
1943. 11. 21. 부조(父祖)의 오명을 일소 (김소운)
1943. 11. 21. 장하다, 그대들 용단 (윤치호)
1943. 11. 21. 학도 열의에 감사 (장덕수)
1943. 11. 22. 순국의 기상 가지라 (김두헌)
1943. 11. 24. 필승신념으로 감투 (이병규)
1943. 11. 25. 전투력 기초는 체력 (정구충)
1943. 12. 7. 내 일이란 책임으로 (윤치호)
1943. 12. 7. 절대로 협력 (김성수)
1943. 12. 8. 12월 8일 (이병기)
1943. 12. 8. 양양하다 반도의 앞날 (최린)
1943. 12. 25. 남자에게 지지 않게 (김활란)
1944. 1. 1. 새해 (이광수)
1944. 1. 1. 아세아의 해방 (최남선)
1944. 1. 4. 감격과 가중한 책임 (김활란)
1944. 1. 6. 적국 항복 받고지고 (김동환)

- 1944. 1. 6. 적의 야망을 파찰 (유억겸)
- 1944. 1. 7. 필승은 신의 명령 (구자옥)
- 1944. 1. 8. 승전의 비결은 인고 (정광조)
- 1944. 1. 11. 의학도의 정신지추 (윤일선)
- 1944. 1. 17. 빛나는 정도를 축복 (장덕수)
- 1944. 1. 17. 입영기(旗) (이광수)
- 1944. 1. 18. 실력을 발휘하라 (김사연)
- 1944. 1. 19. 신전의 맹서 (김팔봉)
- 1944. 1. 19. 천인침(天人針) (주요한)
- 1944. 1. 20. 반도의 자랑. 학병은 간다 (박상준)
- 1944. 1. 20. 일장기 물결 (김동인)
- 1944. 1. 21. 입영의 아침 (박종화)
- 1944. 1. 22. 징병이 닥쳐온다 (김성수)

그렇다면 학병이었던 손종영이 일제 말의 광란상을 회고하며 “학병령의 지지만 하더라도 마 찬가지”라고 말한 “조선인의 존경을 받던 저명한 지도자”는 누구를 가르키는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는 학병지원을 선전선동한 이들을 가리켜 “나는 아직도 그 일은 용서치 못할 일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금 과장하면 그들은 우리 동창과 동포를 고문하고 죽인 조선형사 나 순경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학병 김상훈이 “너희들의 학 병(學兵) 강동(強動)이 노골화해갈 때 나와 내가 아는 몇 동무는 마부(馬夫)나 상인(商人)처 럼 너절한 옷을 입고 심산유곡(深山幽谷)으로 경찰과 헌병과 은사(恩師)의 눈들을 피해 다녔 었다”라고 수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을 가르쳤던 은사를 포함한 이들 ‘존경하는’ 지식 인들이 일제의 총견인 형사나 헌병과 동일하게 본다는 심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총력계 촉탁 손점용이나 학병 동원자 손종영과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의 회고가 아닌 김상훈과 같은 동시대의 학병이 쓴 또 다른 수기를 하나 더 제시하고자 한다. 학병 허 호가 해방 직후인 1946년 1월에 발표한 수기를 볼 때 이들 지식인들이 일련에 발표한 학병 지원 선전선동물들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허오(‘귀환보고 - 지원 당시의 고민’, ‘학병’ 제1집, 조선학병동맹, 1946. 1)

더구나 신문보도에는 소위 조선의 명사란 명사는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있어서 는 못 쓴다’, ‘대의(大義)에 살려는 학도의 갈 길은 이것밖에 없다’, ‘무슨 주저가 있으며, 무슨 준순(浚巡)하여 한(恨)을 천재(千載)에 남기지 말아라’, ‘아무래도 가야 할 길 씩씩하 게’, ‘가고야 말 길은 사나이다웁게’, ‘반도영고(半島榮枯)는 학도들 어깨에’ 등등 윤치호 씨 도 흰 □발(□髮)을 휘날리고 나서며 한상룡 씨 역시 주먹을 흔들며 고향쳤다.(중략) 그래도 이 사람 만큼은, 이 선생만큼은 양심적 행동을 취하리라 ‘참’없는 의(義)를 논하지 않으리라 고 믿었던 선생들까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참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진리는 그릇 된 것이 아닌가’고 재삼 고개를 기웃거리도 보았다.

이와 같이 허호의 ‘귀환보고’ 등 관련 방증자료와 함께 검증한 결과 김상훈이 ‘생환 학병수

기'로 쓴 '김성수여 복죄하라!'라는 글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그의 생환 학병 수기는 학병 지원에 대한 선전선동에 반복적으로 가담한 김성수의 행위를 충분히 입증한다고 할 것이며, 당시 학병이었던 김상훈의 수기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사실무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반론>

피고는 '자료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이라고 하던 김상훈의 글을 '이제 관련 방증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다시 제시한다고 했는데 피고의 준비서면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방증자료가 확보됐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김상훈의 글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며 '이를 풀이해보면 첫째도 사실이고, 둘째도 사실이며, 셋째도 사실이고, 넷째도 사실이고, 다섯째도 사실이다'고 하나 이는 피고의 잘못된 인식과 해석을 피고 스스로 전제해놓고 스스로 '사실이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한 논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피고는 김상훈의 글을 '생환 학병 수기'라고 하나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김상훈의 글은 생환 학병의 수기가 아니라 남로당의 선동선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징용 갔다 온 김상훈이 '생환 수기'를 쓸려면 먼저 조선인 학생들을 전쟁터로 끌고 간 일제를 욕해야 하고 총독부 기관지에 난 글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면 연희전문 출신이 연희전문 교장이나 부교장, 교수를 탓해야지 보성전문 교장을 왜 욕합니까?

남로당의 반대 노선을 걸던 한민당을 헐뜯기 위해 한민당의 중심 인사 중 한 사람인 인촌 김성수 선생을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피고는 김상훈의 글을 장황하게 인용했지만 김상훈의 글에는 "이광수와 함께 학병훈련소에 찾아와 선배라는 이름으로, '한 번 죽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였다" "일본국의 대의사가 되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등 사실 아닌, 거짓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그 문투 대부분이 욕설과 수준 이하의 저속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피고는 '손점용의 글'에 대해

'일부 틀린 부분이 있고'

'많은 글들이 빠져 있다'

'오기한 것이며'

'오기한 것이며'

'오기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당시 신문 기사의 제목과 거의 맞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그는 경성일보 특파원 보조원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은 사실일 개연성을 훨씬 높게 하여 준다’
 ‘그러므로 세월이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이 어려웠지만 손점용의 기억은 비교적 정확하였다’
 ‘손점용의 회고는 객관적 1차 사료로 회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였으나 그에 비해 장택상 류의 회고는 객관적 1차 사료로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손점용의 글 중 ‘틀린 부분’ ‘빠진 부분’ ‘오기, 오기, 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유추해석까지 하며 장택상의 증언에 대해서는 엔도 정무총감, 다나카 서기관장, 야기 보안과장의 핵심 내용이 같은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대목이 잘못됐다고 해서 ‘장택상 류의 증언’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 ‘문무 수련의 진가 발휘’에 대하여

□ 피고의 반박

피고는 갑 제21호증에 나온 ‘문무수련(文武修練)의 진가발휘(眞價發揮)에’라는 글이 복사상태가 매우 안 좋아 전혀 판독할 수 없는 관계로 이 글이 과연 김성수의 글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판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총독의 훈시내용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 대목을 비교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이제 원고는 새롭게 갑 제59호증으로 1943. 10. 26.자 석간 경성일보 1면에 ‘총독 훈시’ 내용과 갑 제60호증으로 1943. 10. 26.자 조간 경성일보 3면에 ‘김 보전 교장 담’을 제시하고, ‘문무 수련의 진가 발휘에’라는 글이 같은 날 발행된 총독의 훈시와 내용이 흡사하다고 도용설을 주장하였다. 아마 김성수의 글이 경성일보 측에 의해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날조’한 글임을 증명하여 보이고자 한 의도로 생각된다. 소기(小磯) 총독이 훈시를 한 것은 1943년 10월 25일 ‘대학전문학교장 사무타합회’ 석상이었고, 이 자리에서 있었던 훈시내용은 이튿날 경성일보 10월 26일자에 게재되었다. 이 훈시의 주된 내용은 10월 12일에 각의를 통과한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에 대한 지도요강과 그 의의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아울러 1943년 11월 시행될 ‘육군특별지원병채용시행규칙’에 대한 훈시였다. 당시 보성전문학교 교장이던 김성수가 그동안의 학병지원에 대한 자신의 선전선동물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전력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육군특별지원병채용시행규칙’을 설명하는 총독의 훈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성수의 ‘문무수련의 진가발휘’의 내용이 총독의 훈시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의도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총독의 훈시에 철저히 순응하여 쓴 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 김성수는 총독의 훈시에 부응하여 “황국신민의 연성에 매진할 것이나 일본적 교학체제에 기초하여 문무일도(文武一途), 군교일치(軍校一致)의 대 정신”을 강조하고, “내일의 졸업보다 오늘의 동원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결국 학병지원에 대한 의도를 밝혔던 것이다. 그동안 원고는 총독의 훈시와 비슷하다 하여 도용설을 주장

하듯 김성수의 글이 ‘황국신민의 서사’와 비슷하다 하여 조작설을 제기한 바 있었고,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는 글도 다른 잡지에 재인용된 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총독의 훈시나, 황국신민의 서사 등을 재인용한 것이 아니라 총독부 정책을 순응하여 이를 적극하고 핵심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도용설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

피고는 “김성수의 ‘문무수련의 진가발휘에’의 내용이 총독의 훈시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의도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총독의 훈시에 철저히 순응하여 쓴 글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총독 훈시	인촌 명의 담(談)
국가 수요(須要)의 소중한 재목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忠良有爲의 皇國 臣民의 鍊成에 노력하는	국가 주요(樞要)의 재목으로 부족함이 없는 忠良有爲의 皇國 臣民의 鍊成에 매진할 것이나
일본적 세계관의 확립을 목표로 일찍부터 夙夜熱願시책과 함께 文武一途, 軍校一致의 대 정신을 강조하였던 바	일본적 교학체제에 기초하여 文武一途, 軍校一致의 대 정신을 가지고
청년 학도 가운데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공부하여 높은 교양과 깊은 수련의 공을 쌓아온 자에게 오늘처럼 국가의 기대가 큰 때는 없었고	청년학도 특히 대학 그리고 전문학교에서 공부하여 높은 교양과 깊은 수련의 공을 쌓고 있는 자에게 오늘처럼 기대가 큰 가을은 없고
내일의 졸업보다 오늘의 동원을 기대하는 것이다.	내일의 졸업보다 오늘의 동원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야 이들 청년학도는 국가의 아주 큰 촉망 속에 文武修練의 진가를 충분히 발휘하여 훗날 역사가로 하여금 이 순국의 赤誠을 특필대서하도록 千載一遇의 기회를 만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청년학도는 국가의 절대적인 촉망 속에 文武修練의 진가를 충분히 발휘하여 청사에 불멸의 공헌을 할 수 있는 千載一遇의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일본인 학도와 함께 폐하의 수족이 되어 황군의 일원으로서 殉國의 길을 闊步할 수 있게 되었다.	내지인과 어깨를 나란히 천황의 수족 되어 황군의 일원으로서 殉國之誠의 길을 闊步하도록 고무 격려하는 각오다.

위와 같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만든 기사를 ‘총독의 훈시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의도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총독의 훈시에 철저히 순응하여 쓴 글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 장신 논문의 문제

□ 피고의 주장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연구원은 “2008년 11월 25일 독립기념관 연구동 2층 교육관에서 발표한 ‘김성수의 친일행위 변호론의 재검토’ 논문과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장신 연구원이 개진한 의견은 원고의 세 가지로 주장에 대한 것으로 요약된다.

가. 원고 측은 위 발표장에서 귀하가 “김성수의 친일행위가 내심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 흔들리기도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위 논문 발표장에서 오간 말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장신의 논문이 학계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며, 그와 정반대되는 이완범의 ‘김성수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논문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은 ‘김성수의 친일행위 변호론의 재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한 당사자인 장신 연구원이 쓴 다음과 같은 ‘의견서’로 대신하겠다.

첫째, 원고 측은 위 발표장에서 귀하가 “김성수의 친일행위가 내심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 흔들리기도 한다”라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힙니다. 그러나 의견 조희 내용이 전후 맥락을 잃고 있어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 ‘가’와 ‘나’의 경우 오래 전에 구두로 이루어진 토론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날의 토론에서는 논문의 결정적 하자를 지적하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까닭에 당일 오간 토론의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가’와 관련해서 토론자로부터 “김성수는 친일파입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은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밝힌 김성수의 다양한 친일 행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전제된 상태에서의 질문입니다. 만약 토론자가 김성수의 친일 행적을 부인한다면, 개별 사실과 각종 ‘변호론’에 대한 재반박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론에서 본인의 논지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인된 신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판독하기 힘든 매일신보를 꼼꼼히 살펴본 것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받았습시다.

본인은 이 질문을 “김성수는 신념에 차서 친일행위를 했습니까”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

해 본인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을 것입니다.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아마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역사학의 접근 방식으로는 김성수의 내면이 어떠한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용된 사료들은 김성수의 행적을 계기적으로 사고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 생각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심이 들어 흔들리기도 한다”는 구절을 보면 마치 본인의 논문을 회의하는 듯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있었다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본인도 궁금합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직접 전문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째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김성수의 친일행위가 내심이였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 흔들리기도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인이 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200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김성수가 친일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논문에서 인용하고 비판한 유진오의 ‘양호기’와 ‘인촌 김성수전’을 깊이 신뢰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2005년 2, 3월 무렵 각 대학 설립자와 출신 교수들의 친일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각 학교 설립자들의 친일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사학과 교수들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대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 때 본인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연구소에 상주할 때인데 마침 MBC PD수첩의 작가로부터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본인은 친일문제의 현황과 왜 각 대학 교수들이 인터뷰에 응하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퇴짜를 받은 뒤 장시간 통화를 한 까닭인지 PD수첩에서는 본인과 인터뷰를하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은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양을 했습니다만 PD수첩은 일단 만날 것을 원했습니다. 결국 약속 당일 본인을 찾아왔지만 김성수의 친일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당시까지만 해도 본인은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확신하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김성수의 친일문제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5년 7월에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근무하면서입니다. 위원회가 조사활동을 개시하면서 김성수의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으로서 볼 때 김성수의 친일 행위는 분명하지만 학자로서 볼 때 김성수가 왜 1937년 이후 친일행적을 보이는가를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의문이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행적과 변호론 비판’이라는 논문을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위원회의 해외조사과, 조사3과, 학술연구팀 등에서 일했습니다.

본인은 위의 의문을 2005년 2월 ‘역사비평’에 발표한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 동아일보의 선택’에서 단서를 구했습니다. 위 논문에서는 1937년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지면이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다를 바 없어졌다는 것, 곧 친일화 되었다는 학계의 통설을 전제로 하여, 그 전환의 계기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밝혔습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일장기 말소사건 이후 동아일보는 “폐간이나 존속이냐”의 기로에서 언론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동아일보의 존속을 선택하고 1937년 6월 정간에서 해제됩니다.

이어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터지는데 조선총독부는 전쟁을 계기로 동아일보 등 각 언론이 ‘시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대한 압박은 실소유주인 김성수에게 향했습니다. 복간했지만 언제 다시 정간, 나아가 폐간에 이를지 모를 상황이었으므로 김성수는 부득이 이에 응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두 번 총독부의 각종 행사와 관변단체의 간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수의 내심이 어떠했는지 관계없이 이러한 행동은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조선인(주로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에게 여러 가지 의구심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조선총독부가 노린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성수가 진심으로 참여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민족주의자’로 명망 높은 그가 총독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절정이 194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진 학병 지원 격려 활동이었습니다. 다수의 보성전문학교 출신 졸업생들이 김성수의 학병 지원 활동을 부정합니다. 대개 김성수의 그런 활동을 본 적이 없고, 또 자신들이 아는 김성수의 모습에서 그런 활동을 상상할 수 없다는 회고와 증언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회고 중에서 원고 청탁과 인터뷰 과정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도 김성수의 사람됨과 그릇의 크기는 인정하지만 현존하는 자료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뺏속까지 친일파였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행위로 인해 신문을 본 많은 지원병 대상자들이 좌절을 겪고 울분 속에서 학병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면과 관계없이 그의 사회적 지위와 이전의 활동으로 인한 ‘민족주의자’의 이미지 때문에 사회에 미친 영향은 더욱 컸으며, 이 점에서 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였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다음은 원고가 “위 논문 발표장에서 오간 말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장신의 논문이 학계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며, 그와 정반대되는 이완범의 ‘김성수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논문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장신 연구원이 반박하는 의견입니다.

둘째, “위 논문 발표장에서 오간 말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장신의 논문이 학계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며, 그와 정반대되는 이완범의 ‘김성수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논문도 있다”라고 하였다는 주장.

둘째 주장인 위와 관련된 주장은 학자로서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발표장에서 오간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논문의 오류를 지적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 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학의 경우 대개 학자 개인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집필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구상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일단 완성된 초고는 학회나 연구소의 연구발표회를 거치거나 학회지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대개의 학술지는 전자를 심사의 1단계로 간주합니다.

본인도 초고를 완성한 뒤 어느 학술지에 발표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투고를 해야만, 혹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서술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은 없는지를 이야기해 줄 것인가가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이 고민의 결과로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의 학술잡지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독립운동사연구소는 독립운동과 한국근대사에 관한 최대의 자료를 소장하고 전문 연구원들이 재직 중이므로 그 대책에 서있는 친일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가졌습니다. 2008년 11월 25일의 발표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이상과 같습니다.

발표 이후 몇 가지 소소한 부분을 수정하고, 제목과 목차를 확정하여 정식으로 투고한 뒤 심사를 받았습니다. 투고할 당시의 논문 제목은 “명망과 책임 - 일제말기 김성수의 행적을 중심으로”였습니다. 이 글에 대해 당시 심사평은 논문 체제와 구성, 서술 내용 등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논제와 체제가 불일치 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곧 “명망과 책임”이라는 제목이 역사 논문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으로서 심사평은 논제에 집중되었습니다. 달리 말해 논지의 전개나 본문 내용의 사실 여부, 해석상의 오류 등은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목을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과 변호론 비판”으로 고치고, “명망과 책임”은 맺음말의 부제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며”라는 표현은 학자인 본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를 결정한 익명의 심사위원들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그리고 이 잡지를 발간하는 독립기념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입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이완범의 ‘김성수와 대한민국정부수립’이란 논문도 본인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한국민족운동사연구’에 실렸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학자들이 상호 비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지만 학술지(나 그에 준하는)가 아닌 법정 제출을 위해 다른 학자의 논문을 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글은 1차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기존에 논쟁거리이던 ‘대필설’, ‘조작설’ 등을 자료에 근거해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반면에 이완범의 논문은 주로 2차 자료에 근거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본질적 차이는 ‘1차 자료’의 검증 여부에 있습니다.

<반론>

피고가 피고의 의견으로 대신한다고 한 ‘장신의 의견서’ 중 ‘의견 조회 내용이 전후 맥락을 잃고 있어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둘째 주장인 위와 관련된 주장은 학자로서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대목이 있어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장신 연구원 관련 부분 모두를 아래와 같이 그대로 옮깁니다.

- (원고 준비서면 41~42쪽) 피고가 최근의 연구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장신의 ‘일제 말기 김성수의 친일행적과 변호론 비판’이라는 논문 한편입니다. 위 논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과연 위 논문 하나를 근거로 매일신보 등 기사의 상당수가 조작되거나 대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언들을 전부 무시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위 논문 자체를 보더라도 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추측이나 추론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필자 스스로도 인촌 김성수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동적, 수동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 (원고 준비서면 46쪽) 원고는 ‘아전인수격인 추측’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답변서에서 수시로 인용하고 있는 장신의 논문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과 변호론 비판’(을 제6호증)조차도 “황국신민의 서사를 다룬 부분은 김성수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297쪽) “황국신민의 서사 이하는 김성수의 문장이 아니라 매일신보에서 덧붙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98쪽)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 준비서면 61쪽) 피고가 답변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장신의 논문(을 제6호증)조차도 ‘위 글 중 황국신민서사를 다룬 부분은 김성수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위 논문 297면), ‘황국신민서사 이하는 김성수의 문장이 아니라 매일신보에서 덧붙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위 논문 298면)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위 글이 매일신보에 의하여 조작된 글이라고 볼 수 없고 인촌 선생의 대표적인 친일 논설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원고 준비서면 77~79쪽)

타, 장신의 ‘김성수의 친일행위 변호론의 재검토’ 논문과 관련하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정당성과 합당함을 명백히 하는 근거로서 ‘김성수의 친일행위 변호론’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제시한다며 위 논문을 상당 부분에 걸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참고자료로 첨부한 장신의 논문 한 편이 ‘이 사건 결정의 정당성과 합당함을 명백히 해주는 학계의 연구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변호론’과 입장을 달리하는 한 편의 논문일 뿐입니다.

원고가 기술한 위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피고와 장신 연구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피고 준비서면 1~29쪽)

1. 특별법의 역사적 정당성에 관해

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민족정기의원모임이 광복회의 의견을 무시했는지의 여부.

□ 피고의 주장

원고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김희선 의원과 ‘민족정기의원모임’이 김성수를 친일행위자로 포함하여 발표한 일을 두고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사례를 든 두 가지 사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광복회의 명단에는 김성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족정기의원모임’이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발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당시 광복회가 확정된 친일행위자의 명단에는 인촌 김성수 선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동아일보 2002.3.1.자 기사에 따르면 윤경빈 당시 광복회장은 “광복회와는 친일의 경중을 따져 692명의 친일행위자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청원했으나 의원모임에서 16명을 추가해 발표했다”며 “그것은 광복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선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밝히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원고가 근거로 든 동아일보 해당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시의 언론 보도였다.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경빈 당시 광복회장도 위와 같은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적극 부인하며 동아일보의 보도를 ‘왜곡 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다수의 신문기사다. (이하 생략)

<반론>

광복회의 ‘반민족행위자’ 심사위원 12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윤병석 인하대 명예교수
- 심사 위원 : 신용하 서울대 교수, 이만열 숙명여대 교수, 한시준 단국대 교수, 김유길 광복회 부회장, 이희일 광복회 이사, 유흥수 광복회 대의원, 박유철 전 독립기념관장, 이원용 전 반민특위조사관, 주섭일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 김상웅 독립기념관장, 김희선 민주당 국회의원
- 2001년 4월부터 10개월 간 5차례 심의 회의

위 위원 12명 중 김상웅 당시 독립기념관장, 김희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을 제외한 10명은 인촌 선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피고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고는 “현재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는 김주현 관장이 당시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있을 때 정부 대표로 나와 ‘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대해 발언한 내용인데, 이 역시 원고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원고는 김주현이 “정부가 직접 역사의 평가 작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점을 들어 역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당시 행자부 차관인 김주현도 부정적인 입장인 듯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주현은 2008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될 때 ‘특별법’에 반대한 인물이라는 비난여론이 일자 이렇게 당시 발언을 해명하였다. 즉 그는 당시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개인 입장은 아니며, 자신도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반민족적 친일행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김주현 당시 행정자치부 차관, 현재의 독립기념관장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때 하도 마음고생을 해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다시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 당시 총리실에서 누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고는 국가이니 만큼 당시 총리실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김 차관에게 “정부가 직접 역사의 평가 작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하도록 지시했는지를 밝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주기 바랍니다.

나. ‘친일파 군상’의 기록에 대하여

□ 피고의 주장

원고는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적극적, 주도적, 전국적’이란 용어 대신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정처럼 매일신보나 경성일보 등과 같은 총독부의 기관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언론 보도만으로 친일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방 직후 친일 청산에 대한 민족적인 여망을 담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 - 작성자)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에 대해서 형법적인 신체형과 재산형을 가하는 구체적 민, 형사적인 사법적 처벌을 의미하였지만, 반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 - 작성자)의 ‘특별법’은 민, 형사 처벌이 아닌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역사적 조사에 그치는 것이었다. 때문에 ‘반민법’에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라 한 것은 그 당시에는 매일신보나 경성일보 같은 신문 보도 말고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생존하여 증언을 하고 있고, 해방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관계로 증거 자료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라는 구체적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시정부 측의 민족정경문화연구소’라고 표현하고 거기에서 펴낸 ‘친일파 군상’의 친일파 분류 내용을 근거로 ‘단순히 일제 식민통치에 수동적으로 협력했거나 순응’했던 사람들은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수동적으로 협력, 순응한’ 김성수가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성수의 행위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특별법’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도적, 전국적’이란 개념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반민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와 반민규명위의 답변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으므로 이 관계는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시 후술하도록 하겠다.** 원고는 ‘임시정부 측의 민족정경문화연구소’라고 표현하는 등 임시정부의 본뜻이 민족정경문화연구소가 펴낸 ‘친일파 군상’에 있는 것처럼 강조하며, 김성수가 ‘반민법’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는 물론 ‘특별법’의 ‘적극적, 주도적, 전국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은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하는 체 한 자’라고 분류하고 있다. 즉 원고에 따르면 ‘친일파 군상’의 친일파 분류 내용 가운데 김성수는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하는 체 한 자’라는 분류(A)에 포함되어 “경찰의 박해를 면하고 신변의 안전 또는 지위, 사업 등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끌려 다닌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연 임시정부의 친일파 처단에 대한 본뜻이 원고의 생각과 같을까요? 그러나 원고가 제사한 기록보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소개하겠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했던 **김승학이 1948년 김구의 지시로 작성한** ‘친일파 263인’ 명단에는 김성수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원고는 임시정부와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민족정경문화연구소를 임시정부 측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김승학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항일독립운동가이며, 그 명단은 1948년 김구의 지시에 의해 직접 친필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의 주체가 분명하게 파악되고 있다. 김승학의 친일파 명단에는 교육, 종교계로 포함되었는데 김성수가 동아일보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친일파 군상’의 친일파 분류 내용 가운데 김성수는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하는 체 한 자’라는 분류(A)에 있다고 하지만 ‘친일파 군상’에는 김성수를 친일파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정계, 관계, 실업계로 분류한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각인의 경우와 행적이 부동(不同)한 만큼 그 한계의 규정이 용이치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야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이는 엄정하게 진상 규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01년 ‘월간중앙’ 8월호에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승학이 김구 지시로 작성한** “친일파 263명 ‘반민특위’ 살생부(殺生簿) 초안”이라는 제하로 그 명단이 최초로 공개, 보도되었다. 그동안 임시정부의 친일파 처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없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밝혀주는 김승학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주장한 ‘친일파 군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훨씬 구체화시키게 되었다. ‘월간중앙’에 따르면 “김승학의 육필 명단은 베일에 가려졌던 삼성문화사의 “친일파 군상”이 김승학의 육필 명단을 기초로 편찬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책은 ‘예상등장인물’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이는 책이 반민특위를 겨냥해 출간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상등장인물’이라는 부제는 여기에 실려 있는 인물들이 반민특위에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적극적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 이런 의사는 당시 김승학이 임정과 한국독립당 내에서 점하고 있던 위치로 볼 때 단순한 개인 의사가 아니라 임정 측 입장임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친일파에 대한 임시정부의 견해 등을 잘 알 수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월간중앙’ 내용 생략)

<반론>

피고는 ‘나. 친일파에 대한 임시정부의 규정 및 김성수는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하는 체 한 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달고 “원고에 따르면 ‘친일파 군상’의 친일파 분류 내용 가운데 김성수는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하는 체 한자’라는 분류(A)에 포함되어 “경찰의 박해를 면하고 신변의 안전 또는 지위, 사업 등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끌려 다닌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단 제목처럼 “김성수는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하는 체 한 자’라는 주장”을 한 바도 없고 “경찰의 박해를 면하고 신변의 안전 또는 지위, 사업 등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끌려 다닌 자에 해당한다”고 말 한 바도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6~9쪽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친일행위에 대한 심화된 접근의 필요성

피고는 헌법 제정 당시 그 부칙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실을 언급 하면서, 이러한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만든 ‘반민족행위처벌법’과 최근에 제정된 반민규명법이 헌법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의 청산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어떤 행위를 ‘친일행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만든 1948년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반민규명법에서 사용하는 ‘적극적, 주도적, 전국적’이란 용어 대신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친일행위가 단순히 일제 식민통치에 수동적으로 협력하거나 순응하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결정처럼 ‘매일신보’나 ‘경성일보’등과 같은 총독부의 기관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론보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심화된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시정부 측의 민족정경문화연구소가 펴낸 ‘친일파 군상’(경성 삼성문화사, 1948년, 14~16쪽, 갑 제28호증)에서는 ‘친일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장 등을 한 자를 모두 친일자, 전쟁 협력자라면 조선 사람 중 그가 성인이고 국내에 거주자인 한 거의가 그 범죄자라고 하는 이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듣는 바이다. 한계의 도를 무시한 말임에 그대로 쫓을 바는 아니로되 우리의 친일자, 전쟁 협력자 규정에 한 참고로 삼아 좋을 말이라 생각하리만치 우리의 이 범죄자는 극히 적은 수이며, 많으면 또 극히 많다는 수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한 입으로 친일파 또는 전쟁협력자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1) 자진적으로 나서서 성심으로 활동한 자.
- 2)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하는 체 한 자.

이를 또다시 내분하면 전자 즉 1)은,

(갑) 친일과 전쟁협력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 또는 지위의 보전, 신변의 안전 등을 위하여 행한 자. 예 윤치호, 김동원 등.

(을) 친일을 하여 내선일체를 기하고, 전쟁에 협력하여 일본이 승전할 시는(그들은 일본의 패전을 예상치 못하고) 조선 민족의 복리를 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 예 박희도, 신태약 등.

(병) 친일과 전쟁협력으로써 관헌의 환심을 사서 관력을 빌려 세도를 부리며, 이권 등을 획득하여 사익을 도하며, 또는 대의사, 고관 등 영달을 목적인 자. 예 이성환, 이각종, 문명기 등.

(정) 고관 전직자, 친일파의 거두 등은 已張之舞니 이러한 기회에 일층 적극 진흥보국하면 자기 개인은 물론이요, 민족적으로도 장래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자. 예 한상룡, 한규복, 박춘금, 고원훈, 이성근, 김시권, 조병상, 이승우 등.

(무) 광범적 친일 및 열성 협력자. 예 이광수, 김동환, 문명기 등.

후자 즉 (2)는,

(A) 경찰의 박해를 면하고 신변의 안전 또는 지위, 사업 등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끌려 다닌 자. 예 김성수, 유억경 등.

(B) 원래 미영에는 호의를 가졌으나 일본에 호감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혹은 천미 배일사상의 소지자였으나 위협에 공포를 느끼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의 친일적 태도와 망종적 협력을 한 자. 예 장덕수, 주요한, 신흥우, 김활란, 유진오, 정인섭 등.

(C) 누구의 추천인지 총력연맹 기타 친일단체, 전쟁협력단체의 간부 또는 강연회의 연사 등으로 피선 발표되었으나 거부키 곤란하여 그 이름만 걸어두었거나, 또는 부득이 출석은 하였으나 발언도 하지 아니한 자. 예 최익한, 조만식, 최용달 등.

(D) 신문기자(주로 京日) 회견 등에서 시비를 드러내지 않고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술적 담화 발표를 한 것이 지상에는 자기 의사와 다르게 발표되었으나 정정을 촉구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방임한 자. 예 여운형, 안재홍 등.

그렇게 각인의 경우와 행적이 不同한 만큼 그 한계의 규정이 용이치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독자 중 혹은 기계적 속단으로 누구는 본집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고, 어느 때 어떤 담화를 발표하였고, 어떤 강연회의 연사가 되었고, 어떤 친일적, 전쟁 협력적 단체의 간부로 그 이름이 발표되었으니, 그이는 친일파, 전쟁 협력자에 틀림없다는 경솔한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원고가 ‘친일파 군상’의 일부를 인용한 것은 “각인의 경우와 행적이 부동(不同)한 만큼 그 한계의 규정이 용이치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독자 중 혹은 기계적 속단으로 누구는 본집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고, 어느 때 어떤 담화를 발표하였고, 어떤 강연회의 연

사가 되었고, 어떤 친일적, 전쟁 협력적 단체의 간부로 그 이름이 발표되었으니, 그이는 친일파, 전쟁 협력자에 틀림없다는 경솔한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는 선인(先人)들의 식견과 신중함을 참고하여 ‘경솔한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 두기 위한 것임이다.

피고는 또 2001년 ‘월간중앙’ 8월호에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승학이 김구 지시로 작성한 “친일파 263명 ‘반민특위’ 살생부(殺生簿) 초안”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인용하여 마치 김구 선생의 지시로 만들어진 살생부’에 ‘김성수 동아일보 사장’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덕일이 쓴 그 글의 전문(全文) 어디에도 김구 선생의 지시로 김승학이 만든 자료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원고는 김승학이 당시 임정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단순히 개인 의사로 기록한 명단이 아니라 반민특위와 친일파에 대한 임정 측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끈 것이다.”

“김승학의 이 육필 명단이 주목받는 것은 임정 측의 이런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정 측의 이런 필요성이 아니라면 김승학 개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연필로 꼼꼼히 옮겨 적고, 아마도 동지들과 같이 한 것이 분명한 ‘正’표시를 부기했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육필 명단은 그냥 사장되지 않았다. 반민특위 설치 법안이 공포될 무렵인 1948년 9월, 준비했다는 듯이 ‘친일파 군상’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삼성문화사에서 나온 이 책의 발간 경위는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예상등장인물’이라는 부제는 여기에 실려 있는 인물들이 반민특위에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런 의사는 당시 김승학이 임정과 한국독립당 내에서 점하고 있던 위치로 볼 때 단순한 개인 의사가 아니라 임정 측 입장임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임정 측의 입장이 반영된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당시 한독당 김구 주석은 물론 임정계열의 여러 핵심 인사와 면밀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친일파 군상’의 초고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이 육필자료는 김구와 임정계열의 친일파 청산 의지와 방법론, 청산 대상을 기록한 거의 유일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정은 비록 단독정부와 단독국회는 거부했으나 임정이나 한독당 명의 대신 ‘민족정경문화연구소’ 명의로 반민특위와 친일파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반민특위가 임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미뤄 임정 측은 친일파 숙청이 무조건적, 보복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술이 저자 이덕일의 글입니다.

피고는 “그 명단은 1948년 김구의 지시에 의해 직접 친필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의 주체가 분명하게 파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덕일의 글 속에는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김구의 지시에 의해 직접 친필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의 주체가 분명하게 파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구 지시로’라는 제목은 이덕일의 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임의로 단 것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덕일은 위 글에서 “이 육필 명단은 그냥 사장되지 않았다. 반민특위 설치 법안이 공포될 무렵인 1948년 9월, 준비했다는 듯이 ‘친일파 군상’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친일파 군상’ 31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까요?

김성수(교육가)

모 정당 측에서는 김성수도 전시협력이 많았다 하여 친일파시 한다. 그러나 전시에 모모 단체, 모종 집회 등에 김성수의 명의를 나타난 것은 왜적과 그 주구배들이 김성수 명의를 대부분 도용한 것이라 하며, 김성수 자신이 출석 또는 승낙한 일은 별로 없다고 한다.

그리고 김성수는 조선의 교육사업, 문화사업을 위한 큰 공로자인 동시에 큰 희생자이다. 그는 광대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에 그 이름을 낸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연 월 일	종별 또는 제목	적 요
소 12.9.1	각도 순강 연사 피선	9월 6일부터 59명 망라 제2회 순강 시 김성수는 이상협, 장현식 등과 함께 강원도반으로 피선되었다고 당시의 각 지상에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본인의 승낙 유무와 실제 순강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18.2.26	의용봉공의 秋	당일 '경성일보' 3면 등재 요지 : 軍敎일치의 대 정신으로써 국가 추요의 材에 是할 총량유위의 황국신민의 연성에 매진하여야 될 것이다.
18.11.6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每新 소재)
18.12.7	절대로 협력	每新 소재

다. 에커트 교수의 발언과 외국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 대해

□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시한 동아일보 인터뷰와는 달리 에커트도 김성수가 이른바 '보험용'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자신의 저서에 저술하였다. 에커트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후예'에서 김성수와 자신의 동생 김연수를 포함한 '김씨가(金氏家)'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에커트는 "학병 권유 전에도 김씨는 여러 방면에서 전쟁을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김성수에 대하여 "김씨가, 특히 김성수가 얼마나 열의를 갖고 학병 권유를 비롯한 내선일체의 실행에 참여했는가에 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라고 들었지만, "명백한 이유들이 있기에 그러한 진술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씨의 누구도 진정으로 저항하거나

내선일체 운동과 관계를 끊으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에커트가 “이미 본 것처럼, 실제 증거는 일제 말 내선일체에 대한 두 형제(김성수와 김연수 - 작성자)의 태도가 1938년의 시국대책조사회 내선일체분과회의의 한국인 위원들이 보인 태도와 유사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부언하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에커트는 김성수가 사이토 총독 등 일본의 유력한 정객과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보고, 이러한 자료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하였지만, 편지에 비교적 수사적 표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김성수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식민지기 말에는 여하튼 내선일체를 받아들였으며 일본인 당국자들과의 지속적인 개인적 공적 교류의 기반을 닦고 있었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에커트는 적어도 김성수가 일본이 전쟁에 승리할 경우를 대비해 선택지를 계속 남겨두었던 것 같다고 들고, 김성수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악하게 보험용으로 서 친일을 한 것이라는 보았다.

한편 원고는 과거청산의 사례로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사례는 모두 독재정권 하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학살, 실종 등과 같은 반인권적인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일제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친일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내용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과거사를 정리하는 명분과 취지는 동일하고 볼 수 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 당시의 취지였던 “법적 정의”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법’이 법적 형식을 달리하여 그 내용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듯이 스페인과 남미의 과거사 청산 사례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식민지배 잔재의 청산 사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 청산을 당대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끝낸 국가들이 뒤에 다시 특별 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듯 스페인과 남미의 독재국가에 대한 과거사 청산이 아닌 우리 민족처럼 식민지배나 피점령지배를 당한 민족이 자신의 민족반역자를 처단하고 과거사를 청산 및 극복한 사례를 살펴 보겠다. 먼저 폴란드의 나치독일지배하의 과거청산사례를 비롯하여, 아일랜드의 영국식민지 청산과 친영협력자 처리사례, 덴마크 및 베네룩스3국(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나치협력과 과거청산사례, 나치 점령 하 소련에서의 협력행위에 대한 숙청과 청산 사례, 중국친일협력자 ‘한간(漢奸)’에 대한 숙청과 재판사례, 필리핀 친일협력정권의 라우렐 대통령과 협력자 청산사례,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배 청산사례, 인도의 영국 식민통치 극복과 청산사례, 오스트리아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례, 프랑스식민시기 베트남의 친일 협력 집단 청산사례, 미얀마의 영국 식민시기 극복사례 등 이민족의 점령이나 지배를 받은 해당 민족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극복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사 청산이 세계사적인 의미와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세계사적으로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에는 거의 예외가 없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중국에서는 문학인 주작인(周作人), 교수그룹인 문원모(文元模), 심사량(沈嗣良), 전도손(錢稻孫), 나경산(羅慶山), 부동(溥?), 영화연극계의 이명(李明), 장선곤(張善琨)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친일협력자로서 ‘한간’이라 칭해지며 숙청당하였다. 그리고 2차대전 뒤 프랑스에서도 브라지야크, 쉘린느, 르바테 등 수많은 문학, 문화인들이 친독협력자로서 숙청당하고 또 사형당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은 이 사건과 같은 일제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친일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역사적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과거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같다고 할 것이다.

<반론>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인촌가(家)에 대해 비판적 저술을 낸 바 있는’ 에커트 미 하버드대 교수도 친일파 문제에 대해 “친일 문제는 너무 복잡한 문제다. 친일파라는 정의조차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직책이 아니라 개인이 놓여있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역사는 역사가들의 몫으로 남겨져야 한다. 시간을 갖고 문헌에 의해 객관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가들이다. 역사를 정치화하는 순간 문제의 복잡성이 사라지고 단지 정치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 보다 진지하고 열린 조사가 어려워진다. 단순히 친일이다 아니다 하면 문제의 복잡성이 사라진다”(갑 제29호증 2005. 6. 1.자 동아일보 6면)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피고가 인용한 사례 중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소련, 중국, 필리핀 등의 과거사 청산은 2차 대전 종전 후 대략 5년 내 이루어진 일들로 우리와 같이 60년이 지나 국가기구가 나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2010. 8. 13.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송수행자

서 기 관 김 형 목

행정사무관 박 현 웅

전문계약직나급 김 경 현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귀중

이상은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원고의 입장입니다.

2010. 10.1.

인촌기념회